

Jeonbuk Institute

기본연구

2023-03

2023 전북형 행복지표 구축과 도민행복 실태연구

Designing Jeonbuk Happiness Index 2023 and Analyzing
the Happiness Levels of Jeonbuk Residents

김동영 이종섭 김현수



설립목적

전라북도 및 전북지역 시군의 지역발전과 여성정책 등에 관련된 정책과제에 대하여 체계적인 조사·연구 활동을 통하여 지역단위의 정책개발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지역 발전에 기여

주요기능

- 도정에 관한 중장기 개발계획 및 주요현안에 대한 조사 연구
- 지역경제, 지역발전, 지역여성에 관한 연구 및 정책 대안의 모색
- 정부, 전라북도 및 국내외의 연구기관과 민간단체의 각종 용역 수탁
- 연구 관련도서 및 간행물 출간
- 국내외 연구기관 간 공동연구 및 정보 교류 협력

연구진 소개

김동영

전북대학교 문화인류학 박사
전주시정발전연구소 수석연구원
전북연구원 연구위원

이중섭

부산대학교 사회복지학 박사
전북연구원 연구위원

김현수

우석대학교 아동복지학 박사
전북연구원 전문연구원

Jeonbuk Institute

기본연구

2023-03

2023 전북형 행복지표 구축과 도민행복 실태연구

Designing Jeonbuk Happiness Index 2023 and Analyzing
the Happiness Levels of Jeonbuk Residents

김동영 이중섭 김현수

연구진 및 연구 세부 분담

연구 책임 김동영 | 연구위원 | 연구총괄, 제1장, 2장 5절, 3장, 4장 3절, 5장
공동 연구 이중섭 | 연구위원 | 제4장 1절·4절
김현수 | 전문연구원 | 제2장, 3장 2절, 4장

연구관리 코드 : 22GI10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자의 의견으로서
전북연구원의 공식 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1. 연구 목적 및 방법

1) 연구 배경 및 목적

- 국민총생산(GDP)중심의 성장전략이 가지는 불평등 심화와 성과중심적 삶의 방식이 국민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판단에 따라 전세계적으로 국정운영의 방향이 전환되고 있다.
- 전라북도는 2017년 행복지표조사를 시작으로 2020년 지표개선 및 조사를 통해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진행하였으며 2023년 행복지표 조사를 통해 변화된 환경에 맞는 행복지표 도출과 현황을 파악하고자 한다.
- 2023 전북형 행복지표는 기 발굴된 전북형 행복지표의 현황조사는 물론 도민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수를 분석하여 행복지표가 가지는 시사점을 도출하고 정책적 방향을 설정하고자 한다.

2) 연구 범위 및 방법

- 2023 전북형 행복지표 체계는 2020년 행복지표 체계를 따르되 코로나19와 같이 변화된 환경을 반영할 수 있는 행복지표의 개발을 고려한 행복지표를 제안하고자 한다.
- 주관적 행복감, 경제, 가족관계, 건강, 사회적 관계, 문화여가, 복지, 안전, 주거, 환경, 교육 11대 영역별 전북도민의 행복현황을 조사하고, 도민의식과 통계데이터 분석을 통해 도민 행복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 전북도민 행복지표 회귀분석을 통해 전북도민 행복요인 분석과 행복 취약계층 분석을 통해 전북도민 행복도 증진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 전북도민 행복도 증진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고자 한다.

2. 결론 및 정책제언

■ 행복도 현황

- 전북도민의 현재행복감은 2017년 74.0점, 2020년 70.4점, 2023년 63.0점으로 점차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10년 후 행복감도 2017년 77.9점, 2020년 76.7점, 2023년 69.5점으로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 분야별로 보면 경제, 가족관계, 건강, 주거, 안전, 환경 등의 분야는 대체적으로 행복도가 증진된 반면, 사회적 관계와 문화여가 분야는 행복도가 낮아졌다.
- 회귀분석결과 전북도민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직업($\beta=.172$, $p<.001$), 가족관계($\beta=.111$, $p<.01$), 건강($\beta=.128$, $p<.001$), 스트레스($\beta=.096$, $p<.01$), 노후준비($\beta=.081$, $p<.05$), 내 집 마련의 가능성($\beta=.097$, $p<.05$), 공원 및 녹지공간에 대한 접근성($\beta=.069$, $p<.05$)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 정책제언

- 전라북도의 행복지표가 단순한 지표 값으로서의 수치이상의 의미를 가지기 위해서는 지표에 맞는 부서별 업무를 연계시켜 행복지표 개선을 위한 부서별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해야 한다.
- 현재와 10년 후의 전라북도민의 행복도는 연령별로 보면 30대와 60대 이상, 지역별로 보면 동북권, 소득별로 보면 200만원 미만에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전라북도의 전반적인 행복도의 개선을 위해 행복취약집단과 행복취약집단의 취약지표관리를 집중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 전라북도민의 사회적 관계망이 점차 약화되고 있고 이로 인한 행복감이 낮아지는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고립과 외로움을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고 공적영역에서 정책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차 례

CONTENTS

요 약 i

제1장 연구 개요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3
가. 연구 배경 3
나. 연구목적 3
2. 주요 연구 내용 4
가. 2023 전북형 행복지표 구성 4
나. 행복지표 현황조사 및 행복지표 비교분석 5
다. 전라북도 행복지표 특징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 도출 7

제2장 행복지표 선행연구 검토

1. 행복의 개념 11
2. 해외 행복지표 연구 13
가. UN, 세계행복보고서(World Happiness Report) 13
나. OECD, 더 나은 삶 지수(Better Life Index) 14
다. 부탄, 국민총행복지수(Gross National Happiness: GNH) 14
3. 국내 행복지표 연구 16
가. 전국 행복지표 연구 16
나. 시도 행복지표 연구 20
다. 시군구 행복지표 연구 26

4. 행복 결정요인 연구 35

 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35

 나. 서울시 37

5. 소결 39

제3장 2023 전북형 행복지표 구성체계

1. 전북형 행복지표 방향 43

2. 국내외 행복지표 구성체계 44

3. 사회적 이슈와 지역적 특수성 50

4. 2023 전북형 행복지표 체계 52

제4장 2023 전라북도 행복현황

1. 전북도민 행복조사 57

 가. 조사개요 57

 나. 전북도민의 주관적 행복도 61

2. 통계지표 85

 가. 경제 86

 나. 가족관계 97

 다. 건강 99

차 례

CONTENTS

라. 사회적 관계	105
마. 문화여가	113
바. 복지	122
사. 안전	128
아. 주거	135
자. 환경	138
차. 교육	146
3. 2017년-2023년 분야별 행복감 변화	154
가. 정서	154
나. 경제	154
다. 가족관계	155
라. 건강	155
마. 사회적 관계	156
바. 문화여가	157
사. 복지	157
아. 안전	158
자. 주거	158
차. 환경	159
4. 전북 도민의 행복 영향 요인	160

제5장

결론

1. 정책적 시사점	167
가. 지표별 이행계획 수립	167
나. 행복취약집단 집중관리	168
다. 외로움에 대한 공적대응	170

2. 제언	173
참고문헌	174
영문요약 (Summary)	176
부록	181

표 차례

LIST OF TABLES

[표 1-1] 전라북도 행복지표 2017년-2020년 비교	4
[표 1-2] 연평균 가구소득 행복도민 의식과 통계데이터 비교분석	6
[표 1-3] 2017-2020 주관적 행복감 비교	6
[표 1-4] 경제적 만족분야 전국-전북 비교분석	7
[표 2-1] 행복지표관련 선행연구	12
[표 2-2] UN '세계행복보고서' 행복지표 체계	13
[표 2-3] Better Life Index 지표 구성	14
[표 2-4] Gross national happiness 지표 구성	15
[표 2-5] 국민 삶의 질 지표 체계	17
[표 2-6] 지역공동체 행복지표 구성	19
[표 2-7] 충청북도 삶의 질 지표 체계	21
[표 2-8] 경상북도 삶의 질 영역 및 지표 체계	22
[표 2-9] 제주특별자치도 행복지수 지표 체계	24
[표 2-10] 경기도 삶의 질 지표 내용	25
[표 2-11] 서울형 행복지표 체계	26
[표 2-12] 지역웰빙(행복) 지표 구성	28
[표 2-13] 세종특별자치시 행복지표 체계	30
[표 2-14] 행복전환지표 체계	32
[표 2-15] 태백시 지역특성지표 구성	34
[표 2-16] 한국인의 행복과 삶의 질 변수	36
[표 2-17] 서울시민 행복요인 변수	37
[표 3-1] 국내외 행복지표 영역비교	44
[표 3-2] 타 시도 행복지표 체계 종합정리	45
[표 3-3] 전북 가구원수별 규모 및 비중	51
[표 3-4] 2023 전북형 행복지표 체계	52
[표 4-1] 조사 설계	57

[표 4-2] 설문조사 항목 및 내용	58
[표 4-3] 도민 특성별 현재 와 10년 후 행복감	62
[표 4-4] 도민 특성별 나의 가치와 미래에 대한 희망	64
[표 4-5] 도민 특성별 행복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종합)	66
[표 4-6] 도민 특성별 행복에서 가장 만족하는 분야(종합)	67
[표 4-7] 도민 특성별 행복 만족도 분석	69
[표 4-8] 도민 특성별 행복 세부지표 만족도 분석	71
[표 4-9] 도민 특성별 경제 세부지표 만족도 분석	74
[표 4-10] 도민 특성별 가족관계 세부지표 만족도 분석	75
[표 4-11] 도민 특성별 건강 세부지표 만족도 분석	76
[표 4-12] 도민 특성별 사회적 관계 세부지표 만족도 분석	77
[표 4-13] 도민 특성별 문화여가 세부지표 만족도 분석	78
[표 4-14] 도민 특성별 복지서비스 세부지표 만족도 분석	79
[표 4-15] 도민 특성별 지역사회안전 세부지표 만족도 분석	80
[표 4-16] 도민 특성별 주거여건 세부지표 만족도 분석	81
[표 4-17] 도민 특성별 환경 세부지표 만족도 분석	82
[표 4-18] 도민 특성별 교육 세부지표 만족도 분석	83
[표 4-19] 도민 특성별 생활시간	84
[표 4-20] 기존 통계지표 행복조사 내용	85
[표 4-21] 고용의 안정성	87
[표 4-22] 소득만족도	88
[표 4-23] 직업만족도	89
[표 4-24] 좋은 일자리 인식(직업선택요인)	90
[표 4-25] 주관적 소득 수준	91
[표 4-26] 계층의식	92
[표 4-27] 계층이동성	93
[표 4-28] 연 가구소득 및 가계부채	94
[표 4-29] 소비자 물가지수	95
[표 4-30] 고용률 및 실업률	96

표 차례

LIST OF TABLES

[표 4-31] 가족관계 만족도	97
[표 4-32] 여가활동 동반자의 가족 비중도	98
[표 4-33] 건강에 대한 주관적 평가(건강만족도)	100
[표 4-34] 스트레스 정도	101
[표 4-35] 건강관리 실천	102
[표 4-36] 의료시설 수(인구 천명당 의료기관 병상 수)	103
[표 4-37] 의료서비스 이용률(종합병원)	104
[표 4-38] 사회적 관계망 정도	106
[표 4-39] 사회에 대한 신뢰도(이웃에 대한 신뢰도)	107
[표 4-40] 직장동료관계 만족도	108
[표 4-41] 친구관계 만족도	109
[표 4-42] 학교생활 만족도	110
[표 4-43] 자원봉사 참여율	111
[표 4-44] 부모부양에 대한 태도	112
[표 4-45] 문화여가활동 만족도	114
[표 4-46] 일과 여가생활의 균형	115
[표 4-47] 문화여가시설만족도(공공문화여가시설 이용여부)	116
[표 4-48] 예술행사 만족도(인구 십만 명당 문화예술활동 현황)	117
[표 4-49] 여가활동 빈도	118
[표 4-50] 문화예술 및 스포츠 관람 횟수	119
[표 4-51] 문화여가시설 개수(인구 십만명당 문화기반 시설 수)	120
[표 4-52] 문화여가비용(한 달 평균)	121
[표 4-53] 사회보장만족도(사회보장 여건변화)	122
[표 4-54] 노후준비정도	123
[표 4-55] 자살충동정도(인구 십만명당 자살률)	124
[표 4-56] 복지서비스 만족도(인구 십만명당 사회복지시설 수)	125
[표 4-57] 보육시설 만족도(유아 천명당 보육시설 수)	126
[표 4-58] 노인복지서비스 만족도(노인 천명당 노인복지시설 수)	127
[표 4-59] 안전시설에 대한 만족도	129

[표 4-60] 범죄로부터의 안전 만족도	130
[표 4-61] 자연재해로부터의 안전 만족도	131
[표 4-62] 범죄로부터의 안전성	132
[표 4-63] 지역안전등급현황	133
[표 4-64] 범죄발생건수 및 검거율	134
[표 4-65] 주거환경의 전반적 만족도	135
[표 4-66] 주택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	136
[표 4-67] 대중교통접근성(대중교통접근시간)	137
[표 4-68] 공원 및 녹지공간 접근에 대한 만족도	139
[표 4-69] 환경에 대한 만족도	140
[표 4-70] 현재 체감환경(좋음만 표시)	141
[표 4-71] 환경문제 인식	142
[표 4-72] 생활폐기물에 대한 청결도(생활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143
[표 4-73] 미세먼지(PM10) 등급별 일수	144
[표 4-74] 초미세먼지(PM2.5) 등급별 일수	145
[표 4-75] 학생의 학교생활만족도	147
[표 4-76] 학생의 교우관계만족도	148
[표 4-77] 학생의 교사와의 관계 만족도	149
[표 4-78] 교육기회의 충족도(만13세이상 인구)	150
[표 4-79] 자녀 교육비 부담 인식	151
[표 4-80] 학급당 학생 수	152
[표 4-81] 대학교 수	153
[표 4-82] 전북도민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전체)	160
[표 4-83] 전북도민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연령별)	161
[표 4-84] 전북도민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권역별)	162
[표 4-85] 전북 도민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종합)	163
[표 5-1] 행복지표 이행계획(예시)	168
[표 5-2] 도민 특성별 행복 만족도 분석	169

그림 차례

LIST OF FIGURES

[그림 2-1] 국민 삶의 질 프레임워크	16
[그림 3-1] 2023 전북형 행복지표 방향설정	43
[그림 3-2] 가족관련 키워드	50
[그림 3-3] 사회관계 키워드	50
[그림 3-4] 2020 행복지표 영역별 중요도	50
[그림 4-1] 응답자 성별 분포	58
[그림 4-2] 응답자 거주지역 분포	58
[그림 4-3] 응답자 연령별 분포	59
[그림 4-4] 응답자의 혼인상태 및 학력분포	59
[그림 4-5] 응답자의 직업 분포	60
[그림 4-6] 응답자의 개인 월 소득 분포	60
[그림 4-7] 응답자의 가구 월 소득 분포	60
[그림 4-8] 전북도민의 행복정도	61
[그림 4-9] 지역별 현재 행복감과 10년 후 행복감	63
[그림 4-10] 도민의 자기에 대한 평가	63
[그림 4-11] 행복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종합)	65
[그림 4-12] 현재 가장 만족하는 분야(전체)	65
[그림 4-13] 도민 행복지표 영역별 주관적 만족감	68
[그림 4-14] 도민 행복지표 영역별 주관적 만족감	70
[그림 4-15] 고용의 안정성 연도별 변화 추이	87
[그림 4-16] 소득만족도 연도별 변화 추이	88
[그림 4-17] 직업만족도 연도별 변화 추이	89
[그림 4-18] 전북의 좋은 일자리 인식 변화	90
[그림 4-19] 전북의 주관적 소득수준 변화 추이	91
[그림 4-20] 전북의 계층의식 변화 추이	92
[그림 4-21] 전북의 계층이동성 변화 추이	93
[그림 4-22] 가구소득 및 가계부채 규모 변화 추이	94

[그림 4-23] 소비자 물가지수 변화 추이	95
[그림 4-24] 고용률 및 실업률 변화 추이	96
[그림 4-25] 가족과 함께하는 여행의 추이변화	98
[그림 4-26] 건강만족도의 추이변화	100
[그림 4-27] 스트레스를 느끼지 않음의 추이변화	101
[그림 4-28] 건강관리 실천 추이변화	102
[그림 4-29] 의료시설 수 추이변화	103
[그림 4-30] 의료서비스 이용률 추이변화	104
[그림 4-31] 전북의 사회적 관계망 변화도	106
[그림 4-32] 직장 동료관계 만족도 변화 추이	108
[그림 4-33] 친구관계 만족도 변화	109
[그림 4-34] 학교생활 만족도 변화	110
[그림 4-35] 자원봉사 참여율 변화	111
[그림 4-36] 문화여가활동 만족도 변화	114
[그림 4-37] 일과 여가생활의 균형 변화	115
[그림 4-38] 문화여가시설 만족도 변화	116
[그림 4-39] 문화예술관람 변화	119
[그림 4-40] 문화여가시설 개수 변화	120
[그림 4-41] 자살충동정도 변화	124
[그림 4-42] 사회복지시설 수 변화	125
[그림 4-43] 보육시설 수 변화	126
[그림 4-44] 노인복지시설 수 변화	127
[그림 4-45] 안전시설 만족도 변화	129
[그림 4-46] 범죄로부터의 안전 만족도 변화	130
[그림 4-47] 자연재해 안전 만족도 변화	131
[그림 4-48] 범죄 검거율 변화	134
[그림 4-49] 미세먼지 좋음 일수 변화	144
[그림 4-50] 초미세먼지 좋음 일수 변화	145
[그림 4-51] 2017년-2023년 주관적 행복감 비교	154

그림 차례

LIST OF FIGURES

[그림 5-1] 전주시 SDGs 기본 및 이행계획(일부)	167
[그림 5-2] 전북의 사회적 관계망 변화도	170
[그림 5-3] 자살충동정도 변화	171



제 1 장

연구 개요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주요 연구 내용



제 1 장 연구 개요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가. 연구 배경

국민총생산(GDP)중심의 성장전략이 가지는 불평등 심화와 성과중심적 삶의 방식이 국민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판단에 따라 전세계적으로 국정운영의 방향이 전환되고 있다. 2006년 OECD의 국가행복지수(National Index of Wellbeing)와 2012년 UN의 세계행복보고서(World Happiness Report)가 발간되면서 전세계적으로 경제성장중심의 국민총생산(GDP)으로 측정하던 국가나 도시발전의 척도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제기가 시작되었다. 성장과 개발중심에서 국민의 삶의 가치를 중시하는 정책적 패러다임의 전환을 위해 전라북도는 전북형 행복지표 개발을 통해 2017년 이후 정기적으로 행복지표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전라북도는 2017년 개발된 행복지표에 따라 국민의 행복도를 조사하고 현황을 분석하여 전라북도의 행복정책을 제안하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2020년에는 변화된 환경과 정책에 따른 기 발굴된 전라북도 행복지표의 개선과 새로운 행복지표의 제시 및 현황조사를 통한 국민의 행복정도와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전라북도는 2017년 행복지표조사를 시작으로 2020년 지표개선 및 조사를 통해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2023년 행복지표 조사를 통해 국민의 변화된 행복지표 현황을 파악하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나. 연구목적

2023 전북형 행복지표는 기 발굴된 전북형 행복지표의 현황조사는 물론 도민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수를 분석하여 행복지표가 가지는 시사점을 도출하고 정책적 방향을 설정하고자 한다.

2. 주요 연구 내용

가. 2023 전북형 행복지표 구성

전북형 행복지표는 2016년 원탁회의와 도민 행복지표 정책수요를 통해 2017년 주관적 행복도, 경제, 근로(교육)환경, 사회적 관계, 사회문화, 건강, 보건복지, 사회안전 8개 분야별로 지표를 개발하였다. 2020년형 행복지표는 기 발굴된 8개 영역별로 도민이 주관적으로 느끼는 행복도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고 그에 상응하는 객관적 지표를 구성하여 비교분석하고 타 시도와 비교하여 전북의 현재 행복도 위치를 분석하였다. 2020년 전라북도 행복지표는 정서, 경제, 사회적 관계, 가족, 문화여가, 건강, 복지, 안전, 환경, 주거 10개 분야로 세분화하여 지표를 재구성하였다. 2023 전북형 행복지표 체계는 2020년 행복지표 체계를 따르되 코로나19와 같이 변화된 환경을 반영할 수 있는 행복지표의 개발을 고려하여 수정하고자 한다.

[표 1-1] 전라북도 행복지표 2017년-2020년 비교

2017년 전라북도 행복지표			2020년 전라북도 행복지표			
분야	세부지표		분야	주관적 지표	객관적 지표	비교지표
주관적 행복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10년 전, 현재, 10년 후 행복감 어려울 때 도움 받을 수 있는 사람 분야별 만족도(나의가치, 성취도, 미래, 도민자긍심, 이웃신뢰, 일할기회, 안전, 생활환경) 		정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관적인 행복감 나의 가치에 대한 평가 나의 미래에 대한 희망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관적 만족감
경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월평균 가구소득 월평균 생활비 가계부채 규모 주관적 소득수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계층의식 계층이동성 소득만족도 	경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용안정성 소득만족도 직업만족도 좋은 일자리 인식 주관적 소득수준 계층의식 계층이동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구소득 및 가계부채 소비자 물가지수 고용률 및 실업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행복위한 소득수준
근로(교육)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용안정성 월평균 근로소득 좋은 일자리 인식 고용률 및 실업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취업의 어려움 직업(학교생활) 만족도 월평균 교육비 				
사회적 관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족관계 만족도 직장관계 만족도 친구관계 만족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민의 정체감 사회적 관계망 정도 자원봉사 참여율 부모부양 태도 	사회적 관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어려울 때 도움제공 지인 전북도민으로서의 자긍심 이웃에 대한 신뢰도 직장동료관계 만족도 친구관계 만족도 학교생활 만족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원봉사 참여율 부모부양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어려울 때 도움제공 지인
			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족관계만족도 가족접촉빈도 가족의 건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족과 함께하는 여가활동 부모와의 교류 정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행복한 가족의 시간

2017년 전라북도 행복지표			2020년 전라북도 행복지표			
분야	세부지표		분야	주관적 지표	객관적 지표	비교지표
사회 문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여가활동 횟수 문화예술/스포츠 관람 횟수 문화여가시설 개수 문화여가비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화여가활동 만족도 문화여가시설 만족도 예술행사 만족도 	문화 여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화여가활동 만족도 일과 여가의 균형 여행 만족도 문화여가시설 만족도 예술행사 만족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여가활동 정도 문화예술 및 스포츠 관람 문화여가시설 수 문화여가비용 	여가활동 정도
건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스트레스 정도 자살충동 정도 건강에 대한 주관적 평가 음주 및 흡연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강관리 실천 의료시설 수 의료서비스 이용률 의료서비스 만족도 	건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강만족도 스트레스정도 일주일 운동시간 의료서비스 만족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음주 및 흡연상태 건강관리실천 의료시설 수 의료서비스 이용률 규칙적 체육활동 	건강관리 위한 체육활동
보건 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육시설 만족도 의료서비스 만족도 복지서비스 만족도 사회보장 만족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노후준비 정도 노인복지서비스 만족도 사회복지시설 수 	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회보장 만족도 노후준비정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살충동정도(자살률) 복지서비스만족도 (십만명당 복지시설 수) 보육시설만족도 (유아 천명당 보육시설 수) 노인복지서비스만족도 (노인 천명당 노인시설 수) 	사회보장 만족도
사회 안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거만족도 현재 체감환경 환경문제 인식 주택시세의 적절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택가격 범죄발생건수 대중교통 접근성 	안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범죄로부터의 안전만족도 재해재난으로부터의 안전성 안전시설에 대한 만족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범죄 재해재난 안전도 지역안전등급 범죄 검거율 	지역안전만족도
			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원/녹지공간 접근만족도 환경에 대한 만족도 현재 체감환경만족도 환경문제인식 불안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생활환경에 대한 청결도 미세먼지 좋음 정도 	행복유한 미세먼지상태
			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내 집 마련의 가능성 주거환경 만족도 주택만족도 이웃과의 소통 정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택가격지수 대중교통접근성 	주거환경만족도

자료 : 김동영 외(2020).

나. 행복지표 현황조사 및 행복지표 비교분석

새롭게 개발된 2023 전북형 행복지표를 토대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전북도민의 행복도를 파악하고자 한다. 주관적 행복감, 경제, 가족관계, 건강, 사회적 관계, 문화여가, 복지, 안전, 주거, 환경, 교육 11대 영역별 전북도민의 행복현황을 조사하고자 한다. 도민 의식과 통계데이터 분석을 통해 도민 행복을 위한 주요 지표별 의식과 현실 상황과의 비교분석을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2020년에 실시한 전북형 행복지표의 연평균 가구소득을 도민의 주관적 지표와 통계데이터 현황을 비교분석 하였고, 그 결과 전북도민은 주관적으로 연평균 가구소득을 5,367만원으로 인식하고 있었고 통계데이터에서는 5,156만원으로 211만원의 차이를 보였다.

[표 1-2] 연평균 가구소득 행복도민인식과 통계데이터 비교분석

구분		연평균 가구소득
지역	시 지역	5,527만원
	군 지역	4,787만원
도민의 주관적 지표 현황		5,367만원
통계데이터 현황		5,156만원
비교		▼ 211만원

자료 : 김동영 외(2020).

2017년, 2020년, 2023년 연도별 전북도민의 지표별 행복현황 비교분석을 통해 도민 행복도의 변화양상을 파악하고자 한다. 2020년에 실시한 전북형 행복지표에서 주관적 행복감을 비교분석한 결과, 10년 전 행복감, 현재 행복감, 10년 후 행복감에 대해 2017년에 비해 2020년에 낮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3] 2017-2020 주관적 행복감 비교

구분	10년 전 행복감	현재 행복감	10년 후 행복감
2017년	75.0	74.0	77.9
2020년	67.6	70.4	76.7
비교	▼ 7.4	▼ 3.6	▼ 1.2

자료 : 김동영 외(2020).

행복지표별 전국평균과 전북현황을 비교분석하여 전라북도의 지표별 행복도를 파악하고 이를 통해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2020년 행복지표에서는 경제적 만족분야의 전북 평균을 전국 평균과 비교하였다. 경제적 만족분야를 주관적 지표와 객관적 지표로 구분하여 살펴보고, 그 결과 주관적 지표에서 전북도민이 전국평균보다 낮게 인식하고 있는 것을 고용의 안정성(고용불안 느낌), 직업만족도, 좋은 일자리인식 일부지표(명예·명성, 수입, 적성·흥미, 발전장래성), 주관적 소득수준 여와, 모자람, 계층의식상, 하, 계층이동성 높음, 낮음 지표로 나타났고, 객관적 지표는 모두 전국평균보다 낮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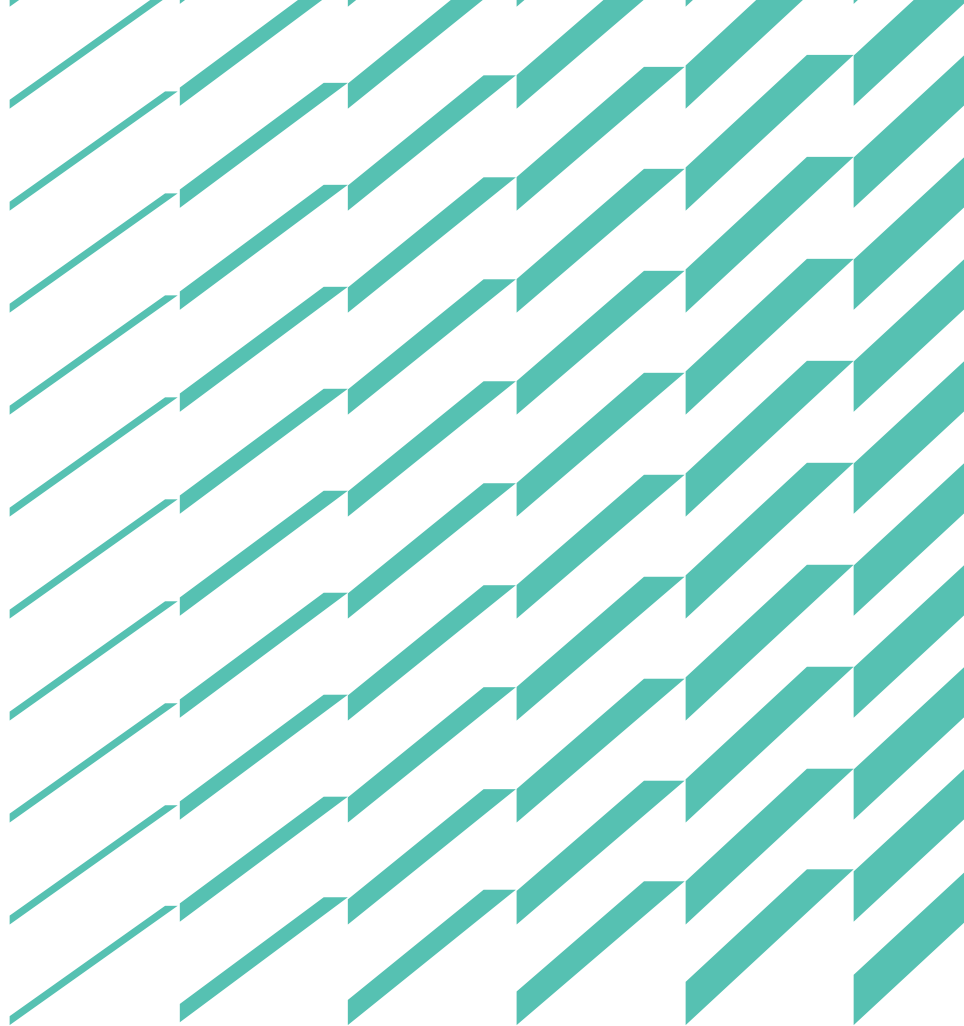
[표 1-4] 경제적 만족분야 전국-전북 비교분석

경제적 만족분야	지표 내용	지표비교			
		전국	전북	비교	
주관적 지표	1) 고용의 안정성(%)	고용불안 느낌	59.1	55.4	▼ 3.7
		고용불안 느끼지 않음	40.9	44.6	▲ 3.7
	2) 소득만족도(%)	만족	14.1	14.7	▲ 0.6
	3) 직업만족도(%)	만족	32.3	28.8	▼ 3.5
	4) 좋은 일자리 인식(%)	명예명성	2.9	2.6	▼ 0.3
		안정성	25.6	32.6	▲ 7.0
		수입	38.8	35.7	▼ 3.1
		적성·흥미	16.1	14.9	▼ 1.2
		보람·자아성취	4.2	4.3	▲ 0.1
		발전·장래성	5.8	5.4	▼ 0.4
	5) 주관적 소득수준(%)	여유	10.8	10.1	▼ 0.7
		적정	28.6	31.9	▲ 3.3
		모자람	60.6	58.1	▼ 2.5
	6) 계층의식(%)	상	2.4	2.2	▼ 0.2
		중	58.5	58.8	▲ 0.3
		하	39.1	39.0	▼ 0.1
	7) 계층이동성(%)	높음	22.7	22.5	▼ 0.2
		낮음	64.9	64.4	▼ 0.5
		모름	12.4	13.1	▲ 0.7
	객관적 지표	8) 가구소득 및 가계부채(만원)	가구소득	5,828	5,156
가계부채			7,910	4,973	▼ 2,937
9) 소비자 물가지수		2015년=100	104.85	104.48	▼ 0.37
10) 고용률 및 실업률(%)		고용률	60.9	59.3	▼ 1.6
	실업률	3.8	2.7	▼ 1.1	

자료 : 김동영 외(2020).

다. 전라북도 행복지표 특징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 도출

전북도민 행복지표 회귀분석을 통해 전북도민 행복요인 분석과 행복 취약계층 분석을 통해 전북도민 행복도 증진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 전북도민 행복도 증진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 2 장

행복지표 선행연구 검토



1. 행복의 개념
2. 해외 행복지표 연구
3. 국내 행복지표 연구
4. 행복 결정요인 연구
5. 소결

제 2 장 행복지표 선행연구 검토

1. 행복의 개념

행복은 고대 희랍인들이 ‘에우다이모니아(eudaimonia)’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개념화되었는데, 에우다이모니아는 삶의 궁극적 목적으로 ‘잘 사는 것’(eu zēn)을 의미하며 대체로 삶의 객관적인 상태를 의미한다(편상범, 2022). 사전적으로는 행복을 ‘생활에서 충분한 만족과 기쁨을 느끼어 흐뭇함. 또는 그러한 상태’로 정의하고 있다. 이를 종합하면 행복은 ‘만족하며 잘 사는 상태’로 단순하게 정의내릴 수 있다. 그러나 얼마나 행복한지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공통된 지표가 필요한데, 행복은 주관적이고 추상적인 개념으로 다차원적이기 때문에 행복을 측정할 수 있는 합의된 지표를 찾기 어렵다. 때문에 행복은 삶의 질(quality of life), 웰빙(wellbeing), 주관적 안녕감(subjective well-being), 삶의 만족(life satisfaction) 등 다양한 용어로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다.

지금까지 이루어진 행복의 측정은 물리적 조건에 초점을 둔 객관적 행복과 삶의 결과물로서의 주관적 행복으로 구분할 수 있다(구교준 외, 2015). 물리적 조건에 초점을 둔 접근은 소득, 주거, 교육 등 물리적 환경이 삶에 투입되었을 때 행복이 산출된다고 보았다. 이는 경제학적 관점으로 만족감을 ‘효용’으로 개념화하면서 과학적으로 관찰가능한 지표들로 구성된다. 대표적인 지표로는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 (UNDP)에서 발표하는 Human Development Index(HDI)로 예상수명, 교육정도, 소득 수준을 기준으로 국가들의 행복을 측정하고, OECD의 Better Life Index(BLI)도 주택, 소득, 교육, 안전 등 11가지 지표를 통해 행복을 측정한다. 주관적 행복에 초점을 둔 접근은 심리학을 중심으로 발달하였으며, 주관적 안녕감, 긍정적 또는 부정적 정서, 과거, 현재, 미래 삶에 대한 만족도 등을 측정한다. 대표적인 지표로는 Diener(1984)가 행복, 삶의 만족도, 긍정적 정서를 주관적 안녕감(SWB: Subjective Well-Being)으로 개념화하였으며, Ryff(1989)는 행복을 자기수용, 타인과의 긍정적 관계, 자율성, 환경의 통제, 삶의 목적, 개인의 성장으로 정의하면서 주관적이면서 개인적 측면을 강조하였다. Keyes(1998)는 행복을 개인적 측면뿐만 아니라 사회적 측면을 고려해야함을 강조하면서 행복을 사회적 안녕감(Social Well-Being)으로 정의하였다. 사회적 안녕감은 사회통합,

사회적 기여, 사회적 일치, 사회적 실현, 사회적 수용으로 구성되었다. 이렇듯 행복의 측정은 어디에 초점을 두느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전북형 행복지표를 어떻게 구성하여 도민 행복을 측정할 것인가에 대한 지속적인 고민이 요구된다.

따라서 이 장에서는 국내외에서 실시된 행복지표관련 선행연구들을 검토하여 전북형 행복지표를 수정·보안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현재까지 연구된 행복지표관련 선행연구 중 전국단위로 실시된 국내연구 2편, 도단위로 실시된 국내연구 4편, 시단위로 실시된 국내연구 4편으로 국내연구는 총 10편, 전세계단위로 실시된 국외연구 2편, 국가단위로 실시된 국외연구 1편으로 국외연구는 총 3편을 검토하였다. 행복지표관련 국내외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 전북형 지역특화지표를 개발하고자 한다. 또한 행복을 결정하는 요인에 대한 선행연구 2편을 살펴봄으로써 전라북도민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선정하는 기초적 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표 2-1] 행복지표관련 선행연구

영역		지표	
국외		UN, World Happiness Report OECD, Better Life Index 부탄 'Gross National Happiness Index'	
국내	지표개발 연구	통계청 '국민 삶의 질' 행정안전부 '지역공동체 행복지표'	
		충청북도 '행복지수' 경상북도 '삶의 질'	
		제주특별자치도 '행복지수' 경기도 '삶의 질 조사'	
		서울시 '서울형 행복지표' 인천시 '지역웰빙(행복) 지표'	
		세종시 '행복지표' 태백시 '행복지표'	
		영향요인 연구	서울시 '서울형 행복지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인의 행복과 삶의 질'

2. 해외 행복지표 연구

가. UN, 세계행복보고서(World Happiness Report)

세계행복보고서는 2011년 UN총회에서 사회 및 경제 발전 정도를 측정하는 방법에서 행복과 복지의 중요성을 강조한 결의안을 채택하면서 시작되었다. 이 보고서는 UN의 산하기구인 ‘지속가능한 발전해법 네트워크(Sustainable Development Solutions Network: SDSN)’에서 2012년부터 매년 전 세계 국가를 대상으로 행복을 측정하여 발표하고 있다. SDSN은 2012년부터 1인당 GDP, 사회적 지지, 기대수명, 삶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 관용, 부패에 대한 인식 6개 항목의 3년 치 자료를 토대로 행복지수를 산출하고 국가별 순위를 발표하고 있다. 과 ‘캔트릴 사다리’, 긍정적 감정, 부정적 감정을 조사하고 있다.

2022년에 발표된 ‘세계행복보고서’는 146개국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코로나19(COVID-19)가 우리의 행복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도 분석하였다. 종합적인 행복분석 결과, 핀란드가 행복지수 1위, 덴마크 2위, 아이슬란드 3위로 나타났고 일본은 54위, 중국은 72위, 한국은 59위를 기록했다. 코로나19가 발생한 2년 동안 전반적인 삶을 평가한 결과 전체 행복지수는 안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기간동안 실업증가와 건강악화로 웰빙비용을 증가시켰고, 걱정과 슬픔으로 인한 부정적 감정이 코로나 19 이전보다 높게 나타났다.

[표 2-2] UN ‘세계행복보고서’ 행복지표 체계

영역	내용	
	1인당 GDP, 사회적지지, 기대수명, 삶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 관용, 부패에 대한 인식	
주관적 웰빙	캔트릴 사다리 (Cantril Ladder)	바닥이 0점이고 꼭대기가 10점인 사다리를 상상하세요. 사다리의 꼭대기는 당신의 삶에서 최상의 상태를 의미하고, 사다리의 바닥은 당시의 삶에서 최악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지금 현재 당신의 그 사다리의 어느 단계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긍정적 감정 (Positive affect)	전날 경험한 긍정적 감정관련 질문에 대해 예, 아니오로 응답(즐거움, 흥미로운 것을 배우는 것 등)
	부정적 감정 (Negative affect)	전날 경험한 부정적 감정관련 질문에 예, 아니오로 응답(걱정, 슬픔, 분노)

자료 : UN(2022).

나. OECD, 더 나은 삶 지수(Better Life Index)

OECD는 2011년부터 더 나은 삶 지수(BLI)를 OECD 회원국과 브라질, 러시아 등을 대상으로 2년마다 측정하고 있다. BLI는 삶의 질을 평가 할 수 있는 지표 개발에 중점을 두고 초기에는 11개 영역 20개 세부지표로 구성되었으며 현재는 11개 영역 24개 지표로 수정되었다. 11개 영역은 주거, 소득, 일자리, 공동체, 교육, 환경, 시민참여, 건강, 삶의 만족, 안전, 일과 삶의 균형으로 객관적 지표와 주관적 지표가 혼합되어 있다. 예를 들어 안전에서 살인율은 인구 10만 명당 경찰에 신고 된 피살자 수를 측정하고, 야간보행안전도는 “현재 살고 있는 곳에서 밤에 혼자 걷는 것이 안전하다고 느끼십니까?”에 대한 응답으로 측정한다. BLI의 11개 영역에 대해 OECD가 별도의 가중치를 부여하지 않고 영역별로 사용자가 가중치를 설정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표 2-3] Better Life Index 지표 구성

영역	지표	영역	지표
주거	기본시설이 있는 가구	환경	대기오염
	주택유지관리 지출		수질
소득	1인당 방의 개수	시민참여	규칙제정에 참여
	가계 순가처분소득		투표율
일자리	가계금융자산	건강	기대수명
	노동시장의 안정성		주관적 건강상태
	고용률	삶의 만족	삶의 만족도
장기 실업률	안전		야간보행안전도
공동체		개인소득	일과 삶의 균형
	지원관계망의 질	장시간 근로자	
교육	교육성취도	여가 및 개인돌봄 시간	
	학생기술		
	교육기간		

자료 : OECD Better life index 홈페이지

다. 부탄, 국민총행복지수(Gross National Happiness: GNH)

부탄의 국민총행복지수는 1972년 제4대 국왕이 행복을 국가의 가치로 언급하면서 발달하기 시작했다. 부탄은 가치있는 개발을 지침으로 국민총행복지수(Gross National Happiness: GNH)를 도입하여 경제발전이 아닌 행복을 기준으로 국민들의 삶을 평가하고자 하였으며, 2008년부터 국민총행복지수를 산출하였다.

GNH는 좋은 정부(Good Governance), 지속가능한 사회경제적 발전(Sustainable Socio-economic Development), 문화의 보존과 진흥(Preservation and Promotion of Culture), 환경보전(Environmental Conservation)이라는 4가지 기둥을 기반으로 9개 영역, 33개 지표를 구성하였다. 9개 영역은 삶의 수준, 교육과 건강, 생태다양성과 복원력, 공동체, 활성화, 시간활용, 심리적 웰빙, 좋은 지배체계, 문화 복원과 촉진으로, 각 영역마다 2~4개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부탄은 국민총행복위원회를 두고 행복지수 결과를 국민의 행복과 복지정책에 반영하고 모니터링하고 있다. GNH는 사람들이 공평한 생활수준을 누리고 있는지, 물질적 개발과 비물질적 개발 사이의 균형, 생태적 다양성 등을 고려하는 다차원적인 내용으로 지표를 구성되었다.

[표 2-4] Gross national happiness 지표 구성

영역	세부지표
삶의 수준 (living standard)	자산, 주거, 1인당 소득
교육 (education)	문해력, 학교교육, 지식, 가치
건강 (health)	정신건강, 자기보고식 건강상태, 건강일수, 장애
생태다양성과 복원력 (ecological diversity and resilience)	생태문제, 환경에 대한 책무, 자연환경파괴, 도시화문제
공동체 활성화 (community vitality)	기부, 공동체 관계, 가족, 안전
시간활용 (time use)	일, 수면
심리적 웰빙 (psychological well-being)	삶의 만족도, 긍정적 감정, 부정적 감정, 영성
좋은 지배체계 (good governance)	정부성과, 기본권, 서비스, 정치 참여
문화 복원과 촉진 (cultural resilience and promotion)	모국어 사용, 문화활동 참여, 예술적 능력, 전통규범(driglam namzha)

자료 : 부탄 GNH센터 홈페이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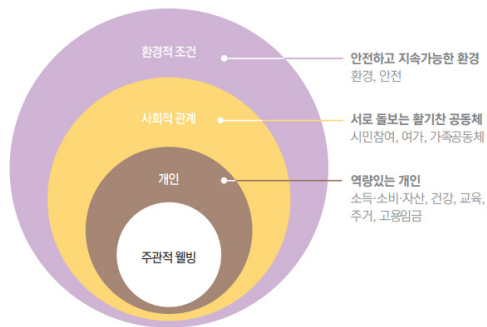
3. 국내 행복지표 연구

가. 전국 행복지표 연구

1) 통계청, 국민 삶의 질

통계청에서 실시하는 국민 삶의 질은 '삶을 가치있게 만드는 모든 요소'로 한 사회의 경제 및 사회발전 수준과 구성원의 가치 및 규범에 의해 변화되는 상대적 개념이다. 이를 측정하기 위해 객관적 생활조건과 이에 대한 국민들의 주관적 인지 및 평가로 구성된다. '삶의 질'을 구성하는 생활영역별 현황을 주요 지표로 측정하고, 현재 국민 삶의 질을 객관적으로 제시하여 삶의 질 증진을 위한 정책수립 및 시행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측정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통계청은 2011년부터 국민 삶의 질 지표를 개발하여 2014년부터 측정을 실시하였으며, 2018년 지표체계를 수정·보완하여 11개 영역, 71개 지표를 확정하였다. 2020년에는 지표검토위원회를 통해 지표를 검토하였으며 71개 지표 중 4개 지표의 출처 및 산식을 변경하고 영역별 핵심지표를 선정하였다.

국민 삶의 질 지표 11개 영역은 개인, 사회적 관계, 환경적 조건 차원으로 구성되었다. 개인적 차원은 역량있는 개인을 목표로 소득·소비·자산, 건강, 교육, 주거, 고용임금이 포함되고, 사회적 관계 차원은 서로 돌보는 활기찬 공동체를 목표로 시민참여, 여가, 가족공동체가 포함된다. 환경적 조건 차원은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환경을 목표로 환경, 안전이 포함된다.



[그림 2-1] 국민 삶의 질 프레임워크

자료 : 통계청(2022).

71개 지표는 독거노인 비율, 비만율, 고용률 등 객관적 지표 42개와 가족관계만족도, 주관적 건강상태, 소득만족도 등 주관적 지표 29개로 구성된다. 지표값 증가의 의미에 따라 긍정방향지표(+)와 부정방향지표(-)로 구분된다. 각 영역별로 1~2개의 핵심지표를 선정하였고, 2021년에 실시한 국민 삶의 질 핵심지표 중 가족·공동체_사회적 고립도, 여가_여가생활만족도, 주거_주택임대료비율, 안전_산재사망률 4개 지표는 악화되었고, 건강_자살률, 고용·임금_고용률, 소득·소비·자산_상대적 빈곤율, 교육_학교생활만족도, 환경_미세먼지농도, 안전_도로교통사고 사망률, 주관적 웰빙_삶의 만족도, 시민참여_부패인식 지수 8개 지표는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표 2-5] 국민 삶의 질 지표 체계

영역	객관적 지표(42)	주관적 지표(29)
가족·공동체	(-) 독거노인 비율 (-) 사회적 고립도* (+) 사회단체 참여율	(+) 가족관계 만족도 (+) 지역사회 소속감
건강	(+) 기대수명* (+) 건강수명 (+) 신체활동 실천율 (-) 비만율 (-) 자살률*	(+) 주관적 건강상태 (-) 스트레스 인지율
교육	(+) 유아교육 취원율 (+) 고등교육 이수율 (+) 대학졸업자 취업률	(+) 학교교육의 효과 (+) 학교생활 만족도* (-) 교육비 부담도
고용·임금	(+) 고용률* (-) 실업률* (+) 월평균 임금 (-) 근로시간 (-) 저임금근로자 비율	(+) 일자리 만족도
소득·소비·자산	(+) 1인당 국민총소득* (+) 가구중위소득 (+) 가구순자산 (-) 가계부채비율 (-) 상대적 빈곤율*	(+) 소득만족도 (+) 소비생활 만족도
여가	(+) 여가시간* (+) 1인당 여행일수 (+) 문화여가 지출률 (+) 문화예술 및 스포츠 관람횟수	(+) 여가생활 만족도* (+) 여가시간 충분도

영역	객관적 지표(42)	주관적 지표(29)
주거	(+) 1인당 주거면적 (-) 통근시간 (-)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 (-) 주택임대료 비율* (+) 자가점유가구 비율	(+) 주거환경 만족도
환경	(-) 미세먼지 농도(PM2.5)* (+) 1인당 도시공원 면적 (+) 농어촌 상수도 보급률	(-) 기후변화 불안도 (+) 대기질 만족도 (+) 수질 만족도* (+) 토양환경 만족도 (+) 소음 만족도 (+) 녹지환경 만족도
안전	(-) 가해에 의한 사망률 (-) 아동학대 피해 경험률 (-) 범죄피해율 (-) 아동안전사고 사망률 (-) 산재사망률* (-) 화재사망자수 (-) 도로교통사고 사망률*	(+) 야간보행 안전도* (+) 안전에 대한 전반적 인식
시민참여	(+) 선거투표율 (+) 자원봉사활동 참여율	(+) 정치적 역량감 (+) 시민의식 (+) 부패인식지수* (+) 대인신뢰도 (+) 기관신뢰도
주관적 웰빙	-	(+) 삶의 만족도* (+) 긍정정서 (-) 부정정서

*표시된 지표는 영역별 핵심지표
자료 : 통계청(2022).

2) 행정안전부, 지역공동체 행복지표

행정자치부는 지역공동체 행복지표는 마을단위의 행복을 측정하기 위해 2015년 한국 지방행정연구원 연구용역을 거쳐 개발하였다. 지역공동체 행복지표는 객관적 지표와 삶의 질과 같은 주관적 지표를 혼용하여 개발하였으며, 정책연계를 위해 성과중심의 핵심 지표를 선정하였다. UN의 지표프로그램에서 제시한 적절성, 유용성, 기술적 고려의 측면을 고려하여 지표를 개발하였다. 국내외 행복지표 사례를 분석하고 마을자원을 조사하여,

읍면동 통리 간 지표의 타당성을 평가하여 개발하였다. 지역공동체 행복지표는 마을자원, 공동체역량, 삶의 질 3개 영역으로 구성하였으며, 마을자원 13개 세부지표, 공동체 역량 43개 세부지표, 삶의 질 32개 세부지표로 총 88개 세부지표로 구성되었다. 마을자원 세부지표 중 자원과 관련된 내용은 중요도와 만족도를 조사하였고, 삶의 질은 마을자원과 공동체 역량에서 나타난 성과측면으로 마을주민의 삶에 얼마나 반영되었는지를 평가하고 있다. 이를 통해 자신이 살고 있는 마을의 역사와 관광자원, 주민의 복지만족도 등 주민들의 행복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관한 정보를 알 수 있다.

[표 2-6] 지역공동체 행복지표 구성

대분류	중분류		
	구분	정량	정성
마을 자원 (2)	자원기반	-	무형 자원수, 환경 자원수, 공간 자원수, 역사 자원수, 관광 자원수, 이미지 자원수, 기업 자원수, 노동 자원수, 인 물 자원수, 경제 자원수
	자원활용	-	마을자원의 필요와 문제해결과의 부합 정도, 지역자원의 활용정도, 지역자원과의 스토리 연계성
공동체 역량 (7)	공동체 과정	공동체내 교육 프로그램 수, 공동체 프 로그램 참여도	-
	공동체 관계	-	전반적 가족관계, 배우자 관계, 자녀 관계, 친부모 관계, 배우자 부모 관계, 형제 관계, 배우자 형제관계
	공동체 기반	공동체 사업 계획 수립 여부, 중간지원 조직의 유무 인지 여부, 마을 모임 장 소 개소수, 공동체 교육 참여 정도, 지 역내 공동체 행사 개최, 지역내 공동체 홍보	공동체 사업 진행 만족도, 중간지원조 직 이용 만족도, 주민 의지 및 관심정 도, 마을 회관 등 활용 시설 수, 주민 편의 시설 수, 지역사회 소속감 정도, 시정 및 도정에 대한 참여 정도
	공동체 성과	공동체 활용을 통한 일자리 창출수, 공 동체 활용을 통한 소득 창출 정도	지역사회에 대한 전반적인 기여정도
	공동체 인력	지역내 공동체 리더수, 인력풀 구성 여부	공동체내 참여인원 및 구성원수, 공동 체 인력 필수교육 이수율, 공동체내 교 육 불만족도 반영
	공동체 조직	-	공동체내 주민 회의 건수, 지역주민 및 단체와의 협동적 관계망 형성 정도
	공동체 활용	지역내 공동체 리더 활동 실적, 전문가 활용 정도	공동체로 인한 타부문 기여도(교육, 의 료, 복지, 주거, 교통, 편의시설)

대분류	중분류		
	구분	정량	정성
삶의 질 (11)	경제부문	유통시설 접근성, 청년고용	소득 만족도, 소비 만족도
	교육부문	대학진학률, 취업률, 평생교육기관수(이용률)	교육 만족도
	교통부문	대중교통 접근성	교통 만족도
	문화부문	국공립보육시설수(이용률), 문화기반시설수, 문화기반시설 이용률	-
	복지부문	예산대비 사회복지비 비중	복지 만족도(복지시설)
	안전부문	범죄발생률, 살인률, 교통사고 발생건수, 교통사고 사망수+부상자수	안전 만족도
	의료부문	1인당 병상수, 1인당 의료인수, 의료시설수	의료 만족도
	일자리부문	-	일자리 만족도, 직업안정성, 고용률
	임금부문	-	임금 만족도
	주거부문	노후주택비율,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주거 만족도
	환경부문	-	환경 만족도

자료 : 박승규 외(2015).

나. 시도 행복지표 연구

1) 충청북도, 행복지수 측정

충청북도는 주관적, 객관적인 삶의 질을 측정하여 도민 행복지수를 향상시킬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하고자 ‘충북형 행복지수’를 개발하였다. 충북형 행복지수는 2015년 처음 측정되었으며 객관적 지표와 주관적 지표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 객관적 지표는 가족, 건강, 교육, 고용과 노동, 소득과 소비, 문화와 여가, 주거와 교통, 환경, 안전, 사회통합과 시민참여 10개 영역으로 영역마다 2개의 세부지표를 포함하여 20개 세부지표로 구성되었다. 주관적 지표는 행복지수와 전반적 행복감으로 구성되었다. 행복지수는 건강/보건, 가족/공동체, 주민참여 및 신뢰, 교육/학습, 경제적 안정, 문화/여가, 주거/안전, 환경 8개 영역, 34개 세부지표로 구성되었으며, 전반적 행복감은 12개 세부지표로 구성되었다. 충청북도 행복지수는 통계청자료와 충청북도 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를 통해 산출하였다. 2019년 충청북도 행복지수 산출결과 6.03점으로 2018년에 비해 높게 나타났고, 성별로는 남성이 여성보다 높았으며 연령별로는 50대 이상이 가장 높고 30-40대의 행복지수는 낮게 나타났다. 가구원수별로 1인가구나 2인가구보다 3-4인 가구의 행복도가 높게 나타났고, 주거형태별로는 자가인 경우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2-7] 충청북도 삶의 질 지표 체계

구분	영역	세부지표		
객관적 지표	가족	• 독거노인가구비율	• 유아 천 명당 보육시설 수	
	건강	• 기대여명	• 스트레스 인지율	
	교육	• 학급 당 학생 수	• 인구 천 명당 사설학원 수	
	고용과 노동	• 경제활동 참가율	• 월평균 임금 상승률	
	소득과 소비	• 1인당 개인소득	• 1인당 민간소비 지출액	
	문화와 여가	• 인구 10만 명당 문화기반시설 수	• 해외여행 경험	
	주거와 교통	• 아파트 전세가격 지수	• 자동차 천 대당 교통사고 발생 건수	
	환경	• 신재생에너지 자원별(열량) 생산량	• 일반폐기물 재활용율	
	안전	• 인구 천 명당 범죄 발생 건수	• 경찰공무원 1인당 담당주민 수	
	사회통합과 시민참여	• 인구 십만명당 자살률	• 자원봉사활동참가율	
주관적 지표	행복 지수	건강/보건	• 주관적인 건강수준 • 가족의 건강수준 • 규칙적인 운동 여부	• 편의 및 보호시설 • 지역공중보건
		가족/공동체	• 가족생활만족도 • 부부생활만족도	• 가족원 관계만족도 • 친구 및 동료관계 만족도
		주민참여 및 신뢰	• 지역사회 참여여건 만족도 • 충북도정의 주민 소통 • 종교단체 신뢰	• 행정기관 신뢰 • 시민사회단체 신뢰
	행복 지수	교육/학습	• 평생교육 기반조성 만족 • 학교 학습내용 만족	• 사교육 만족 • 평생교육 학습 만족
		경제적 안정	• 경제활동의 다양한 기회 • 충북 전반적 일자리 여건 • 직장 내 스트레스 없음	• 소득수준 • 노후를 위한 준비 • 소비수준
		문화/여가	• 충북 문화/여가/관광 여건 • 문화유적, 공연, 축제 충분	• 지역문화여가생활 향유
		주거/안전	• 주거환경 만족 • 대중교통과 주차시설 만족	• 통근시간 만족 • 재해·재난안전사고의 안전성
	행복 지수	환경	• 충북의 환경 여건	• 생활폐기물 관리 및 청결상태
		전반적 행복감	• 환경오염으로 인한 자신과 가족의 건강상 위협 안전성	• 5년 전, 후 및 현재의 행복감
		• 전반적 행복감	• 건강, 재정, 심리적 안정, 일에 대한 만족, 문화생활 및 여가, 교육 환경, 사회공헌도, 가정생활, 주위 친지 및 친구와의 관계, 사회생활, 주거안정감	

자료 : 최용환 외 (2019).

2) 경상북도, 삶의 질 측정

경상북도는 선행연구를 검토하여 삶의 질 지표 체계를 구성하였고, 지역 간 비교 가능성, 경상북도 시·군 단위에서 비교가 가능한 지표로 구성하였다. 객관적 지표와 주관적 지표를 일치시켜 경상북도의 객관적 현황을 파악하고, 만족도 등을 함께 조사하여 질적 이해를 도모하고자 하였다. 경상북도 삶의 질은 건강·보건, 보육·교육, 안전, 여가·문화, 환경, 주관적 행복 6개 영역으로 구성되었다. 건강·보건영역은 의료체계서비스와 주민들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상태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로 구성되었으며, 보육·교육영역은 영유아와 초·중·고를 대상으로 전반적인 보육·교육 환경과 이에 대한 만족도를 측정하였다. 안전영역은 화재, 자동차 사고 등 위험에 관련된 분야에서 거주 지역이 얼마나 안전한지를 객관적 지표와 주관적 지표를 활용하여 측정하였다. 여가·문화영역은 지역별 시설과 만족도를 사용하였으며, 환경영역은 수질, 대기 등 환경 조건을 파악하고 주민들의 환경에 대한 인식을 포함하였다. 주관적 행복은 주민들의 삶에 대한 만족, 우울 등을 종합하여 사용하였다. 경상북도 삶의 질은 통계청과 경상북도 사회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2021년 경상북도 삶의 질 조사 결과 전반적으로 영역별 객관적 지표값은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환경영역은 다소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인 주관적 행복도는 평균 이상으로 나타났고 주관적 지표값도 대체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의료기관만족도는 군지역의 불만족 비율이 다소 높았고 초등학교 만족도에 비해 중·고교 생활만족도의 불만족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여가활동에 대해서도 시설환경은 개선되었으나 여가만족도는 불만족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표 2-8] 경상북도 삶의 질 영역 및 지표 체계

영역	개별 지표	정량/정성
건강·보건	1. 인구 천 명당 의료기관 병상 수	정량
	2. 인구 천 명당 의료기관 종사자 수	정량
	3. 지역별 EQ5D 지수	정성
	4. 의료기관 이용 경험 만족도	정성
보육·교육	1. 유아 천 명당 보육시설 수	정량
	2. 교원 1인당 학생 수	정량
	3. 보육시설 만족도	정성
	4. 교육만족도	정성

영역	개별 지표	정량/정성
안전	1. 인구 만 명당 화재발생 건수	정량
	2. 자동차 천 대당 교통사고발생 건수	정량
	3. 인구 십만 명당 자살률(연령표준화 사망률)	정량
	4. 인구 만 명당 감염병 건수	정량
	5. 인구 만 명당 범죄발생 건수	정량
	6. 각 영역별 안전 인식 정도	정성
여가·문화	1. 인구 십만 명당 문화기반시설 수	정량
	2. 노인 천 명당 노인여가복지시설수	정량
	3. 문화·예술 시설 및 행사 만족도	정성
	4. 여가 만족도	정성
환경	1. 인구 만 명당 오염물질 배출시설 수_대기	정량
	2. 인구 만 명당 오염물질 배출시설 수_수질	정량
	3. 인구 만 명당 오염물질 배출시설 수_소음 및 진동	정량
	4. 상수도 보급률	정량
	5. 하수도 보급률	정량
	6. 환경에 대한 평가	정성
주관적 행복	1. 삶에 대한 정서 경험	정성

자료 : 객명신(2021).

3) 제주특별자치도, 행복지수

행복을 측정한 국내외 선행연구들을 분석하여 1차로 14개 영역을 도출하였고 이를 제주특별자치도에 적합하게 개인, 사회, 교육·문화, 생활·환경, 안전, 참여 6개 영역으로 구분하였다. 개인적 행복에는 건강과 경제, 사회적 행복에는 가족과 사회생활, 교육·문화적 행복에는 교육과 문화, 생활·환경적 행복에는 주거, 환경, 안전의 행복은 범죄 및 재난, 참여의 행복은 시민참여로 세분화하였고, 21개 세부지표로 구성하였다. 제주특별자치도 행복지수는 객관적 지표로 구성하였으며, AHP분석과 타시도와 비교분석하여 주관적, 객관적으로 평가하였다.

행복지수 평가 결과 21개 세부 지표 간 상대적 우선순위는 주택보급률, 실업률이 높았으며, 도시공원 조성면적과 지정등록 문화재 수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17개 시·도와 비교분석한 결과, 6개 영역 종합순위는 9위로 대부분의 지표들은 평균수준을 보이고 있으나 실업률과 범죄율이 높게 나타났다.

[표 2-9] 제주특별자치도 행복지수 지표 체계

영역구분		세부지표
개인적 행복	건강	평균수명(기대여명)
		65세 이상 인구비율
		자살률(인구 10만명당)
사회적 행복	경제	1인당 지방세
	가족	조이혼율
	사회생활	경제활동참가율
		실업률
교육·문화적 행복	교육	교원 1인당 학생 수(초등학교)
		교원 1인당 학생 수(중·고등학교)
		7세 이하 인구 1인당 유치원 수
	문화	지정등록 문화재 수
		도시공원 조성면적(인구 천명당)
생활·환경적 행복	주거	주택보급률
		상수도 및 하수도 보급률
	환경	산림면적
안전의 행복	범죄 및 재난	범죄율
		소방공무원 1인당 인구수
		화재발생률(인구 천명당)
		교통사고 발생건수
참여의 행복	시민참여	전국 투표율
		축제 방문 경험

자료 : 강창민 외(2017).

4) 경기도, 삶의 질 조사

경기도에서 실시한 삶의 질 조사는 통계청 삶의 질 지표체계에서 제안한 개인, 사회적 관계, 환경적 조건 3가지 틀을 기본으로 물질 부분과 비물질 부분으로 구분하였다. 개인 부분은 가계, 고용, 주거, 건강과 보건, 교육 영역을 포함하고, 사회적 관계는 가족, 사회 통합, 여가 등이 해당된다. 환경적 조건에는 환경 및 안전, 교통 등으로 구성되었다. 2020년에 실시한 3차 경기도민 삶의 질 조사는 1, 2차 경기도민 삶의 질 조사표를 참고하였고, 건강과 보건, 교육, 여가 영역을 보완하여 14개 영역, 116문항으로 조사표를 구성하였다. 2018년 인구주택총조사 기준 집계구를 기초로 경기도 31개 시군에 거주하는 전체 일반가구 및 가구 내 15세 이상 가구원을 대상으로 다단계층화계통추출법을 활용하여 표본을 추출하였다.

2020년 조사결과,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는 약간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고 여가, 고용, 교육에 대한 만족도는 낮게 나타났다. 코로나19 이전에 비해 삶의 질 수준은 전반적으로 낮아졌고 특히 청소년과 전·월세 거주자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1인 가구는 주거, 가계뿐만 아니라 우울 경험도 상대적으로 높고, 사회적 관계에서도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10] 경기도 삶의 질 지표 내용

조사영역	조사 내용
주거	거주시작시기, 이사 이유, 이사 직전 거주 지역, 주택 점유형태 및 자사가지, 주거비 및 주거관리비 부담 정도, 주택상태 만족도, 주거환경 만족도
가계	가구소득/지출/저축액, 최소생활비 및 적정생활비, 경제적 어려움 경험 여부, 생활비 부족 경험 여부, 생활비 마련 방법, 가계 관련 고민, 가계부채 여부
가구형태	(1인 가구) 혼자 사는 이유, 혼자 산 기간, 불편한 점
가족	결혼에 대한 생각, 자녀 필요성에 대한 생각, 혼인년도, 자녀 수, 추가 자녀 계획 여부, 자녀를 갖지 않으려는 이유, 일과시간 자녀 돌봄 주제, 가족과의 대화 시간, 가족에 대한 만족도
고용	수입 여부, 직장 여부, 휴직 이유, 종사상 지위, 하고 있는 일, 근로시간, 이 자리에 대한 문항, 근무형태 및 계약형태, 구직 여부 및 경험, 구직 시 어려움
교통	통근/통학여부, 일터 및 학교 지역, 교통수단 및 이동거리, 교통비, 통근/통학 스트레스, 주차 스트레스 여부, 교통환경 만족도
환경 및 안전	환경 분야 만족도, 절약 및 미세먼지 개선 실천 여부, 환경문제의 원인, 환경개선을 위해 참여 의사, 거주지 안전 평가, 안전관리수준 평가, 앞으로 안전 변화 예상
건강과 보건	본인의 건강상태, 작년 한 해 진단 및 진료 여부, 진료 받지 못한 경험 및 이유, 수면시간 및 수면의 질, 스트레스 여부, 의료서비스 만족도
여가	하루 평균 여가시간 및 비용, 충분 정도, 여가 활동 및 목적, 여가시간에 영향을 주는 요인 여행 여부, 워라밸 만족도
교육	교육 수준 만족도, 교육을 통한 보상 여부, 교육의 영향, 업무수준과 학력의 관계, 학력의 영향 정도, 교육 환경 만족도(공교육/사교육), (중/고생)학교 생활 만족도, (대학 이상)학교생활 만족도
사회통합	모임 및 단체 참여 경험, 투표 참여 여부, 지역 소속감, 이웃과의 관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이웃 수, 정부 만족도, 외국 이주민에 대한 생각
일반 공통	삶의 질 만족도, 삶의 질에 영향을 주는 요인, 행복 및 우울 정도, 사회적 위치, 개인적 인간관계 만족도, 사람에 대한 신뢰 여부, 사회에 대한 신뢰, 삶의 질 수준 변화, 경기도 개선 필요 부분
기본소득	기본소득 인지, 기본소득에 대한 생각, 적정 기본소득, 증세 찬성 여부, 기본소득으로 인한 삶의 변화
코로나 인식	코로나로 인한 소득/소비수준 변화, 고용상의 변화, 코로나로 걱정되는 부분, 코로나 이전과 비교했을 때 삶의 질 수준

자료 : 유정균 외(2021).

다. 시군구 행복지표 연구

1) 서울시, 서울형 행복지표

서울형 행복지표는 2014년 연구를 통해 11개 영역 24개 지표를 선정하였다. ‘2016년 서울서베이’ 자료를 활용하여 서울시민의 행복 영향요인 분석, 자문회의, 서울행복 관련 세미나를 통해 2017년 행복지표를 수정하였다. 2014년 서울형 행복지표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사회연결망과 공동체 영역을 추가하였고, 경제영역에서도 일자리 만족도와 같은 질적인 측면을 추가하여 지표를 보완하였다. 생활만족영역은 인지적 평가와 정서적 평가로 구분되어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여 주관적 웰빙, 긍정적 감정, 부정적 감정으로 수정하였다. 문화영역에 시간활용을 보완하여 문화/시간으로 변경하였으며, 건강에 신체적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적 건강의 중요성을 반영하여 보완하였다. 그 결과 최종적으로 수정된 서울형 행복지표는 8개 영역 41개 세부지표로 구성되었다.

[표 2-11] 서울형 행복지표 체계

영역	세부영역	지표	설명
경제	경제활동	소득만족도	자신의 소득에 만족하는 정도
		평균소득	월평균 소득
		경제활동인구	전 인구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인구 비율
	경제적 다양성	사업다양성	사회적 기업 고용자 수
		공유기업	공유기업 수
일자리	일자리	직업안정성	지난 6개월간 고용되어 있는지 여부
		실업률	15~64세의 실업률(연간)
		직업만족	직업만족도
인적역량	교육	교육능력	정규교육을 받은 기간
		교육정도	25~64세 중 고등교육 이수율
		교육만족도	교육환경에 만족하는 정도
건강/안전	건강	주관적 건강상태	자신의 건강상태를 좋다/나쁘다로 평가
		기대여명	어느 연령에 도달한 사람이 그 이후 몇 년 동안이나 생존할 수 있는가를 계산한 평균 생존연수
		정신건강	스트레스 정도
	안전	살인율	인구 100,000명당 살인건수
		폭행률	폭행 및 강도로 인한 피해경험
		야간안전	밤거리 안전도

영역	세부영역	지표	설명
문화/시간	문화/여가	문화환경 만족도	서울의 문화환경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문화생활 참여정도	문화생활 참여율
		예술활동 참여도	예술활동 참여율
	시간 활용	근로시간	하루 평균 근무시간
		수면시간	하루 평균 수면시간
		일과 여가의 균형정도	장시간 근무 비율
사회관계	연결망	연결망	필요할 때(어려울 때) 의지할 수 있는 친구 또는 지인이 있는지 여부
		사회적 유대	편안한 사람들(친구, 가족 등)과 식사를 함께 하는 시간
		자원봉사율	자원봉사 참여 비율
		투표율	최근 선거에서의 투표율(누표인 수/등록인 수)
	공동체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장애인, 노인, 저소득층)에 대한 배려정도
		가족 신뢰	가족 신뢰도
		이웃 신뢰	이웃 신뢰도
		공공 신뢰	공공기관의 신뢰도
		계층 이동 가능성	계층 이동 가능성
		공동체의식	살고 있는 지역에 대한 소속감
거주환경	주거환경	주거비	가계수입에서 주택 관련 비용이 차지하는 비율
		환경오염	미세먼지 농도
		공원	1인당 공원면적
	교통	보행환경	보행환경 만족도
		대중교통만족도	대중교통(버스, 지하철)의 시민이용만족도
생활만족	주관적 웰빙	전반적 삶에 대한 만족도	
	긍정적 감정	즐거움/행복 정도	
	부정적 감정	근심/걱정/우울 정도	

주: 음영처리된 지표는 시민조사 결과 삭제하거나 대체해야 하는 지표
 자료 : 변미리 외 (2017).

2) 인천시, 지역웰빙(행복) 지표

인천시는 지역의 웰빙(행복) 수준을 진단하여 지역의 여건이 개인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어떤 영역이 중요한지를 분석하여 정책의 우선순위를 결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활용하고자 하였다. 국내외에서 이루어진 지역웰빙관련 사례를 검토하여 영역별로 분류하고 인천시와 행정부의 시정목표와 연계하여 지역웰빙(행복) 지표를 개발하였다. 최종적으로 인천시 지역웰빙(행복) 지표는 6대 분야, 17개 영역, 총 71개 세부지표로 구성되었다. 지역웰빙(행복) 지표는 인천시 사회조사, 통계청 사회조사,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 인천시 내부자료 등 행정자료와 사회조사를 활용하여 분석하고, 업무 수행과 지표 관리를 위한 관리부서를 배정하였다.

[표 2-12] 지역웰빙(행복) 지표 구성

		상위기준		지표명(총 71개)
1계층	2계층	3계층		
시민과 함께하는 시정	사회 관계	신뢰		종합 청렴도 (원문) 정보 공개율
		공동체		지역사회 소속감(지역 정체성) 인천시와 소통 정도 사회적 관계망
	시민 참여	시민의무		자원봉사 활동 참여율 시민의식
		사회참여		주민참여예산 활성화율
	더불어 잘사는 균형발전	주거	주거상황	
주거의 질				지역별(원도심/신도시) 주거환경 만족도
교통			대중교통 이용 만족도 보행환경 만족도 통근/통학 소요시간	
원도심			도시가스 보급률 해양친수공간 조성	
대한민국 성장동력 인천		경제 (개인)	소득	
	소비			가구 월평균 소비지출액
	자산			가구 부채 규모
	경제 (도시)	도시경제		1인당 지역내 총생산(GRDP) 예산대비 채무비율
		지역산업		외국인 투자유치 현황 항만 여객/화물 수송량 항공 여객/화물 물동량
		산업		산업생산지수 지식기반 제조업 입지계수
		에너지		신재생 에너지 보급량
	일자리	고용의 양		고용률 확장실업률
		고용의 질		근로여건(일/직장) 만족도
	내 삶이 행복한 도시	사회	사회보장	
사회복지				사회복지시설수, 종사자수 및 수용인원 복지 인식 보육시설수 대비 공보육 인프라 확보율 육아친화환경 만족도

상위기준		지표명(총 71개)		
1계층	2계층			
	교육	교육기회	평생교육 참여율	
		교육성과	학생의 학교생활 만족도	
	건강	건강상태	비만율	스트레스 인지율
			건강행위	자살률
		건강결정요인	기대수명	규칙적 운동 실천율
		의료서비스	흡연율 및 고위험 음주율	건강검진율
	문화·여가	문화활동	의료서비스 만족도	여가생활 만족도
		시간활용	의료시설(환경) 접근성	문화예술 참여도
	안전	범죄	일과 여가의 균형 정도	CCTV 설치 현황
		(안전)사고	산업재해율	산업재해율
		자연재해	화재 발생 건수 및 사상자 수	소방관 7분 이내 도착률
		안전의식	자연재해 평균 피해액	재해예방 예산 비율
	환경	환경의 질	안전지수(화재, 교통, 범죄, 안전사고, 자살, 감염병, 자연재해 등)	미세먼지 농도
			사회안전에 대한 인식	생활권별(원도심/신도시) 1인당 도시공원 면적
	주관적 웰빙	환경서비스	수질 만족도	생활폐기물 배출량
		삶에 대한 만족도	생활폐기물 재활용 비율	정서
	동북아 평화 번영의 중심	평화	국제 평화협력 교류 건수	국제회의 개최 건수
			외국인에 대한 태도(인식)	윤리, 인권 관련 지표
	인구	인권	성평등지수	합계출산율
			순유입자수	순유입자수

자료 : 이미애 외(2019).

3) 세종특별자치시, 행복지표

세종특별자치시 행복지표는 지역주민의 행복도를 산출하기 위해 기존에 개발된 타지역 행복도 지수를 참고하여 세종특별자치시에 적합하게 보완하였다. 그 결과 객관적 지표 11개 부문 62개 지표, 주관적 지표 11개 부문 8개 지표로 총 22개 부문 70개 세부지표로 구성되었다. 이 때 양적(+) 지표 55개와 부적(-)지표 15개로 구분하였다.

세종특별자치시 행복지표를 활용하여 2015년 세종특별자치시민들의 행복도를 분석한 결과, 타 특광역시와 비교하였을 때 평균보다 높은 부문은 인구, 물가가계, 광공업에너지, 건설주택토지, 부진한 부문은 환경, 교통정보통신, 도소매서비스로 나타났다.

[표 2-13] 세종특별자치시 행복지표 체계

부문	지표	성격	비고
1. 인구	기대수명	+	
	생산가능인구	+	
	노령화지수	-	
	인구유입	+	
	인구유출	-	
	순이동	+	
	출생률	+	
	주민등록인구(남)	+	
	주민등록인구(여)	+	
	주민등록인구(총계)	+	
	2. 고용노동임금	경제활동인구	+
교육정도별 경제활동인구(고졸이하)		-	
교육정도별 경제활동인구(대졸이상)		+	
취업자(남)		+	
취업자(여)		+	
취업자(총계)		+	
교육정도별 취업자(고졸이하)		+/-	
교육정도별 취업자(대졸이상)		+	
산업별 취업자		+	
사업체수		+	
3. 물가가계	총사자수	+	
	가계 자산	+	
	가계 부채	-	
	민간아파트 분양가격(3.3㎡ 평균분양가격)	+	
	생활물가지수	-	
	소비자물가지수(지출목적별)	-	
지가변동률	-		

부문	지표	성격	비고
4. 보건사회복지	수술종류별 수술현황(계)	+	
	교통사고발생현황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총괄	-	
	주관적 소득수준(사회조사 항목 내)	+	정성
	소득만족도(사회조사 내)	+	정성
	고용 안정성(사회조사 내, 노동파트)	+	정성
	근로여건 만족도(전반적인 만족도, 사회조사 내)	+	정성
	학교생활 만족도(13세 이상 재학생, 사회조사 내)	+	정성
	의료서비스 이용률(사회조사 내)	+	
	의료서비스 만족도(종합병원)	+	정성
	현재 체감환경(대기, 사회조사 내)	-	
	현재 체감환경(수질, 사회조사 내)	-	
	생활여건의 변화(전반적인 생활여건, 사회조사 내)	+	정성
	사회안전에 대한 인식(전반, 사회조사 내)	+	정성
	어린이집 현황	+	
직장어린이집 현황	+		
5. 환경	미세먼지 대기오염도	-	
	아황산가스	-	
	이산화질소	-	
	상수도보급	+	
	하수도보급	+	
6. 광공업에너지	생산액	+	
	부가가치	+	
	유형자산	+	
	사업체수	+	
	종사자수	+	
7. 건설주택토지	주택보급률	+	
	임대주택건설실적	+	
8. 교통정보통신	도로보급률	+	
	시도별 포장률	+	
9. 도소매서비스	산업별 총괄	+	
	서비스업조사(산업별 분류)	+	
10. 재정	재정자립도	+	
	GRDP(지역내총생산)	+	
	지역별예금(말잔)	+	

부문	지표	성격	비고
11. 교육문화과학	중학교	+	
	고등학교	+	
	연구개발조직의 연구개발주체별 지역별 분포	+	
	공공도서관 좌석수	+	
	박물관수	+	
	미술관수	+	
	체육시설수	+	
	공연장수	+	

자료 : 박승규, 김선기(2015).

4) 태백시, 태백형 행복지표

태백형 행복지표는 2019년 행복실현지방정부협의회에서 개발한 지역맞춤형 행복지표를 사용하였다. 이 행복지표는 개인, 사회, 자연 3대 영역으로 구성하여 개인과 공동체를 모두 고려한 행복을 강조하고 있다. 개인영역은 재산/소득, 소비, 주거와 같은 물질자산, 건강, 교육과 같은 인적자산, 일, 여가 및 문화활동 4개 소영역으로 구성하였다. 사회영역은 기반시설, 안전과 신뢰, 공공서비스, 참여, 사회적관계의 5개 영역으로 구성되고, 자연영역은 자연환경과 지속가능성 2개 소영역으로 구성된다. 여기에 개인의 주관적 행복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주관적 행복감 1개 소영역으로 구성하여, 3대 영역, 12개 소영역, 90개 세부지표로 구성된다. 또한 90개 세부지표는 주관적 지표 46개, 객관적 지표 44개로 구성하였으며, 공통지표 외에 지역유형별 선택지표를 개발하여 도시형, 농촌형, 도농복합형에 따라서 10개 지표를 선택하여 총 100개 세부지표로 구성할 수 있다.

[표 2-14] 행복전환지표 체계

대영역	소영역	항목	주관적 지표	객관적 지표
개인	물질 자산	재산/소득	1. 재산과 소득 만족도*	
		소비	2. 소비생활 만족도*	
		주거	3. 거주주택 만족도* 4. 주거비 부담 정도*	5. 자가 거주비율
	건강/교육	건강	6. 육체적 측면의 주관적 건강수준 인지율* 7. 정신적 측면의 주관적 건강수준 인지율*	8. EQ-5D 9. 고위험음주율 10. 흡연율 11. 비만율

대영역	소영역	항목	주관적 지표	객관적 지표
사회	교육	교육	12. 자녀 학교교육 만족도*	16. 교육수준* 17. 평생학습 참여 정도*
			13. 자녀 사교육 만족도*	
			14. 자녀 보육 만족도* 15. 평생교육 만족도*	
	일	일의 양	18. 일의 양(근로시간)에 대한 만족도*	19. 고용률 20. 65세 이상 인구의 고용률
		일의 질	21. 고용안정성* 22. 근로여건 만족도*	23. 정규직 비율*
	여가/문화	온라인 활동	24. 인터넷 이용 능숙도* 25. 인터넷 과의존 정도*	26. 인터넷 이용률* 30. 문화예술 및 스포츠 참여* 31. 국내여행 일수* 32. 해외여행 일수*
		워라밸	27. 일과 여가의 균형 정도*	
		여가활동	28. 여가 및 문화생활 만족도* 29. 지역의 역사 및 문화에 대한 이해도*	
	공공 서비스	예산	33. 공공서비스 만족도*	34. 인구 1인당 세입예산규모
		복지	35. 지역복지의 충실성*	36. 인구 십만명당 사회복지시설 수
		교통	37. 대중교통 만족도*	38. 인구 1인당 교통 관련 예산 규모
	기반 시설	의료기반 시설	39. 의료시설 만족도*	40. 인구 천명당 의료기관 병상 수
문화기반 시설		41. 문화시설 만족도*	42. 인구 십만명당 문화기반시설 수	
교육기반 시설		43. 보육시설 만족도* 44. 학교 만족도*	45. 유아 천명당 보육시설 수 46. 교원 1인당 학생 수	
기초 인프라			47. 상수도 보급률 48. 하수도 보급률 49. 도시가스 보급률*	
참여 (거버넌스)	민·관 협력	50. 지자체 정책결정 참여회 보장 정도* 51. 지자체의 행정과 정책에 대한 인지 정도* 52. 지역사회 소속감*	53.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선거 투표율 54. 인구 천명당 지자체 내 각종 위원회의 지역주민 참여위원 수 55. 주민참여예산액 비중	
	민·민 협력		56. 인구 천명당 지역시민사회단체수 57. 기부율* 58. 자원봉사 활동 참여 정도*	
안전/신뢰	안전	59. 일상생활 안심 정도* 60. 먹거리 안전 정도* 61. 사고나 재해로부터 안전한 정도* 62. 범죄 피해에 대한 두려움*	63. 교통사고 지역안전등급 64. 화재 지역안전등급 65. 범죄 지역안전등급 66. 자연재해 지역안전등급	
	신뢰	67. 지역 내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 68. 이웃에 대한 신뢰*		

대영역	소영역	항목	주관적 지표	객관적 지표
	사회 관계	가족	69. 가족구성원 간 관계 만족도*	70. 1인 가구 비율 71. 독거노인 가구 비율 72. 조이혼율
		대인관계	73. 사회적 관계망* 74. 외로움*	75. 인구 십만명당 자살률
자연	자연 환경	자연환경	76. 대기질 만족도* 77. 수질 만족도* 78. 녹지환경 만족도*	79. 주민 1인당 생활폐기물 배출량 80. 미세먼지 농도 81. 인구 천명당 공원조성 면적
			지속 가능성	회복력
	지속가능 발전정책			86. 지자체의 환경보호 노력, SDGs 실천 노력*
-	주관적 행복감	주관적 행복감	88. 성취에 대한 만족도* 89. 삶에 대한 주관적 만족감* 90. 미래에 대한 기대감*	-

주 : * 표시는 별도조사가 필요한 지표

자료 : 정건화 외(2019), 조근식 외(2020) 재인용

태백시의 지역특성을 반영한 선택지표를 태백시 현황과 여건을 분석하고, 태백시 시민 행복위원회, 전문가 자문의견 등을 통해 지역선택지표안을 개발하였다. 최종 개발된 지표는 주관적 지표로 체계에 맞게 재구성하였다. 개인, 사회 2개 대영역, 물질자산, 교육, 일, 공공서비스, 참여, 안전/신뢰, 주관적 행복감 7개 소영역, 10개 세부지표로 구성되었다.

[표 2-15] 태백시 지역특성지표 구성

대영역	소영역	세부지표	
개인	물질자산	스포츠대회 및 전지훈련 유치의 지역경제 기여도 태백시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만족도	
	교육	태백시 교육사업 만족도	
	일	태백시 청년 일자리 및 정책 만족도	
사회	공공서비스	태백시 지역화폐에 대한 만족도 노인돌봄서비스 만족도 의료혜택 서비스 개선 만족도	
		참여	태백시 시민소통 만족도
		안전/신뢰	도로안전 만족도
주관적 행복감		태백시 미래비전에 대한 기대감	

자료 : 조근식, 권오영(2020).

4. 행복 결정요인 연구

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해식 외(2019)는 한국인의 심리적 성향과 가치관과 남북이 대립하고 있는 지리적 요인 등 정치, 경제, 사회문화적 요인들을 복합적으로 고려한 행복과 삶의 질에 관한 연구를 실시하였다. 행복과 삶의 질에 대한 구체적인 개념을 분석하기 위해 국내 학술연구논문 초록을 R에서 한글 자연언어처리 패키지를 활용하여 텍스트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경제학 분야에서 행복과 삶의 질은 소비, 행복, 경제 등의 단어가 확인되었고, 사회 복지학 분야에서는 사회, 관계, 학교, 건강 등의 단어가 확인되었다. 심리학 분야에서는 불안, 정서, 우울 등과 같은 심리적 경험에 대한 단어의 빈도가 높았다.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7개의 요인으로 정리한 Frey&Stutzer(2002)와 Dolan, Peasgood, & White(2008)의 연구를 기본으로 인구사회적 요인, 경제적 요인, 심리적 요인에 대한 선행연구를 분석하였다. 이를 기초로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이를 통해 한국인의 행복에 대한 이론적 모델을 수립하고 구체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전국 17개 시도 만 19세 이상 만 80세 미만 성인 남녀 5,000명을 대상으로 한국인의 주관적 안녕, 행복에 대한 조건과 의미, 개인의 심리적 역량과 인식,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생활여건 등을 확인하는 조사를 실시하였다.

한국인의 행복과 삶의 질은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가구소득과 외향성이 높을수록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여건(가구소득)에 대한 심리적 역량의 조절효과(외향성, 신경증)분석 결과, 외향성이 조절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조절효과를 분석하였고 그 결과, 청년과 장년집단에서는 조절효과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중년집단과 노인집단에서는 가구소득에 대한 심리적 역량의 조절효과가 확인되었다. 다시 말해 중년집단은 외향성과 신경증이 높을수록, 노인집단은 외향성이 높을수록 소득의 효과를 과대평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인의 행복과 삶의 질 연구 결과 외향성과 신경증과 같은 심리적 역량이 조절효과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경제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개인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역량의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표 2-16] 한국인의 행복과 삶의 질 변수

구분	영역		내용
종속 변수	에우다이모니아 (Eudaimonia)	삶의 가치	“_님께서는 _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얼마나 가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삶의 만족 (Life satisfaction)	전반적인 삶	“_님께서는 요즘 _님의 삶에 전반적으로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칸트릴 사다리 (삶의 평가)	바닥이 0점이고 꼭대기가 10점인 사다리를 상상하세요. 사다리의 꼭대기는 당신의 삶에서 최상의 상태를 의미하고, 사다리의 바닥은 당시의 삶에서 최악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지금 현재 당신의 그 사다리의 어느 단계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삶의 영역	“_님께서는 다음의 삶의 영역들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① 생활수준, ② 건강, ③ 삶에서 성취한 것, ④ 개인적인 관계, ⑤ 안전, ⑥ 미래 안정성, ⑦ 시간적 여유, ⑧ 지역 사회 전반, ⑨ 직업 등”
	정서적 행복 (Affective happiness)	긍정적 정서	“_님께서는 어제 어느 정도 행복하셨습니다?”
		부정적 정서	(우울) “_님께서는 어제 어느 정도 우울하셨습니다?” (스트레스) 지각된 스트레스 척도
	행복의 기대 수준과 희망		5년 후 기대 행복 수준, 희망 행복 수준
	타인 행복		가족, 친구, 이웃, 대한민국 국민, 전 세계인
	행복의 조건		행복할 조건 충족 여부, 더 행복할 조건
	행복의 의미		(주관식) 행복의 의미
영역별 중요도		(주관식) 삶의 가치와 목표, 관계, 주거, 환경의 질, 일, 생활의 질, 경제적 안정, 건강, 안전, 거버넌스의 질	
매개 변수	심리적 역량 (Competence) /인식	성격	성격 5요인 척도
		물질주의	물질주의 척도
		비교성향	능력 및 의견 비교성향
		계층 인식	주관적 소득계층, 계층 이동 경험과 기대 등
		신뢰	일반적인 사람들에 대한 신뢰, 사회에 대한 신뢰, 정부 신뢰, 부패 인식, 정부의 역할, 조세제도 신뢰 등
		사회인식	정부 역할, 공정성 인식, 계층 인식, 갈등 인식, 사회인식, 사회적 불안 등
독립 변수	생활여건	경제적 특성	경제활동, 실업 경험, 주거 점유 형태, 소득, 자산, 부채, 지출, 박탈 등
		개인적 특성	어제 경험, 선택의 자유, 현재 및 희망 시간 사용
		사회적 관계	가족관계, 사회적 관계, 사회적지지, 사회적 자본, 소속감 등
		사회 참여	소속 모임이나 단체, 종교, 이타적 사회 참여, 정치 참여 등
		제도적 조건	거버넌스, 노동조합, 사회보장제도 가입 및 수급 경험 등
통제변수	인구학적 특성	성별, 연령, 교육, 건강, 가구 특성, 형제자매 등	

자료 : 정해식 외 (2019).

나. 서울시

서울서베이(2016)자료를 활용하여 서울시민의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검토하였다. 행복은 복합적인 심리 상태이기 때문에 인구변인, 사회·경제적 변인, 사회·환경변인, 개인적 변인 등이 종합적으로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 서울 시민들의 체감 행복지수에 미치는 영향력을 회귀분석을 통해 분석하였다. 이 때 종속변수는 건강상태, 재정상태, 친지 및 친구와의 관계, 가정생활, 사회생활에 대한 주관적 행복감의 합으로 측정하였다. 독립변수로는 성별, 연령, 결혼상태, 직업, 소득, 사회 및 이웃에 대한 신뢰, 교육 등의 변수가 사용되었다. 이들 변수들이 서울시민의 행복감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분석하기 위해 단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단계적 회귀분석 결과 서울시민의 행복에는 인구학적 특성 중 연령이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연령이 높을수록 서울시민의 행복감이 감소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성별이 남성일 때, 현재 배우자가 있을 때, 자신이 인식하는 사회경제적 계층이 높을 때 행복감이 높게 나타났다.

인구사회경제적 특징, 안전, 문화, 사회관계, 거주환경, 주관적 웰빙 영역별 행복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계층이동가능성이 높을수록, 가족,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가 높을수록, 사회적 약자에 대한 포용성이 높을수록, 보행만족감, 주거안정성, 대중교통만족도가 높을수록 행복감이 높게 나타났다. 건강, 소속집단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체감 행복감이 높았으나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행복감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에서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소득과 교육수준보다 계층이동가능성, 보행만족감 등 개인의 주관적 요인들이 서울 시민의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17] 서울시민 행복요인 변수

항목	변수	
종속 변수	귀하는 요즘 스스로 행복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행복한 상태를 10점, 가장 불행한 상태를 0점으로 하여, 자신의 건강상태(0~10점), 재정상태(0~10점), 주위 친지 및 친구와의 관계(0~10점), 가정생활(0~10점), 사회생활(0~10점) 등 5가지 영역의 행복점수를 합함(0~50점)	
독립 변수	나이	연속형 변수
	결혼	기혼+동거, 미혼, 이혼+사별 등 총 3개 군으로 구분
	성별	남자, 여자
	학력	고졸 이하, 대졸 이상
	직업	관리/전문직, 사무직, 서비스판매직, 노동기능직, 기타(학생, 주부, 무직 등) 등 5개 군으로 구분

항목	변수	
독립 변수	소득	월평균 근로소득 200만 원 이하, 200~500만 원 미만, 500만 원 이상 등 총 3개 군으로 구분
	고용	상용근로자, 임시일용직, 고용원 있는 사업자, 기타 등 총 4개 군으로 구분
	계층의식	사회, 경제적 여건을 기준으로 한 본인의 계층 인식
	계층이동가능성	노력여부에 따라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아질 가능성
	안전사고 위험	안전사고에 대한 위험정도
	사회갈등 위험	빈부격차, 세대갈등 등 사회갈등에 대한 위험정도
	야간보행 만족	밤늦게 걸어다니는 야간보행 만족 정도
	일반신뢰	일반적으로 사람들을 신뢰할 수 있는 정도
	가족신뢰	가족에 대한 신뢰 정도
	이웃신뢰	이웃에 대한 신뢰 정도
	공공기관 신뢰	공공기관(서울시)에 대한 신뢰
	봉사활동	지난 1년간 자원봉사 참여 여부
	사회적약자(여성)	여성들의 사회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더 많은 제도적 개선 필요
	사회적약자(장애인)	내 아이가 장애아와 함께 어울리는 것은 상관없다
	문화환경	서울시의 전반적인 문화환경(시설, 프로그램, 비용 등)에 대한 만족도
	문화활동	지난 1년간 전시회 관람, 박물관 관람, 음악 및 발표회 관람, 전통예술관람, 연극공연 관람, 극장에서 영화 관람, 대중공연 관람, 스포츠경기 관람 등에 참여한 횟수
	주거안정성	주택보유 여부(자기+무상, 전세+월세+사글세)
	주거환경	거주지역 보행환경 만족정도
	대중교통	버스, 지하철에 대한 만족도
	녹지만족	거주지역의 녹지(공원, 숲 등)에 대한 만족도
주관적 만족	개인적 측면 만족도(0~10점), 주위사람들과의 관계 만족도(0~10점), 소속집단에 대한 만족도(0~10점)	
긍정적 감정	지난 2주 동안 즐거운(0~10점)/행복한(0~10점)/편안한(0~10점) 감정을 느낀 정도의 합(0~30점)	
부정적 감정	지난 2주 동안 짜증나는(0~10점)/부정적인(0~10점)/무기력한(0~10점) 감정을 느낀 정도의 합(0~30점)	

자료 : 변미리 외 (2017).

5. 소결

■ 전라북도 지역 특성을 반영한 지역특성지표 개발

국내외 행복지표관련 선행연구를 종합해보면, 행복의 개념이 다차원적이기 때문에 개인을 중심으로 가족, 사회관계, 지역사회(공동체)와 같은 체계를 기반으로 객관적 지표와 주관적 지표를 혼합하여 행복지표를 개발하고 있다. 특히 UN, OECD와 같은 국제기구에서 국가별 행복을 비교하면서 행복지표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국내 지역 행복지표들은 국외 행복지표를 토대로 개발되어 왔다. 전북형 행복지표도 선행 행복지표 분석과 원탁회의,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2016년 최초로 개발하였고, 2020년 지표를 보완하였다.

최근 5년 간(2017년 이후) 실시된 행복지표 관련 연구들이 보이는 특징은 전형적으로 행복지표에 포함되는 경제, 공동체, 건강, 안전 등과 같은 행복영역을 기초로 하면서 세부지표에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지표들을 포함하여 구성하고 있다. 예를 들어 경기도의 삶의 질 조사에서는 타지역 행복관련 지표에 포함되지 않은 기본소득과 코로나 인식영역을 포함하고 있다. 인천시는 행복을 지역웰빙으로 개념화하고 공동체 영역에 지역정체성, 주거영역에 원도심과 신도시의 주거의 질, 원도심 영역의 해양친수공간 조성 등을 포함하여 지표를 구성하였다. 태백형 행복지표에서는 공통지표 외에 태백시 여건을 분석하여 지역특성을 반영한 선택지표를 개발하였다. 이는 전라북도 주민의 행복도를 타지역과 비교할 수 있는 공통지표뿐만 아니라 전라북도의 지역 특성을 반영한 지역특성지표 개발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전라북도 지역의 인구, 산업, 전라북도의 정책방향 등을 고려하여 1차로 세부지표를 개발하고, 세부지표의 적합성을 평가한 후 최종지표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 전라북도 주민들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추출

전라북도 주민들의 행복이 어디쯤 와있는지에 대한 연구를 2017년, 2020년 두차례에 걸쳐 조사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전라북도 주민의 행복의 변화 추이와 전라북도 행복의 우선순위를 분석하고, 분야별 정책적 시사점과 행복지표 공개, 행복영향평가, 전라북도 행복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실제 전라북도 주민의 행복에 어떤 요인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아 전라북도 주민들의 행

복정도는 파악할 수 있었으나 그 원인을 분석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최근 연구된 2편의 연구에서 한국인과 서울시민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종속변수는 행복으로 공통적이지만, 한국인의 행복과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밝히는 연구에서는 독립변수를 생활여건(경제적 특성, 개인적 특성, 사회적 관계, 사회참여, 제도적 조건)으로 설정하였고, 심리적 역량을 매개변수로, 인구학적 특성을 통제변수로 두고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한 행복요인 독립변수는 연령, 결혼, 성별 등과 같은 인구사회경제적 특징, 안전, 문화, 사회관계, 거주환경, 주관적 웰빙을 독립변수로 선정하였다. 이처럼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다양하기 때문에 2023 전북형 행복지표 조사에서는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는 요인들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를 기초로 행복영향 변수들을 최종 선정하고 선정된 변수들이 전라북도 주민들의 행복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 전북형 행복지표 조사결과 활용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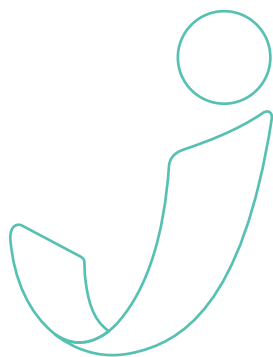
국내외에서 이루어진 행복지표관련 연구들의 공통적인 목적은 현재 국가,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행복정도를 파악하고 비교분석하여 현재 정책을 평가하고 새로운 정책을 개발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서는 조사된 행복지표를 어떻게 활용하고 정책과 연계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과 시범운영이 중요하다. 국내에서 실시된 지역별 행복지표관련 연구들은 현재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행복현황과 이를 타지역과 비교하여 지역주민들의 행복의 위치를 파악하고자 하는 연구목적은 달성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반면 행복지표 결과를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하고는 있으나 실제 정책과 연계시키는 방안 마련과 운영은 부족한 편이다. GDP와 같은 경제적 지표보다 행복을 국가의 가치로 언급하면서 행복지표발달에 기여한 부탄은 국민총행복위원회를 두고 행복지표를 정책을 선별하는 도구로 활용하고 모니터링하고 있다. 2017년 서울시에서 실시한 “서울형 행복지표 구축과 제도화 방안”연구에서는 행복 비전을 설정하고 정책의 수립, 집행, 평가과정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프레임워크를 개발하였다. 또한 행복지표를 활용한 행복 계획 수립과 이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구축을 제안하였다. 이와 같이 전북형 행복지표 조사결과를 전라북도 정책을 수립, 집행, 평가할 때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실제 운영을 위한 시범사업이 요구된다.



제 3장

2023 전북형 행복지표 구성체계

1. 전북형 행복지표 방향
2. 국내외 행복지표 구성체계
3. 사회적 이슈와 지역적 특수성
4. 2023 전북형 행복지표 체계



제 3 장 2023 전북형 행복지표 구성체계

1. 전북형 행복지표 방향

2023 전북형 행복지표체계 구성의 원칙은 어느 지역에서나 통용될 수 있는 보편성, 행복도의 측정을 통해 타시도와 행복정도를 비교할 수 있는 비교가능성, 시대적 특수성과 지역적 이슈를 반영한 지역특수성을 기준원칙으로 설정하였다.

보편성은 행복정도를 알 수 있는 측정가능한 지표에 관한 사항으로 UN, OECD 등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문제로 이미 타당성이 입증된 행복영향요인을 구성하는데 중요한 원칙이다. 비교가능성은 전라북도민의 행복현황이 분야별로 타시도에 비해 어느 수준에 와있으며 이를 통해 정책적으로 어떠한 방향을 설정해야 하는지를 가늠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지역성은 행복도를 측정하는 시대에 특수하게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반영되어야 하며 특히 지역적 특수성이 반영되어 지역고유성이 드러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그림 3-1] 2023 전북형 행복지표 방향설정

2. 국내외 행복지표 구성체계

해외와 타 시도 행복지표의 분야와 분야별 세부지표를 통해 행복도 측정을 위한 행복지표 구성체계를 고려해 볼 수 있다. 1차적으로 국내외 행복지표 중에서 공통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분야를 통해 가장 보편성을 가진 행복지표의 분야를 설정할 수 있다. UN, OECD, 영국, 서울시, 충청남도, 강원도의 행복지표 분야를 검토해 보면 소득, 건강, 교육, 공동체, 시민참여, 문화여가 등의 분야가 공통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3-1] 국내외 행복지표 영역비교

UN	OECD	영국	서울시	충청남도	강원도
소득	주거	가치	경제	주거 및 교통	경제
직업	소득	건강	주거	일자리·소득·소비	사회·복지
공동체	직업	가족 및 사회생활	일자리	가족 및 공동체	교육·문화
가치	공동체	직업	교육	교육	의료·보건
건강	교육	주거	환경	문화 및 여가	생활기반
가족관계	환경	소득	공동체	환경	환경
교육	시민참여	교육	시민참여	건강 및 보건	
성과 연령	건강	경제	건강	주민참여	
	삶의 만족	거버넌스	안전	주관적 웰빙	
	안전	환경	문화여가		
	일과 삶의 균형		생활만족도		

자료 : 김동영 외(2016).

세부적인 지표구성체계를 알기하기 위해서는 타 시도 행복지표의 분야와 세부지표를 검토해야 한다. 서울, 부산, 대전, 강원, 충북, 충남, 제주의 행복지표를 분야와 분야별 세부지표 검토를 통해 분야의 설정은 물론 분야별 측정가능한 세부지표의 현황이 시도별로 어떻게 다르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알 수 있다. 2023 전북형 행복지표 구성체계는 국내외 행복지표의 공통분야와 타시도 행복지표의 분야별 세부지표의 검토를 통해 보편성을 가진 지표를 추출하고 이를 반영할 예정이다.

[표 3-2] 타 시도 행복지표 체계 종합정리

분야	서울	부산	대전	강원	충북	충남	제주
경제	소득만족도	1인당 소득	소득만족도	경제적 보유 총족감	소득수준/1인당 소득	실질임금총액	경제활동참가율
	월 평균소득	생활물가지수	가처분가구소득	1인당 GRDP	소비수준/소득대비소비비중	여성경제활동 참가율	1인당 지방세
	경제활동인구			물가상승률	가계 부채율		
	사업다양성-사회적기업고용 지수			재정자립도	경제활동의 다양한 기회		
				경제적 능력 만족도			
근로	직업안정성-6개월간 고용상태	고용률	고용률	고용률	고용률	고용률	실업률
	직업만족	근로여건 만족도	일자리만족도	하고있는 일 만족도	비정규직 비중	일자리 만족도	
	실업률	상용근로자비율		평균근로시간	직장내 스트레스	비정규직 비중	
	근로시간	이직률		하고있는 일과 하고싶은 일의 일치	전반적 일자리 여건	비농가 실업률	
		산업재해 발생건수		급여, 근무환경 만족도		업무량 스트레스	
						여성실업률	
						성별 임금격차	
					직장내 인간관계 만족도		

<표 계속>

분야	서울	부산	대전	강원	충북	충남	제주
교육	교육만족도	평생교육시설 및 이용자 수	사교육비 지출 비율	평생교육기관 수	평생교육기반 조성 만족	평생교육 접근성	교원 1인당 학생수
	교육능력·정규교육받은기간	지역의 교육환경 만족도	학업성취도	교원 1인당 학생수	사교육 만족	계열 혹은 전공 만족도	7세이하 인구 1인당 유치원수
	교육정도:중고등교육이수율	평생교육 이용 만족도	평생교육 참여율	GRDP대비 교육예산 비율	학습내용 만족	교원 1인당 학생수	
		학교폭력 발생건수			1인당 장서 수	사교육비 및 사교육 효과성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			평균 교육연수	학습결과 만족도	
		영유아 대상 국공립 기관 비율			평생교육학습만족	학습내용 만족도	
		청소년의 생활만족도			대학진학율	1인당 장서 수	
		모바일 활용능력				학습시간	
						교사와의 관계	
						교우관계	
					고등교육 접근성		
					영유아교육 접근성		
					성적		
건강	주관적 건강상태	걷기 실천율	주관적 건강만족도	주관적 건강수준	주관적 건강수준	건강상태에 대한 주관적 평가	평균수명(기대수명)
	기대여명	건강검진율	기대수명	기대여명	기대수명	출생시 기대수명	
	정신건강-스트레스정도	복부비만율	스트레스인식도	의료인력 수	규칙적 운동 여부	스트레스에 대한 인식	
		임발생률		2주간 유병률	주요만성질환 사망률	주요 만성질환 사망률 (인구 천명당 중증 입환자 수)	
		의료서비스 만족도		음주율 및 흡연율	흡연율, 음주량	흡연율, 음주량	
					인구 천명당 의사수 혹은 병상수	인구 천명당 의사수 혹은 병상수	
				가족의 건강수준	의료비 본인부담률		

<표 계속>

분야	서울	부산	대전	강원	충북	충남	제주
문화 여가	문화환경 만족도	문화생활 만족도	문화여가활동만족도	문화기반시설 수	평균여가시간	문화여가활동만족도	축제 방문 경험
	문화생활 참여정도	1인당 문화예술행사 관람횟수	문화여가시간		국내외 관광	문화예술/스포츠관람여부	지정 등록 문화재 수
	수면시간	국내/해외 여행횟수	학생 수면시간		문화예술 시설 수	국내관광여행여부	
	일과 여가의 균형	1인당 스포츠레저 참여율	문화여가지출비율		문화 여가 관광여건	레저시설이용여부	
		여가생활 만족도	인터넷접근능력 만족도		문화유적, 공연 축제 충분성	지역자원파악	
		1인당 연간 독서량			공공체육 시설 수	해외여행 경험여부	
						지역자원(시설)변화 지역자원파악 지역자원활용여부	
사회 관계 공동 체	연결망-필요시 의지할 수 있는 관계여부	소통하는 이웃의 수	사회적관계망	자원봉사자 비율	자원봉사 참여율	사회적관계망	투표율
	자원봉사율	자원봉사 참여율	자원봉사참여시간	친구,동료관계 만족	사회단체 참여율	사회단체 참여율	
	사회적유대-편한 사람들과 식사시간	NGO활동 가입자 수	사회단체참여율		지역사회참여만족도	가까운 친구 수	
	이웃 신뢰	사회참여 만족도	사회적신뢰도		행정기관 신뢰 정보공개율	사회적 신뢰	
	공공 신뢰	사회적관계별 소통정도	지역사회소속감		친구, 동료관계 만족	지자체에 대한 신뢰 신뢰도, 정보공개율, 청렴도	
	공동체의식- 지역소속감	성평등지수	교우관계만족도		투표율	지역사회에 대한 소속감	
	계층 이동 가능성 사회적약자 배려		학교생활만족도 기부정도		도정의 주민소통 종교단체 신뢰 시민사회단체 신뢰 1인 가구	투표율 도정 만족도 주민참여 영향도 정책인지	

<표 계속>

분야	서울	부산	대전	강원	충북	충남	제주
안전 주거 교통 환경	폭행률	아동학대	범죄율	인구 천명당 공원조성면적	범죄발생건수	범죄발생건수	범죄율
	야간안전	장애인학대	아동학대피해 경험률	생활안전도	1인당 공원 및 녹지 조성면적	1인당 공원 및 녹지 조성면적	소방공무원 1인당 인구수
	대중교통만족도	노인학대	학교폭력발생률	주택가격상승률	주택환경만족도	주택환경만족도	인구 천명당 공원조성면적
	환경오염	녹지율	주거환경만족도	도로포장률	재해재난 안전성	사고위험으로부터 안전성	교통사고 발생률
	주거비	주거환경만족도	사회안전에 대한 인식도	상하수도보급률	대중교통.주차시설 만족도	교통사고 발생건수	화재발생률
	보행환경	사회안전에 대한 인식	대중교통이용만족도	1인당 임목 축적량	교통사고 발생건수	환경오염관련 질환 발생률	주택보급률
		대중교통이용만족도	교통사고 발생률		전반적 환경여건	생활폐기물 처리율	상하수도보급률
		노후상수관로비율	소득대비 주택 임대비		대기 및 수질오염	주변 청결상태	산림면적
		낙동강원수 수질기준 적합도	온실가스배출량		폐기물.쓰레기 배출량	건강위험	
		초미세먼지 고농도 연간 발생일수	체감환경만족도		생활폐기물 관리. 청결상태	수질만족도	
		해수욕장 수질기준 적합도	미세먼지농도		환경오염으로 인한 건강위협 가능성	하천수질	
		소음도	수질오염도		화재발생률	호소수질	
		공원접근성			주택보급률	교통시설 이용 편리성	
		공공임대주택비율			도로포장률	주택전세가격지수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비율			상하수도보급률		
		대중교통수송분담률			통근시간 만족		
		교통혼잡비용					
	안전사고 하루 사망자 수						
	보행환경만족도						

<표 계속>

분야	서울	부산	대전	강원	충북	충남	제주
복지		인권에 대한 시민의식	시민권보장에 대한 인식도	기초생활수급자비율		독거노인 비율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대상 비율	노인장기요양보호율	노인여가시설 수		소년소녀가장 비율	
		사회복지 공동모금액	연금수급률	복지예산비율		한부모 가구 비율	
		사회 각 분야별 차별 인지도		유아보육시설 수			
생활 만족 정서	주관적 웰빙-전반적 삶 만족도	삶의 만족도	전반적 삶의 만족도	자아존중감	자살률	전반적 삶의 만족도	자살률[건강]
	긍정적 감정	긍정·부정 정서	긍정적 정서경험			삶의 만족도 변화	
	부정적 감정	우울감 경험률	부정적 정서경험			긍정·부정 정서 만족도	
		자살률	하는 일에 대한 가치			미래에 대한 희망 정도	
가족 관계	가족 신뢰	가족과 함께하는 하루 평균시간	가족관계접촉빈도	가족생활 만족도	가족접촉빈도	가족접촉빈도	조이혼율
		가사활동 전담시간	가족관계 만족도	이혼율	노후준비[경제영역]	가족관계 만족도	
		노후생활자금 준비율			가족생활 만족도	가족갈등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부부생활 만족도	가족폭력	
		가족친화인증기업 수			가족원 관계 만족도	부정적 가족 전이	
		가족관계 만족도			이혼율	부정적 일가족 전이	
	가족부양 부담감						

자료 : 김동영 외(2020).

3. 사회적 이슈와 지역적 특수성

2016년 행복지표 체계 구성을 위한 원탁회의에서 전라북도민의 행복과 연관된 가장 중요한 요소로 고려된 첫 번째 분야는 가족, 두 번째는 사회적 관계였다. 가족과 연관된 단어는 가족의 건강, 가족과의 소통, 가족과의 여행, 출산 등이었으며 이는 가족의 행복과 나의 행복을 어느 정도 일치한 개념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두 번째로 많이 나온 단어는 사회관계였는데 세부적인 키워드로는 친구와의 만남, 친구의 배신, 친구와의 관계 등 사회적 관계의 만족도가 행복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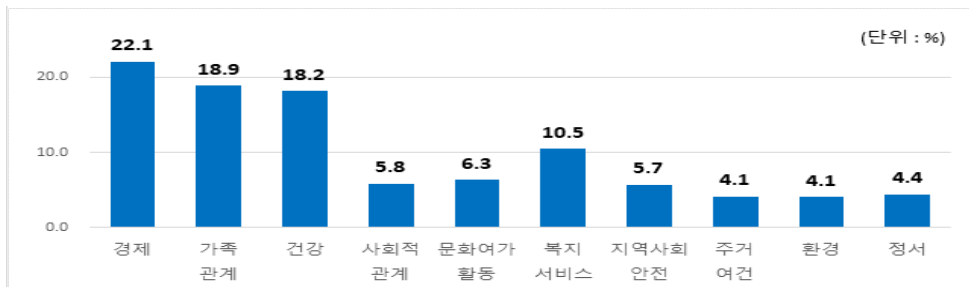
[그림 3-2] 가족관련 키워드

자료 : 김동영 외(2016).



[그림 3-3] 사회관계 키워드

2020년 행복지표조사에서 도민들의 행복도에서 중요한 분야에 대한 우선순위를 조사한 결과는 경제, 가족관계, 건강 순이었다.



[그림 3-4] 2020 행복지표 영역별 중요도

자료 : 김동영 외(2020).

2023년 행복지표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변화가 될 것이라고 본다. 2020년 행복지표 조사는 코로나19가 시작되는 해로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영향이 크지 않았지만 2023년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변화를 경험했고 그 결과가 고스란히 경험적으로 남아있는 상황이다. 강제적 비대면사회의 도래로 인한 사회적 관계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었고 이러한 현상이 사회 곳곳에 남아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이번 2023 전라북도 행복지표에도 고스란히 반영될 것이라고 판단된다. 이를 위해 코로나19의 사회적 변화를 반영할 수 있는 행복지표의 새로운 지표개발이 필요한 상황이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현상 중 하나는 고립감과 외로움이라고 생각된다. 우리나라는 OECD가입 국가 중 고령화사회 1위, 노인 자살률 1위, 혼인율과 출산율은 최하위이며 고독사가 매년 1만명을 넘어서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현상이 코로나19와 만나면서 사회적 고립이 커다란 문제로 등장하고 있다. 사회적 고립과 외로움에 영향을 주는 대표적인 지표는 1인 가구의 증가다. 전라북도는 2000년 대비 2020년 1인가구가 105가구에서 255가구로 2배 이상 증가했다.

[표 3-3] 전북 가구원수별 규모 및 비중

(단위: 천 가구, %)

구분	2000		2005		2010		2015		2020		
	가구수	비율	가구수	비율	가구수	비율	가구수	비율	가구수	비율	
전북	합계	602	100.0	620	100.0	660	100.0	717	100.0	756	100.0
	1인	105	17.4	137	22.1	175	26.5	214	29.8	255	33.8
	2인	141	23.5	165	26.6	186	28.2	209	29.1	233	30.9
	3인	113	18.7	115	18.5	120	18.2	136	18.9	134	17.8
	4인	152	25.3	136	21.9	121	18.4	110	15.4	97	12.8
	5인 이상	91	15.1	68	11.0	57	8.7	49	6.8	36	4.7

주. 집단가구, 외국인가구 제외.

자료 : 통계청(www.kosis.kr/). 재구성.

2023년 전라북도 행복지표는 코로나19라는 사회적 특수성이 어떻게 도민의 행복도에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반영할 수 있도록 지표개발이 필요하며, 전라북도민이 특히 행복에 영향을 주는 요소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가족관계의 반영 또한 행복지표체계 구성에 중요한 반영요소가 되어야 할 것이다.

4. 2023 전북형 행복지표 체계

2023 전북형 행복지표는 정서적 행복감, 경제, 사회적 관계, 가족, 문화여가, 건강, 복지, 안전, 환경, 주거, 교육 11개 분야로 구성하였다. 2020년과 가장 큰 차이는 교육 분야가 새롭게 추가되었다는 것이다. 타 시도 행복지표에 교육 분야가 독립적으로 구성되어 있음에도 전북행복지표에 교육 분야가 문화여가와 사회적 관계에 부분적으로 포함되어 있어 별도의 항목이 필요하다는 연구진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다.

2023 전북형행복지표의 두 번째 특징은 기존 지표가 통계지표와 설문조사를 통한 현황조사 지표가 구분없이 혼재되어 있었던 반면 이번에는 명확하게 구분하고자 하였다. 이는 통계청에서 조사한 결과값과 연구진의 조사값의 차이가 분명하여 비교불가능함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동시에 전북의 시대적 특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구분하고자 한데 기 인한다.

타 시도 행복지표와 다른 전북만의 지역성과 특성을 가진 지표는 가족을 단독적인 행복분야로 설정했다는 것이다. 2016년 원탁회의 결과 전북도민 행복도에 미치는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분야로 가족이 선정되었고 가족은 2017년과 2020년 조사에서도 항상 행복요인에서 두 번째로 중요한 분야로 뽑히고 있다. 오랫동안 농업공동체성을 유지했던 전북의 특성이 가족의 중요성과 행복감을 연계시키는 특성으로 반영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추측하고 있다.

[표 3-4] 2023 전북형 행복지표 체계

2020년 전라북도 행복지표				2023년 전라북도 행복지표			
분야	주관적 지표	객관적 지표	비교지표	분야	통계지표		현황조사
					주관적 지표	객관적 지표	
정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관적인 행복감 나의 가치에 대한 평가 나의 미래에 대한 희망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관적 만족감 	정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행복정도 나의가치 미래에 대한 희망
경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용안정성 소득만족도 직업만족도 좋은 일자리 인식 주관적 소득수준 계층의식 계층이동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구소득 및 가계부채 소비자 물가지수 고용률 및 실업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행복위한 소득수준 	경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용안정성 소득만족도 직업만족도 좋은 일자리 인식 주관적 소득수준 계층의식 계층이동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구소득 및 가계부채 소비자 물가지수 고용률 및 실업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용안정성 소득만족도 직업만족도

2020년 전라북도 행복지표				2023년 전라북도 행복지표			
분야	주관적 지표	객관적 지표	비교지표	분야	통계지표		현황조사
					주관적 지표	객관적 지표	
사회적 관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려울 때 도움제공 지인 ◦ 전북도민으로서의 자긍심 ◦ 이웃에 대한 신뢰도 ◦ 직장동료관계 만족도 ◦ 친구관계 만족도 ◦ 학교생활 만족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원봉사 참여율 ◦ 부모부양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려울 때 도움제공 지인 	사회적 관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려울 때 도움제공 지인 ◦ 전북도민으로서의 자긍심 ◦ 이웃에 대한 신뢰도 ◦ 직장동료관계 만족도 ◦ 친구관계 만족도 ◦ 학교생활 만족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원봉사 참여율 ◦ 부모부양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려울 때 도움제공 지인 ◦ 이웃에 대한 신뢰
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족관계만족도 ◦ 가족접촉빈도 ◦ 가족의 건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족과 함께하는 여가활동 ◦ 부모와의 교류 정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복한 가족과의 시간 	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족관계만족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족과 함께하는 여가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족관계 ◦ 가족과의 접촉 ◦ 가족의 건강
문화여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여가활동 만족도 ◦ 일과 여가의 균형 ◦ 여행 만족도 ◦ 문화여가시설 만족도 ◦ 예술행사 만족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가활동 정도 ◦ 문화예술 및 스포츠관람 ◦ 문화여가시설 수 ◦ 문화여가비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가활동 정도 	문화여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여가활동 만족도 ◦ 일과 여가의 균형 ◦ 문화여가시설 만족도 ◦ 예술행사 만족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가활동 빈도 ◦ 문화예술 및 스포츠관람 ◦ 문화여가시설 수 ◦ 문화여가비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여가활동 ◦ 일과 여가의 균형 ◦ 문화시설 및 혜택
건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강만족도 ◦ 스트레스정도 ◦ 일주일 운동시간 ◦ 의료서비스 만족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음주 및 흡연상태 ◦ 건강관리실천 ◦ 의료시설 수 ◦ 의료서비스 이용률 ◦ 규칙적 체육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강관리 위한 체육활동 	건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강만족도 ◦ 스트레스정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강관리실천 ◦ 의료시설 수 ◦ 의료서비스 이용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강만족도 ◦ 스트레스 관리정도 ◦ 의료서비스만족도
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보장 만족도 ◦ 노후준비정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살충동정도(자살률) ◦ 복지서비스만족도 (삼만명당 복지시설 수) ◦ 보육시설만족도 (유아 천명당 보육시설 수) ◦ 노인복지서비스만족도 (노인 천명당 노인시설 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보장 만족도 	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보장 만족도 ◦ 노후준비정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살충동정도(자살률) ◦ 복지서비스만족도 ◦ 보육시설만족도 ◦ 노인복지서비스만족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복지시설 만족도 ◦ 사회보장 만족도 ◦ 노후준비정도
안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죄로부터의 안전만족도 ◦ 재해재난으로부터의 안전성 ◦ 안전시설에 대한 만족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죄, 재해재난 안전도 ◦ 지역안전등급 ◦ 범죄 검거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안전만족도 	안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죄로부터의 안전만족도 ◦ 재해재난으로부터의 안전성 ◦ 안전시설에 대한 만족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죄 안전등급 ◦ 지역안전등급 ◦ 범죄 검거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죄로부터 안전 ◦ 재해재난으로부터 안전 ◦ 안전시설
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원/녹지공간 접근만족도 ◦ 환경에 대한 만족도 ◦ 현재 체감환경만족도 ◦ 환경문제인식 불안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활폐기물에 대한 청결도 ◦ 미세먼지 줄임 정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복한 미세먼지상태 	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원/녹지공간 접근만족도 ◦ 환경에 대한 만족도 ◦ 현재 체감환경만족도 ◦ 환경문제인식 불안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활폐기물에 대한 청결도 ◦ 미세먼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원및녹지 접근성 ◦ 대기만족도 ◦ 생활폐기물 처리
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 집 마련의 가능성 ◦ 주거환경 만족도 ◦ 주택만족도 ◦ 이웃과의 소통 정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가격지수 ◦ 대중교통접근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거환경만족도 	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거환경 만족도 ◦ 주택만족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중교통접근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집마련의 가능성 ◦ 주거환경 ◦ 주거비용
-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생활만족도 ◦ 교우관계만족도 ◦ 교사와의 관계만족도 ◦ 교육기회충족도 ◦ 교육비부담인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개수 ◦ 대학개수 ◦ 평생학습참여율 ◦ 문해능력수준별인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시설 ◦ 교육비용 ◦ 교육의 질



제4장

2023 전라북도 행복현황

1. 전북도민 행복조사
2. 통계지표
3. 2017년-2023년 분야별 행복감 변화
4. 전북도민의 행복 영향 요인



제 4 장 2023년 전라북도 행복현황

1. 전북도민 행복조사

가. 조사개요

1) 조사설계 및 분석 방법

전북도민 행복조사는 2017년에 개발하여 1차 조사를 실시하였고, 행복지표 개선을 위해 2020년형 행복지표를 통해 2차 조사를 실시하였다. 2023년에는 2020년형 전북 행복지표에 기초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전북도민의 행복의 우선순위와 현재 도민의 주관적 행복수준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본 조사는 2023년 1월 30일부터 2월 17일까지 14개 시군의 만 18세 이상 지역주민 1,000명을 대상으로 온오프라인 조사를 실시하였다. 2023년 1월 30일부터 2월 5일까지 전북연구원 도민 행복정책 모니터링단을 대상으로 1단계 온라인 조사를 통해 454명을 조사하였고, (주)지알아이리서치를 통해 14개 시군별 부족한 쿼터에 대한 온·오프라인 조사를 실시하여 온라인 179명 오프라인 367명을 조사하였다. 표본은 14개 시군, 연령, 성 등 3단계 할당표집방법을 이용하여 조사하였다.

[표 4-1] 조사 설계

구분	내용
조사기간	2023년 1월 30일(월) ~ 2023년 2월 17일(금)
조사대상	전라북도 14개 시·군 만 18세 이상 지역주민
표본수	총 1,000명
조사방법	온·오프라인 조사
표본추출방법	할당표집방법(Quota Sampling Metho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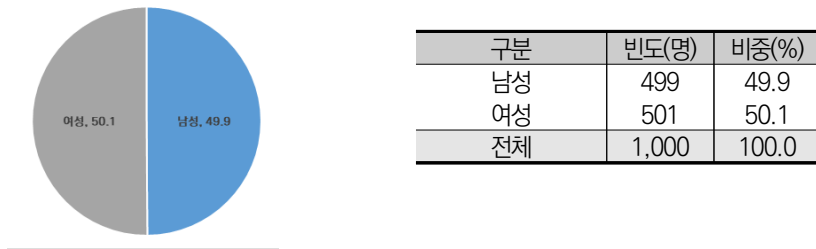
전북도민 행복조사 내용은 조사대상자의 일반사항, 행복정도, 행복지표 영역, 행복도 현황 등으로 구성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일반사항에는 성별, 거주 지역, 연령대, 혼인상태, 가구소득, 개인 월 소득 등이며, 행복정도에는 주관적 행복감, 자기평가(나의 가치, 미래에 대한 희망), 세부항목별 행복 정도 등의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주관적 행복감 외에 행복지표 영역별 중요도, 행복지표 영역 세부지표별 중요도 및 만족도 등을 조사하였다.

[표 4-2] 설문조사 항목 및 내용

조사 항목	조사 내용
설문 일반사항	- 거주지역, 소재지역, 성별, 연령대, 혼인상태, 가구소득
행복정도	- 주관적 행복감(과거, 현재, 미래), 도움지인 수, 상황별 도움지인 여부, 주관적 만족감(10개 사항)
행복지표 영역	- 행복지표 영역별 중요도, 행복지표 세부영역별 중요도(경제, 가족관계, 건강, 사회적 관계, 문화여가활동, 복지서비스, 지역사회안전, 주거여건, 환경, 교육)
행복도 현황	- 행복 위한 가족과 보내는 시간, 체육활동 정도, 여가활동 정도, 자원봉사 활동시간, 주택 면적 등

2) 응답자 일반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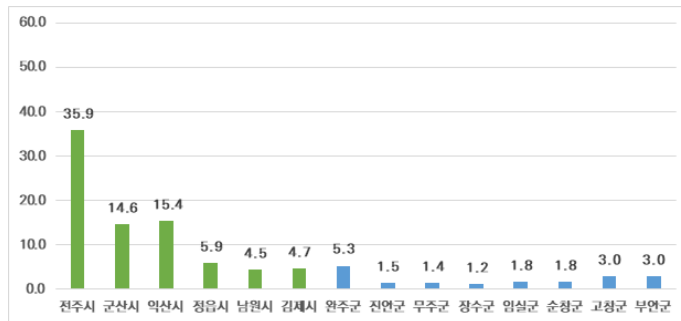
전북도민 행복조사에 참여한 응답자들의 일반 특성을 보면, 성별에 따라서는 남성 499명(49.9%), 여성 501명(50.1%)으로 유사한 비율로 조사되었다.



[그림 4-1] 응답자 성별 분포

거주지역별 분포를 보면 전주시에 거주하는 응답자가 35.9%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익산시 15.4%, 군산시 14.6%, 정읍시 5.9%, 완주군 5.3% 등 순으로 많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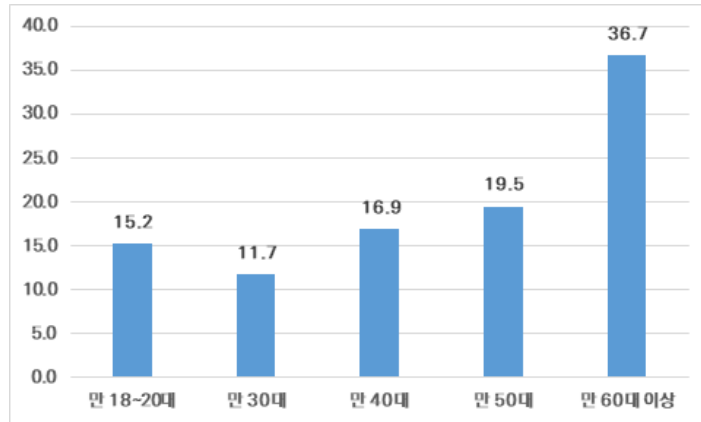
(단위: %)



[그림 4-2] 응답자 거주지역 분포

연령별 분포를 보면 만 60대 이상이 36.7%, 만 50대 19.5%, 만 40대 16.9%, 만 18~20대 15.2%, 만 30대 11.7% 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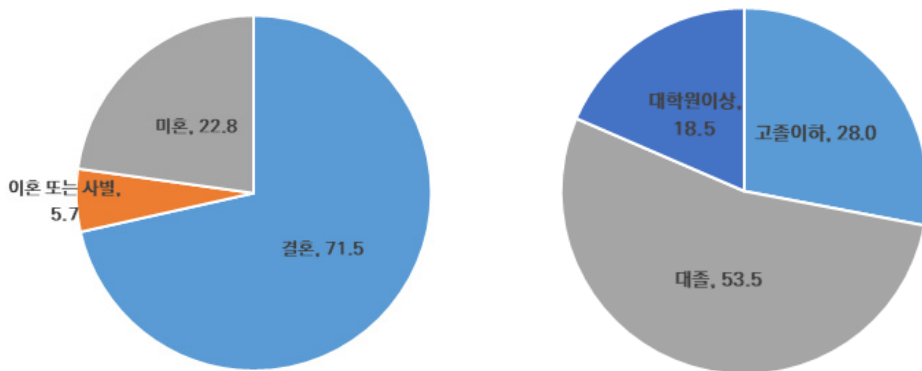
(단위: %)



[그림 4-3] 응답자 연령별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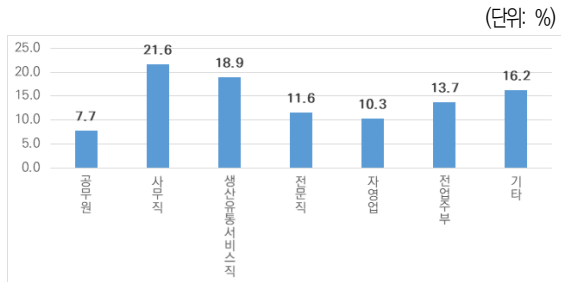
혼인상태별 분포를 보면 결혼 71.5%, 미혼 22.8%, 이혼 또는 사별 5.7% 순으로 분포하였다. 응답자의 학력은 대졸 53.5%, 고졸이하 28.0%, 대학원 이상 18.5% 순으로 분포하였다.

(단위: %)



[그림 4-4] 응답자의 혼인상태 및 학력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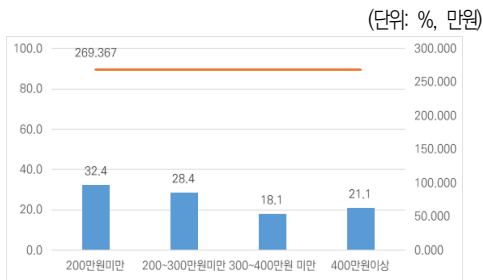
응답자의 직업은 사무직(21.6%)이 가장 많았고, 생산유통서비스직(18.9%), 기타(16.2%), 전업주부(13.7%), 전문직(11.6%) 등 순으로 나타났다.



구분	빈도(명)	비중(%)
공무원	77	7.7
사무직	216	21.6
생산유통서비스직	189	18.9
전문직 (교육, 의사 등)	116	11.6
자영업	103	10.3
전업주부	137	13.7
기타	162	16.2
전체	1000	100.0

[그림 4-5] 응답자의 직업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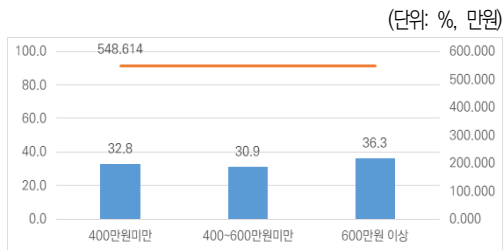
응답자의 개인 월소득은 평균 269.367만원으로 나타났다. 이를 구간별로 보면 200만원 미만 324명(32.4%), 200~300만원 미만 284명(28.4%), 400만원 이상 211명(21.1%), 300~400만원 미만 181명(18.1%) 순으로 나타났다.



구분	빈도(명)	비중(%)
200만원미만	324	32.4
200~300만원미만	284	28.4
300~400만원 미만	181	18.1
400만원이상	211	21.1
평균	269.367만원	
전체	1000	100.0

[그림 4-6] 응답자의 개인 월 소득 분포

응답자의 가구 월 소득은 평균 548.614만원으로 나타났고, 구간별로 보면 600만원 이상 363명(36.3%), 400만원 미만 328명(32.8%), 400~600만원 미만(30.9%) 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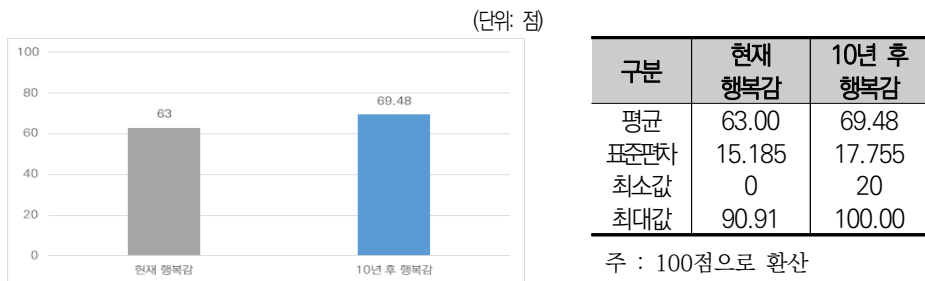
구분	빈도(명)	비중(%)
400만원미만	328	32.8
400~600만원미만	309	30.9
600만원 이상	363	36.3
평균	548.614만원	
전체	1000	100.0

[그림 4-7] 응답자의 가구 월 소득 분포

나. 전북도민 행복조사 분석 결과

1) 정서

전북도민의 행복정도를 현재 행복감과 10년 후 행복감으로 조사한 결과, 2023년 현재 행복감은 63.00점으로 보통 이상으로 나타났다. 10년 후 행복감에 대해서는 69.48점으로 현재 행복감보다 6.48점 높게 나타나,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8] 전북도민의 행복정도

전라북도의 현재 행복감을 인구학적 특성에 따라서 살펴보면, 먼저 성별에 따라서는 남성이 63.47점으로 여성(62.53점)보다 높게 나타났고, 10년 후 행복감도 남성(69.74점)이 여성(69.22점)보다 높게 나타났다. 연령에 따라서는 현재 행복감이 50대(64.62점)가 가장 높고 이어서 18~20대(63.22점), 60대 이상(62.92점), 40대(62.56점), 30대(60.92점) 순으로 나타났다. 10년 후 행복감은 40대(75.74점)가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30대(73.33점), 18~20대(72.89점), 50대(71.49점), 60대 이상(62.89점) 순으로 나타나 연령에 따라서는 현재행복감과 10년 후 행복에 대한 기대가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연령별 10년 후 행복감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F=23,197, p<.001$), 60대 이상의 10년 후 행복감은 다른 연령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 월 소득에 따른 도민의 주관적 행복감을 분석한 결과 현재 행복감은 400만원 이상(65.92점), 300~400만원 미만(64.79점), 200~300만원 미만(62.48점), 200만원 미만(60.55점) 순으로 높게 나타났고,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F=6.464, p<.001$). 사후검증(scheffe) 결과 개인 월소득이 200만원 이하의 현재 행복감이 다른 소득집단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개인 월 소득에 따른 10년 후 행복감은 300~400만원 미만(71.93점), 400만원 이상(70.71점), 200~300만원 미만(70.56점), 200만원 미만(66.36점) 순으로 나타났고,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5.248, p<.01$).

가구원수에 따른 현재 행복감을 분석한 결과, 4인 가구 이상(64.84점), 2인 가구(64.23점), 3인가구(62.79점), 1인 가구(57.06) 순으로 나타났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F=8.778, p<.001$). 사후검증결과 1인 가구의 현재 행복감이 다른 집단에 비해 낮았고, 10년 후 행복감은 4인 가구 이상(73.82점), 3인 가구(68.77점), 2인 가구(68.10점), 1인 가구(65.08점) 순으로 나타났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F=9.028, p<.001$). 사후검증(scheffe) 결과 4인 가구 이상의 10년 후 행복감이 다른 집단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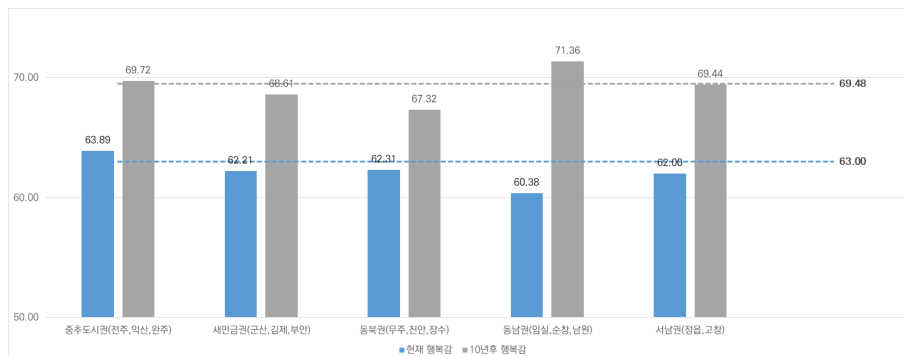
[표 4-3] 도민 특성별 현재 와 10년 후 행복감

구분		현재 행복감			10년 후 행복감		
		평균	t/F	사후검증	평균	t/F	사후검증
성별	남	63.47	.982		69.74	.461	
	여	62.53			69.22		
연령	18~20대(a)	63.22	1.149		72.89	23.197***	e<d,a,b,c
	30대(b)	60.92			73.33		
	40대(c)	62.56			75.74		
	50대(d)	64.62			71.49		
	60대 이상(e)	62.92			62.89		
개인 월소득	200만원미만(a)	60.55	6.466***	a<c,d	66.36	5.248**	a<c
	200~300만원미만(b)	62.48			70.56		
	300~400만원 미만(c)	64.79			71.93		
	400만원이상(d)	65.92			70.71		
가구원수	1인 가구(a)	57.06	8.778***	a<c,b,d	65.08	9.028***	a,b,c<d
	2인 가구(b)	64.23			68.10		
	3인 가구(c)	62.79			68.77		
	4인 가구 이상(d)	64.84			73.82		
지역	중추도시권(전주,익산,완주)	63.89	1.362		69.72	.537	
	새만금권(군산,김제,부안)	62.21			68.61		
	동북권(무주,진안,장수)	62.31			67.32		
	동남권(임실,순창,남원)	60.38			71.36		
	서남권(정읍,고창)	62.00			69.44		

** $p<.01$, *** $p<.001$

전라북도 지역에 따른 현재 행복감과 10년 후 행복감을 분석한 결과, 현재 행복감이 가장 높은 지역은 중추도시권(63.89점)이었고, 이어서 동북권(62.31점), 새만금권(62.21점), 서남권(62.00점), 동남권(60.38점)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에 따른 10년 후 행복감이 가장 높은 지역은 동남권(71.36점)으로 나타났고 중추도시권(69.72점), 서남권(69.44점), 새만금권(68.61점) 등 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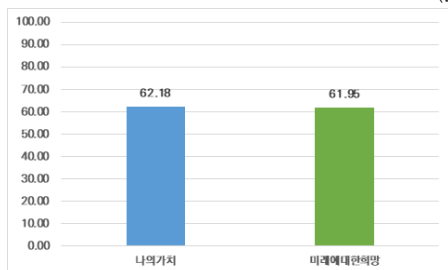
(단위: 점)



[그림 4-9] 지역별 현재 행복감과 10년 후 행복감

전북도민의 나의 가치에 대한 주관적 평가와 나의 미래에 대한 희망정도를 살펴보면 나의 가치는 62.18점으로 보통보다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고, 나의 미래에 대한 희망정도는 61.95점으로 나타나, 자신의 가치보다 미래에 대한 희망이 낮은 수준으로 분석되었다.

(단위: 점)



구분	나의가치	미래에 대한 희망
평균	62.18	61.95
표준편차	15.906	16.848
최소값	0	0
최대값	90.91	90.91

주 : 100점 만점 기준, 100점으로 환산

[그림 4-10] 도민의 자기에 대한 평가

전북도민 특성별 나의 가치를 살펴보면 성별에 따라서 남성 62.91점, 여성 61.46점으로 나타났고, 연령에 따라서는 60대 이상이 59.70점으로 가장 낮았고, 40대가 65.84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F=6.514, p<.001$). 개인월소득에 따른 나의 가치는 400만원 이상이 68.42점으로 가장 높았고, 이어서 300~400만원 미만(64.29점), 200~300만원미만(61.04점), 200만원 미만(57.94점)으로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21.255, p<.001$). 사후검증(scheffe) 결과 200만원 미만, 300~400만원 미만, 400만원 이상 집단의 나의 가치에서 차이를 보였다. 지역에 따라서는 동남권(64.20점)의 나의 가치가 가장 높았고 이어서 증추도시권(62.77점), 서남권(61.49점) 등 순으로 나타났다.

전북도민 특성별 미래에 대한 희망을 살펴보면 성별에 따라서는 남성(62.96점)이 여성(60.93점)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연령에 따른 미래에 대한 희망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F=12.801 $p<.001$), 사후검증 결과 60대 이상(59.70점)이 다른 집단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개인월소득에 따라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F=16,641, $p<.001$), 사후검증결과 200만원 미만(57.94점)이 다른 집단에 비해 미래에 대한 희망이 낮았다. 가구원수에 따라서는 4인 가구 이상이 64.74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2인 가구(61.48점), 3인 가구(61.22점), 1인 가구(56.87점) 순으로 나타났고,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F=4.235, $p<.01$). 사후검증 결과 1인 가구보다 4인 가구 이상의 미래에 대한 희망이 높게 나타났다. 지역에 따른 미래에 대한 희망은 중추도시권(62.69점), 서남권(62.61점), 동남권(61.62점), 새만금권(60.42점), 동북권(59.20점) 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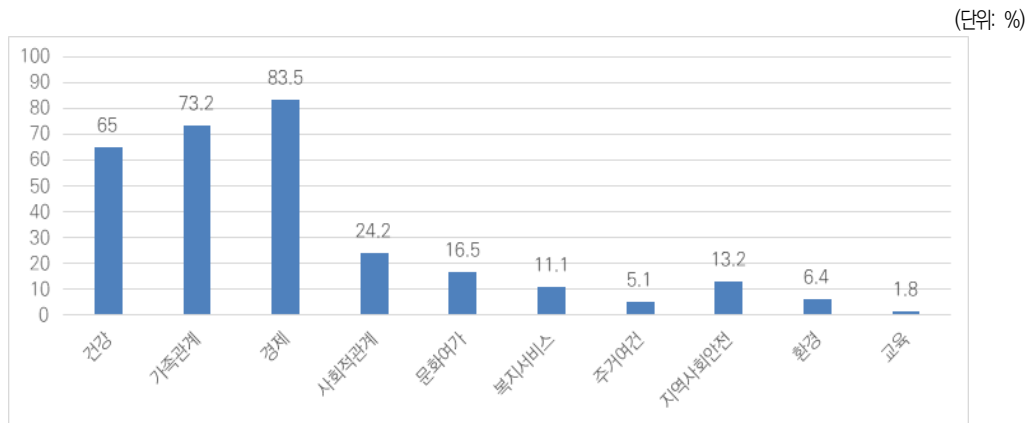
[표 4-4] 도민 특성별 나의 가치와 미래에 대한 희망

구분		나의 가치			미래에 대한 희망		
		평균	t/F	사후검증	평균	t/F	사후검증
성별	남	62.91	1.441		62.96	1.907	
	여	61.46			60.93		
연령	18~20대(a)	61.30	6.514***	e<d,c	65.37	12.801***	e<d,b,c,a
	30대(b)	60.99			64.57		
	40대(c)	65.84			65.30		
	50대(d)	65.08			63.92		
	60대 이상(e)	59.70			57.10		
개인 월소득	200만원미만(a)	57.94	21.255***	a<c<d	56.87	16.641***	a<b,c,d
	200~300만원미만(b)	61.04			62.90		
	300~400만원 미만(c)	64.29			64.79		
	400만원이상(d)	68.42			66.01		
가구원수	1인 가구(a)	59.72	3.422*	a<d	58.88	4.235**	a<d
	2인 가구(b)	61.65			61.48		
	3인 가구(c)	61.59			61.22		
	4인 가구 이상(d)	64.61			64.74		
지역	중추도시권(전주,익산,완주)	62.77	1.305		62.69	1.050	
	새만금권(군산,김제,부안)	60.70			60.42		
	동북권(무주,진안,장수)	59.65			59.20		
	동남권(임실,순창,남원)	64.20			61.62		
	서남권(정읍,고창)	61.49			62.61		

* $p<.05$, ** $p<.01$, ***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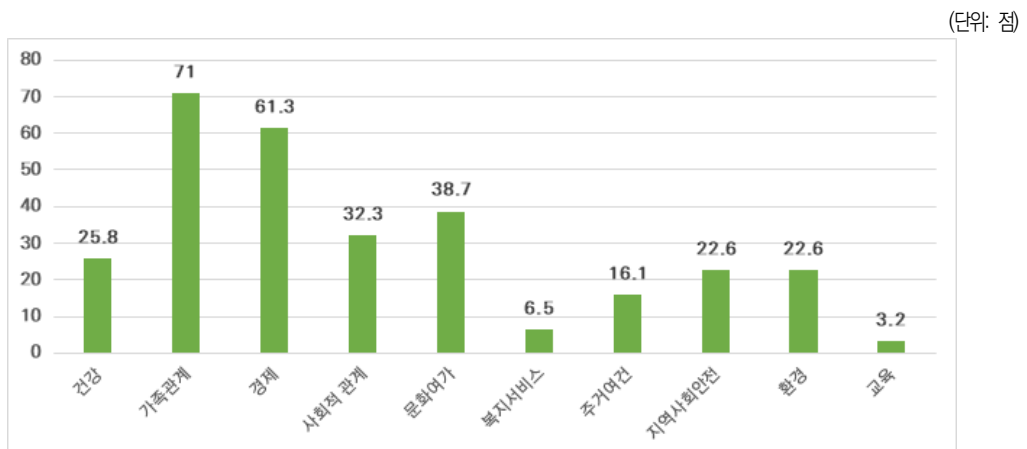
2) 행복영역별 중요도 및 만족도

전북 도민이 인식하는 행복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3순위 종합)은 1순위 경제(83.5%), 2순위 가족관계(73.2%), 3순위 건강(65.0%) 등 순으로 9순위는 주거여건(5.1%), 10순위는 교육(1.8%)으로 나타났다.



[그림 4-11] 행복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종합)

전북도민의 현재 가장 만족하는 분야는 1순위 가족관계(71.0%), 2순위 경제(61.3%), 3순위 문화여가(38.7%) 등 순이었고 8순위 주거여건(16.1%), 9순위 복지서비스(6.5%), 10순위 교육(3.2%)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4-12] 현재 가장 만족하는 분야(전체)

전북도민 특성별로 행복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을 살펴보면, 성별에 따라서 남성과 여성 모두 1순위가 경제, 2순위 가족관계, 3순위 건강으로 나타났다. 연령에 따라서는 18~20대는 1순위 경제, 2순위 건강, 3순위 가족관계로 나타났고, 30대에서 60대 이상은 모두 1순위 경제, 2순위 가족관계, 3순위 건강으로 나타났다. 전북도민의 개인월소득, 가구원수, 지역, 직업 등에 따라서도 비율은 다르지만 1순위 경제, 2순위 가족관계, 3순위 건강으로 동일하게 분석되었다.

전북도민 특성별로 행복에서 가장 중요하지 않은 요인(10순위)은 대부분 교육으로 나타났다.

[표 4-5] 도민 특성별 행복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종합)

(단위: %)

구분		건강	가족관계	경제	사회적관계	문화여가	복지서비스	주거여건	지역사회안전	환경	교육
성별	남	63.5	71.9	82.6	26.1	18.2	12.4	5.2	12.2	6.0	1.8
	여	66.5	74.5	84.4	22.4	14.8	9.8	5.0	14.2	6.8	1.8
연령	18~20대	68.4	61.2	69.1	30.9	30.9	9.9	6.6	12.5	9.2	1.3
	30대	66.7	76.1	80.3	23.1	19.7	6.8	4.3	19.7	1.7	1.7
	40대	69.2	75.7	83.4	18.3	10.7	13.6	3.6	14.8	6.5	4.1
	50대	67.7	72.8	90.8	22.1	17.9	6.7	5.6	8.7	5.1	2.6
	60대 이상	59.7	76.3	86.6	25.6	11.4	14.2	5.2	13.1	7.4	0.5
개인월소득	200만원미만	62.3	70.4	83.6	23.5	13.3	14.8	5.9	13.9	10.2	2.2
	200~300만원미만	62.7	73.6	79.9	25.0	22.2	12.7	4.6	14.4	4.6	0.4
	300~400만원 미만	68.5	74.6	84.0	26.5	14.4	6.6	5.5	14.4	3.9	1.7
	400만원이상	69.2	75.8	87.7	22.3	15.6	7.1	4.3	9.5	5.2	3.3
가구원수	1인 가구	63.1	63.8	80.0	26.2	17.7	14.6	6.9	15.4	9.2	3.1
	2인 가구	61.3	75.5	85.8	27.7	13.5	10.2	4.0	15.0	5.8	1.1
	3인 가구	63.9	72.5	82.4	26.2	18.8	11.4	6.2	10.8	6.2	1.5
	4인 가구 이상	71.0	76.1	84.2	17.3	16.2	9.9	4.0	13.2	5.9	2.2
지역	중추도시권(전주, 익산, 완주)	66.8	73.3	84.1	24.7	16.1	9.5	4.6	12.7	6.2	1.9
	새만금권(군산, 김제, 부안)	65.9	73.5	80.7	23.8	16.1	13.9	5.4	13.9	4.9	1.8
	동북권(무주, 진안, 장수)	63.4	73.2	80.5	22.0	12.2	17.1	4.9	14.6	12.2	0.0
	동남권(임실, 순창, 남원)	55.6	72.8	87.7	24.7	19.8	11.1	3.7	16.0	7.4	1.2
	서남권(정읍, 고창)	60.7	71.9	84.3	22.5	19.1	11.2	9.0	11.2	7.9	2.2
직업	공무원	66.2	81.8	84.4	23.4	15.6	11.7	2.6	13.0	0.0	1.3
	사무직	63.9	74.1	83.3	24.5	22.7	6.5	4.6	13.9	5.1	1.4
	생산유통서비스직	68.3	68.8	81.0	22.8	18.5	13.8	4.8	13.2	6.9	2.1
	전문직(교육, 의사등)	64.7	76.7	87.1	26.7	14.7	5.2	7.8	7.8	4.3	5.2
	자영업	66.0	75.7	85.4	27.2	9.7	9.7	4.9	16.5	4.9	0.0
	전업주부	61.3	76.6	83.2	20.4	12.4	13.9	2.9	16.8	10.9	1.5
	기타	64.8	66.0	82.7	25.3	15.4	16.7	7.4	11.1	9.3	1.2
전체	빈도(명)	650	732	835	242	165	111	51	132	64	18
	비율(%)	65.0	73.2	83.5	24.2	16.5	11.1	5.1	13.2	6.4	1.8

전북도민 특성별로 행복에서 가장 만족하는 분야는 대부분 1순위 가족관계, 2순위 경제로 유사하게 나타났다. 다만 연령에 따라서 18~20대는 1순위 경제, 2순위 가족관계로 다르게 나타났고, 지역에 따라서 동북권은 1순위 가족관계, 2순위 사회적 관계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민 특성별 행복에서 가장 만족하는 분야 3순위는 연령에 따라서는 18~20대에서 40대까지는 사회적 관계, 50대 이상은 건강으로 나타났다. 개인 월 소득에 따라서는 200만원미만에서 300만원 미만은 사회적 관계, 300만원 이상부터는 건강에 만족하고 있었다. 지역에 따라서는 중추도시권, 동남권, 서남권은 사회적 관계, 새만금권은 건강, 동북권은 경제에 대해 3번째로 만족하였다. 직업 별로는 전업주부와 자영업자는 건강, 그 외 직업군은 사회적 관계에 대해 3순위로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6] 도민 특성별 행복에서 가장 만족하는 분야(종합)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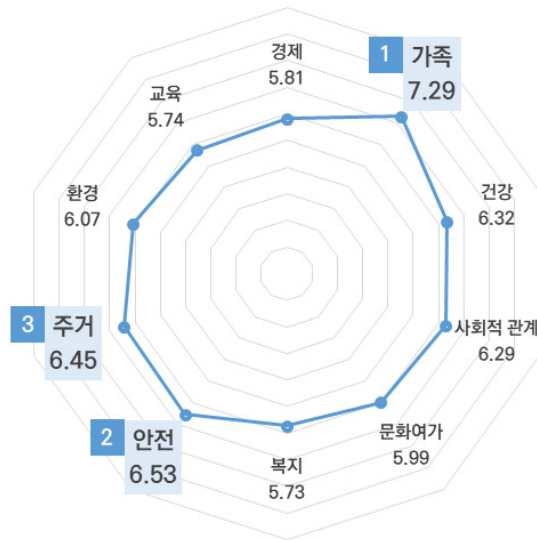
구분		건강	가족 관계	경제	사회적 관계	문화 여가	복지 서비스	주거 여건	지역 사회 안전	환경	교육
성별	남	36.1	71.3	60.3	38.9	21.0	10.4	14.4	30.9	12.4	4.0
	여	35.1	71.7	55.9	36.7	20.4	12.4	18.4	30.5	14.0	4.8
연령	18~20대	27.0	61.8	72.4	44.1	24.3	7.9	16.4	30.3	12.5	3.3
	30대	25.6	75.2	61.5	36.8	21.4	8.5	23.1	30.8	10.3	6.8
	40대	28.4	74.0	53.8	42.0	16.6	10.7	18.3	34.3	14.8	7.1
	50대	36.4	72.3	60.5	31.8	23.1	9.7	15.9	31.8	11.3	6.7
	60대 이상	45.2	72.8	51.8	36.8	19.6	15.0	13.6	28.6	14.7	1.6
개인 월소득	200만원미만	33.3	72.8	53.7	35.2	23.1	18.2	17.0	27.8	15.1	3.1
	200~300만원미만	31.7	67.6	61.3	41.2	19.0	9.9	16.5	34.5	15.8	2.5
	300~400만원 미만	38.7	74.0	59.7	32.6	23.8	8.3	17.1	29.3	11.0	5.5
	400만원이상	41.7	72.5	59.2	41.7	16.6	5.7	14.7	31.3	8.5	8.1
가구원수	1인 가구	28.5	62.3	59.2	46.2	21.5	10.8	22.3	28.5	14.6	6.2
	2인 가구	44.9	74.8	53.3	32.1	23.4	12.8	13.5	30.3	12.4	2.2
	3인 가구	34.0	70.1	55.6	41.7	21.9	10.8	15.4	29.9	16.7	3.7
	4인 가구 이상	31.6	74.3	65.4	34.9	16.2	11.0	17.6	33.1	9.2	6.6
지역	중추도시권(전주, 익산, 완주)	33.9	70.7	60.8	38.9	19.8	10.1	18.6	30.0	11.8	5.3
	새만금권(군산, 김제, 부안)	44.8	70.0	55.2	34.1	20.6	12.1	13.5	34.5	12.1	2.7
	동북권(무주, 진안, 장수)	36.6	78.0	43.9	48.8	22.0	14.6	12.2	29.3	12.2	2.4
	동남권(임실, 순창, 남원)	27.2	80.2	56.8	30.9	23.5	14.8	16.0	28.4	17.3	4.9
	서남권(정읍, 고창)	30.3	69.7	56.2	41.6	23.6	13.5	12.4	28.1	21.3	3.4
직업	공무원	35.1	76.6	59.7	42.9	19.5	5.2	11.7	32.5	7.8	9.1
	사무직	31.5	73.6	60.2	35.6	21.8	7.9	18.1	31.5	15.7	3.7
	생산유통서비스직	37.0	65.6	60.8	37.6	18.0	13.8	17.5	30.7	15.3	3.7
	전문직(교육, 의사등)	28.4	74.1	54.3	50.0	20.7	6.9	17.2	27.6	10.3	10.3
	자영업	41.7	74.8	58.3	37.9	14.6	13.6	15.5	34.0	7.8	1.9
	전업주부	42.3	72.3	51.1	27.7	19.7	19.7	17.5	31.4	16.1	1.5
	기타	35.2	68.5	59.9	38.3	27.8	11.1	14.2	28.4	13.0	3.7
전체	빈도(명)	356	715	581	378	207	114	164	307	132	44
	비율(%)	35.6	71.5	58.1	37.8	20.7	11.4	16.4	30.7	13.2	4.4

3) 전북도민의 행복 영역별 주관적 만족감

■ 종합

2023년형 전북도민 행복의 10개 지표에 대한 주관적 만족감을 분석한 결과, 가족(7.29 점)에 대한 만족감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이어서 안전(6.53점), 주거(6.45점) 등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가장 만족감이 낮은 지표는 복지(5.72점), 교육(5.74점) 등으로 나타났다.

(단위: 점)



[그림 4-13] 도민 행복지표 영역별 주관적 만족감

전북도민 특성별로 행복영역별 만족도를 분석한 결과, 모든 특성에서 가장 만족도가 높은 영역은 가족관계로 나타났다. 이어서 두 번째로 행복도가 높은 영역은 특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는데 먼저 성별에 따라서는 남성은 안전(6.75점), 여성은 주거(6.32점)로 나타났다. 연령에 따라서는 18~20대, 30대는 안전, 40~60대 이상은 주거에 대한 만족도가 두 번째로 높았고, 배우자 유무에 따라서는 배우자가 있는 도민은 주거, 없는 도민은 안전이 두 번째로 높았다. 가구원수에 따라서는 2인 가구는 주거, 그 외 가구수는 모두 안전에 만족하고 있었고, 직업에 따라서는 전문직과 전업주부는 주거, 그 외 직업군은 안전으로 나타났다. 지역에 따라서는 중추도시권과 동남권은 안전, 새만금권과 동북권은 주거, 서남권은 건강에 대해 두 번째로 높게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도민 특성에 따라 가장 만족도가 낮은 영역을 살펴보면, 성별에 따라서는 남성은 교육(5.78점), 여성은 경제(5.56점)가 가장 낮았고, 연령에 따라서는 10~20대와 60대 이상은 경제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낮았고, 30~40대는 교육, 50대는 복지에 대한 만족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소득에 따라서는 200만원 미만은 경제, 200~400만원 미만은 복지, 400만원 이상은 교육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낮았다. 1인 가구와 4인가구는 복지, 2~3인 가구는 경제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낮았다. 지역에 따라서는 중추도시권과 동북권, 동남권은 복지, 새만금권과 서남권은 경제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낮았다.

[표 4-7] 도민 특성별 행복 만족도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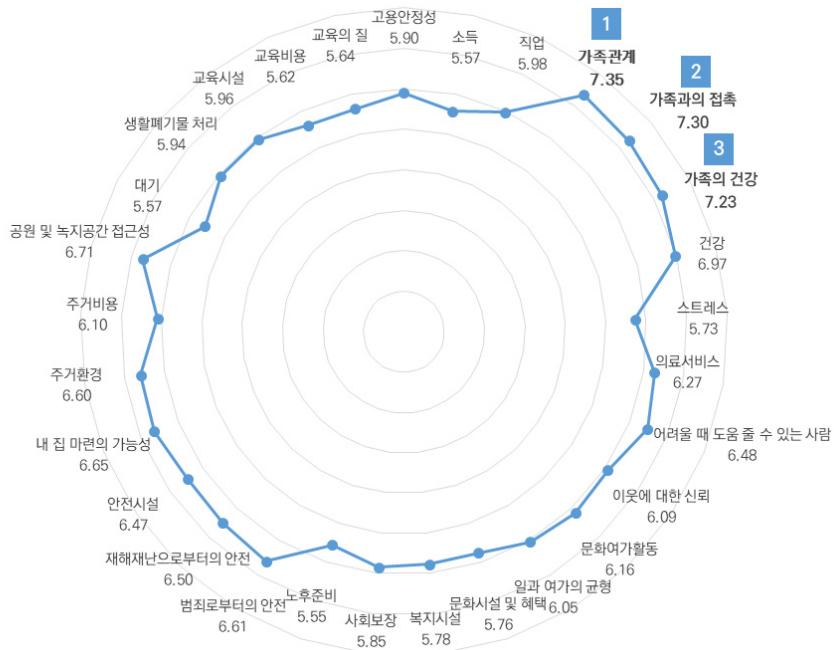
(단위: 점)

구분		경제	가족 관계	건강	사회적 관계	문화 여가	복지 서비스	지역사회 안전	주거 여건	환경	교육
전체		5.81	7.29	6.32	6.29	5.99	5.73	6.53	6.45	6.07	5.74
성별	남	6.07	7.31	6.44	6.31	6.13	5.88	6.75	6.58	6.18	5.78
	여	5.56	7.27	6.21	6.26	5.85	5.57	6.30	6.32	5.96	5.70
연령	18~20대	5.77	7.11	6.62	6.16	6.39	6.03	6.66	5.96	6.43	6.09
	30대	5.56	7.18	5.90	5.71	5.31	4.94	5.98	5.57	5.04	4.70
	40대	5.88	7.26	6.02	6.11	5.56	5.20	6.27	6.40	5.69	5.12
	50대	5.82	7.45	6.23	6.19	5.92	5.51	6.51	6.60	5.93	5.56
	60대 이상	5.87	7.34	6.53	6.65	6.28	6.21	6.77	6.87	6.50	6.30
배우자유무	있음	5.96	7.44	6.43	6.45	6.04	5.83	6.64	6.77	6.15	5.80
	없음	5.46	6.93	6.06	5.88	5.86	5.48	6.25	5.64	5.87	5.59
개인 월소득	200만원미만	5.10	7.15	6.06	6.18	5.83	5.63	6.29	6.15	6.00	5.73
	200~300만원미만	5.90	7.34	6.58	6.31	6.17	5.84	6.53	6.35	6.25	5.94
	300~400만원미만	5.96	7.21	6.21	6.45	5.97	5.73	6.58	6.55	5.92	5.73
	400만원이상	6.67	7.52	6.47	6.27	6.01	5.72	6.85	6.95	6.08	5.48
가구원수	1인 가구	5.29	6.61	5.72	5.56	5.43	5.16	5.91	5.71	5.50	5.27
	2인 가구	5.89	7.49	6.60	6.65	6.35	6.12	6.74	6.78	6.32	6.04
	3인 가구	5.88	7.20	6.36	6.30	6.05	5.89	6.58	6.49	6.22	5.95
	4인 가구 이상	5.91	7.53	6.29	6.25	5.82	5.40	6.54	6.41	5.92	5.40
직업	공무원	6.49	7.61	6.57	6.19	5.89	5.74	6.75	6.47	6.27	5.50
	사무직	5.96	7.35	6.40	6.39	6.18	5.83	6.56	6.40	6.01	5.76
	생산유통서비스직	6.03	7.32	6.52	6.50	6.04	5.77	6.76	6.71	6.58	6.03
	전문직(교육, 의사등)	6.42	7.58	6.37	6.43	6.06	5.54	6.65	6.76	5.70	5.53
	자영업	5.95	7.25	6.40	6.18	6.04	5.92	6.68	6.48	6.04	5.78
	전업주부	5.26	7.23	6.15	6.42	5.90	5.80	6.51	6.55	6.15	5.99
기타	5.00	6.89	5.93	5.80	5.73	5.48	5.93	5.87	5.69	5.39	
지역	중추도시권(전주, 익산, 완주)	5.83	7.26	6.33	6.21	6.00	5.66	6.52	6.36	5.96	5.68
	새만금권(군산, 김제, 부안)	5.80	7.32	6.32	6.47	6.03	5.95	6.50	6.67	6.19	5.92
	동북권(무주, 진안, 장수)	5.54	7.13	5.89	6.21	5.81	5.42	6.37	6.65	6.27	5.43
	동남권(임실, 순창, 남원)	5.84	7.43	6.24	6.22	5.63	5.42	6.74	6.26	6.35	5.68
	서남권(정읍, 고창)	5.84	7.35	6.54	6.42	6.25	6.01	6.49	6.51	6.15	5.87

주: 1순위 2순위 10순위

전북 행복지표의 세부지표 별로 주관적 만족감을 살펴보면, 가족관계(7.35점)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이어서 가족과의 접촉(7.30점), 가족의 건강(7.23점) 순으로 가족에 대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건강(6.97점), 공원 및 녹지 공간 접근성(6.71점), 내 집 마련의 가능성(6.65점), 범죄로부터의 안전(6.61점), 주거환경(6.60점), 재해재난으로부터의 안전(6.50점) 어려울 때 도움 줄 수 있는 사람(6.48점) 등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에 만족감이 낮은 세부지표는 노후준비가 5.55점으로 가장 낮았고 이어서 대기환경과 소득(5.57점), 교육비용(5.62점), 교육의 질(5.64점) 등 순으로 분석되었다.

(단위: 점)



[그림 4-14] 도민 행복지표 영역별 주관적 만족감

전북도민 행복 세부지표에 따른 주관적 만족도를 살펴보면 순위는 다르지만 대부분 가족관계, 가족과의 접촉, 가족의 건강에 대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다만 혼인상태에 따라서 미혼, 18~20대는 건강(7.43점)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높았고, 가족관계(7.08점), 가족과의 접촉(7.18점)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4-8] 도민 특성별 행복 세부지표 만족도 분석

(단위: 점)

구분	경제			가족관계			건강			사회적 관계		문화여가			복지서비스			지역사회안전			주거여건			환경			교육			
	고용 안정성	소득	직업	가족 관계	가족과의 접촉	가족의 건강	건강	스트레스	의료 서비스	어려움도 느낄 수 있는 사람	이웃에 대한 신뢰	문화여가 활동	일과여가의 균형	문화시설 및 혜택	복지시설	사회보장	노후준비	범죄예방의 안전	재해재난으로부터의 안전	안전시설	내·외부의 주거환경	주거비용	공원 및 녹지 공간에 대한 접근성	대기	생활폐기물 처리	교육시설	교육비용	교육의 질		
전체	5.90	5.57	5.98	7.35	7.30	7.22	6.97	5.73	6.27	6.48	6.09	6.16	6.05	5.76	5.78	5.85	5.55	6.61	6.50	6.47	6.65	6.60	6.10	6.71	5.57	5.94	5.96	5.62	5.64	
성별	남	6.14	5.77	6.28	7.42	7.31	7.20	7.04	5.90	6.38	6.49	6.13	6.34	6.19	5.86	5.92	6.01	5.72	6.87	6.74	6.65	6.78	6.69	6.25	6.80	5.68	6.07	6.05	5.64	5.65
	여	5.65	5.37	5.67	7.29	7.29	7.25	6.89	5.56	6.17	6.48	6.05	5.99	5.91	5.66	5.65	5.69	5.38	6.36	6.27	6.28	6.51	6.50	5.94	6.61	5.46	5.81	5.86	5.60	5.62
연령	18~20대	5.96	5.39	5.97	7.08	7.18	7.06	7.43	5.95	6.47	6.46	5.87	6.44	6.51	6.22	6.09	6.50	5.49	6.70	6.64	6.64	5.80	6.24	5.82	6.75	6.13	6.42	6.22	6.07	5.98
	30대	5.72	5.26	5.72	7.22	7.20	7.11	6.79	5.15	5.77	6.24	5.18	5.50	5.44	4.97	5.07	5.02	4.74	6.25	5.82	5.87	5.78	5.80	5.12	5.74	4.34	5.03	4.90	4.56	4.63
	40대	5.87	5.54	6.23	7.41	7.34	7.01	6.69	5.44	5.93	6.34	5.89	5.75	5.75	5.20	5.18	5.28	5.14	6.45	6.22	6.14	6.66	6.58	5.95	6.43	5.15	5.50	5.38	5.00	4.99
	50대	5.86	5.62	5.99	7.59	7.39	7.37	7.04	5.58	6.06	6.38	6.01	6.17	5.93	5.67	5.53	5.61	5.40	6.60	6.55	6.39	6.78	6.79	6.24	6.84	5.18	5.77	5.91	5.25	5.51
배우자 유무	60대 이상	5.96	5.74	5.93	7.35	7.31	7.35	6.92	6.03	6.63	6.69	6.61	6.44	6.26	6.13	6.29	6.23	6.10	6.78	6.77	7.20	6.90	6.52	7.05	6.13	6.34	6.48	6.25	6.18	
	있음	6.00	5.73	6.13	7.50	7.43	7.38	7.06	5.84	6.38	6.61	6.28	6.21	6.10	5.82	5.83	5.87	5.78	6.74	6.61	6.57	7.06	6.88	6.37	6.87	5.61	5.98	6.03	5.67	5.69
개인 월소득	없음	5.62	5.18	5.58	6.98	6.97	6.84	6.74	5.45	6.00	6.15	5.61	6.04	5.93	5.60	5.66	5.80	4.97	6.29	6.24	6.21	5.60	5.91	5.42	6.29	5.48	5.85	5.77	5.48	5.52
	200만원미만	5.14	4.95	5.20	7.21	7.15	7.08	6.65	5.46	6.09	6.30	6.06	5.97	5.83	5.69	5.73	5.78	5.37	6.29	6.27	6.30	6.33	6.27	5.86	6.51	5.54	5.95	5.90	5.61	5.69
	200~300만원미만	6.15	5.57	5.98	7.40	7.33	7.28	7.20	6.09	6.46	6.56	6.06	6.24	6.32	5.96	5.90	6.09	5.54	6.63	6.50	6.46	6.45	6.52	6.06	6.75	5.84	6.18	6.16	5.88	5.78
	300~400만원미만	5.92	5.73	6.23	7.28	7.20	7.15	6.97	5.52	6.13	6.58	6.31	6.29	5.97	5.65	5.86	5.90	5.44	6.72	6.56	6.45	6.87	6.77	6.03	6.73	5.33	5.70	5.94	5.57	5.67
가구원수	400만원이상	6.69	6.39	6.94	7.58	7.55	7.44	7.14	5.83	6.43	6.57	5.98	6.24	6.09	5.69	5.63	5.59	5.93	6.99	6.82	6.74	7.21	7.06	6.57	6.93	5.46	5.83	5.78	5.32	5.34
	1인 가구	5.32	5.08	5.46	6.64	6.61	6.57	6.26	5.18	5.70	5.82	5.30	5.59	5.52	5.18	5.39	5.32	4.76	5.86	5.90	5.95	5.81	5.88	5.44	6.14	5.02	5.35	5.51	5.12	5.20
	2인 가구	6.03	5.73	5.93	7.57	7.45	7.46	7.17	6.04	6.61	6.81	6.50	6.46	6.41	6.18	6.18	6.17	6.01	6.88	6.68	6.66	7.01	6.87	6.47	6.96	5.83	6.19	6.19	6.01	5.92
	3인 가구	5.90	5.69	6.04	7.26	7.19	7.15	7.05	5.77	6.25	6.48	6.11	6.24	6.06	5.85	5.91	6.03	5.73	6.64	6.58	6.53	6.70	6.60	6.18	6.70	5.78	6.17	6.17	5.81	5.88
4인 가구 이상	6.03	5.51	6.19	7.59	7.60	7.39	7.00	5.63	6.24	6.46	6.03	6.03	5.92	5.51	5.41	5.55	5.25	6.67	6.52	6.43	6.62	6.68	5.94	6.72	5.32	5.72	5.69	5.23	5.27	

[표 계속]

구분	경제			가족관계			건강			사회적 관계		문화여가			복지서비스			지역사회안전			주거여건			환경			교육			
	고용 안정성	소득	직업	가족 관계	가족과의 접촉	가족의 건강	건강	스트레스	의료 서비스	어려울 때 도움 받을 수 있는 사람	이웃에 대한 신뢰	문화가 활동	일과 여가의 균형	문화시설 및 혜택	복지시설	사회보장	노후준비	범죄로부터의 안전	재해 재난으로부터의 안전	안전시설	내 집 마련의 가능성	주거환경	주거비용	공원 및 녹지 공간에 대한 접근성	대기	생활폐기물 처리	교육시설	교육비용	교육의 질	
지역	중추도서관(전주,익산,완주)	5.90	5.59	6.02	7.30	7.28	7.22	6.99	5.65	6.35	6.45	5.97	6.17	6.06	5.76	5.73	5.75	5.50	6.61	6.53	6.44	6.53	6.60	5.97	6.68	5.34	5.86	5.98	5.48	5.57
	새만금권(군산,김제,부안)	5.88	5.65	5.86	7.47	7.34	7.15	6.96	5.80	6.20	6.68	6.26	6.09	6.12	5.88	5.93	6.01	5.89	6.57	6.38	6.54	6.91	6.68	6.41	6.77	5.73	6.07	6.08	5.89	5.79
	동북권(무주,진안,장수)	5.73	5.00	5.88	7.10	7.10	7.20	6.39	5.51	5.78	6.07	6.34	5.98	6.10	5.37	5.78	5.90	4.59	6.54	6.39	6.17	6.66	7.05	6.24	7.02	6.15	5.63	5.32	5.73	5.24
	동남권(임실,순창,남원)	5.98	5.46	6.09	7.60	7.37	7.32	7.16	5.62	5.94	6.37	6.07	5.86	5.70	5.32	5.33	5.51	5.42	6.81	6.81	6.58	6.64	6.21	5.91	6.65	6.16	6.25	5.83	5.57	5.64
	서남권(정읍,고창)	5.93	5.64	5.94	7.31	7.35	7.39	6.89	6.22	6.52	6.48	6.35	6.62	6.10	6.02	6.12	6.34	5.58	6.61	6.39	6.47	6.74	6.56	6.21	6.62	5.81	6.03	5.96	5.78	5.87
직업	공무원	6.91	5.79	6.78	7.73	7.55	7.57	7.34	6.12	6.26	6.60	5.78	6.16	6.01	5.51	5.49	5.71	6.00	7.08	6.61	6.57	6.60	6.81	6.01	6.77	5.79	6.26	5.90	5.22	5.38
	사무직	6.27	5.69	5.94	7.51	7.37	7.19	7.06	5.90	6.25	6.59	6.19	6.29	6.24	6.00	5.95	6.02	5.52	6.65	6.57	6.46	6.56	6.60	6.05	6.72	5.50	5.81	5.96	5.61	5.70
	생산유통서비스직	6.13	5.78	6.17	7.23	7.37	7.38	7.11	5.84	6.61	6.69	6.31	6.29	6.06	5.76	5.87	5.93	5.52	6.83	6.65	6.81	6.96	6.79	6.38	7.05	6.17	6.52	6.29	5.95	5.86
	전문직(교육, 의사등)	6.16	6.00	7.09	7.75	7.64	7.36	7.16	5.68	6.28	6.78	6.07	6.22	6.36	5.60	5.52	5.56	5.54	6.78	6.71	6.47	7.07	6.82	6.39	6.72	5.03	5.33	5.72	5.46	5.42
	자영업	5.90	5.78	6.18	7.41	7.15	7.18	7.02	5.90	6.29	6.30	6.06	6.11	6.13	5.89	6.04	6.02	5.70	6.73	6.72	6.58	6.75	6.58	6.12	6.55	5.69	5.88	5.85	5.64	5.85
	전업주부	5.28	5.22	5.27	7.20	7.23	7.26	6.64	5.60	6.20	6.47	6.36	5.99	5.88	5.83	5.86	5.87	5.66	6.62	6.46	6.46	6.87	6.66	6.12	6.77	5.58	6.09	6.25	5.84	5.88
	기타	4.96	4.94	5.09	6.92	6.92	6.83	6.59	5.22	5.98	5.94	5.65	5.99	5.67	5.52	5.54	5.67	5.22	5.90	5.94	5.95	5.88	6.08	5.64	6.28	5.15	5.65	5.59	5.35	5.23

주: 높은순위 낮은순위

전북도민 특성별 주관적 만족도가 낮은 세부지표를 살펴보면 성별에 따라서는 남성은 대기(5.68점), 교육의 질(5.65점), 교육비용(5.64점), 여성은 대기(5.46점), 노후준비(5.38점), 소득(5.37점)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18~20대는 내 집 마련의 가능성, 노후준비, 소득, 30대는 교육의 질, 교육비용, 대기만족도, 40대는 노후준비, 교육비용, 교육의 질에 대한 만족도가 낮았다. 50대는 노후준비, 교육비용, 대기 만족도가 낮게 나타났고, 60대 이상은 경제영역인 고용안정성, 직업, 소득이 낮게 나타났다. 배우자에 따라서 배우자가 있을 때는 교육시설(6.03점), 교육비용(5.67점), 대기(5.61)에 대한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고, 배우자가 없을 때 주거비용(5.42점), 소득(5.18점), 노후준비(4.97점)가 낮게 나타났다. 개인 월 소득에 따라서는 200만원 미만은 이웃에 대한 신뢰, 고용안정성, 소득만족도가 낮게 나타났고, 200~300만원 미만은 교육의 질, 소득, 노후준비 만족도가 낮게 나타났다. 300~400만원 미만은 스트레스, 노후준비, 대기 만족도가 낮게 나타났고, 400만원 이상은 대기, 교육의 질, 교육비용 만족도가 낮게 나타났다. 가구원수에 따라서는 1인 가구는 소득(5.08점), 대기(5.02점), 노후준비(4.76점)에 대한 만족도가 낮게 나타났고, 2인 가구는 교육의 질(5.92점), 대기(5.83점), 소득(5.73점)이 낮게 나타났다. 3인 가구는 스트레스(5.77점), 노후준비(5.73점), 소득(5.69점)이 낮게 나타났고, 4인 가구 이상은 교육의 질(5.27점), 노후준비(5.25점), 교육비용(5.23점)에 대한 만족도가 낮았다. 지역별로는 중추도시권은 노후준비(5.50점), 교육비용(5.48점), 대기(5.34점)에 대한 만족도가 낮게 나타났고, 새만금권은 교육의 질(5.79점), 대기(5.73점), 소득(5.65점)에 대한 만족도가 낮았다. 동북권은 교육의 질(5.24점), 소득(5.00점), 노후준비(4.59점)에 대한 만족도가 낮았고, 동남권은 노후준비(5.42점), 복지시설(5.33점), 문화시설 및 혜택(5.32점)에 대한 만족도가 낮게 나타났다. 서남권은 교육비용(5.78점), 소득(5.64점), 노후준비(5.58점)으로 전반적으로 소득, 노후준비에 대한 만족도가 낮게 나타났다. 직업별로는 공무원은 복지시설(5.49점), 교육의 질(5.38점), 교육비용(5.22점)에 대한 만족도가 낮게 나타났고, 사무직은 교육비용(5.61점), 노후준비(5.52점), 대기(5.50점)에 대한 만족도가 낮았다. 생산유통서비스직은 소득(5.78점), 문화시설 및 혜택(5.76점), 노후준비(5.52점)에 대한 만족도가 낮았고, 전문직(교육, 의사 등)은 교육의 질(5.42점), 생활폐기물처리(5.33점), 대기(5.03점)에 대한 만족도가 낮게 나타났다. 자영업은 노후준비(5.70점), 대기(5.69점), 교육비용(5.64점)에 대한 만족도가 낮았고, 전업주부와 기타(학생, 무직 등)는 경제영역의 세부지표인 고용안정성, 소득, 직업에 대한 만족도가 낮게 나타났다.

■ 경제

경제 세부지표의 만족도를 도민 특성별로 살펴보면 먼저 고용안정성, 소득, 직업에 따라서 모두 성별, 배우자 유무, 개인 월 소득, 가구원수, 직업에 따라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고용안정성, 소득, 직업에 대한 만족도가 여성보다 남성이, 배우자가 있을 때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개인 월소득에 따라서는 200만원 미만 보다 200~400만원 미만, 이들보다 400만원 이상일 때 고용안정성, 소득, 직업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또한 1인 가구의 경제 세부지표 만족도가 다른 가구원수보다 낮게 나타났다.

[표 4-9] 도민 특성별 경제 세부지표 만족도 분석

구분		고용안정성			소득			직업		
		평균	표준편차	t/F (사후검증)	평균	표준편차	t/F (사후검증)	평균	표준편차	t/F (사후검증)
전체		5.90	2.14		5.57	2.05		5.98	2.09	
성별	남	6.14	2.09	3.167***	5.77	1.94	3.080**	6.28	1.99	4.719***
	여	5.65	2.17		5.37	2.15		5.67	2.15	
연령	18~20대	5.96	2.15	.327	5.39	2.25	1.617	5.97	2.01	1.115
	30대	5.72	2.46		5.26	2.10		5.72	2.20	
	40대	5.87	2.56		5.54	2.13		6.23	2.25	
	50대	5.86	2.24		5.62	2.09		5.99	2.30	
	60대 이상	5.96	1.74		5.74	1.89		5.93	1.89	
배우자 유무	있음	6.00	2.07	2.425*	5.73	1.97	3.663***	6.13	2.00	3.839***
	없음	5.62	2.30		5.18	2.21		5.58	2.26	
개인 월소득	200만원미만(a)	5.14	2.17	26.547*** (a<c,b<d)	4.95	2.31	22.679*** (a<b,c<d)	5.20	2.32	33.944*** (a<b,c<d)
	200~300만원미만(b)	6.15	1.82		5.57	1.79		5.98	1.70	
	300~400만원미만(c)	5.92	2.10		5.73	1.72		6.23	1.89	
	400만원이상(d)	6.69	2.19		6.39	1.92		6.94	1.92	
가구원수	1인 가구(a)	5.32	2.32	3.812* (a<c,b,d)	5.08	2.17	3.379* (a<c,b)	5.46	2.33	3.745* (a<c,d)
	2인 가구(b)	6.03	1.93		5.73	2.03		5.93	2.07	
	3인 가구(c)	5.90	2.07		5.69	1.93		6.04	1.92	
	4인 가구 이상(d)	6.03	2.31		5.51	2.13		6.19	2.16	
직업	공무원(a)	6.91	2.49	12.398*** (g<a)	5.79	2.15	4.944*** (g<d)	6.78	1.86	16.712*** (g,f<c,e<d)
	사무직(b)	6.27	1.99		5.69	1.95		5.94	1.77	
	생산유통서비스직(c)	6.13	1.77		5.78	1.77		6.17	1.69	
	전문직(교육, 의사등)(d)	6.16	2.46		6.00	2.01		7.09	2.05	
	자영업(e)	5.90	1.81		5.78	1.80		6.18	1.98	
	전업주부(f)	5.28	1.93		5.22	2.16		5.27	2.13	
	기타(g)	4.96	2.28		4.94	2.36		5.09	2.49	
지역	중추도시권(전주,익산,완주)	5.90	2.17	.098	5.59	2.10	.981	6.02	2.12	.321
	새만금권(군산,김제,부안)	5.88	2.02		5.65	1.98		5.86	2.07	
	동북권(무주,진안,장수)	5.73	2.56		5.00	2.10		5.88	2.19	
	동남권(임실,순창,남원)	5.98	2.41		5.46	2.15		6.09	2.00	
	서남권(정읍,고창)	5.93	1.83		5.64	1.84		5.94	2.07	

* α .05, ** α .01, *** α .001

■ 가족관계

전북 도민 특성별 가족관계 세부지표의 만족도를 보면 가족관계와 가족의 건강에 따라서는 배우자 유무, 가구원수, 직업에 따라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 가족과의 접촉에 대해서는 배우자 유무, 가구원수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배우자가 없을 때보다 배우자가 있을 때 가족관계, 가족과의 접촉, 가족의 건강에 대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가구원수에 따라서는 1인 가구보다 다른 가구원 수일 때 가족관련 세부지표가 높게 나타났다. 직업에 따라서는 기타보다 전문직종일 때 가족관계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표 4-10] 도민 특성별 가족관계 세부지표 만족도 분석

구분		가족관계			가족과의 접촉			가족의 건강		
		평균	표준편차	t/F (사후검증)	평균	표준편차	t/F (사후검증)	평균	표준편차	t/F (사후검증)
전체		7.35	1.84		7.30	1.92		7.23	1.78	
성별	남	7.42	1.80	1.113	7.31	1.89	.191	7.20	1.76	-.365
	여	7.29	1.88		7.29	1.96		7.25	1.81	
연령	18~20대	7.08	1.81	1.890	7.18	1.83	.378	7.06	1.72	1.842
	30대	7.22	2.10		7.20	2.23		7.11	2.09	
	40대	7.41	2.03		7.34	2.08		7.01	2.07	
	50대	7.59	1.97		7.39	2.12		7.37	1.83	
	60대 이상	7.35	1.57		7.31	1.66		7.35	1.50	
배우자 유무	있음	7.50	1.71	3.811***	7.43	1.81	3.162**	7.38	1.68	4.122***
	없음	6.98	2.08		6.97	2.14		6.84	1.97	
개인 월소득	200만원미만	7.21	1.92	1.862	7.15	2.06	2.021	7.08	1.90	1.868
	200~300만원미만	7.40	1.69		7.33	1.70		7.28	1.59	
	300~400만원미만	7.28	1.87		7.20	1.94		7.15	1.80	
	400만원이상	7.58	1.87		7.55	1.96		7.44	1.80	
가구원수	1인 가구(a)	6.64	2.17	9.810*** (a<c,b,d)	6.61	2.19	8.876*** (a<c,b,d)	6.57	1.97	8.735*** (a<c,b,d)
	2인 가구(b)	7.57	1.60		7.45	1.75		7.46	1.60	
	3인 가구(c)	7.26	1.81		7.19	1.93		7.15	1.78	
	4인 가구 이상(d)	7.59	1.84		7.60	1.86		7.39	1.78	
직업	공무원(a)	7.73	1.76	3.574** (g<d)	7.55	1.93	2.101	7.57	1.89	2.183*
	사무직(b)	7.51	1.75		7.37	1.80		7.19	1.68	
	생산유통서비스직(c)	7.23	1.63		7.37	1.68		7.38	1.57	
	전문직(교육, 의사등)(d)	7.75	1.74		7.64	1.85		7.36	1.81	
	자영업(e)	7.41	2.02		7.15	2.00		7.18	1.85	
	전업주부(f)	7.20	1.65		7.23	1.74		7.26	1.56	
	기타(g)	6.92	2.21		6.92	2.39		6.83	2.12	
지역	중추도시권(전주, 익산, 완주)	7.30	1.91	.949	7.28	1.93	.202	7.22	1.84	.366
	새만금권(군산, 김제, 부안)	7.47	1.70		7.34	1.94		7.15	1.80	
	동북권(무주, 진안, 장수)	7.10	1.80		7.10	2.12		7.20	1.66	
	동남권(임실, 순창, 남원)	7.60	1.84		7.37	1.93		7.32	1.58	
	서남권(정읍, 고창)	7.31	1.72		7.35	1.76		7.39	1.59	

** α .01, *** α .001

■ 건강

도민 특성별 건강 세부지표 만족도를 살펴보면 건강, 스트레스, 의료서비스에 대한 만족도에 공통적으로 연령, 배우자유무, 개인월소득, 가구원수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또한 건강에 대해서는 직업, 스트레스에 대해서는 성별과 직업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연령에 따라서는 30~40대보다 18~20대의 건강만족도가 높았고, 40대보다 18~20대와 60대 이상의 스트레스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1인 가구일 때 다른 가구원수일 때 보다 건강, 스트레스, 의료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낮게 나타났다.

[표 4-11] 도민 특성별 건강 세부지표 만족도 분석

구분		건강			스트레스			의료서비스		
		평균	표준편차	t/F (사후검증)	평균	표준편차	t/F (사후검증)	평균	표준편차	t/F (사후검증)
전체		6.97	1.89		5.73	2.10		6.27	1.86	
성별	남	7.04	1.89	1.202	5.90	2.07	2.584*	6.38	1.82	1.849
	여	6.89	1.90		5.56	2.13		6.17	1.90	
연령	18~20대(a)	7.43	1.82	3.595** (c,b(a))	5.95	2.17	5.601*** (c(a,e))	6.47	1.65	8.170*** (b(e))
	30대(b)	6.79	2.12		5.15	2.50		5.77	2.01	
	40대(c)	6.69	2.01		5.44	2.20		5.93	2.07	
	50대(d)	7.04	2.06		5.58	2.21		6.06	2.09	
	60대 이상(e)	6.92	1.66		6.03	1.76		6.63	1.57	
배우자 유무	있음	7.06	1.75	2.201*	5.84	1.97	2.412*	6.38	1.81	2.916**
	없음	6.74	2.20		5.45	2.39		6.00	1.96	
개인 월소득	200만원미만(a)	6.65	2.00	5.130** (a(d,b))	5.46	2.18	5.376** (a,c(b))	6.09	1.94	2.936*
	200~300만원미만(b)	7.20	1.73		6.09	1.87		6.46	1.66	
	300~400만원미만(c)	6.97	2.06		5.52	2.21		6.13	1.88	
	400만원이상(d)	7.14	1.72		5.83	2.13		6.43	1.95	
가구원수	1인 가구(a)	6.26	2.22	7.421*** (a(d,c,b))	5.18	2.15	5.221** (a(c,b))	5.70	2.08	7.217*** (a(d,c,b))
	2인 가구(b)	7.17	1.74		6.04	2.03		6.61	1.67	
	3인 가구(c)	7.05	1.74		5.77	2.03		6.25	1.73	
	4인 가구 이상(d)	7.00	1.97		5.63	2.19		6.24	2.01	
직업	공무원	7.34	1.84	2.732*	6.12	2.13	2.554*	6.26	2.00	1.772
	사무직	7.06	1.86		5.90	2.22		6.25	1.94	
	생산유통서비스직	7.11	1.88		5.84	1.87		6.61	1.50	
	전문직(교육, 의사등)	7.16	1.84		5.68	2.09		6.28	1.99	
	자영업	7.02	1.70		5.90	2.05		6.29	1.65	
	전업주부	6.64	1.62		5.60	1.82		6.20	1.75	
	기타	6.59	2.24		5.22	2.39		5.98	2.13	
지역	중추도시권(전주, 익산, 완주)	6.99	1.83	1.230	5.65	2.17	1.646	6.35	1.78	2.080
	새만금권(군산, 김제, 부안)	6.96	1.97		5.80	2.04		6.20	1.89	
	동북권(무주, 진안, 장수)	6.39	2.13		5.51	2.42		5.78	2.02	
	동남권(임실, 순창, 남원)	7.16	1.96		5.62	1.91		5.94	2.14	
	서남권(정읍, 고창)	6.89	1.87		6.22	1.82		6.52	1.87	

* α .05, ** α .01, *** α .001

■ 사회적 관계

도민 특성별 사회적 관계의 세부지표 만족도는 어려울 때 도움 줄 수 있는 사람에 대한 만족도는 배우자 유무, 가구원수, 직업에 따라 통계적으로 차이가 있었고, 이웃에 대한 신뢰에 대한 만족도는 연령, 배우자 유무, 가구원수, 직업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배우자가 없을 때 보다 배우자가 있을 때 사회적 관계 세부지표의 만족도가 높았다. 1인 가구일 때 상대적으로 사회적 관계 세부지표에 대한 만족도가 낮은 편이었다.

[표 4-12] 도민 특성별 사회적 관계 세부지표 만족도 분석

구분		어려울 때 도움 줄 수 있는 사람			이웃에 대한 신뢰		
		평균	표준편차	t/F (사후검증)	평균	표준편차	t/F (사후검증)
전체		6.48	1.84		6.09	1.99	
성별	남	6.49	1.74	.103	6.13	1.93	.701
	여	6.48	1.93		6.05	2.05	
연령	18~20대(a)	6.46	1.76	2.078	5.87	2.10	13.960*** (b<a,c,e)
	30대(b)	6.24	1.91		5.18	2.15	
	40대(c)	6.34	2.12		5.89	2.16	
	50대(d)	6.38	1.94		6.01	1.93	
	60대 이상(e)	6.69	1.62		6.61	1.69	
배우자 유무	있음	6.61	1.74	3.424**	6.28	1.85	4.491***
	없음	6.15	2.02		5.61	2.26	
개인 월소득	200만원미만	6.30	2.03	1.622	6.06	2.22	1.036
	200~300만원미만	6.56	1.55		6.06	1.79	
	300~400만원미만	6.58	1.81		6.31	1.90	
	400만원이상	6.57	1.89		5.98	1.97	
가구원수	1인 가구(a)	5.82	2.13	5.8705*** (a<d,c,b)	5.30	2.27	11.008*** (a<d,c,b)
	2인 가구(b)	6.81	1.67		6.50	1.74	
	3인 가구(c)	6.48	1.78		6.11	1.98	
	4인 가구 이상(d)	6.46	1.83		6.03	2.00	
직업	공무원(a)	6.60	1.87	3.627** (g<d)	5.78	2.21	2.529*
	사무직(b)	6.59	1.72		6.19	1.88	
	생산유통서비스직(c)	6.69	1.56		6.31	1.65	
	전문직(교육, 의사등)(d)	6.78	1.67		6.07	1.87	
	자영업(e)	6.30	2.09		6.06	2.14	
	전업주부(f)	6.47	1.57		6.36	1.78	
	기타(g)	5.94	2.27		5.65	2.45	
지역	중추도시권(전주, 익산, 완주)	6.45	1.86	1.260	5.97	2.04	1.490
	새만금권(군산, 김제, 부안)	6.68	1.73		6.26	1.95	
	동북권(무주, 진안, 장수)	6.07	1.90		6.34	1.87	
	동남권(임실, 순창, 남원)	6.37	1.88		6.07	1.96	
	서남권(정읍, 고창)	6.48	1.84		6.35	1.87	

* α .05, ** α .01, *** α .001

■ 문화여가

도민 특성별로 문화여가 세부지표에 대한 만족도를 분석한 결과 연령, 가구원수에 따라 문화여가활동, 일과 여가의 균형, 문화시설 및 혜택에 대한 만족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또한 성별에 따라서도 문화여가활동, 일과여가의 균형 만족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여성보다 남성의 문화여가 세부지표 만족도가 높았고, 30대보다 18~20대, 60대 이상의 문화여가활동과 문화시설 및 혜택에 대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가구원수에 따라서는 1인 가구의 문화여가 세부지표 만족도가 다른 가구보다 낮게 나타났다.

[표 4-13] 도민 특성별 문화여가 세부지표 만족도 분석

구분		문화여가활동			일과 여가의 균형			문화시설 및 혜택		
		평균	표준편차	t/F (사후검증)	평균	표준편차	t/F (사후검증)	평균	표준편차	t/F (사후검증)
전체		6.16	1.90		6.05	2.03		5.76	2.11	
성별	남	6.34	1.78	2.914**	6.19	1.93	2.215*	5.86	2.05	1.551
	여	5.99	1.99		5.91	2.12		5.66	2.17	
연령	18~20대(a)	6.44	1.80	8.644*** (b(a,e))	6.51	1.97	6.712*** (b(a))	6.22	2.14	12.303*** (b(e,a))
	30대(b)	5.50	2.12		5.44	2.47		4.97	2.47	
	40대(c)	5.75	2.21		5.75	2.22		5.20	2.32	
	50대(d)	6.17	1.99		5.93	2.04		5.67	2.17	
	60대 이상(e)	6.44	1.55		6.26	1.73		6.13	1.68	
배우자 유무	있음	6.21	1.84	1.298	6.10	1.97	1.180	5.82	2.02	1.396
	없음	6.04	2.03		5.93	2.19		5.60	2.32	
개인 월소득	200만원미만	5.97	2.04	1.676	5.83	2.19	3.011*	5.69	2.24	1.263
	200~300만원미만	6.24	1.74		6.32	1.71		5.96	1.92	
	300~400만원미만	6.29	1.73		5.97	2.10		5.65	2.16	
	400만원이상	6.24	1.99		6.09	2.09		5.69	2.10	
가구원수	1인 가구(a)	5.59	2.00	6.944*** (a(c,b))	5.52	2.15	6.211*** (a(c,b))	5.18	2.33	8.340*** (a(b))
	2인 가구(b)	6.46	1.79		6.41	1.95		6.18	1.92	
	3인 가구(c)	6.24	1.76		6.06	1.90		5.85	2.00	
	4인 가구 이상(d)	6.03	2.05		5.92	2.16		5.51	2.23	
직업	공무원	6.16	2.10	.761	6.01	2.19	1.909	5.51	2.48	1.187
	사무직	6.29	1.91		6.24	2.05		6.00	2.00	
	생산유통서비스직	6.29	1.59		6.06	1.78		5.76	1.89	
	전문직(교육, 의사등)	6.22	1.86		6.36	2.03		5.60	1.95	
	자영업	6.11	1.90		6.13	2.01		5.89	2.03	
	전업주부	5.99	1.77		5.88	1.89		5.83	1.97	
	기타	5.99	2.23		5.67	2.30		5.52	2.55	
지역	중추도시권(전주, 익산, 완주)	6.17	1.86	1.964	6.06	2.07	.671	5.76	2.08	1.758
	새만금권(군산, 김제, 부안)	6.09	1.94		6.12	1.91		5.88	1.93	
	동북권(무주, 진안, 장수)	5.98	1.64		6.10	2.27		5.37	2.51	
	동남권(임실, 순창, 남원)	5.86	2.17		5.70	2.02		5.32	2.42	
	서남권(정읍, 고창)	6.62	1.82		6.10	2.01		6.02	2.23	

* α .05, ** α .01, *** α .001

■ 복지서비스

전북도민의 성별, 연령, 개인월소득, 가구원수, 지역 등에 따라 복지서비스의 세부지표 만족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복지시설만족도에 따라서는 여성보다 남성이 높았고, 60대 이상, 2인가구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사회보장에 대한 만족도는 여성보다 남성이 높았고, 18~20대, 2인 가구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노후준비에 대한 만족도는 여성보다 남성이 높았고, 60대 이상, 배우자가 있을 때, 2인 가구, 서남권과 새만금권 지역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표 4-14] 도민 특성별 복지서비스 세부지표 만족도 분석

구분		복지시설			사회보장			노후준비		
		평균	표준편차	t/F (사후검증)	평균	표준편차	t/F (사후검증)	평균	표준편차	t/F (사후검증)
전체		5.78	1.99		5.85	2.00		5.55	2.20	
성별	남	5.92	1.92	2.141*	6.01	1.91	2.548*	5.72	2.15	2.490*
	여	5.65	2.05		5.69	2.08		5.38	2.24	
연령	18~20대(a)	6.09	1.98	16.165*** (b,c<e)	6.50	1.90	17.628*** (b,c(a))	5.49	2.15	11.882*** (b<e)
	30대(b)	5.07	2.28		5.02	2.22		4.74	2.43	
	40대(c)	5.18	2.17		5.28	2.12		5.14	2.26	
	50대(d)	5.53	2.10		5.61	2.12		5.40	2.45	
	60대 이상(e)	6.29	1.55		6.23	1.64		6.10	1.83	
배우자 유무	있음	5.83	1.93	1.165	5.87	1.93	.447	5.78	2.09	5.018***
	없음	5.66	2.14		5.80	2.16		4.97	2.38	
개인 월소득	200만원미만	5.73	2.12	.941	5.78	2.12	2.735*	5.37	2.33	2.991*
	200~300만원미만	5.90	1.82		6.09	1.83		5.54	2.05	
	300~400만원미만	5.86	2.01		5.90	1.97		5.44	2.18	
	400만원이상	5.63	1.99		5.59	2.02		5.93	2.20	
가구원수	1인 가구(a)	5.39	2.09	9.228*** (a,d<b)	5.32	2.10	8.453*** (a<b)	4.76	2.44	12.362*** (a<b)
	2인 가구(b)	6.18	1.91		6.17	1.82		6.01	2.08	
	3인 가구(c)	5.91	1.83		6.03	1.90		5.73	2.09	
	4인 가구 이상(d)	5.41	2.11		5.55	2.16		5.25	2.21	
직업	공무원	5.49	2.16	1.655	5.71	2.08	1.118	6.00	2.14	1.307
	사무직	5.95	1.97		6.02	1.95		5.52	2.08	
	생산유통서비스직	5.87	1.80		5.93	1.96		5.52	2.05	
	전문직(교육, 의사등)	5.52	1.89		5.56	1.98		5.54	2.37	
	자영업	6.04	1.98		6.02	1.96		5.70	2.12	
	전업주부	5.86	1.84		5.87	1.88		5.66	2.06	
	기타	5.54	2.29		5.67	2.21		5.22	2.57	
지역	중추도서관(전주, 익산, 완주)(a)	5.73	2.00	2.104	5.75	1.97	2.641*	5.50	2.18	3.497** (c<e,b)
	새만금권(군산, 김제, 부안)(b)	5.93	1.84		6.01	1.91		5.89	2.19	
	동북권(무주, 진안, 장수)(c)	5.78	2.24		5.90	2.18		4.59	2.29	
	동남권(임실, 순창, 남원)(d)	5.33	2.23		5.51	2.26		5.42	2.34	
	서남권(정읍, 고창)(e)	6.12	1.86		6.34	2.02		5.58	2.13	

* α .05, ** α .01, *** α .001

■ 지역사회안전

도민 특성별 지역사회 안전 세부지표에 대한 만족도는 성별, 연령, 배우자유무, 개인월 소득, 가구원수, 직업 등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범죄로부터의 안전만족도는 여성보다 남성의 만족도가 높았고, 배우자가 있을 때, 200만원 미만보다 400만원 이상일 때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재해재난으로부터의 안전 만족도에서는 여성보다 남성이, 30대보다 50대, 18~20대, 60대 이상의 만족도가 높았으며 개인 월소득이 200만원 미만보다 400만원 이상일 때 만족도가 높았다.

[표 4-15] 도민 특성별 지역사회안전 세부지표 만족도 분석

구분		범죄로부터의 안전			재해재난으로부터의 안전			안전시설		
		평균	표준편차	t/F (사후검증)	평균	표준편차	t/F (사후검증)	평균	표준편차	t/F (사후검증)
전체		6.61	1.89		6.50	1.89		6.47	1.85	
성별	남	6.87	1.77	4.357***	6.74	1.80	3.958***	6.65	1.75	3.151**
	여	6.36	1.97		6.27	1.95		6.28	1.94	
연령	18~20대(a)	6.70	1.74	2.180	6.64	1.72	6.872*** (b<d,a,e)	6.64	1.70	7.444*** (b<e)
	30대(b)	6.25	2.08		5.82	2.17		5.87	2.10	
	40대(c)	6.45	2.20		6.22	2.25		6.14	2.17	
	50대(d)	6.60	1.97		6.55	1.90		6.39	1.88	
	60대 이상(e)	6.78	1.67		6.77	1.60		6.77	1.57	
배우자 유무	있음	6.74	1.80	3.173**	6.61	1.82	2.790**	6.57	1.78	2.748**
	없음	6.29	2.08		6.24	2.04		6.21	2.01	
개인 월소득	200만원미만(a)	6.29	2.13	6.198*** (a<d)	6.27	2.07	3.760* (a<d)	6.30	2.07	2.385
	200~300만원미만(b)	6.63	1.73		6.50	1.70		6.46	1.69	
	300~400만원미만(c)	6.72	1.72		6.56	1.80		6.45	1.75	
	400만원 이상(d)	6.99	1.79		6.82	1.88		6.74	1.77	
가구원수	1인 가구(a)	5.86	2.20	9.013*** (a<c,d,b)	5.90	2.06	5.440** (a<d,c,b)	5.95	1.96	4.561** (a<c,b)
	2인 가구(b)	6.88	1.74		6.68	1.75		6.66	1.73	
	3인 가구(c)	6.64	1.78		6.58	1.84		6.53	1.83	
	4인 가구 이상(d)	6.67	1.93		6.52	1.95		6.43	1.92	
직업	공무원(a)	7.08	1.78	5.428*** (g<e,d,c,a)	6.61	1.93	3.185**	6.57	1.92	3.321** (g<c)
	사무직(b)	6.65	1.71		6.57	1.75		6.46	1.76	
	생산유통서비스직(c)	6.83	1.68		6.65	1.59		6.81	1.52	
	전문직(교육, 의사등)(d)	6.78	1.95		6.71	2.09		6.47	1.93	
	자영업(e)	6.73	1.83		6.72	1.93		6.58	1.89	
	전업주부(f)	6.62	1.69		6.46	1.72		6.46	1.68	
	기타(g)	5.90	2.35		5.94	2.24		5.95	2.24	
지역	중추도시권(전주, 익산, 완주)	6.61	1.94	.272	6.53	1.93	.922	6.44	1.89	.463
	새만금권(군산, 김제, 부안)	6.57	1.85		6.38	1.84		6.54	1.85	
	동북권(무주, 진안, 장수)	6.54	2.11		6.39	1.88		6.17	1.70	
	동남권(임실, 순창, 남원)	6.81	1.67		6.81	1.72		6.58	1.80	
	서남권(정읍, 고창)	6.61	1.81		6.39	1.96		6.47	1.80	

* α .05, ** α .01, *** α .001

■ 주거여건

주거여건 세부지표 만족도는 성별, 연령, 배우자 유무, 개인 월소득, 가구원수, 직업 등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공통적으로 배우자가 있을 때, 개인 월소득이 400만원 이상일 때 주거여건 세부지표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고, 1인 가구일 때 다른 가구 수 일 때보다 만족도가 낮게 나타났다. 내 집 마련의 가능성에 대한 만족도는 기타보다 생산유통서비스직, 전문직일 때 높게 나타났고, 주거비용에 대한 만족도는 여성보다 남성이 높게 나타났다.

[표 4-16] 도민 특성별 주거여건 세부지표 만족도 분석

구분		내 집 마련의 가능성			주거환경			주거비용		
		평균	표준편차	t/F (사후검증)	평균	표준편차	t/F (사후검증)	평균	표준편차	t/F (사후검증)
전체		6.65	2.43		6.60	2.12		6.10	2.15	
성별	남	6.78	2.40	1.746	6.69	2.07	1.408	6.25	2.12	2.283*
	여	6.51	2.46		6.50	2.16		5.94	2.18	
연령	18~20대(a)	5.80	2.46	13.783*** (b,a<c,d,e)	6.24	2.11	7.741*** (b<c,d,e)	5.82	2.21	10.963*** (b<a,c,d,e)
	30대(b)	5.78	3.05		5.80	2.55		5.12	2.59	
	40대(c)	6.66	2.68		6.58	2.34		5.95	2.45	
	50대(d)	6.78	2.54		6.79	2.15		6.24	2.29	
	60대 이상(e)	7.20	1.78		6.90	1.72		6.52	1.56	
배우자 유무	있음	7.06	2.21	8.240***	6.88	2.00	6.344***	6.37	2.03	5.997***
	없음	5.60	2.66		5.91	2.25		5.42	2.32	
개인 월소득	200만원미만(a)	6.33	2.58	6.809*** (a,b<d)	6.27	2.33	6.481*** (a<d)	5.86	2.21	4.887** (a<d)
	200~300만원미만(b)	6.45	2.26		6.52	1.97		6.06	2.03	
	300~400만원미만(c)	6.87	2.43		6.77	1.95		6.03	2.15	
	400만원 이상(d)	7.21	2.33		7.06	2.02		6.57	2.18	
가구원수	1인 가구(a)	5.81	2.70	7.385*** (a<d,c,b)	5.88	2.27	6.761*** (a<c,d,b)	5.44	2.41	7.598*** (a<c,b)
	2인 가구(b)	7.01	2.20		6.87	1.98		6.47	1.87	
	3인 가구(c)	6.70	2.40		6.60	2.06		6.18	2.03	
	4인 가구 이상(d)	6.62	2.49		6.68	2.18		5.94	2.35	
직업	공무원(a)	6.60	2.86	4.149*** (g<c,d)	6.81	2.22	2.254*	6.01	2.56	2.141*
	사무직(b)	6.56	2.36		6.60	1.99		6.05	2.04	
	생산유통서비스직(c)	6.96	2.08		6.79	1.84		6.38	1.95	
	전문직(교육, 의사등)(d)	7.07	2.33		6.82	2.05		6.39	2.15	
	자영업(e)	6.75	2.25		6.58	2.05		6.12	1.92	
	전업주부(f)	6.87	1.96		6.66	2.00		6.12	1.87	
	기타(g)	5.88	3.04		6.08	2.61		5.64	2.59	
지역	중추도시권(전주, 익산, 완주)	6.53	2.48	1.055	6.60	2.13	1.240	5.97	2.20	1.907
	새만금권(군산, 김제, 부안)	6.91	2.26		6.68	1.99		6.41	2.00	
	동북권(무주, 진안, 장수)	6.66	2.73		7.05	2.13		6.24	2.15	
	동남권(임실, 순창, 남원)	6.64	2.61		6.21	2.25		5.91	2.35	
	서남권(정읍, 고창)	6.74	2.25		6.56	2.19		6.21	1.98	

* α .05, ** α .01, *** α .001

■ 환경

도민 특성별 환경 세부지표에 대한 만족도를 분석한 결과 연령, 가구원수, 직업 등에 따라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전반적으로 30대 보다 60대 이상과 18~20대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고, 1인 가구보다 2~3인 가구의 환경 세부지표 만족도가 높았다. 대기(미세먼지, 황사 등)만족도는 전문직보다 생산유통서비스직의 만족도가 더 높게 나타났고, 생활폐기물 처리만족도는 전문직보다 공무원과 생산유통서비스직의 만족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

[표 4-17] 도민 특성별 환경 세부지표 만족도 분석

구분		공원 및 녹지공간에 대한 접근성			대기(미세먼지, 황사 등)			생활폐기물 처리		
		평균	표준편차	t/F (사후검증)	평균	표준편차	t/F (사후검증)	평균	표준편차	t/F (사후검증)
전체		6.71	2.13		5.57	2.37		5.94	2.10	
성별	남	6.80	2.11	1.360	5.68	2.31	1.419	6.07	2.06	1.959
	여	6.61	2.14		5.46	2.42		5.81	2.14	
연령	18~20대(a)	6.75	1.90	9.688*** (b(a,d,e))	6.13	2.14	18.994*** (b(c,d(e,a)))	6.42	1.79	13.706*** (b(e,a))
	30대(b)	5.74	2.58		4.34	2.73		5.03	2.31	
	40대(c)	6.43	2.54		5.15	2.48		5.50	2.35	
	50대(d)	6.84	2.13		5.18	2.47		5.77	2.21	
	60대 이상(e)	7.05	1.71		6.13	1.97		6.34	1.80	
배우자 유무	있음	6.87	2.07	3.888	5.61	2.33	.775	5.98	2.09	.902
	없음	6.29	2.21		5.48	2.44		5.85	2.12	
개인 월소득	200만원미만(a)	6.51	2.27	1.747	5.54	2.40	2.024	5.95	2.20	2.234
	200~300만원미만(b)	6.75	1.88		5.84	2.27		6.18	1.95	
	300~400만원미만(c)	6.73	2.14		5.33	2.42		5.70	2.12	
	400만원 이상(d)	6.93	2.18		5.46	2.37		5.83	2.09	
가구원수	1인 가구(a)	6.14	2.30	4.440** (a(c,d,b))	5.02	2.50	5.358** (a(c,b))	5.35	2.08	7.041*** (a(c,b))
	2인 가구(b)	6.96	1.89		5.83	2.16		6.19	1.91	
	3인 가구(c)	6.70	2.05		5.78	2.30		6.17	2.08	
	4인 가구 이상(d)	6.72	2.31		5.32	2.52		5.72	2.24	
직업	공무원(a)	6.77	2.35	2.072	5.79	2.41	4.136*** (d(c))	6.26	2.02	5.273*** (d(a,c))
	사무직(b)	6.72	2.13		5.50	2.41		5.81	2.14	
	생산유통서비스직(c)	7.05	1.75		6.17	2.18		6.52	1.88	
	전문직(교육, 의사등)(d)	6.72	2.20		5.03	2.44		5.33	2.28	
	자영업(e)	6.55	2.14		5.69	2.21		5.88	2.10	
	전업주부(f)	6.77	2.02		5.58	2.32		6.09	1.80	
	기타(g)	6.28	2.38		5.15	2.44		5.65	2.26	
지역	중추도시권(전주, 익산, 완주)	6.68	2.15	.345	5.34	2.34	3.721**	5.86	2.06	1.102
	새만금권(군산, 김제, 부안)	6.77	2.05		5.73	2.39		6.07	2.07	
	동북권(무주, 진안, 장수)	7.02	2.17		6.15	2.56		5.63	2.40	
	동남권(임실, 순창, 남원)	6.65	2.39		6.16	2.29		6.25	2.05	
	서남권(정읍, 고창)	6.62	1.89		5.81	2.29		6.03	2.31	

** α .01, *** α .001

■ 교육

도민 특성별 교육에 대한 세부지표 만족도는 연령, 개인월소득, 가구원수, 직업 등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교육시설 만족도에 따라서는 30대보다 18~20대, 60대 이상의 만족도가 높았고, 1인가구보다 2~3인 가구의 만족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 교육비용 만족도는 400만원 이상보다 200~300만원 미만 일 때, 1인, 4인 가구보다 2~3인 가구 일 때 만족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 교육의 질은 30대 보다 18~20대, 60대 이상일 때 만족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

[표 4-18] 도민 특성별 교육 세부지표 만족도 분석

구분		교육시설			교육비용			교육의 질		
		평균	표준편차	t/F (사후검증)	평균	표준편차	t/F (사후검증)	평균	표준편차	t/F (사후검증)
전체		5.96	2.07		5.62	2.15		5.64	2.11	
성별	남	6.05	2.01	1.433	5.64	2.11	.253	5.65	2.06	.199
	여	5.86	2.13		5.60	2.20		5.62	2.15	
연령	18~20대(a)	6.22	2.06	18.547*** (b<a,e)	6.07	1.91	23.286*** (b<d(a,e))	5.98	2.02	19.225*** (b<a,e)
	30대(b)	4.90	2.40		4.56	2.27		4.63	2.25	
	40대(c)	5.38	2.33		5.00	2.36		4.99	2.35	
	50대(d)	5.91	2.03		5.25	2.23		5.51	2.08	
	60대 이상(e)	6.48	1.63		6.25	1.80		6.18	1.77	
배우자 유무	있음	6.03	2.02	1.827	5.67	2.14	1.273	5.69	2.10	1.125
	없음	5.77	2.21		5.48	2.19		5.52	2.12	
개인 월소득	200만원미만(a)	5.90	2.15	1.527	5.61	2.24	2.738* (d<b)	5.69	2.20	1.914
	200~300만원미만(b)	6.16	1.96		5.88	2.00		5.78	1.94	
	300~400만원미만(c)	5.94	2.00		5.57	2.07		5.67	2.02	
	400만원 이상(d)	5.78	2.15		5.32	2.26		5.34	2.24	
가구원수	1인 가구(a)	5.51	2.02	5.857** (a<c,b)	5.12	2.04	9.420*** (a,d<c,b)	5.20	1.98	7.852*** (a,d<c,b)
	2인 가구(b)	6.19	1.91		6.01	1.92		5.92	1.94	
	3인 가구(c)	6.17	2.03		5.81	2.12		5.88	2.00	
	4인 가구 이상(d)	5.69	2.25		5.23	2.36		5.27	2.37	
직업	공무원(a)	5.90	2.30	2.420*	5.22	2.48	1.966	5.38	2.26	2.267*
	사무직(b)	5.96	2.10		5.61	2.05		5.70	2.08	
	생산유통서비스직(c)	6.29	1.76		5.95	2.06		5.86	1.99	
	전문직(교육, 의사등)(d)	5.72	2.27		5.46	2.11		5.42	2.12	
	자영업(e)	5.85	1.92		5.64	2.05		5.85	2.21	
	전업주부(f)	6.25	1.88		5.84	2.08		5.88	2.05	
	기타(g)	5.59	2.30		5.35	2.34		5.23	2.12	
지역	중추도시권(전주, 익산, 완주)	5.98	2.05	1.266	5.48	2.16	1.613	5.57	2.06	1.074
	새만금권(군산, 김제, 부안)	6.08	1.98		5.89	2.07		5.79	2.07	
	동북권(무주, 진안, 장수)	5.32	2.52		5.73	2.51		5.24	2.23	
	동남권(임실, 순창, 남원)	5.83	2.28		5.57	2.14		5.64	2.42	
	서남권(정읍, 고창)	5.96	2.03		5.78	2.11		5.87	2.14	

* α .05, ** α .01, *** α .001

■ 전북도민의 생활시간

전북도민은 가족과 함께 1일 366.40분을 함께 보내고, 일주일 평균 214.80분 운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원봉사는 월 평균 1.04일, 1.50시간 활동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전북도민의 생활시간을 특성별로 보면 성별에 따라서 남성은 가족과 343.36분 함께 보내고, 일주일 평균 236.71분 운동을 하고, 여성은 가족과 389.44분 함께 보내고, 일주일 평균 192.83분 운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에 따라서는 가족과 보내는 시간은 60대 이상(416.87분)이 많았고, 운동시간은 50대(260.77분)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9] 도민 특성별 생활시간

구분		가족과 보내는 시간(분)	일주일 평균 운동시간(분)	자원봉사 활동시간(월)	
				일	시간
전체		366.40	214.80	1.04	1.50
성별	남	343.36	236.71	0.95	1.61
	여	389.44	192.83	1.12	1.39
연령	18~20대	284.24	226.94	0.43	0.82
	30대	332.69	189.76	0.50	1.17
	40대	366.67	173.83	1.38	1.25
	50대	355.98	260.77	1.53	2.16
	60대 이상	416.87	212.16	1.03	1.65
배우자 유무	있음	404.85	207.24	1.13	1.50
	없음	269.75	233.77	0.79	1.51
개인 월소득	200만원미만	411.78	208.51	1.04	1.28
	200~300만원미만	344.48	178.39	0.70	1.47
	300~400만원미만	342.55	238.29	1.13	1.90
	400만원이상	347.14	253.21	1.40	1.54
가구원수	1인 가구	168.44	215.88	0.95	2.41
	2인 가구	439.64	223.31	0.97	1.47
	3인 가구	387.78	215.57	1.07	1.26
	4인 가구 이상	361.13	204.79	1.10	1.38
직업	공무원	331.44	190.96	0.52	1.04
	사무직	341.25	205.18	0.83	1.12
	생산유통서비스직	358.04	222.95	0.75	1.44
	전문직(교육, 의사등)	388.47	233.97	1.92	2.16
	자영업	344.29	219.27	1.32	1.99
	전업주부	431.26	205.60	0.48	0.72
	기타	370.53	220.46	1.54	2.16
지역	중추도시권(전주, 익산, 완주)	370.33	205.18	0.94	1.48
	새만금권(군산, 김제, 부안)	357.69	217.69	0.92	1.38
	동북권(무주, 진안, 장수)	371.22	194.15	1.88	1.29
	동남권(임실, 순창, 남원)	332.78	265.95	1.46	1.67
	서남권(정읍, 고창)	391.61	231.49	1.17	1.88

2. 통계지표

전라북도의 2023년 행복현황은 2020년형 행복지표를 기초로 전문가 자문과 연구진 논의를 통해 '교육'영역을 추가하여 분석하였다. 기존 통계지표의 조사내용과 시기에 따라 2023년에는 지표값을 제시하지 못한 세부지표(가족관계 만족분야에서 가정에서 보내는 시간, 부모와의 교류 등)를 제외하고 총 66개의 세부지표를 분석하였다. 이러한 통계지표는 주관적 지표(38개)와 객관적 지표(28개)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표 4-20] 기존 통계지표 행복조사 내용

분야	통계지표	
	주관적 지표	객관적 지표
경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용안정성 소득만족도 직업만족도 좋은 일자리 인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관적 소득수준 계층의식 계층이동성
가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구소득 및 가계부채 소비자 물가지수 고용률 및 실업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족과 함께하는 여가활동
건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강관리실천 의료시설 수 의료서비스 이용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강만족도 스트레스정도
사회적 관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어려울 때 도움제공 지인 이웃에 대한 신뢰도 직장동료관계 만족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친구관계 만족도 학교생활 만족도
문화 여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화여가활동 빈도 문화여가시설 수 문화여가비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화여가활동 만족도 문화여가시설 만족도 일과 여가의 균형 예술행사 만족도
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살총동정도 복지서비스만족도 보육시설만족도 노인복지서비스만족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회보장 만족도 노후준비정도
안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범죄안전등급 지역안전등급 범죄 검거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안전시설에 대한 만족도 범죄로부터의 안전만족도 재해재난으로부터의 안전만족도
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중교통접근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거환경 만족도 주택만족도
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생활폐기물에 대한 청결도 미세먼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원/녹지공간 접근 만족도 현재 체감환경만족도 환경에 대한 만족도 환경문제인식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교개수 대학개수 평생학습참여율 문해능력수준별인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교생활만족도 교우관계만족도 교사와의 관계만족도 교육기회충족도 교육비부담인식

가. 경제

지표	지표 내용	지표비교			
		전국	전북	비교	
주관적 지표	1) 고용의 안정성(%)	고용불안 느낌	53.9	44.9	▼9.0
		고용불안 느끼지 않음	46.0	55.1	▲9.1
	2) 소득만족도(%)	만족	23.4	25.9	▲2.5
	3) 직업만족도(%)	만족	35.0	41.6	▲6.6
	4) 좋은 일자리 인식(%)	명예명성	3.2	2.8	▼0.4
		안정성	24.8	28.7	▲3.9
		수입	38.7	34.6	▼4.1
		적성흥미	13.8	15.7	▲1.9
		보람·자아성취	3.9	4.5	▲0.6
		발전장래성	4.4	6.7	▲2.3
		여유	11.8	13.7	▲1.9
	5) 주관적 소득수준(%)	적정	30.2	36.4	▲6.2
		모자람	57.9	49.9	▼8.0
		상	2.7	1.8	▼0.9
	6) 계층의식(%)	중	58.8	62.1	▲3.3
		하	38.5	36.1	▼2.4
		높음	25.3	32.9	▲7.6
	7) 계층이동성(%)	낮음	60.5	55.8	▼4.7
		모름	14.2	11.2	▼3.0
		높음	25.3	32.9	▲7.6
객관적 지표	8) 가구소득 및 가계부채(만원)	가구소득	6,414	5,947	▼467
		가계부채	9,170	5,618	▼3,552
	9) 소비자 물가지수	2020년=100	102.5	102.59	▲0.09
	10) 고용률 및 실업률(%)	고용률	60.5	61.2	▲0.7
실업률		3.8	2.2	▼1.6	

경제적 만족 분야의 전라북도 지표별 현황을 전국평균과 비교하여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전북의 경제적 만족분야는 고용의 안정성, 소득만족도, 직업만족도, 주관적 소득수준, 계층이동성 등 주관적 지표는 전국 평균보다 비교적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만 좋은 일자리 인식 중 명예·명성(▼0.4)과 수입(▼4.1) 등은 전국 평균보다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계부채규모에서는 전북 5,618만원으로 전국평균(3,552만원)보다 적게 나타났고, 고용률은 전북이 61.2%로 전국(60.5%)보다 0.7%p 높고, 실업률은 전북이 2.2%로 전국평균(3.8%)보다 1.6%p 낮게 나타났다. 이는 경제의 객관적 지표에서도 전국 평균보다 높은 수준으로 긍정적 지표로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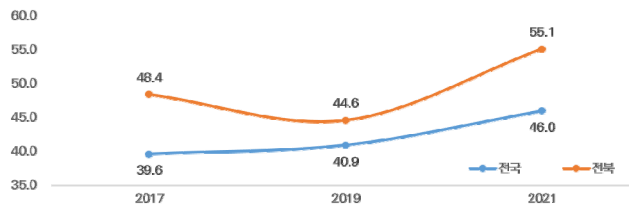
경제적 만족분야의 세부지표를 살펴보면 고용의 안정성에 대해 전라북도는 느끼지 않음으로 응답한 전라북도민의 비율이 55.1%로 전국평균(46.0%)에 비해 고용의 안정성을 9.1%p 더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라북도의 고용의 안정성의 변화 추이를 보면, 2017년 48.4%, 2019년 44.6%, 2021년 55.1%로 2017년에 비해 2019년에는 약간 감소하였다가 2021년에는 약 10%p 정도 급격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4-21] 고용의 안정성(직장을 잃거나 바꾸어야 한다는 불안함을 느끼는 정도)

(단위 : %)

시도	2017년				2019년				2021년			
	매우 많이 느낌	느끼는 편	느끼지 않는 편	전혀 느끼지 않음	매우 많이 느낌	느끼는 편	느끼지 않는 편	전혀 느끼지 않음	매우 많이 느낌	느끼는 편	느끼지 않는 편	전혀 느끼지 않음
전국	17.0	43.4	30.8	8.8	15.6	43.5	32.5	8.4	16.0	37.9	34.8	11.2
서울	20.6	43.2	27.9	8.3	18.4	44.9	29.4	7.3	18.0	38.3	33.4	10.3
부산	15.2	44.8	31.5	8.5	12.9	45.9	33.6	7.6	16.6	42.3	32.0	9.0
대구	15.0	44.2	33.8	7.1	12.6	42.4	37.7	7.2	14.8	40.8	34.7	9.7
인천	20.4	44.6	27.1	7.9	15.8	46.5	30.3	7.4	16.8	34.3	36.5	12.4
광주	16.4	45.1	31.4	7.1	14.8	46.1	33.3	5.8	14.9	39.7	36.0	9.4
대전	19.0	44.5	30.2	6.3	16.3	42.5	33.4	7.8	16.2	37.1	37.3	9.4
울산	15.2	44.6	34.4	5.7	16.7	44.5	32.7	6.1	18.2	37.7	33.2	10.9
세종	14.8	35.7	36.7	12.8	15.6	39.9	34.2	10.2	12.6	34.5	37.5	15.4
경기	18.3	45.6	29.0	7.1	18.7	43.9	29.4	8.0	18.5	40.8	31.4	9.3
강원	12.9	38.8	33.1	15.2	7.9	42.0	37.8	12.4	11.4	34.1	36.2	18.2
충북	15.4	39.1	32.8	12.8	13.8	41.1	34.7	10.4	10.5	32.2	45.0	12.3
충남	13.9	41.0	34.5	10.6	13.9	38.2	37.7	10.2	12.2	32.5	42.2	13.1
전북	11.2	40.4	35.5	12.9	11.5	43.9	33.9	10.7	9.8	35.1	38.3	16.8
전남	14.2	38.1	35.2	12.5	10.6	38.8	40.3	10.3	12.6	31.6	39.9	16.0
경북	11.5	42.3	34.3	11.9	12.8	40.2	35.2	11.8	14.5	34.8	35.9	14.7
경남	16.2	43.7	32.2	7.9	12.8	44.1	34.7	8.4	14.7	38.6	36.2	10.6
제주	10.3	39.2	39.5	11.0	11.8	38.8	39.1	10.3	11.7	38.5	36.7	13.1
전국	17.0	43.4	30.8	8.8	15.6	43.5	32.5	8.4	16.0	37.9	34.8	11.2
전북	11.2	40.4	35.5	12.9	11.5	43.9	33.9	10.7	9.8	35.1	38.3	16.8
비교	▼5.8	▼3.0	▲4.7	▲4.1	▼4.1	▲0.4	▲1.4	▲2.3	▼6.2	▼2.8	▲3.5	▲5.6

자료 : 통계청, 사회조사(각 연도)



[그림 4-15] 고용의 안정성 연도별 변화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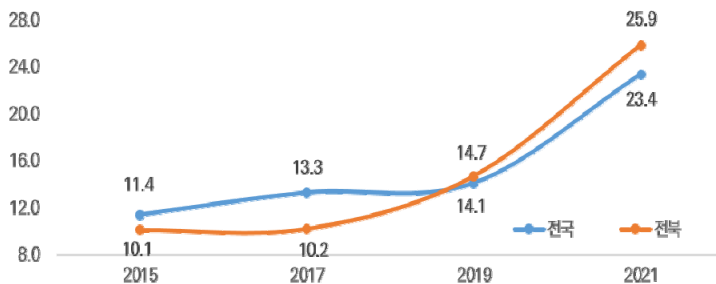
2021년 기준 소득만족도는 만족한다가 25.9%로 전국 평균 23.4%에 비해 약 2.5%p 더 높게 나타났다. 한편 전라북도의 소득만족도는 2015년 10.1%, 2017년 10.2%, 2019년 14.7%, 2021년 25.9%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19년을 기점으로 전국 평균보다 소득만족도가 높게 나타났고, 2021년에도 전국평균보다 전라북도의 소득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표 4-22] 소득만족도

(단위 : %)

시도	2015년			2017년			2019년			2021년		
	만족	보통	불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전국	11.4	42.3	46.3	13.3	40.7	46.0	14.1	42.4	43.6	23.4	34.3	42.2
서울	13.0	39.6	47.4	16.6	39.0	44.4	14.1	40.3	45.7	22.4	33.1	44.5
부산	8.6	42.4	48.9	9.8	40.5	49.8	12.1	41.1	46.8	19.7	37.9	42.4
대구	11.0	43.9	45.0	9.5	39.5	49.8	11.3	41.5	46.1	20.2	34.6	45.2
인천	10.1	42.6	47.3	11.8	40.0	48.2	15.5	41.9	42.6	22.8	33.0	44.3
광주	10.1	42.9	47.0	13.9	40.7	44.1	12.5	47.0	40.6	26.4	32.3	41.2
대전	12.4	43.8	43.8	12.6	39.2	46.8	14.6	39.3	46.1	26.9	32.3	40.8
울산	9.6	47.9	42.5	9.7	44.6	44.1	11.0	40.9	46.4	24.1	36.3	39.6
세종	14.7	44.0	41.4	19.9	41.0	39.2	15.1	45.3	37.1	28.8	36.1	35.1
경기	11.1	41.4	47.5	12.8	39.9	47.3	14.7	42.2	43.2	22.7	33.5	43.8
강원	12.7	43.9	43.4	13.4	44.1	42.5	15.2	44.7	40.1	26.8	35.0	38.2
충북	11.3	40.7	48.0	13.2	38.5	48.3	12.4	44.6	43.0	26.2	35.8	38.0
충남	12.9	45.0	42.1	11.6	44.7	43.8	14.5	45.2	40.2	28.9	35.7	35.3
전북	10.1	41.4	48.4	10.2	46.0	42.6	14.7	41.8	43.5	25.9	36.6	37.5
전남	11.6	42.4	46.0	15.7	42.6	41.7	15.6	45.7	38.7	25.5	39.8	34.8
경북	11.4	46.6	42.1	12.7	40.3	47.1	13.3	42.3	44.4	23.3	34.6	42.0
경남	11.6	44.0	44.4	11.7	42.7	45.7	13.1	46.0	40.9	23.3	32.6	44.2
제주	12.7	46.2	41.1	14.6	45.0	37.6	14.2	45.5	40.3	29.8	34.3	35.9
전국	11.4	42.3	46.3	13.3	40.7	46.0	14.1	42.4	43.6	23.4	34.3	42.2
전북	10.1	41.4	48.4	10.2	46.0	42.6	14.7	41.8	43.5	25.9	36.6	37.5
비교	▼1.3	▼0.9	▲2.1	▼3.1	▲5.3	▼3.4	▲0.6	▼0.6	▼0.1	▲2.5	▲2.3	▼4.7

자료 : 통계청, 사회조사(각 연도)



[그림 4-16] 소득만족도 연도별 변화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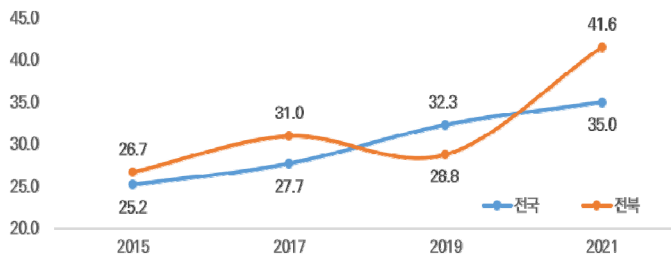
직업만족도는 2021년 기준 만족한다가 41.6%로 전국 평균 35.0%에 비해 6.6%p 더 높게 나타났다. 전라북도의 직업만족도 변화추이를 보면, 2015년 26.7%, 2017년 31.0%로 만족도가 증가하다가 2019년 28.8%로 약간 감소, 2021년 41.6%로 급격하게 높아졌다. 직업만족도의 전국 평균은 2015년부터 2021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고, 전라북도는 2019년 전국평균보다 낮아졌다가 2021년 전국평균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표 4-23] 직업만족도

(단위 : %)

시도	2015년			2017년			2019년			2021년		
	만족	보통	불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전국	25.2	52.6	22.2	27.7	51.6	20.7	32.3	51.4	16.3	35.0	49.6	15.4
서울	27.8	49.0	23.1	30.5	49.1	20.4	32.1	50.3	17.5	34.3	49.9	15.8
부산	23.0	56.7	20.2	22.7	54.3	23.0	26.9	60.6	12.5	29.0	54.7	16.3
대구	19.0	54.6	26.4	24.4	56.7	18.9	22.9	55.4	16.4	30.3	54.2	15.5
인천	24.8	50.4	24.8	27.3	47.6	25.2	30.7	51.2	18.1	33.4	50.9	15.8
광주	20.4	56.9	22.7	24.1	59.5	12.2	28.5	56.6	11.9	33.5	53.4	13.1
대전	30.1	51.2	18.8	31.5	48.1	20.3	32.7	50.2	17.1	38.7	45.3	16.0
울산	21.4	57.0	21.5	26.3	53.1	20.6	31.8	50.3	17.9	36.8	47.1	16.0
세종	30.0	51.8	18.0	42.0	41.1	17.0	44.8	42.2	10.9	39.4	46.8	13.9
경기	23.6	52.1	24.3	27.3	50.4	22.3	33.2	49.0	17.8	35.2	48.2	16.7
강원	31.8	52.7	15.4	34.1	49.4	16.5	40.5	49.1	10.4	38.5	49.6	12.0
충북	27.6	54.6	17.9	25.4	52.4	22.2	31.9	54.2	13.9	39.0	50.6	10.5
충남	27.1	53.2	19.8	23.7	58.4	17.8	33.6	49.6	16.8	38.0	48.8	13.1
전북	26.7	50.7	22.5	31.0	52.2	13.9	28.8	58.7	9.9	41.6	45.3	13.1
전남	27.6	56.1	16.3	30.1	55.8	14.1	36.0	53.2	9.6	38.2	48.7	13.2
경북	22.9	59.3	17.8	27.3	53.5	19.2	31.3	53.7	15.0	31.8	50.8	17.4
경남	26.5	52.5	21.0	24.7	54.0	21.4	33.5	49.9	16.7	35.4	49.0	15.5
제주	27.2	55.3	17.4	32.6	55.3	8.5	40.2	46.5	9.8	44.0	45.9	10.0
전국	25.2	52.6	22.2	27.7	51.6	20.7	32.3	51.4	16.3	35.0	49.6	15.4
전북	26.7	50.7	22.5	31.0	52.2	13.9	28.8	58.7	9.9	41.6	45.3	13.1
비교	▲1.5	▼1.9	▲0.3	▲3.3	▲0.6	▼6.8	▼3.5	▲7.3	▼6.4	▲6.6	▼4.3	▼2.3

자료 : 통계청, 사회조사(각 연도)



[그림 4-17] 직업만족도 연도별 변화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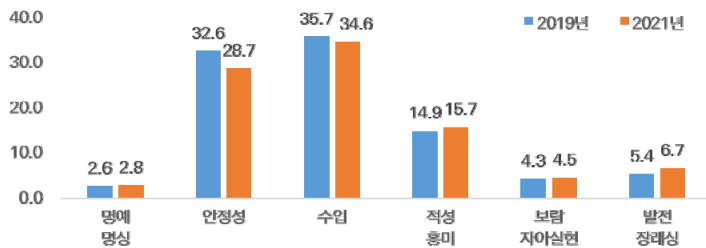
전북의 좋은 일자리 요건은 2021년 기준으로 수입 34.6%, 안정성 28.7%, 적성흥미 15.7%, 발전장래성 6.7% 등 순으로 나타나, 전북도민은 직업을 선택할 때 수입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평균과 비교하면 안정성(24.8%)에서 3.9%p 더 높게 나타나 안정적인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4-24] 좋은 일자리 인식(직업선택요인)

(단위 : %)

시도	2019년							2021년						
	명예 명성	안정성	수입	적성 흥미	보람 자아 실현	발전 장래성	기타	명예 명성	안정성	수입	적성 흥미	보람 자아 성취	발전 장래성	기타
전국	2.9	25.6	38.8	16.1	4.2	5.8	3.9	3.2	24.8	38.7	13.8	3.9	4.4	8.6
서울	2.9	22.2	40.9	15.7	4.7	6.7	3.3	4.4	21.2	39.1	14.4	5.1	5.4	8.1
부산	3.2	22.7	37.2	21.3	4.5	6.8	3.0	2.5	24.0	40.0	14.2	4.0	4.5	8.0
대구	3.4	26.6	37.0	15.3	3.6	6.6	3.8	2.1	22.4	43.7	13.1	3.1	5.2	9.2
인천	3.9	25.5	37.9	14.9	3.8	5.6	5.1	3.9	23.9	41.1	13.6	3.2	3.2	8.2
광주	2.0	29.5	39.7	11.7	4.2	6.3	5.2	3.6	27.2	38.3	14.1	3.2	3.9	8.8
대전	4.4	27.6	34.2	17.0	4.4	7.2	4.0	3.5	26.6	33.5	16.0	4.6	3.6	10.6
울산	3.0	26.9	43.5	12.8	3.1	3.7	4.9	2.6	23.6	44.8	11.1	3.7	3.2	8.2
세종	2.4	28.1	34.3	19.0	7.0	4.9	3.3	4.0	26.1	35.7	15.7	4.7	3.4	9.6
경기	3.0	24.1	39.2	18.3	3.7	5.2	4.4	3.2	24.6	38.2	14.3	4.0	4.1	9.3
강원	2.5	26.4	39.3	15.6	5.3	4.5	3.0	2.5	28.5	36.9	11.2	2.9	4.7	9.7
충북	2.6	28.2	37.6	13.1	4.5	6.6	3.5	2.5	24.8	44.0	11.1	2.8	4.0	7.5
충남	2.7	28.3	36.9	14.0	5.0	5.8	3.4	2.4	24.1	35.5	13.8	3.8	5.1	8.7
전북	2.6	32.6	35.7	14.9	4.3	5.4	3.2	2.8	28.7	34.6	15.7	4.5	6.7	5.9
전남	3.6	30.2	36.6	13.1	3.8	5.4	3.0	2.8	32.5	36.0	11.4	2.9	3.8	7.4
경북	2.5	30.7	39.2	12.4	3.3	4.4	3.5	2.5	25.0	41.3	11.3	2.9	3.9	8.5
경남	1.6	26.7	38.1	16.2	4.3	6.0	4.4	2.0	29.8	35.8	13.9	3.2	3.5	9.2
제주	3.5	23.9	42.1	14.6	4.7	4.3	4.8	2.9	29.0	33.9	13.8	4.2	4.6	8.5
전국	2.9	25.6	38.8	16.1	4.2	5.8	3.9	3.2	24.8	38.7	13.8	3.9	4.4	8.6
전북	2.6	32.6	35.7	14.9	4.3	5.4	3.2	2.8	28.7	34.6	15.7	4.5	6.7	5.9
비교	▼0.3	▲7.0	▼3.1	▼1.2	▲0.1	▼0.4	▼0.7	▼0.4	▲3.9	▼4.1	▲1.9	▲0.6	▲2.3	▼2.7

자료 : 통계청, 사회조사(각 연도)



[그림 4-18] 전북의 좋은 일자리 인식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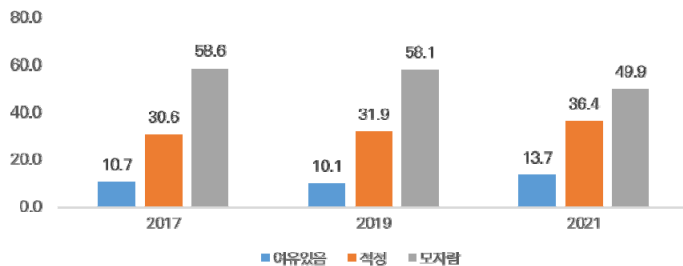
전북의 주관적 소득수준은 2021년 기준 모자람이 49.9%로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걱정(36.4%), 여유있음(13.7%)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평균과 비교하였을 때 모자람은 전국평균보다 8.0%p 낮고, 걱정과 여유있음은 각 6.2%p, 1.9%p 높게 나타났다.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전북의 주관적 소득수준의 변화추이를 살펴보면 모자람은 감소하고 걱정과 여유있음은 증가추세를 보여 소득수준에 대한 만족도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4-25] 주관적 소득 수준

(단위 : %)

시도	2017년			2019년			2021년		
	여유있음	걱정	모자람	여유있음	걱정	모자람	여유있음	걱정	모자람
전국	10.8	26.8	62.4	10.8	28.6	60.6	11.8	30.2	57.9
서울	14.2	25.5	60.3	12.1	27.9	60.0	12.7	30.8	56.5
부산	6.7	27.1	66.2	7.8	29.8	62.4	9.4	30.9	59.6
대구	10.3	23.7	66.0	10.0	27.6	62.5	8.0	31.5	60.4
인천	8.0	24.2	67.7	11.2	31.3	57.5	13	25.2	61.7
광주	9.2	26.3	64.5	8.5	26.6	64.9	13.7	28.3	58.1
대전	13.0	27.5	59.6	10.9	28.0	61.1	12.3	32.8	54.9
울산	8.1	28.4	63.5	11.1	25.8	63.0	13.1	27.1	59.9
세종	19.5	30.0	50.5	13.4	37.1	49.5	14.2	35.9	49.9
경기	11.0	25.4	63.7	12.3	25.3	62.4	12.6	27.3	60.1
강원	9.7	29.2	61.1	9.5	31.8	58.7	11.6	31.3	57.2
충북	10.6	25.2	64.3	9.1	30.4	60.6	13.7	32.4	54.0
충남	8.4	32.1	59.5	11.5	32.6	55.9	13.2	37.8	49.0
전북	10.7	30.6	58.6	10.1	31.9	58.1	13.7	36.4	49.9
전남	11.8	29.2	59.1	9.9	32.8	57.4	10.9	35.2	53.8
경북	10.0	30.3	59.7	9.8	30.4	59.9	8.3	29.9	61.8
경남	8.9	28.5	62.6	9.3	29.7	60.9	9.9	29.6	60.5
제주	11.9	31.0	57.1	8.4	30.6	61.1	13.1	30.2	56.7
전국	10.8	26.8	62.4	10.8	28.6	60.6	11.8	30.2	57.9
전북	10.7	30.6	58.6	10.1	31.9	58.1	13.7	36.4	49.9
비교	▼0.1	▲3.8	▼3.8	▼0.7	▲3.3	▼2.5	▲1.9	▲6.2	▼8.0

자료 : 통계청, 사회조사(각 연도)



[그림 4-19] 전북의 주관적 소득수준 변화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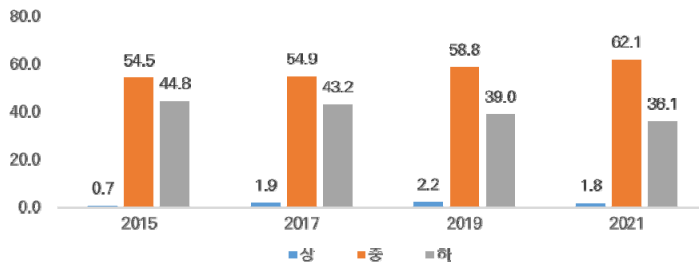
전북의 계층의식은 중위계층 62.1%, 하위계층 36.1%, 상위계층 1.8% 순으로 나타났고, 전국 평균에 비해 중위계층이 3.3%p 높게 나타났다. 전북의 계층의식 변화추이를 보면 2015년 하위계층은 2015년 44.8%에서 2021년 36.1%로 낮아진 반면에 중위계층은 2015년 54.5%에서 2021년 62.1%로 높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상위계층은 2015년 0.7%에서 2019년 2.2%까지 증가추세를 보이다가 2021년 1.8%로 다시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26] 계층의식

(단위 : %)

시도	2015년			2017년			2019년			2021년		
	상	중	하	상	중	하	상	중	하	상	중	하
전국	2.4	57.9	39.7	2.7	57.6	39.7	2.4	58.5	39.1	2.7	58.8	38.5
서울	3.6	56.0	40.4	4.5	57.0	38.5	3.9	57.1	39.0	3.7	61.4	34.9
부산	2.0	54.6	43.4	1.5	57.8	40.7	2.2	59.3	38.5	2.8	55.6	41.6
대구	1.8	60.1	38.2	2.7	57.3	40.0	3.2	56.2	40.7	1.9	59.7	38.3
인천	1.6	55.4	43.0	1.5	55.0	43.6	1.5	59.5	39.0	1.9	57.6	40.5
광주	1.8	58.9	39.3	1.7	58.8	39.5	1.7	57.3	40.9	2.3	61.1	36.7
대전	2.3	65.0	32.7	3.4	59.6	37.0	2.8	61.6	35.6	2.4	62.9	34.7
울산	3.2	59.4	37.4	1.8	64.6	33.6	2.3	60.2	37.5	2.3	63.5	34.2
세종	3.2	67.4	29.3	5.1	67.9	27.0	5.3	72.8	21.9	5.0	67.0	28.0
경기	2.2	60.0	37.8	2.4	57.1	40.5	2.0	58.3	39.7	2.8	57.6	39.7
강원	2.8	54.3	42.8	2.5	54.8	42.7	1.6	56.7	41.7	1.8	53.7	44.5
충북	2.1	60.5	37.4	2.0	57.9	40.1	2.1	58.7	39.2	3.4	60.7	35.9
충남	1.4	54.9	43.7	2.0	62.8	35.2	1.7	58.8	39.5	2.9	62.8	34.3
전북	0.7	54.5	44.8	1.9	54.9	43.2	2.2	58.8	39.0	1.8	62.1	36.1
전남	1.9	56.2	41.9	3.9	58.7	37.4	3.1	61.3	35.6	2.5	57.8	39.7
경북	2.9	57.2	39.8	2.2	58.3	39.5	1.3	58.9	39.9	1.6	50.8	47.6
경남	2.4	60.6	37.1	1.9	56.3	41.8	2.1	58.6	39.3	2.3	58.5	39.3
제주	1.5	58.7	39.8	2.1	63.5	34.4	2.2	58.5	39.4	2.0	62.9	35.1
전국	2.4	57.9	39.7	2.7	57.6	39.7	2.4	58.5	39.1	2.7	58.8	38.5
전북	0.7	54.5	44.8	1.9	54.9	43.2	2.2	58.8	39.0	1.8	62.1	36.1
비교	▼1.7	▼3.4	▲5.1	▼0.8	▼2.7	▲3.5	▼0.2	▲0.3	▼0.1	▼0.9	▲3.3	▼2.4

자료 : 통계청, 사회조사(각 연도)



[그림 4-20] 전북의 계층의식 변화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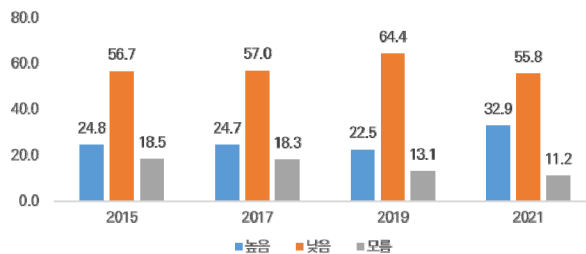
전북의 계층이동성은 낮음이 55.8%, 높음은 32.9%로 나타났으며 이를 전국평균과 비교하면 계층이동성이 낮은 경우는 전국(60.5%)보다 4.7%p 낮게 나타났다. 전북의 계층이동성 변화추이를 보면, 계층이동성 낮음이 2015년 56.7%에서 2019년 64.4%로 증가하다가 2021년 55.8%로 낮아졌고, 계층이동성 높음은 2015년 24.8%에서 2019년 22.5%로 낮아졌다가 2021년 32.9%로 높아져, 계층 간 이동이 가능하다는 인식이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4-27] 계층이동성

(단위 : %)

시도	2015년			2017년			2019년			2021년		
	높음	낮음	모름	높음	낮음	모름	높음	낮음	모름	높음	낮음	모름
전국	22.8	61.3	15.9	22.7	65.0	12.3	22.7	64.9	12.4	25.3	60.5	14.2
서울	22.9	63.2	13.9	21.7	68.6	9.7	20.5	66.6	12.8	25.4	62.6	12.0
부산	21.2	59.9	18.9	20.8	66.9	12.4	29.0	63.1	7.8	25.9	62.3	11.8
대구	26.1	56.9	17.0	23.5	65.7	10.8	25.2	63.2	11.6	25.9	63.0	11.1
인천	20.9	64.1	15.0	22.4	64.4	13.2	20.2	65.1	14.6	22.1	64.3	13.6
광주	22.2	64.7	13.1	26.3	65.3	8.4	21.5	65.9	12.6	26.1	62.8	11.1
대전	25.5	58.4	16.2	27.0	63.9	9.0	27.0	62.3	10.7	27.4	60.5	12.1
울산	20.5	62.8	16.7	22.4	64.1	13.4	22.9	65.8	11.3	25.0	61.0	14.0
세종	28.8	60.9	10.2	32.0	60.1	7.9	20.7	70.2	9.1	28.8	57.1	14.1
경기	20.1	63.9	16.0	20.9	67.4	11.8	21.0	68.3	10.7	23.1	62.0	14.9
강원	27.1	53.2	19.6	26.4	55.0	18.6	24.0	59.9	16.0	26.4	55.7	17.9
충북	29.1	57.0	13.9	20.6	67.0	12.4	23.5	64.2	12.4	28.6	54.6	16.8
충남	23.4	60.8	15.8	22.5	59.8	17.7	22.0	61.4	16.6	27.1	52.2	20.7
전북	24.8	56.7	18.5	24.7	57.0	18.3	22.5	64.4	13.1	32.9	55.8	11.2
전남	24.4	59.3	16.3	32.7	54.2	13.1	31.1	53.1	15.8	29.7	55.7	14.6
경북	20.7	61.8	17.5	26.0	59.1	14.9	21.5	61.6	16.9	21.1	57.9	21.0
경남	25.9	58.3	15.7	20.5	66.8	12.6	22.4	66.1	11.5	25.9	60.7	13.4
제주	26.3	54.9	18.8	22.2	59.6	18.2	31.1	55.5	13.5	28.7	55.0	16.2
전국	22.8	61.3	15.9	22.7	65.0	12.3	22.7	64.9	12.4	25.3	60.5	14.2
전북	24.8	56.7	18.5	24.7	57.0	18.3	22.5	64.4	13.1	32.9	55.8	11.2
비교	▲2.0	▼4.6	▲2.6	▲2.0	▼8.0	▲6.0	▼0.2	▼0.5	▲0.7	▲7.6	▼4.7	▼3.0

자료 : 통계청, 사회조사(각 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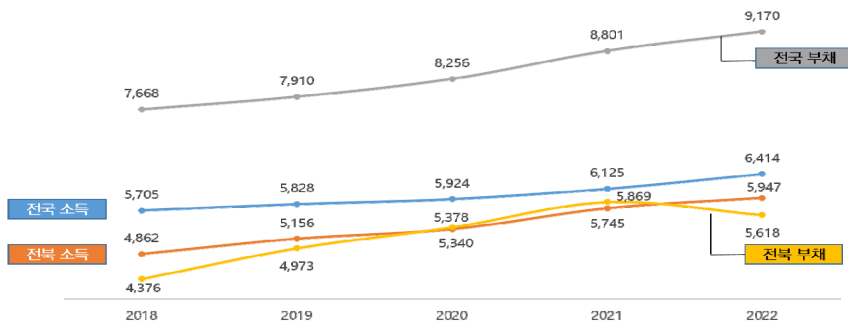
[그림 4-21] 전북의 계층이동성 변화 추이

전북의 연 가구소득은 2022년 5,947만원으로 전국 평균 6,414만원에 비해 467만원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의 가구소득은 2018년 4,862만원에서 2022년 5,947만원으로 증가 추세이나 전국평균가계부채의 경우 2022년 5,618만원으로 전국 평균 9,170만원에 비해 약 3,552만원이 적었다.

[표 4-28] 연 가구소득 및 가계부채

시도	연 가구소득(만원)					가계부채(만원)				
	2018	2019	2020	2021	2022	2018	2019	2020	2021	2022
전국	5,705	5,828	5,924	6,125	6,414	7,668	7,910	8,256	8,801	9,170
서울	6,495	6,595	6,575	6,826	7,103	10,073	10,635	11,077	11,716	11,972
부산	4,996	5,181	5,402	5,519	5,679	6,096	6,217	6,712	8,339	8,632
대구	5,351	5,301	5,288	5,312	5,558	7,670	7,546	7,894	8,594	8,474
인천	5,536	5,704	6,075	6,316	6,293	7,065	7,277	8,498	8,907	9,566
광주	5,410	5,796	6,030	6,076	6,223	4,785	5,003	6,035	6,593	6,898
대전	5,309	5,688	5,714	6,111	6,452	6,675	6,763	6,562	8,106	7,959
울산	6,581	6,413	6,445	6,480	6,739	7,568	6,672	6,776	6,963	6,894
경기	6,320	6,430	6,503	6,725	7,123	9,850	10,217	10,213	11,026	11,863
세종	6,872	7,147	7,425	7,488	7,751	10,254	10,145	10,793	13,063	14,082
강원	4,817	5,088	4,924	5,196	5,459	4,508	4,924	5,619	5,539	5,370
충북	4,815	5,042	5,275	5,477	6,089	5,112	5,195	5,547	5,064	5,913
충남	5,247	5,348	5,334	5,522	5,719	5,590	5,225	5,644	5,802	5,978
전북	4,862	5,156	5,340	5,745	5,947	4,376	4,973	5,378	5,869	5,618
전남	4,777	4,981	5,290	5,456	5,739	4,561	4,765	4,545	4,622	5,088
경북	5,055	4,830	4,883	5,104	5,606	5,082	5,067	5,228	5,014	5,543
경남	5,095	5,187	5,303	5,303	5,460	6,728	6,804	7,067	6,751	6,594
제주	5,126	5,437	5,531	5,933	6,227	6,466	7,289	7,869	7,764	7,227
전국	5,705	5,828	5,924	6,125	6,414	7,668	7,910	8,256	8,801	9,170
전북	4,862	5,156	5,340	5,745	5,947	4,376	4,973	5,378	5,869	5,618
비교	▼843	▼672	▼584	▼380	▼467	▼3,292	▼2,937	▼2,878	▼2,932	▼3,552

자료 :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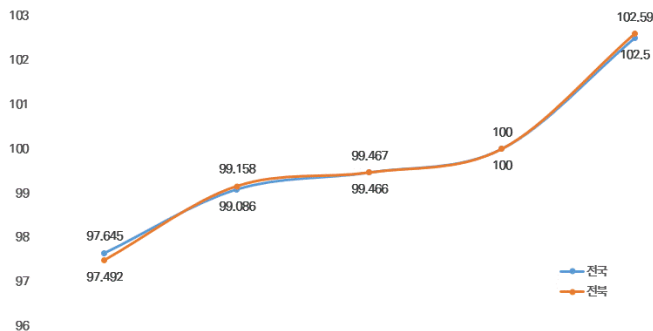
[그림 4-22] 가구소득 및 가계부채 규모 변화 추이

전북의 소비자 물가지수를 보면 2021년 기준(2020년=100) 102.59로 전국 평균 102.5보다 약 0.09p 높아 전국 평균 물가보다 전북의 소비자 물가가 약간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전북의 소비자물가는 2017년에는 전국 평균보다 낮았으나 2018년 이후로는 약간 증가한 이후 2021년까지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표 4-29] 소비자 물가지수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전국	97.645	99.086	99.466	100	102.5
서울	97.494	98.799	99.382	100	102.1
부산	97.639	99.343	99.824	100	102.46
대구	97.358	99.047	99.71	100	102.64
인천	97.383	98.96	99.222	100	102.62
광주	98.191	99.345	99.564	100	102.57
대전	97.894	99.412	99.622	100	102.5
울산	99.006	100.026	99.705	100	102.49
세종	-	-	-	100	102.71
경기	97.545	98.994	99.396	100	102.57
강원	97.013	98.557	99.384	100	102.8
충북	97.524	99.122	99.487	100	102.69
충남	98.036	99.437	99.343	100	102.77
전북	97.492	99.158	99.467	100	102.59
전남	97.508	98.971	99.3	100	102.62
경북	98.24	99.703	99.875	100	102.74
경남	97.952	99.304	99.385	100	102.53
제주	97.553	99.252	99.574	100	102.63
전국	97.645	99.086	99.466	100	102.5
전북	97.492	99.158	99.467	100	102.59
비교	▼0.153	▲0.072	▲0.001	-	▲0.09

주 : 2020=100(2021년 기준변경)
 자료 : 통계청, 소비자물가조사



[그림 4-23] 소비자 물가지수 변화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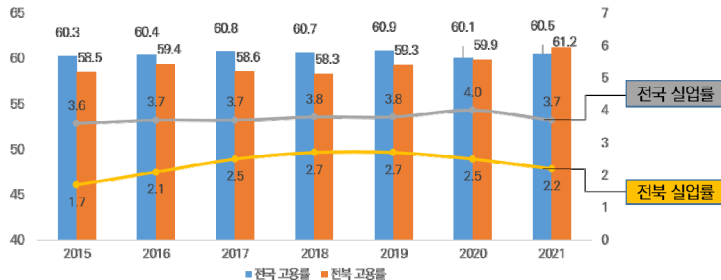
전북의 고용률은 2021년 61.2%로 전국평균 60.5%보다 약 0.6%p 높게 나타났고, 실업률은 2021년 2.2%로 전국평균 3.7%보다 약 1.5%p 낮게 나타났다. 전북의 고용률은 2015년 58.5%에서 2018년 58.3%로 증감추세를 보이다가 2018년부터는 증가하고 있으며, 실업률은 2015년 1.7%에서 2019년 2.7%까지 증가하다가 2020년부터는 약간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표 4-30] 고용률 및 실업률

(단위 : %)

시도	고용률							실업률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전국	60.3	60.4	60.8	60.7	60.9	60.1	60.5	3.6	3.7	3.7	3.8	3.8	4.0	3.7
서울	60.0	60.1	60.2	59.6	60.0	59.3	59.2	4.2	4.3	4.5	4.8	4.4	4.6	4.8
부산	55.9	56.0	56.3	55.7	56.6	55.6	56.2	4.1	3.9	4.6	4.1	3.7	4.2	3.4
대구	59.2	59.1	58.8	58.2	57.9	56.6	58.2	3.5	4.2	4.0	4.4	3.7	3.9	3.7
인천	60.9	61.6	61.7	62.9	62.5	61.3	61.3	5.1	4.9	4.6	4.3	4.4	4.6	4.0
광주	58.4	58.0	59.0	59.4	59.3	58.7	58.2	3.0	3.1	2.9	3.8	3.7	3.9	3.6
대전	60.1	60.4	58.9	58.7	59.8	60.7	60.9	3.5	3.3	3.4	4.2	4.2	4.4	3.3
울산	58.7	58.8	59.8	59.0	59.1	58.1	57.7	2.9	3.8	3.5	4.6	4.2	4.2	3.6
세종			61.2	61.8	62.5	62.7	62.6			2.3	2.3	2.7	2.8	2.1
경기	61.4	61.5	62.1	62.0	61.9	60.3	61.1	3.9	3.9	3.9	3.8	3.8	4.0	3.7
강원	57.5	58.0	61.0	60.7	62.3	60.8	61.4	3.3	2.9	2.6	2.9	3.6	3.9	3.6
충북	62.2	61.9	62.6	63.3	62.9	63.2	63.3	2.6	2.6	2.2	2.4	3.1	3.2	2.5
충남	62.4	62.0	62.3	63.5	63.7	62.4	63.0	3.5	3.1	2.8	3.1	2.9	3.5	2.3
전북	58.5	59.4	58.6	58.3	59.3	59.9	61.2	1.7	2.1	2.5	2.7	2.7	2.5	2.2
전남	61.5	61.6	62.1	62.4	63.4	63.9	64.6	2.5	3.0	3.2	2.8	2.6	2.4	2.3
경북	62.0	62.1	62.5	61.6	61.7	61.1	61.0	3.1	3.2	2.8	4.1	3.9	4.0	3.2
경남	60.0	60.1	60.9	61.4	61.3	60.6	60.7	2.6	3.3	2.9	3.0	3.8	4.0	4.1
제주	67.9	68.6	70.9	68.4	68.4	67.1	67.4	1.9	2.2	1.9	2.0	2.1	2.5	3.1
전국	60.3	60.4	60.8	60.7	60.9	60.1	60.5	3.6	3.7	3.7	3.8	3.8	4.0	3.7
전북	58.5	59.4	58.6	58.3	59.3	59.9	61.2	1.7	2.1	2.5	2.7	2.7	2.5	2.2
비교	▼1.8	▼1.0	▼2.2	▼2.4	▼1.6	▼0.2	▲0.7	▼1.9	▼1.6	▼1.2	▼1.1	▼1.1	▼1.5	▼1.5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각 연도)



[그림 4-24] 고용률 및 실업률 변화 추이

나. 가족관계

가족관계 만족분야	지표 내용	지표비교		
		전국	전북	비교
주관적 지표	1) 가족관계 만족도(%) 만족	64.5	66.4	▲1.9
객관적 지표	2) 가족과 함께하는 여가활동(%) 가족과 함께	29.8	39.8	▲9.0

전북의 가족관계 만족분야 지표를 전북 평균과 비교하면, 가족관계 만족정도는 전국(64.5%)보다 전북(66.4%)이 더 높게 나타났고, 가족과 함께하는 여가활동도 전국(29.8%)보다 전북(39.8%)이 더 높게 나타났다.

전북의 가족관계 만족도는 만족이 66.4%로 비교적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고 이는 전국 평균 64.5%보다 약 1.9%p 더 높게 나타났다. 전북의 가족관계 만족도 변화추이를 보면 2016년 59.8%에서 2022년 66.4%로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31] 가족관계 만족도

(단위 : %)

시도	2016년			2018년			2020년			2022년		
	만족	보통	불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전국	56.5	39.5	4.1	56.7	40.5	2.9	58.7	38.2	3.0	64.5	32.4	3.0
서울	54.7	40.4	4.9	53.5	43.4	3.0	56.3	39.5	4.2	64.8	32.1	3.0
부산	56.8	39.6	3.0	52.6	43.3	4.2	61.2	35.8	2.9	59.6	37.0	3.4
대구	54.0	42.2	3.3	46.6	49.2	4.1	51.7	46.3	2.0	59.6	37.6	2.8
인천	54.9	40.5	4.6	55.8	40.7	3.5	57.2	39.4	3.4	62.2	34.5	3.3
광주	61.9	34.9	2.3	58.5	38.8	2.7	61.1	36.0	2.9	63.4	34.0	2.5
대전	55.7	40.3	3.2	58.2	39.7	2.0	56.9	38.4	4.7	64.8	31.7	3.5
울산	54.9	41.4	3.3	57.6	40.5	2.0	56.7	39.9	3.4	61.5	35.2	3.3
세종	67.1	29.4	2.8	65.8	32.6	1.7	65.4	32.5	2.0	70.8	26.6	2.7
경기	56.2	39.6	4.3	56.5	40.5	3.0	58.8	38.3	2.9	65.5	30.9	3.5
강원	60.4	35.9	3.0	63.6	34.2	2.2	63.3	34.0	2.7	69.0	28.7	2.2
충북	61.0	35.2	3.0	60.7	36.9	2.4	59.4	37.5	3.0	68.7	29.2	2.1
충남	61.5	35.1	2.8	62.9	34.6	2.4	62.8	35.1	2.3	66.6	31.0	2.3
전북	59.8	37.6	0.0	57.5	40.4	2.0	57.3	40.1	2.6	66.4	31.3	2.3
전남	57.6	39.6	2.4	65.6	32.1	2.3	65.0	33.2	1.8	67.0	30.6	2.4
경북	54.7	40.9	3.8	60.2	38.2	1.6	59.3	37.9	2.7	64.9	31.7	3.4
경남	54.9	41.4	2.8	57.5	40.2	2.4	60.3	37.3	2.4	63.0	34.4	2.7
제주	57.2	38.7	3.4	61.2	36.9	1.9	64.0	33.3	2.7	63.1	33.6	3.3
전국	56.5	39.5	4.1	56.7	40.5	2.9	58.7	38.2	3.0	64.5	32.4	3.0
전북	59.8	37.6	0.0	57.5	40.4	2.0	57.3	40.1	2.6	66.4	31.3	2.3
비교	▲3.3	▼1.9	▼4.1	▲0.8	▼0.1	▼0.9	▼1.4	▲1.9	▼0.4	▲1.9	▼1.1	▼0.7

자료 : 통계청, 사회조사(각 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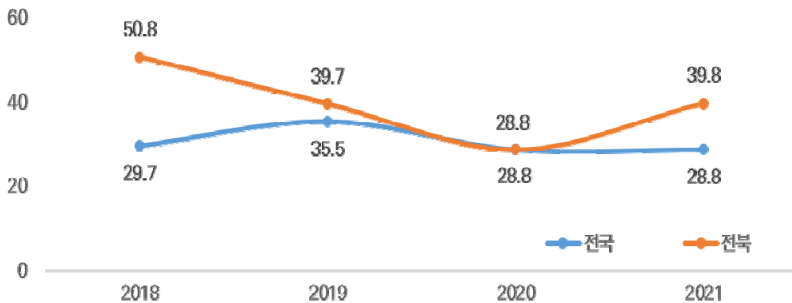
전북의 가족과 함께 여가활동을 하는 경우는 2021년 기준 39.8%로 전국평균(28.8%)과 비교하면 9.0%p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의 가족과 함께하는 여가활동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2018년 50.8%에서 2020년 28.8%로 감소추이를 보이다가 2021년 39.8%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4-32] 여가활동 동반자의 가족 비중도

(단위 : %)

시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전국	29.7	35.5	28.8	28.8
서울	24.0	30.3	28.0	25.4
부산	33.0	43.5	30.9	30.4
대구	34.3	39.3	26.5	27.3
인천	24.5	32.4	45.1	31.8
광주	36.7	47.2	33.8	22.9
대전	28.0	31.2	32.0	39.2
울산	21.0	35.0	36.4	24.3
세종	23.7	51.6	27.8	38.0
경기	23.2	32.1	23.8	25.7
강원	36.7	44.9	26.3	23.3
충북	39.6	43.0	38.8	36.9
충남	29.0	40.4	32.4	44.9
전북	50.8	39.7	28.8	39.8
전남	50.8	44.2	50.0	31.3
경북	30.0	32.0	20.9	29.0
경남	41.9	36.6	23.5	31.7
제주	21.5	28.9	3.9	3.7
전국	29.7	35.5	28.8	28.8
전북	50.8	39.7	28.8	39.8
비교	▲21.1	▲4.2	-	▲9.0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여가활동조사(각 연도)



[그림 4-25] 가족과 함께하는 여행의 추이변화

다. 건강

건강 만족분야	지표 내용	지표비교			
		전국	전북	비교	
주관적 지표	1) 건강에 대한 주관적 평가(%)	좋음	53.1	54.7	▲1.6
		보통	34.9	31.5	▼3.4
		나쁨	12.0	13.9	▲1.9
	2) 스트레스 정도(%)	많이 느낌	4.1	3.3	▼0.8
		느끼는 편	40.8	41.1	▲0.3
		느끼지 않음	55.0	55.7	▲0.7
객관적 지표	3) 건강관리 실천(%)	아침식사	64.2	68.2	▲4.0
		적정수면	80.5	81.9	▲1.4
		규칙적 운동	45.5	45.3	▼0.2
	4) 의료시설 수(개)	건강검진	85.1	85.7	▲0.6
		인구 천명당 병상수	14.0	22.3	▲8.3
5) 의료서비스 이용률(%)	종합병원	78.6	78.9	▲0.3	

전라북도의 2022년 건강만족 분야 지표별 현황을 전국평균과 비교해보면 비교적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건강만족분야의 주관적 지표 중 건강상태 좋음(54.7%)이 전국평균보다 1.6%p 높게 나타났으나 건강상태 나쁨(13.9%)도 전국평균보다 1.9%p 높게 나타났다. 스트레스 정도도 느끼지 않음(55.7%)이 전북평균보다 0.7%p 높게 나타났으나 스트레스를 느끼는 편(41.1%)도 전국평균보다 0.3%p 높게 나타났다.

건강의 객관적 지표인 건강관리 실천, 의료시설 수는 전국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규칙적 운동은 전북이 45.3%로 전국 평균(45.5%)보다 0.2%p 낮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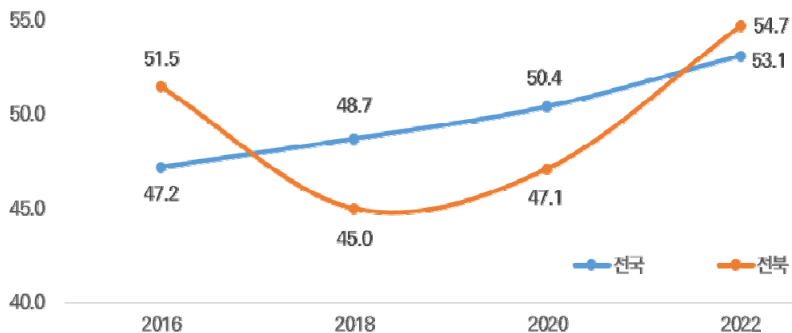
전북의 건강에 대한 만족도를 보면 2022년 기준 좋음이 54.7%로 이는 전국평균 53.1%보다 1.6%p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전북의 건강상태 만족 변화추이를 살펴보면 2016년 좋음이 51.5%였으나, 2018년 45.0%로 낮아졌다가 2020년 47.1%로 다시 높아지는 U자형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33] 건강에 대한 주관적 평가(건강만족도)

(단위 : %)

시도	2016년			2018년			2020년			2022년		
	좋음	보통	나쁨	좋음	보통	나쁨	좋음	보통	나쁨	좋음	보통	나쁨
전국	47.2	37.8	15.1	48.7	36.1	15.1	50.4	36.0	13.6	53.1	34.9	12.0
서울	48.8	38.6	12.5	50.1	36.9	13.0	50.2	37.2	12.6	55.3	34.2	10.5
부산	46.3	38.9	14.9	50.2	32.9	16.9	52.1	33.7	14.3	52.4	34.1	13.5
대구	42.7	42.3	14.9	51.3	35.0	13.7	55.2	33.3	11.5	51.0	37.2	11.8
인천	46.0	38.8	15.2	45.8	38.9	15.4	46.7	40.2	13.1	49.5	39.0	11.5
광주	53.8	32.0	14.2	53.5	31.6	14.9	52.9	33.8	13.3	55.3	32.4	12.3
대전	50.0	35.8	14.3	49.6	37.1	13.2	48	38.2	13.8	55.3	33.3	11.4
울산	49.2	38.6	12.1	48.7	39.2	12.1	52.8	37.0	10.1	52.0	38.0	10.0
세종	57.8	29.7	12.5	55.2	34.0	10.7	55.3	34.5	10.2	61.0	30.9	8.1
경기	45.7	39.6	14.6	48.5	37.5	13.9	50.9	36.5	12.7	52.3	35.4	12.2
강원	49.1	33.7	17.2	48.1	33.3	18.6	49.2	34.5	16.3	52.0	34.1	13.9
충북	46.2	36.6	17.2	49.1	33.9	17.0	50.3	36.0	13.7	52.2	36.1	11.7
충남	49.4	34.2	16.4	50.9	32.6	16.5	52.6	32.4	14.9	57.8	32.3	9.9
전북	51.5	31.5	16.9	45.0	37.8	17.2	47.1	37.1	15.8	54.7	31.5	13.9
전남	44.5	32.6	22.9	46.9	31.0	22.1	49.7	32.7	17.5	51.6	33.1	15.3
경북	45.4	35.7	18.8	46.7	35.6	17.7	46.8	35.1	18.1	51.0	34.2	14.9
경남	44.7	39.4	15.9	47.4	36.3	16.4	48.4	37.2	14.4	52.7	36.1	11.2
제주	49.1	35.4	15.5	41.7	43.6	14.7	53.2	33.8	13.0	51.7	35.4	13.0
전국	47.2	37.8	15.1	48.7	36.1	15.1	50.4	36.0	13.6	53.1	34.9	12.0
전북	51.5	31.5	16.9	45.0	37.8	17.2	47.1	37.1	15.8	54.7	31.5	13.9
비교	▲4.3	▼6.3	▲1.8	▼3.7	▲1.7	▲2.1	▼3.3	▲1.1	▲2.2	▲1.6	▼3.4	▲1.9

자료 : 통계청, 사회조사(각 연도)



[그림 4-26] 건강만족도의 추이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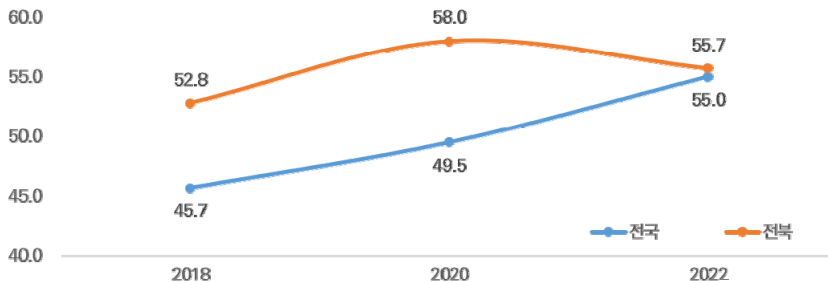
전북의 스트레스 정도를 보면 2022년 기준 느끼지 않는 편이 55.7%로 가장 많았고, 전국 평균 55.0%보다 약 0.7%p 높아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의 스트레스 정도의 변화를 살펴보면 느끼지 않는 편이 2018년 52.8%에서 2020년 58.0%로 높아졌다가 2022년 55.7%로 낮아져 증감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34] 스트레스 정도

(단위 : %)

시도	2018년			2020년			2022년		
	많이 느낌	느끼는 편	느끼지 않음	많이 느낌	느끼는 편	느끼지 않음	많이 느낌	느끼는 편	느끼지 않음
전국	5.1	49.3	45.7	5.4	45.2	49.5	4.1	40.8	55.0
서울	5.3	49.9	44.8	6.3	43.8	49.9	3.8	44.2	52.0
부산	5.4	49.7	44.8	4.9	42.4	52.7	4.8	40.7	54.5
대구	2.3	49.7	48.0	4.9	50.6	44.5	4.3	38.5	57.2
인천	6.3	53.7	40.1	7.6	50.6	41.8	4.7	44.0	51.3
광주	5.4	50.6	44.0	4.8	47.0	48.3	5.2	37.3	57.4
대전	6.5	49.8	43.7	6.1	49.7	44.2	4.7	39.1	56.2
울산	4.5	46.8	48.7	3.5	34.3	62.2	4.6	41.5	53.9
세종	4.5	53.2	42.2	6.3	43.5	50.2	3.8	42.7	53.5
경기	5.8	51.6	42.6	5.9	48.8	45.3	4.4	42.0	53.7
강원	4.5	42.2	53.3	4.0	40.0	56.0	4.7	37.0	58.4
충북	5.3	45.0	49.7	4.0	40.7	55.3	4.0	35.9	60.1
충남	4.6	48.6	46.8	4.1	46.0	49.9	3.1	36.9	60.0
전북	3.9	43.3	52.8	4.4	37.7	58.0	3.3	41.1	55.7
전남	4.5	44.5	51.1	3.3	42.0	54.7	4.1	41.4	54.5
경북	4.6	44.5	50.9	4.7	42.1	53.2	2.7	33.9	63.4
경남	4.5	48.5	47.0	4.5	41.8	53.8	4.0	38.5	57.5
제주	4.2	49.6	46.2	4.3	45.3	50.3	4.4	42.1	53.5
전국	5.1	49.3	45.7	5.4	45.2	49.5	4.1	40.8	55.0
전북	3.9	43.3	52.8	4.4	37.7	58.0	3.3	41.1	55.7
비교	▼1.2	▼6.0	▲7.1	▼1.0	▼7.5	▲8.5	▼0.8	▲0.3	▲0.7

자료 : 통계청, 사회조사(각 연도)



[그림 4-27] 스트레스를 느끼지 않음의 추이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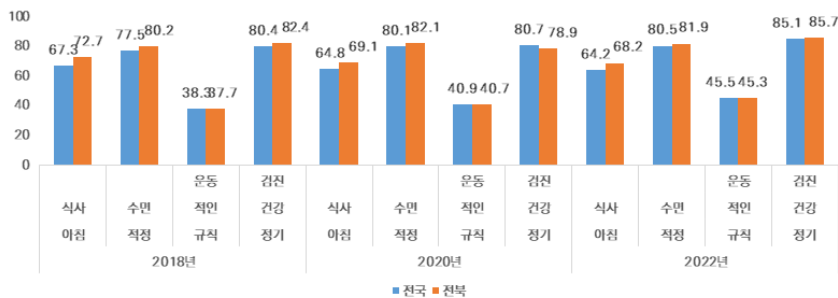
전북의 건강관리를 위한 실천 내용을 살펴보면, 2020년 기준 정기건강검진 실천율이 85.7%로 가장 높았고 이어서 적정수면 실천율 81.9%, 아침식사 실천율 68.2%, 규칙적인 운동 실천율 45.3%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전국 평균과 비교하면 아침식사(▲4.0), 적정수면(▲1.4), 정기건강검진(▲0.6)에서 전북의 실천율이 높게 나타나, 전반적으로 건강관리를 위한 실천율이 비교적 높은 수준으로 볼 수 있다.

[표 4-35] 건강관리 실천

(단위 : %)

시도	2018년				2020년				2022년			
	아침 식사	적정 수면	규칙적인 운동	정기 건강검진	아침 식사	적정 수면	규칙적인 운동	정기 건강검진	아침 식사	적정 수면	규칙적인 운동	정기 건강검진
전국	67.3	77.5	38.3	80.4	64.8	80.1	40.9	80.7	64.2	80.5	45.5	85.1
서울	65.0	76.4	42.6	83.5	62.2	76.6	44.6	79.7	61.1	78.4	48.3	83.7
부산	68.4	74.4	38.2	76.7	66.6	81.9	41.9	80.9	65.6	79.9	45.6	83.2
대구	69.4	78.1	38.1	75.2	67.3	78.8	39.5	80.4	65.0	79.0	45.9	82.3
인천	63.8	77.1	37.7	77.3	62.8	79	41.1	81.2	60.9	81.2	45.9	85.1
광주	65.0	80.3	38.0	82.0	65.5	79.3	40.2	81.7	62.8	78.7	47.4	93.4
대전	66.2	75.6	39.5	82.1	61.8	79.5	43.7	77.7	61.9	80.0	45.6	86.8
울산	71.4	81.4	44.8	79.8	68	81.4	46.8	80.9	66.8	83.8	48.9	89.4
세종	65.8	78.9	43.2	89.8	62.6	80.7	42.2	85.3	66.1	85.2	52.3	87.4
경기	65.2	75.8	37.1	81.6	62.2	80.8	39.7	80.5	62.0	78.8	44.8	85.0
강원	69.8	82.3	37.5	80.2	67.5	82.8	40	80.2	69.2	83.4	45.0	89.7
충북	69.4	79.3	35.8	81.1	67	80.6	33.5	83.8	66.9	85.5	46.3	91.0
충남	71.5	78.1	35.2	80.5	71.2	83.6	38.1	81.7	70.2	84.3	44.9	83.4
전북	72.7	80.2	37.7	82.4	69.1	82.1	40.7	78.9	68.2	81.9	45.3	85.7
전남	73.0	81.3	39.0	80.8	69.9	84.4	38.4	84.5	69.4	82.1	40.1	86.8
경북	72.3	80.6	29.9	78.4	71.2	80.4	39.3	80.8	70.2	84.0	39.8	84.8
경남	69.9	79.9	39.2	75.5	64.9	80.7	41.3	80.3	67.3	83.3	45.8	82.5
제주	59.4	74.0	34.3	74.6	58.6	81.1	37.7	84.5	57.5	78.1	40.2	85.7
전국	67.3	77.5	38.3	80.4	64.8	80.1	40.9	80.7	64.2	80.5	45.5	85.1
전북	72.7	80.2	37.7	82.4	69.1	82.1	40.7	78.9	68.2	81.9	45.3	85.7
비교	▲5.4	▲2.7	▼0.6	▲2.0	▲4.3	▲2.0	▼0.2	▼1.8	▲4.0	▲1.4	▼0.2	▲0.6

자료 : 통계청, 사회조사(각 연도)



[그림 4-28] 건강관리 실천 추이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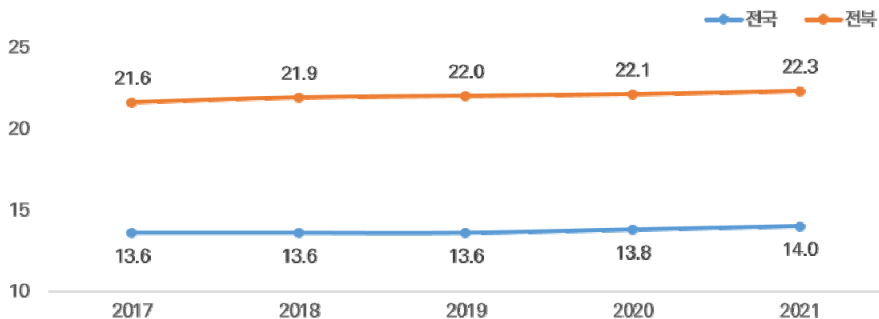
전북의 의료시설 수는 2021년 기준으로 인구 천명당 병상수가 22.3개로 전국 평균 14.0개 보다 약 8.3개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의 의료기관 병상 수 변화추이를 살펴보면 2017년 21.6개에서 2021년 22.3개로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전국 평균도 2017년 13.6개에서 3년 동안 동일한 의료시설 수를 보이다가 2020년부터 증가하여 2021년 14.0개의 의료시설 수를 보이고 있다.

[표 4-36] 의료시설 수(인구 천명당 의료기관 병상 수)

(단위 : 개)

시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전국	13.6	13.6	13.6	13.8	14.0
서울	8.8	8.9	9.1	9.3	9.6
부산	20.4	20.5	20.5	20.9	21.1
대구	14.7	15.0	15.6	16.3	16.7
인천	11.3	11.5	11.6	11.9	12.3
광주	28.2	27.9	27.6	27.4	27.2
대전	16.0	16.0	15.9	16.4	16.4
울산	13.3	13.4	13.3	13.5	13.8
세종	4.8	4.0	4.2	5.6	5.6
경기	10.2	10.2	10.1	10.4	10.4
강원	11.6	11.6	11.3	11.2	11.4
충북	13.5	14.1	13.3	13.4	13.6
충남	13.6	13.4	13.2	13.6	13.7
전북	21.6	21.9	22.0	22.1	22.3
전남	21.5	22.1	22.4	22.1	22.5
경북	16.7	16.6	16.4	16.5	16.5
경남	18.3	19.1	18.6	19.2	19.5
제주	7.4	7.4	7.2	7.3	7.5
전국	13.6	13.6	13.6	13.8	14.0
전북	21.6	21.9	22.0	22.1	22.3
비교	▲8.0	▲8.3	▲8.4	▲8.3	▲8.3

자료 : 통계청. e-지방지표(각 연도)



[그림 4-29] 의료시설 수 추이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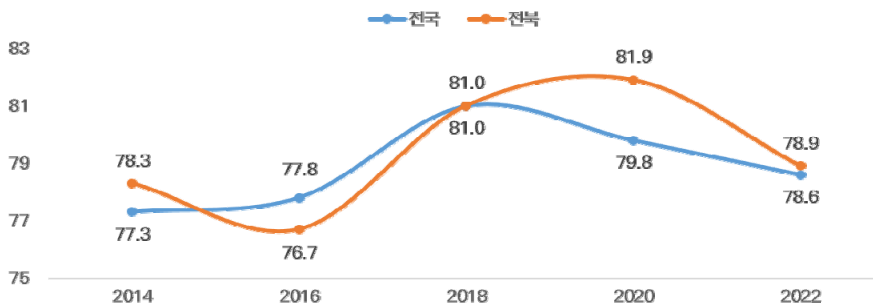
전북의 의료서비스 이용률은 종합병원을 기준으로 제시하였으며, 전북의 이용률은 2022년 기준 78.9%로, 전국평균 78.6%보다 0.3%p 높게 나타났다. 전북의 의료서비스 이용률의 추이변화를 보면 2014년 78.3%에서 2016년 76.7%로 감소하였다가 2020년 81.9%로 이용률이 증가하다가 2022년 78.9%로 다시 감소하는 등 증감을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37] 의료서비스 이용률(종합병원)

(단위 : %)

시도	2014년	2016년	2018년	2020년	2022년
전국	77.3	77.8	81.0	79.8	78.6
서울	75.9	79.1	79.8	81.7	78.9
부산	79.3	77.4	79.5	81.0	81.9
대구	74.8	84.6	77.7	68.6	75.8
인천	86.5	75.7	82.5	81.8	78.5
광주	73.7	72.6	84.5	78.7	76.3
대전	77.7	78.9	85.0	85.7	82.3
울산	72.6	74.0	76.7	85.8	79.2
세종	-	75.8	83.9	82.1	76.0
경기	77.1	76.8	82.7	79.5	78.7
강원	72.1	73.5	82.2	79.9	81.9
충북	80.2	86.6	79.7	78.1	75.1
충남	78.3	77.0	80.1	77.9	75.8
전북	78.3	76.7	81.0	81.9	78.9
전남	75.8	80.1	84.4	80.0	79.5
경북	80.2	77.8	79.4	78.1	71.6
경남	75.4	76.3	79.8	78.6	81.6
제주	74.8	76.5	77.1	78.8	81.0
전국	77.3	77.8	81.0	79.8	78.6
전북	78.3	76.7	81.0	81.9	78.9
비교	▲1.0	▼1.1	-	▲2.1	▲0.3

자료 : 통계청, 사회조사(각 연도)



[그림 4-30] 의료서비스 이용률 추이변화

라. 사회적 관계

사회관계 만족분야	지표 내용	지표비교(2022)			
		전국	전북	비교	
주관적 지표	1) 도움제공 지인 여부(%)	집안일부탁	72.8	73.2	▲0.4
		돈빌림	50.1	50.2	▲0.1
		이야기상대	79.6	80.9	▲1.3
	2) 이웃에 대한 신뢰도(%)	믿을 수 있음	55.6	63.0	▲7.4
	3) 직장동료관계 만족도(%)	만족	40.8	40.9	▲0.1
4) 친구관계 만족도(%)	만족	74.1	69.7	▼4.4	
5) 학교생활만족도(%)	만족	51.0	41.5	▼9.5	
객관적 지표	6) 자원봉사 참여율(%)		8.4	10.6	▲2.2
	7) 부모부양 태도(%)	스스로해결	12.6	11.2	▼1.4
		가족	19.7	17.8	▼1.9
		가족정부사회	62.1	65.1	▲3.0
		정부사회	5.5	5.9	▲0.4

전북의 사회적 관계 만족 분야의 지표를 전국평균과 비교하면,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웃에 대한 신뢰도(63.0%)가 전국평균(74.1%)보다 4.4%p 더 높게 나타나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지표로 나타났다. 다만 학교생활에 만족하는 정도가 전국평균보다 9.5%p 낮은 41.5%로 낮게 나타났고, 친구관계에 만족하는 정도도 전국평균보다 4.4%p 낮은 69.7%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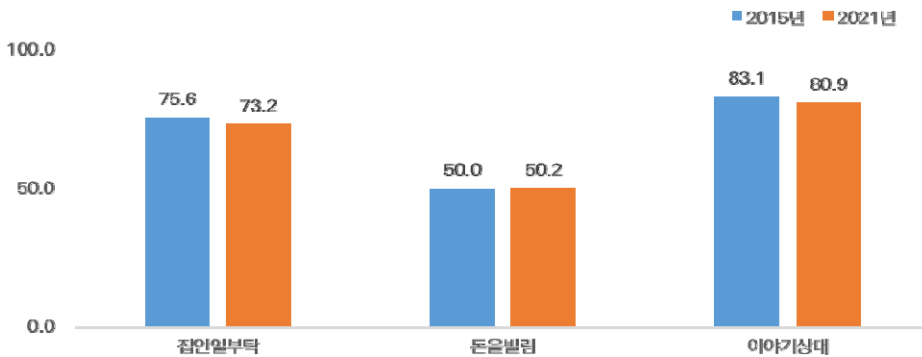
전북의 사회적 관계망을 알 수 있는 지표로는 우울할 때 이야기할 상대가 있는 경우가 2021년 기준 80.9%로 가장 많았고, 아플 때 집안일을 부탁할 사람이 있는 경우 73.2%, 갑자기 큰 돈을 빌릴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경우 50.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전국평균과 비교하면 이야기 상대가 있는 경우가 전국평균보다 1.3%p 더 높게 나타났고, 집안일 부탁은 0.4%p, 돈을 빌림은 0.1%p 더 높게 나타나, 전반적으로 전북도민들의 도움을 제공할 수 있는 사회적 관계망이 전국평균보다 높게 나타났다. 전라북도의 변화추이를 2015년과 비교하면 아플 때 집안일을 부탁할 사람이 있는 경우는 현재 약 2.4% 낮아졌고, 우울할 때 이야기할 상대가 있는 경우는 2021년 약 2.2%p 낮아진 것으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2015년에 비해 전북도민의 사회적 관계망이 약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표 4-38] 사회적 관계망 정도

(단위 : %)

시도	2015년			2017년			2019년			2021년		
	집안일 부탁	돈을 빌림	이야기 상대	집안일 부탁	돈을 빌림	이야기 상대	집안일 부탁	돈을 빌림	이야기 상대	집안일 부탁	돈을 빌림	이야기 상대
전국	76.8	50.1	82.4	78.4	51.9	83.6	79.6	51.4	83.3	72.8	50.1	79.6
서울	77.4	50.0	83.8	77.3	54.9	83.9	79.2	52.3	84.1	72.4	50.1	78.0
부산	75.5	47.9	79.8	80.5	54.5	86.6	82.5	53.6	86.0	73.5	50.3	83.3
대구	72.9	47.4	81.3	79.8	54.1	84.0	78.9	49.8	82.0	74.8	50.8	80.1
인천	77.1	53.8	82.1	77.0	49.7	81.1	80.6	54.7	83.5	71.9	52.2	81.3
광주	83.1	53.9	84.9	81.0	47.4	89.2	80.4	53.6	85.8	73.8	51.4	83.3
대전	77.8	48.4	82.8	81.5	52.2	86.9	78.1	52.6	82.7	69.9	54.1	80.6
울산	71.6	48.4	83.4	76.5	51.9	77.7	79.1	53.5	83.9	76.5	51.9	78.4
세종	72.9	51.7	82.6	75.2	52.9	85.4	79.6	58.0	87.2	71.5	53.7	79.2
경기	77.2	50.8	82.6	77.5	49.5	83.8	78.4	50.7	82.6	71.8	50.5	79.0
강원	77.1	51.1	83.3	78.5	49.5	78.8	79.8	48.0	82.7	71.1	45.1	78.5
충북	72.8	47.9	81.3	71.2	47.7	78.5	80.1	51.0	84.8	74.4	49.6	79.5
충남	73.2	50.3	77.6	83.9	55.8	82.6	77.9	50.2	79.6	72.8	50.2	77.7
전북	75.6	50.0	83.1	77.2	56.2	84.5	78.0	54.4	82.0	73.2	50.2	80.9
전남	86.1	51.6	85.5	82.8	55.4	82.7	80.5	50.1	83.2	75.2	48.6	81.4
경북	75.4	44.2	78.5	77.2	48.7	83.2	81.1	45.0	81.9	71.0	44.6	78.6
경남	77.5	52.8	84.0	79.4	49.9	84.3	81.4	51.1	84.5	75.5	48.7	80.3
제주	74.7	50.1	78.5	83.2	58.0	82.4	83.2	53.7	83.2	77.8	54.9	80.9
전국	76.8	50.1	82.4	78.4	51.9	83.6	79.6	51.4	83.3	72.8	50.1	79.6
전북	75.6	50.0	83.1	77.2	56.2	84.5	78.0	54.4	82.0	73.2	50.2	80.9
비교	▼1.2	▼0.1	▲0.7	▼1.2	▲4.3	▲0.9	▼1.6	▲3.0	▼1.3	▲0.4	▲0.1	▲1.3

자료 : 통계청, 사회조사(각 연도)



[그림 4-31] 전북의 사회적 관계망 변화도

전북의 이웃에 대한 신뢰도를 알 수 있는 지표로 사회에 대한 신뢰도 지표를 대표지표로 선정하였고 2021년 이웃에 대한 신뢰도는 63.0%로 전국평균 55.6%보다 약 7.4%p 높게 나타났다. 17개 시도 중 이웃에 대한 신뢰도가 가장 높은 지역은 전남(70.9%)으로 전라북도도 그 뒤를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준으로이었다. 전라북도의 이웃에 대한 신뢰도 변화를 살펴보면 2019년(54.5%)에 비해 2021년 현재 약 8.5%p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39] 사회에 대한 신뢰도(이웃에 대한 신뢰도)

(단위 : %)

시도	2019년						2021년					
	매우 믿을 수 있음	약간 믿을 수 있음	별로 믿을 수 없음	전혀 믿을 수 없음	믿을 수 있음	믿을 수 없음	매우 믿을 수 있음	약간 믿을 수 있음	별로 믿을 수 없음	전혀 믿을 수 없음	믿을 수 있음	믿을 수 없음
전국	3.2	47.7	43.1	5.9	50.9	49.0	4.5	51.1	39.1	5.3	55.6	44.4
서울	2.9	47.0	43.6	6.5	49.9	50.1	4.4	48.2	41.0	6.3	52.6	47.3
부산	2.1	49.9	41.7	6.3	52.0	48.0	3.4	50.6	40.2	5.9	54.0	46.1
대구	1.6	50.3	43.4	4.7	51.9	48.1	3.8	52.6	38.8	4.9	56.4	43.7
인천	3.5	44.2	45.9	6.4	47.7	52.3	5.3	47.3	41.3	6.2	52.6	47.5
광주	3.3	46.3	46.5	4.0	49.6	50.5	6.1	53.0	37.3	3.6	59.1	40.9
대전	3.6	46.2	43.8	6.4	49.8	50.2	3.4	54.5	38.4	3.7	57.9	42.1
울산	2.2	53.0	38.1	6.7	55.2	44.8	4.3	51.0	41.4	3.3	55.3	44.7
세종	3.5	49.8	40.8	5.8	53.3	46.6	3.8	53.7	37.8	4.7	57.5	42.5
경기	3.4	45.3	44.8	6.5	48.7	51.3	4.9	50.2	38.9	6.0	55.1	44.9
강원	2.7	56.9	34.9	5.5	59.6	40.4	5.6	53.2	37.0	4.2	58.8	41.2
충북	3.7	50.6	41.1	4.6	54.3	45.7	4.9	51.4	39.2	4.5	56.3	43.7
충남	4.6	44.3	45.4	5.7	48.9	51.1	5.0	54.0	36.1	4.9	59.0	41.0
전북	2.8	51.7	41.9	3.6	54.5	45.5	5.0	58.0	34.8	2.2	63.0	37.0
전남	4.6	57.3	33.7	4.3	61.9	38.0	6.6	64.3	26.6	2.5	70.9	29.1
경북	3.4	47.4	42.6	6.6	50.8	49.2	2.7	48.3	42.7	6.3	51.0	49.0
경남	3.7	45.4	45.4	5.6	49.1	51.0	2.9	52.5	40.4	4.2	55.4	44.6
제주	3.2	59.0	33.8	4.0	62.2	37.8	6.2	51.4	37.7	4.7	57.6	42.4
전국	3.2	47.7	43.1	5.9	50.9	49.0	4.5	51.1	39.1	5.3	55.6	44.4
전북	2.8	51.7	41.9	3.6	54.5	45.5	5.0	58.0	34.8	2.2	63.0	37.0
비교	▼0.4	▲4.0	▼1.2	▼2.3	▲3.6	▼3.5	▲0.5	▲6.9	▼4.3	▼3.1	▲7.4	▼7.4

자료 : 통계청. 사회조사(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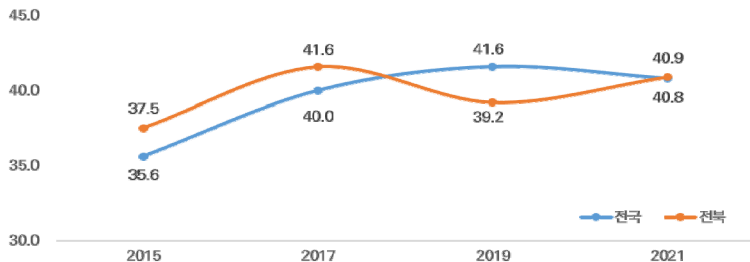
전북의 직장동료관계 만족도는 2021년 기준 40.9%가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나 비교적 높지 않게 나타났으나 전국평균(40.8%)보다 0.1%p 더 높은 수준이었다. 직장동료관계 만족도의 변화 추이를 보면 전라북도는 2015년 37.5%에서 2017년 41.6%로 증가하였다가 2019년 39.2%로 다시 감소, 2021년에는 40.9%로 다시 증가하는 등 증감을 반복하는 변화추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40] 직장동료관계 만족도

(단위 : %)

시도	2015년			2017년			2019년			2021년		
	만족	보통	불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전국	35.6	49.7	13.0	40.0	46.9	12.0	41.6	45.9	11.6	40.8	46.0	11.3
서울	36.1	48.2	13.7	41.6	43.2	14.6	41.6	44.9	12.5	41.3	44.5	12.5
부산	30.5	54.0	12.9	36.7	50.6	11.6	40.7	47.6	11.2	39.1	51.2	8.5
대구	27.2	58.2	12.9	37.4	52.1	9.7	32.9	53.0	13.2	32.2	54.6	11.1
인천	37.9	45.6	15.4	38.5	46.7	14.1	43.2	45.2	11.3	39.2	44.6	13.5
광주	32.5	50.5	16.0	39.8	49.1	9.3	42.3	47.6	9.7	37.1	47.1	13.9
대전	40.1	44.6	13.7	35.4	49.4	13.9	37.0	46.5	16.0	41.0	47.7	10.5
울산	33.2	52.1	12.6	36.1	52.4	10.7	38.3	49.5	10.5	39.9	47.1	11.8
세종	37.0	50.3	12.2	44.1	42.0	12.9	47.6	40.7	10.5	39.0	47.1	13.1
경기	34.8	50.0	13.4	41.7	45.6	11.1	41.8	44.2	12.9	41.0	45.4	11.4
강원	42.5	45.4	11.1	45.0	41.4	10.9	49.1	42.2	7.3	44.9	44.2	8.8
충북	36.5	50.8	11.7	38.1	49.0	12.0	41.8	47.8	9.5	47.3	41.1	10.7
충남	39.2	49.0	11.2	37.7	52.9	9.1	41.9	46.4	10.0	43.3	45.6	9.5
전북	37.5	47.0	14.4	41.6	46.8	11.5	39.2	51.5	7.6	40.9	47.1	10.6
전남	41.3	48.7	9.0	41.5	48.2	9.5	46.4	45.1	7.6	45.0	43.2	10.1
경북	34.5	52.4	11.4	38.4	47.5	12.9	40.3	48.5	10.7	38.9	47.0	12.7
경남	39.7	49.1	10.3	37.8	49.4	11.8	43.1	45.6	10.3	43.0	44.7	10.1
제주	35.6	50.7	11.3	42.3	48.7	8.1	46.4	40.6	11.5	41.8	48.7	8.2
전국	35.6	49.7	13.0	40.0	46.9	12.0	41.6	45.9	11.6	40.8	46.0	11.3
전북	37.5	47.0	14.4	41.6	46.8	11.5	39.2	51.5	7.6	40.9	47.1	10.6
비교	▲1.9	▼2.7	▲1.4	▲1.6	▼0.1	▼0.5	▼2.4	▲5.6	▼4.0	▲0.1	▲1.1	▼0.7

자료 : 통계청, 사회조사(각 연도)



[그림 4-32] 직장 동료관계 만족도 변화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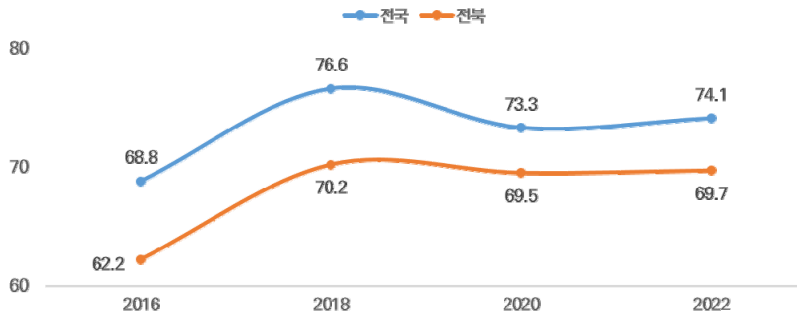
전북의 친구관계 만족도는 2022년 기준 69.7%로 높은 수준이나 전국평균(74.1%)에 비하면 약 4.4%p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의 친구관계 만족도 변화 추이를 보면 2016년 기준 62.2%에서 2018년 70.2%로 크게 증가하였다가 2020년 69.5%, 2022년 69.7%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41] 친구관계 만족도

(단위 : %)

시도	2016년			2018년			2020년			2022년		
	만족	보통	불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전국	68.8	27.1	4.1	76.6	21.3	2.0	73.3	23.7	3.0	74.1	22.5	3.5
서울	67.3	28.9	3.8	75.8	22.3	1.9	79.8	17.0	3.3	71.4	22.6	6.1
부산	72.6	23.6	3.9	80.5	16.6	2.8	74.4	23.7	1.8	79.5	17.5	3.0
대구	68.6	29.0	2.4	80.8	19.1	0.0	62.8	34.8	2.4	76.1	23.9	0.0
인천	64.9	31.6	3.5	78.9	19.6	1.4	71.1	26.6	2.4	74.3	24.1	1.7
광주	63.2	32.3	4.5	81.6	17.1	1.2	76.3	21.8	1.9	74.1	23.6	2.4
대전	67.7	29.1	3.2	73.4	24.7	2.0	70.7	23.6	5.6	80.2	18.2	1.7
울산	66.3	28.9	4.7	80.9	17.1	2.1	62.8	34.6	2.6	81.1	15.0	3.9
세종	76.8	19.4	3.8	76.1	23.9	0.0	68.8	26.4	4.7	69.5	23.5	7.0
경기	68.9	25.7	5.4	76.0	21.2	2.7	73.4	23.3	3.3	71.6	25.8	2.6
강원	68.3	24.5	7.2	80.6	17.9	1.4	74.4	21.6	4.0	71.6	26.0	2.4
충북	66.6	28.6	4.9	72.8	24.6	2.5	69.1	28.0	2.9	81.3	16.3	2.4
충남	77.6	21.2	1.3	74.6	22.9	2.5	74.9	21.8	3.2	75.1	20.9	4.0
전북	62.2	31.6	6.3	70.2	24.7	5.0	69.5	29.8	0.7	69.7	25.4	4.9
전남	71.1	24.0	4.9	72.1	25.7	2.1	75.3	21.5	3.1	77.2	18.2	4.6
경북	73.0	24.3	2.7	80.2	19.2	0.6	69.7	26.0	4.3	75.9	22.2	1.9
경남	71.2	27.4	1.5	76.3	22.2	1.6	74.8	23.7	1.5	77.2	17.9	4.9
제주	68.3	30.3	1.4	70.7	28.8	0.5	73.6	21.6	4.9	72.9	21.5	5.6
전국	68.8	27.1	4.1	76.6	21.3	2.0	73.3	23.7	3.0	74.1	22.5	3.5
전북	62.2	31.6	6.3	70.2	24.7	5.0	69.5	29.8	0.7	69.7	25.4	4.9
비교	▼6.6	▲4.5	▲2.2	▼6.4	▲3.4	▲3.0	▼3.8	▲6.1	▼2.3	▼4.4	▲2.9	▲1.4

자료 : 통계청, 사회조사(각 연도)



[그림 4-33] 친구관계 만족도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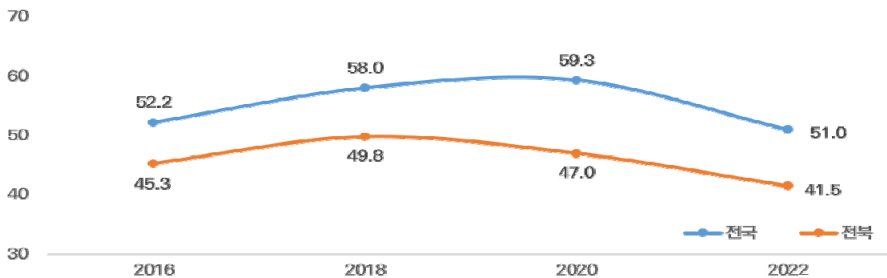
전북의 학교생활 만족도는 2022년 기준 41.5%로 나타났고 이를 전국 평균(51.0%)과 비교하면 9.5%p 더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전북의 학교생활 만족도 변화를 보면, 2016년 기준 45.3%에서 2018년 49.8%로 높아졌다가 2020년(47.0%)부터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표 4-42] 학교생활 만족도

(단위 : %)

시도	2016년			2018년			2020년			2022년		
	만족	보통	불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전국	52.2	41.8	6.0	58.0	37.3	4.6	59.3	36.2	4.5	51.0	43.5	5.4
서울	53.6	40.8	5.6	63.9	33.9	2.2	66.4	26.1	7.5	47.1	49.1	3.9
부산	54.7	39.1	6.2	61.2	34.4	4.4	62.0	35.9	2.1	47.9	47.9	4.2
대구	52.3	44.0	3.7	52.3	46.8	0.9	48.8	47.8	3.3	55.6	36.8	7.7
인천	50.8	43.9	5.3	62.2	33.1	4.6	61.0	33.1	5.8	48.0	38.3	13.7
광주	43.1	51.0	5.9	61.0	35.1	3.9	70.6	24.3	5.1	63.0	35.8	1.2
대전	45.0	47.3	7.7	56.4	40.7	2.9	61.9	33.2	4.9	57.0	41.8	1.2
울산	47.2	47.8	5.0	59.0	38.0	3.0	57.1	39.0	4.0	51.1	39.8	9.1
세종	53.2	43.1	3.7	68.3	30.8	0.9	56.2	34.8	8.9	49.7	45.8	4.5
경기	52.8	39.6	7.5	54.7	37.9	7.5	56.0	38.9	5.0	49.5	46.4	4.0
강원	54.5	36.8	8.7	52.7	42.3	5.0	61.1	33.7	5.2	52.6	39.9	7.4
충북	50.9	41.7	7.3	60.7	36.2	3.1	59.7	37.5	2.8	60.4	33.4	6.2
충남	65.2	32.3	2.5	59.7	34.9	5.4	61.3	35.6	3.1	58.6	35.4	6.1
전북	45.3	46.1	8.6	49.8	44.9	5.4	47.0	47.9	5.2	41.5	49.4	9.1
전남	52.5	42.8	4.7	58.0	35.2	6.8	67.6	30.9	1.5	57.7	30.4	12.0
경북	46.1	49.5	4.4	59.4	38.9	1.7	45.3	51.8	3.0	48.1	51.0	1.0
경남	54.7	42.3	3.0	56.6	38.0	5.5	63.8	34.0	2.2	54.3	38.9	6.8
제주	50.8	45.8	3.4	56.1	42.6	1.2	71.0	28.2	0.7	52.3	42.6	5.1
전국	52.2	41.8	6.0	58.0	37.3	4.6	59.3	36.2	4.5	51.0	43.5	5.4
전북	45.3	46.1	8.6	49.8	44.9	5.4	47.0	47.9	5.2	41.5	49.4	9.1
비교	▼6.9	▲4.3	▲2.6	▼8.2	▲7.6	▲0.8	▼12.3	▲11.7	▲0.7	▼9.5	▲5.9	▲3.7

자료 : 통계청, 사회조사(각 연도)



[그림 4-34] 학교생활 만족도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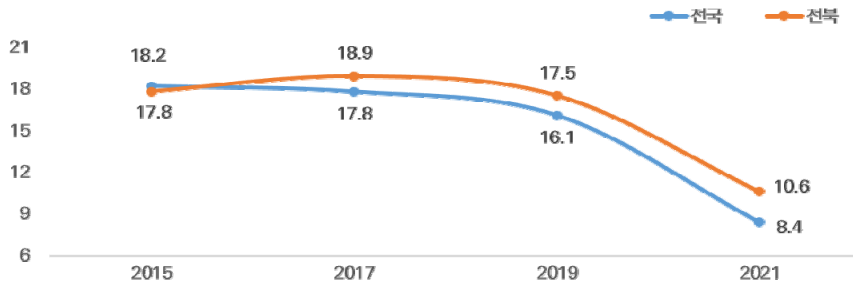
전북의 자원봉사 참여율은 2021년 기준 10.6%로 매우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으나 전국 평균(8.4%)과 비교하면 2.2%p 더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전북의 자원봉사 참여율 변화를 보면 2015년 18.2%에서 2017년 18.9%로 소폭 증가하였다가 2019년 17.5%부터 현재까지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표 4-43] 자원봉사 참여율

(단위 : %)

시도	2015년	2017년	2019년	2021년
전국	18.2	17.8	16.1	8.4
서울	17.9	18.0	15.8	7.4
부산	15.5	15.4	11.4	8.7
대구	17.2	17.0	14.5	7.3
인천	15.8	15.9	15.0	7.5
광주	18.9	18.4	16.3	10.2
대전	19.8	18.0	17.3	8.1
울산	16.8	18.8	18.4	10.0
세종	20.3	21.1	22.7	10.6
경기	17.3	17.6	15.1	7.8
강원	21.2	21.5	17.9	10.8
충북	21.0	16.6	16.7	8.9
충남	20.2	17.7	19.5	8.9
전북	17.8	18.9	17.5	10.6
전남	24.4	20.5	19.6	11.9
경북	16.3	16.7	17.9	9.6
경남	20.4	18.6	17.7	7.1
제주	24.9	25.8	18.5	9.3
전국	18.2	17.8	16.1	8.4
전북	17.8	18.9	17.5	10.6
비교	▼0.4	▲1.1	▲1.4	▲2.2

자료 : 통계청, 사회조사(각 연도)



[그림 4-35] 자원봉사 참여율 변화

전북의 부모부양에 대한 태도는 2022년 기준 가족과 정부, 사회가 함께 부양해야한다고 65.1%로 가장 많았고 이는 전국 평균 62.1%보다 약 3.0%p 더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전북의 부모부양태도의 변화를 보면 가족과 정부, 사회가 함께 부양해야한다는 경우 2018년 49.1%에서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인 반면 가족이 부양해야한다는 2018년 22.0%에서 2022년 17.8%로, 스스로 해결은 2018년 21.1%에서 2022년 11.2%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표 4-44] 부모부양에 대한 태도

(단위 : %)

시도	2018년				2020년				2022년			
	스스로 해결	가족	가족 정부 사회	정부 사회	스스로 해결	가족	가족 정부 사회	정부 사회	스스로 해결	가족	가족 정부 사회	정부 사회
전국	19.4	26.7	48.3	5.7	12.9	22.0	61.6	3.5	12.6	19.7	62.1	5.5
서울	19.1	25.3	49.2	6.4	13.3	20.8	62.8	3.1	13.3	18.4	63.7	4.5
부산	23.4	27.9	44.9	3.8	14.3	23.5	58.2	3.9	15.7	21.3	57.5	5.5
대구	19.9	27.5	47.5	5.2	12.1	23.7	60.6	3.6	15.4	20.0	58.4	6.1
인천	15.0	27.9	50.7	6.4	10.3	20.1	65.6	4.0	10.5	21.7	64.1	3.7
광주	18.5	22.8	50.6	8.1	12.5	20.3	63.3	4.0	14.6	23.6	55.1	6.5
대전	15.6	25.5	54.2	4.5	13.3	24.0	59.1	3.6	13.4	17.3	65.9	3.4
울산	23.2	31.2	40.7	4.9	9.5	20.4	66.4	3.7	13.2	19.1	63.4	4.1
세종	17.4	26.2	51.6	4.9	11.6	18.2	66.6	3.6	12.8	16.6	64.1	6.4
경기	17.2	26.1	51.2	5.6	11.4	21.8	63.6	3.2	10.7	19.0	64.7	5.5
강원	20.2	31.3	44.5	3.9	15.4	24.4	57.0	3.2	13.0	22.4	60.2	4.4
충북	21.5	32.9	41.2	4.3	17.0	23.9	54.1	4.9	15.1	21.7	57.5	5.6
충남	16.4	27.9	50.0	5.7	14.0	21.6	59.7	4.6	14.3	21.3	57.9	6.5
전북	21.1	22.0	49.1	7.8	15.2	21.4	58.8	4.5	11.2	17.8	65.1	5.9
전남	25.1	22.6	45.2	7.0	13.8	22.4	59.2	4.6	10.3	18.9	61.8	9.0
경북	23.7	27.9	42.5	5.9	13.6	22.7	60.5	3.2	12.5	22.8	56.7	8.0
경남	23.1	27.6	44.4	4.8	13.3	22.2	61.1	3.3	13.3	17.7	62.7	6.3
제주	15.4	31.2	49.5	3.9	14.0	27.2	56.6	2.1	11.9	23.2	61.4	3.4
전국	19.4	26.7	48.3	5.7	12.9	22.0	61.6	3.5	12.6	19.7	62.1	5.5
전북	21.1	22.0	49.1	7.8	15.2	21.4	58.8	4.5	11.2	17.8	65.1	5.9
비교	▲1.7	▼4.7	▲0.8	▲2.1	▲2.3	▼0.6	▼2.8	▲1.0	▼1.4	▼1.9	▲3.0	▲0.4

자료 : 통계청, 사회조사(각 연도)

마. 문화여가

문화여가 만족분야	지표 내용		지표비교		
			전국	전북	비교
주관적 지표	1) 문화여가활동 만족도(%)	만족	27.0	25.4	▼1.6
	2) 일과 여가생활의 균형(%)	일에 집중	34.1	38.1	▲4.0
		보통	43.8	41.4	▼2.4
	3) 문화여가시설 만족도(%)	여가에 집중	22.0	20.5	▼1.5
문화여가시설 이용함		28.2	25.0	▼3.2	
4) 예술행사 만족도(%)	문화예술 활동 수	29.8	48.1	▲18.3	
	공연 횟수	119.9	65.1	▼54.8	
객관적 지표	5) 여가활동 빈도(%)	매일	77.9	79.4	▲1.5
	6) 문화예술 및 스포츠 관람(%)	관람함	24.1	21.3	▼2.8
	7) 문화여가시설 수(개)	십만명당 문화기반시설	5.8	9.6	▲3.8
	8) 문화여가비용(천원)	한달 평균	149	144	▼5

전북의 문화여가 만족분야의 지표는 2022년 전국 평균과 비교하면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전국 평균보다 높은 지표로는 일과 여가생활의 균형에서 일에 집중(▲4.0), 문화예술활동 수(▲18.3), 여가활동 빈도(▲1.5), 문화여가시설 수(▲3.8) 등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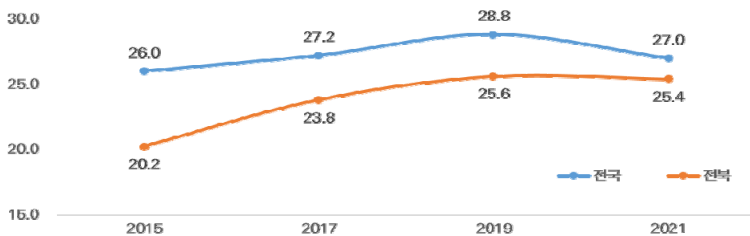
전북의 문화여가활동 만족도는 2021년 기준 25.4%로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고 이는 전국 평균 27.0%와 비교하면 약 1.6% 더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전북의 문화여가활동 만족도의 변화추이를 보면 2015년 기준 20.2%에서 2019년 25.6%로 꾸준히 증가하다가 2021년에서 25.4%로 0.2%p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표 4-45] 문화여가활동 만족도

(단위 : %)

시도	2015년			2017년			2019년			2021년		
	만족	보통	불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전국	26.0	48.9	25.1	27.2	46.6	26.2	28.8	47.0	24.2	27.0	49.4	23.5
서울	28.9	46.8	24.3	29.5	44.3	26.1	29.3	47.7	22.9	28.9	48.9	22.1
부산	22.6	52.0	25.4	23.9	49.0	27.2	24.5	44.5	31.0	23.4	50.1	26.5
대구	24.7	51.1	24.2	21.7	45.8	32.6	24.9	47.4	27.7	23.2	55.2	21.6
인천	23.2	48.8	28.0	25.8	47.8	26.5	31.3	44.8	23.9	26.9	51.4	21.6
광주	24.0	48.9	27.1	27.9	47.9	24.2	30.7	44.1	25.1	25.4	49.7	24.9
대전	25.8	48.3	25.9	29.4	42.8	27.8	28.9	45.2	25.9	31.2	45.3	23.5
울산	20.6	56.8	22.6	25.2	50.2	24.6	32.1	45.6	22.4	31.2	49.1	19.7
세종	33.1	45.4	21.4	33.0	44.0	23.0	39.3	42.0	18.7	31.7	44.1	24.3
경기	27.3	48.5	24.2	27.7	44.7	27.7	29.7	46.0	24.2	27.8	46.0	26.2
강원	26.6	49.5	24.0	28.9	50.0	21.1	30.5	46.8	22.6	27.9	51.4	20.8
충북	27.8	46.5	25.7	26.8	44.7	28.4	26.9	48.2	24.9	24.1	51.4	24.4
충남	26.8	45.5	27.8	24.2	51.7	24.1	28.2	48.2	23.6	25.2	53.4	21.3
전북	20.2	51.3	28.6	23.8	50.2	26.0	25.6	50.1	24.3	25.4	47.8	26.7
전남	26.2	47.6	26.2	28.2	45.5	26.3	28.7	49.2	22.1	29.2	52.5	18.3
경북	20.7	51.8	27.5	26.9	49.3	23.8	28.1	49.4	22.5	23.1	52.7	24.2
경남	27.0	50.6	22.5	29.0	49.1	21.9	28.9	49.8	21.4	26.0	52.8	21.2
제주	28.8	49.4	21.9	29.0	52.7	18.2	29.1	45.0	25.9	29.1	50.2	20.6
전국	26.0	48.9	25.1	27.2	46.6	26.2	28.8	47.0	24.2	27.0	49.4	23.5
전북	20.2	51.3	28.6	23.8	50.2	26.0	25.6	50.1	24.3	25.4	47.8	26.7
비교	▼5.8	▲2.4	▲3.5	▼3.4	▲3.6	▼0.2	▼3.2	▲3.1	▲0.1	▼1.6	▼1.6	▲3.2

자료 : 통계청, 사회조사(각 연도)



[그림 4-36] 문화여가활동 만족도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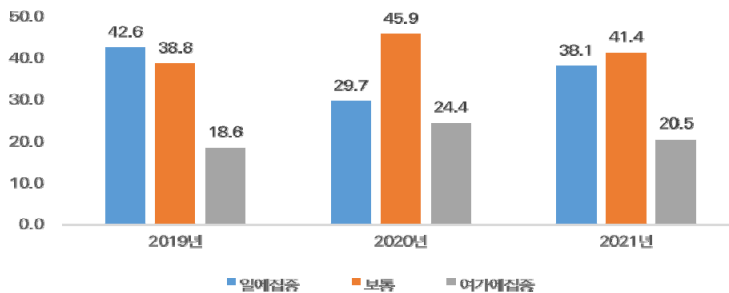
전북의 일과 여가생활의 균형은 2021년 기준 보통이 41.4%로 가장 많았고 전국 평균 43.8%보다 약 2.4%p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일에 집중이 38.1%로 높게 나타났고 전국 평균 34.1%와 비교하여 4.0%p 더 높게 나타났다.

[표 4-46] 일과 여가생활의 균형

(단위 : %)

시도	2019년			2020년			2021년		
	일에 집중	보통 이다	여가에 집중	일에 집중	보통 이다	여가에 집중	일에 집중	보통 이다	여가에 집중
전국	32.6	36.0	31.3	34.7	41.2	24.1	34.1	43.8	22.0
서울	28.2	34.4	37.4	31.3	43.0	25.5	30.9	40.2	28.9
부산	20.9	35.7	43.4	23.2	50.0	26.8	21.6	61.4	17.0
대구	27.7	46.6	25.9	32.4	39.6	28.0	39.0	39.9	21.0
인천	34.2	42.6	23.2	37.6	34.3	28.1	40.7	39.0	20.3
광주	33.0	34.4	32.7	33.0	44.2	22.7	29.6	40.0	30.5
대전	27.2	38.2	34.6	35.3	33.2	31.5	40.5	32.0	27.5
울산	30.3	46.5	23.2	18.5	59.9	21.4	22.2	66.6	11.1
세종	38.6	32.9	28.5	57.6	17.3	25.1	60.6	31.7	7.7
경기	35.7	33.1	31.3	38.3	38.2	23.4	31.5	48.7	19.8
강원	47.6	32.7	19.6	40.8	44.6	14.7	38.0	40.1	21.8
충북	27.9	34.2	37.8	42.1	38.7	19.2	35.7	40.4	23.9
충남	44.7	27.4	27.9	39.7	42.5	17.8	55.9	20.5	23.5
전북	42.6	38.8	18.6	29.7	45.9	24.4	38.1	41.4	20.5
전남	44.9	30.4	24.7	46.4	27.8	25.9	38.1	41.0	20.9
경북	36.3	33.7	30.1	37.5	39.2	23.4	41.7	35.8	22.6
경남	25.6	47.1	27.2	33.5	43.3	23.1	35.8	48.9	15.4
제주	16.4	35.6	48.0	11.8	72.3	15.9	9.0	62.4	28.6
전국	32.6	36.0	31.3	34.7	41.2	24.1	34.1	43.8	22.0
전북	42.6	38.8	18.6	29.7	45.9	24.4	38.1	41.4	20.5
비교	▲10.0	▲2.8	▼12.7	▼5.0	▲4.7	▲0.3	▲4.0	▼2.4	▼1.5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여가활동조사(각 연도)



[그림 4-37] 일과 여가생활의 균형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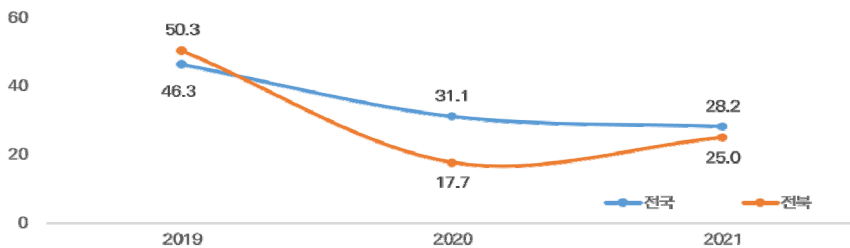
전북의 문화여가시설만족도는 2021년 기준 25.0%가 공공문화여가시설을 이용한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전국평균 28.2%와 비교하여 3.2%p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전북의 문화여가시설 만족도 변화 추이를 보면 2019년 50.3%에서 2020년 17.7%로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가 2021년 약간 증가하여 증감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47] 문화여가시설만족도(공공문화여가시설 이용여부)

(단위 : %)

시도	2019년		2020년		2021년	
	이용함	이용안함	이용함	이용안함	이용함	이용안함
전국	46.3	53.7	31.1	68.9	28.2	71.8
서울	43.4	56.6	27.6	72.4	19.6	80.4
부산	48.4	51.6	43.0	57.0	28.0	72.0
대구	38.9	61.1	35.4	64.6	31.7	68.3
인천	49.4	50.6	11.0	89.0	40.8	59.2
광주	36.6	63.4	44.1	55.9	43.9	56.1
대전	66.7	33.3	24.4	75.6	32.3	67.7
울산	51.2	48.8	23.9	76.1	15.0	85.0
세종	59.4	40.6	29.7	70.3	34.3	65.7
경기	41.7	58.3	28.5	71.5	27.9	72.1
강원	43.0	57.0	32.0	68.0	27.3	72.7
충북	65.1	34.9	32.7	67.3	9.9	90.1
충남	57.3	42.7	33.1	66.9	36.7	63.3
전북	50.3	49.7	17.7	82.3	25.0	75.0
전남	44.5	55.5	20.8	79.2	24.1	75.9
경북	49.8	50.2	57.7	42.3	44.7	55.3
경남	47.9	52.1	36.4	63.6	20.1	79.9
제주	41.1	58.9	64.4	35.6	77.2	22.8
전국	46.3	53.7	31.1	68.9	28.2	71.8
전북	50.3	49.7	17.7	82.3	25.0	75.0
비교	▲4.0	▼4.0	▼13.4	▲13.4	▼3.2	▲3.2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향유실태조사



[그림 4-38] 문화여가시설 만족도 변화

전북의 예술행사 만족도는 인구 십만명당 문화예술활동으로 살펴보고 2020년 기준 문화예술 활동 수는 48.1회로 전국평균 29.8회와 비교하여 18.3회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연 횟수는 전북은 65.1회로 전국 평균 199.9회보다 54.8회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전북의 예술행사 만족도 변화 추이를 보면 문화예술활동 수는 2015년 85.4회에서 2019년 102.1회로 증가 추이를 보이다가 2020년 48.1%로 감소하였다. 공연횟수는 2017년 132.2회에서 2018년 172.8회로 증가하였다가 2019년(102.1회)부터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었다.

[표 4-48] 예술행사 만족도(인구 십만 명당 문화예술활동 현황)

(단위 : %)

시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문화예술 활동 수	공연 횟수	문화예술 활동 수	공연 횟수	문화예술 활동 수	공연 횟수	문화예술 활동 수	공연 횟수
전국	71.9	227.4	77.0	245.9	85.2	244.9	29.8	119.9
서울	134.1	642.8	144.3	717.6	142.5	688.1	57.3	446.0
부산	79.1	230.3	81.7	211.8	87.1	202.7	29.6	74.2
대구	88.0	297.8	90.3	277.0	104.9	209.5	43.0	119.1
인천	53.9	85.0	51.7	94.2	58.5	95.3	15.9	28.7
광주	97.6	170.6	104.4	159.9	114	229.8	41.6	80.8
대전	81.7	309.2	86.2	331.1	106	346.2	31.5	113.9
울산	68.3	68.9	70.2	73.6	70.4	69.3	30.1	26.7
세종	42.8	40.0	46.8	48.4	55.2	60.2	22.8	23.3
경기	31.3	92.3	35.5	96.9	45	107.5	12.8	25.5
강원	101.1	167.5	116.7	138.7	122	161	34.4	33.6
충북	44.3	58.5	55.2	97.4	69.4	124.4	24.7	55.4
충남	48.5	76.3	52.4	85.2	58.7	115.8	16.9	18.2
전북	85.4	132.2	92.9	172.8	102.1	154.5	48.1	65.1
전남	60.0	61.1	67.7	83.7	79.9	103.3	23.2	18.5
경북	43.2	54.9	47.0	49.8	55.6	73	24.8	31.6
경남	54.7	71.4	57.7	109.3	80.4	155.7	21.0	54.5
제주	131.9	596.0	130.1	634.8	165.7	394	40.3	23.4
전국	71.9	227.4	77.0	245.9	85.2	244.9	29.8	119.9
전북	85.4	132.2	92.9	172.8	102.1	154.5	48.1	65.1
비교	▲13.5	▼95.2	▲15.9	▼73.1	▲16.9	▼90.4	▲18.3	▼54.8

자료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화예술활동현황조사

전북의 여가활동 빈도는 2021년 기준 매일하는 경우 79.4%로 가장 많았고 이는 전국 평균 77.9%와 비교했을 때 약 1.5%p 더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일주일일에 몇 번하는 경우가 전북은 14.3%로 전국 평균 16.1%에 비해 1.8%p 더 낮게 나타났다.

전북의 여가활동 현황을 2020년과 비교하면 매일하는 경우는 2020년 65.0%에서 2021년 79.4%로 증가하였고 일주일 몇 번 하는 빈도가 2020년 22.6%에서 2021년 14.3%로 감소하였다.

[표 4-49] 여가활동 빈도

(단위 : %)

시도	2020년					2021년				
	매일	일주일 몇 번	한달 2-3번	한달 1번	몇 달 1번	매일	일주일 몇 번	한달 2-3번	한달 1번	몇 달 1번
전국	73.5	18.5	4.4	2.2	1.3	77.9	16.1	3.1	1.7	1.1
서울	58.6	26.7	7.1	4.8	2.7	67.6	23.6	4.3	2.0	2.5
부산	95.0	4.7	0.2	0.2		94.0	5.9	0.1		
대구	81.7	13.0	3.3	1.6	0.4	88.5	8.9	1.9	0.5	0.2
인천	84.5	11.4	2.4	1.0	0.7	83.9	12.9	2.1	0.8	0.4
광주	60.7	26.9	9.7	1.8	0.9	74.0	19.3	5.1	0.9	0.7
대전	86.7	11.4	1.9			98.9	1.1			
울산	92.1	6.4	1.5			97.7	2.0	0.3		
세종	100.0					97.9	1.3	0.7		
경기	61.5	25.6	7.8	3.1	1.9	64.0	25.3	4.8	3.9	1.9
강원	69.7	21.3	4.7	2.3	2.1	63.7	24.2	6.1	2.4	3.6
충북	92.2	7.3	0.4	0.1		99.2	0.8			
충남	88.6	11.2	0.2			97.8	2.2			
전북	65.0	22.6	3.4	4.5	4.6	79.4	14.3	4.3	1.7	0.3
전남	81.8	15.2	2.1	0.8		63.3	26.1	8.1	2.1	0.4
경북	83.4	14.8	1.2	0.1	0.5	94.3	5.0	0.6		
경남	90.5	9.3	0.2			91.6	7.3	1.1	0.1	
제주	89.5	9.3	1.2			96.0	3.7	0.3		
전국	73.5	18.5	4.4	2.2	1.3	77.9	16.1	3.1	1.7	1.1
전북	65.0	22.6	3.4	4.5	4.6	79.4	14.3	4.3	1.7	0.3
비교	▼8.5	▲4.1	▼1.0	▲2.3	▲3.3	▲1.5	▼1.8	▲1.2	-	▼0.8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여가활동조사(각 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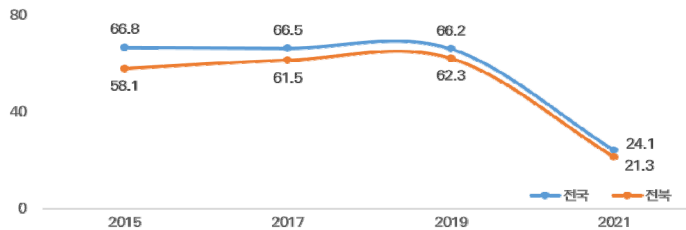
전북의 문화예술 및 스포츠 관람률은 2021년 21.3%로 전국 평균 24.1%에 비해 약 2.8%p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평균 관람 횟수는 약 4.6회 관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의 문화예술 및 스포츠 관람률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2015년 58.1%에서 2019년 62.3%로 증가하다가 코로나 19이후인 2021년은 21.3%로 큰 폭으로 낮아졌다.

[표 4-50] 문화예술 및 스포츠 관람 횟수

(단위 : %, 회)

시도	2015년		2017년		2019년		2021년	
	관람함	평균 횟수	관람함	평균 횟수	관람함	평균 횟수	관람함	평균 횟수
전국	66.8	8.4	66.5	9.0	66.2	8.4	24.1	4.5
서울	72.6	9.0	70.3	10.5	70.7	9.6	29.5	4.6
부산	64.4	8.2	68.1	8.4	64.0	8.4	25.5	4.1
대구	66.6	8.0	67.3	8.2	61.9	6.7	18.6	4.3
인천	69.2	8.1	69.4	8.4	67.1	8.2	26.7	4.4
광주	71.4	9.0	73.1	9.1	73.0	8.3	27.3	4.2
대전	69.5	8.4	70.0	9.6	69.5	7.7	26.9	3.9
울산	64.1	8.4	68.0	7.9	62.9	8.0	23.2	4.3
세종	71.0	9.3	77.7	9.7	75.5	8.7	30.0	4.3
경기	70.1	8.6	69.5	8.9	69.7	8.3	24.8	4.8
강원	58.5	8.1	60.1	9.0	57.9	8.4	18.2	4.2
충북	65.2	7.8	58.9	8.1	63.7	7.5	17.8	3.9
충남	58.3	8.3	59.0	7.6	61.4	8.0	19.4	4.0
전북	58.1	8.0	61.5	8.2	62.3	8.3	21.3	4.6
전남	52.5	7.3	55.3	7.9	56.5	7.4	18.2	4.1
경북	56.9	7.3	56.1	7.7	56.5	7.8	16.1	3.8
경남	65.4	8.4	62.6	8.8	63.0	7.8	21.7	4.9
제주	62.2	7.8	63.9	8.6	64.1	8.3	25.9	3.9
전국	66.8	8.4	66.5	9.0	66.2	8.4	24.1	4.5
전북	58.1	8.0	61.5	8.2	62.3	8.3	21.3	4.6
비교	▼8.7	▼0.4	▼5.0	▼0.8	▼3.9	▼0.1	▼2.8	▲0.1

자료 : 통계청, 사회조사(각 연도)



[그림 4-39] 문화예술관람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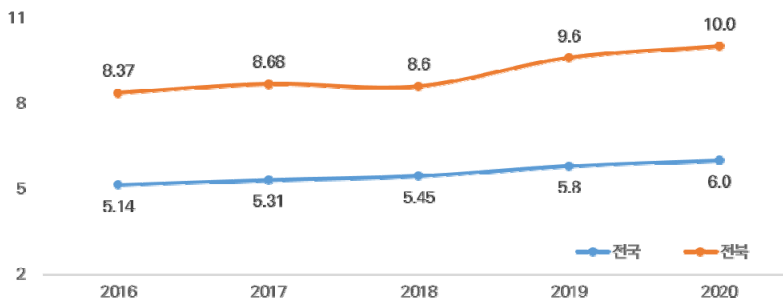
전북의 문화여가시설 개수를 인구 십만명 당 문화기반 시설 수로 살펴보면 2020년 기준 10.0개로 전국 평균 6.0개보다 약 4.0개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여가시설 개수 변화를 보면 2016년 5.14에서 2018년 5.45개, 2020년 6.0개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표 4-51] 문화여가시설 개수(인구 십만명 당 문화기반 시설 수)

(단위 : 개)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전국	5.14	5.31	5.45	5.8	6.0
서울	3.68	3.92	4.09	4.2	4.4
부산	2.77	2.97	3.11	3.6	3.9
대구	2.94	2.99	3.25	3.7	3.8
인천	3.26	3.43	3.52	3.9	4.1
광주	3.88	4.17	4.32	4.9	5.1
대전	3.76	3.66	3.69	4.2	4.2
울산	3.41	3.52	3.72	4.0	4.1
세종	5.35	5.00	6.05	6.5	6.5
경기	3.96	4.09	4.11	4.3	4.2
강원	13.61	14.06	13.93	15.1	15.2
충북	7.92	8.03	8.13	8.5	8.6
충남	7.54	7.56	7.81	8.3	8.3
전북	8.37	8.68	8.60	9.6	10.0
전남	10.03	10.55	10.94	11.9	12.3
경북	7.22	7.36	7.51	7.9	8.3
경남	5.72	5.83	6.14	6.6	6.8
제주	19.48	19.18	20.23	20.6	20.0
전국	5.14	5.31	5.45	5.8	6.0
전북	8.37	8.68	8.60	9.6	10.0
비교	▲3.23	▲3.37	▲3.15	▲3.8	▲4.0

자료 : 통계청, e-지방지표(각 연도)



[그림 4-40] 문화여가시설 개수 변화

전북의 한 달에 사용하는 문화여가비용을 구간별로 살펴보면 15만원 이상이 37.4%로 가장 많았고, 9-15만원이 21.9%, 3만원 미만 13.1% 등 순으로 나타났다. 전북의 문화여가비용은 한 달 평균 144천원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전국 평균 149천원에 비해 약 5천원을 더 적게 쓰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여가비용을 가장 많이 지출하고 있는 지역은 경남이 192천원으로 가장 많았고, 세종(191천원), 광주(187천원)등의 순으로, 전라북도는 17개 시도 중 10번째로 문화여가비용을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52] 문화여가비용(한 달 평균)

(단위 : %)

시도	2021년						평균(천원)
	3만원 미만	3-5만원	5-7만원	7-9만원	9-15만원	15만원 이상	
전국	14.0	9.5	16.5	2.8	19.9	37.3	149
서울	15.7	12.2	18.8	2.8	19.1	31.5	139
부산	10.2	10.5	19.2	4.3	21.3	34.5	144
대구	10.0	7.5	19.0	2.6	24.3	36.6	143
인천	8.0	9.3	13.8	2.4	22.2	44.2	156
광주	4.7	6.6	15.3	1.6	23.1	48.7	187
대전	9.9	6.0	13.9	1.0	20.7	48.5	182
울산	19.3	18.3	18.0	7.1	15.2	22.0	99
세종	9.1	5.3	13.7	2.9	16.2	52.8	191
경기	16.4	8.0	15.1	3.3	20.1	37.1	145
강원	19.4	12.1	19.2	1.2	15.1	33.0	133
충북	16.1	5.0	19.9	0.0	18.1	40.9	162
충남	17.7	7.9	13.5	1.5	11.9	47.6	181
전북	13.1	10.1	11.2	6.3	21.9	37.4	144
전남	19.0	11.4	20.8	2.2	17.4	29.2	130
경북	12.2	15.0	19.3	1.7	23.6	28.1	129
경남	10.1	5.8	13.3	2.2	18.7	49.9	192
제주	7.5	7.2	10.0	3.0	26.9	45.4	124
전국	14.0	9.5	16.5	2.8	19.9	37.3	149
전북	13.1	10.1	11.2	6.3	21.9	37.4	144
비교	▼0.9	▲0.6	▼5.3	▲3.5	▲2.0	▲0.1	▼5.0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여가활동조사

바. 복지

복지 만족분야	지표 내용		지표비교		
			전국	전북	비교
주관적 지표	1) 사회보장만족도(%)	사회보장여건 좋아짐	48.1	55.0	▲6.9
	2) 노후준비정도(%)	준비됨	67.4	69.4	▲2
객관적 지표	3) 자살총동정도(%)	십만명당 자살률	26	28.5	▲2.5
	4) 복지서비스만족도(개)	십만명당 복지시설수	15.5	19.9	▲4.4
	5) 보육시설만족도(개)	유아 천명당 보육시설수	17.1	18.8	▲1.7
	6) 노인복지서비스만족도(개)	노인 천명당 노인시설수	5.3	11.7	▲6.4

전북의 복지서비스 만족 분야의 지표는 전국 평균과 비교했을 경우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전국 평균과 비교했을 경우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지표로는 사회보장여건변화의 지표로 전북(55.0%)이 전국 평균(48.1%) 보다 약 6.9%p더 높게 나타났다. 사회보장여건의 변화추이를 보면 2017년 51.2%에서 2019년 69.5%까지 좋아졌다고 인식하였다가 2021년 55.0%로 다시 낮아져 U자형을 보이고 있다.

[표 4-53] 사회보장만족도(사회보장 여건변화)

(단위 : %)

시도	2017년			2019년			2021년		
	좋아짐	변화없음	나빠짐	좋아짐	변화없음	나빠짐	좋아짐	변화없음	나빠짐
전국	45.9	47.1	7.0	60.8	35.2	3.9	48.1	46.0	5.9
서울	40.6	50.9	8.6	59.3	36.4	4.3	44.3	49.0	6.8
부산	50.8	44.0	5.2	60.7	34.1	5.2	55.6	38.4	6.0
대구	55.7	39.3	5.1	65.4	30.7	3.9	47.8	47.9	4.4
인천	41.7	49.0	9.3	60.4	36.3	3.3	45.0	48.7	6.3
광주	54.6	40.9	4.5	66.0	32.2	1.7	58.4	36.1	5.5
대전	48.8	45.0	6.2	58.7	37.5	3.8	49.8	44.6	5.7
울산	50.0	45.1	4.8	56.6	38.9	4.5	49.1	44.3	6.5
세종	43.2	49.5	7.3	64.6	31.2	4.2	52.8	42.6	4.5
경기	42.2	49.1	8.7	58.3	37.2	4.5	47.2	46.9	6.0
강원	45.4	49.1	5.5	62.0	34.5	3.4	49.0	46.1	4.9
충북	47.9	46.2	5.9	61.3	36.0	2.7	46.3	47.1	6.7
충남	45.8	49.3	5.0	59.1	37.4	3.5	45.7	47.7	6.7
전북	51.2	44.5	4.3	69.5	29.1	1.4	55.0	41.4	3.5
전남	57.8	36.4	5.7	71.1	27.2	1.7	58.7	37.8	3.5
경북	51.6	42.8	5.6	59.8	35.8	4.4	42.4	51.7	6.0
경남	48.2	46.6	5.3	62.1	33.5	4.4	48.5	45.0	6.5
제주	42.7	52.7	4.6	65.1	32.2	2.7	55.6	39.9	4.5
전국	45.9	47.1	7.0	60.8	35.2	3.9	48.1	46.0	5.9
전북	51.2	44.5	4.3	69.5	29.1	1.4	55.0	41.4	3.5
비교	▲5.3	▼2.6	▼2.7	▲8.7	▼6.1	▼2.5	▲6.9	▼4.6	▼2.4

자료 : 통계청. 사회조사(각 연도)

전북의 노후준비정도를 보면 2021년 기준 69.4%로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고 이는 전국 평균 67.4%보다 2.0%p 더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2013년 전북의 노후준비정도는 전국평균 66.7%와 비교하여 약 2.4%p 더 낮은 상태로 2019년 까지 전북의 노후준비는 전국 평균보다 낮은 수준이었으나 2021년에는 전국 평균보다 더 높게 나타나, 전라북도의 노후준비정도가 개선되었다고 볼 수 있다.

전북의 노후준비정도 변화를 살펴보면 2013년 64.3%에서 2015년 58.0%로 낮아졌다가 2017년 64.3%로 다시 증가하였다. 전북의 노후준비 정도는 2019년 63.7%로 2017년이 비해 소폭 감소했다가 2021년 69.4%로 증가하는 등 증감을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54] 노후준비정도

(단위 : %)

시도	2013년		2015년		2017년		2019년		2021년	
	준비됨	준비되지 않음	준비됨	준비되지 않음	준비됨	준비되지 않음	준비됨	준비되지 않음	준비됨	준비되지 않음
전국	66.7	33.3	65.3	34.7	65.4	34.6	65.1	34.9	67.4	32.6
서울	71.9	28.1	68.4	31.6	61.1	38.9	65.2	34.8	67.0	33.0
부산	61.9	38.1	63.9	36.1	61.0	39.0	69.7	30.3	68.3	31.7
대구	63.0	37.0	54.5	45.5	66.9	33.1	62.9	37.1	61.3	38.7
인천	69.8	30.2	69.1	30.9	69.6	30.4	66.1	33.9	65.2	34.8
광주	70.0	30.0	66.1	33.9	68.0	32.0	70.8	29.2	70.4	29.6
대전	65.8	34.2	73.5	26.5	70.9	29.1	71.2	28.8	70.6	29.4
울산	76.3	23.7	66.1	33.9	67.4	32.6	60.3	39.7	70.9	29.1
세종			74.3	25.7	74.3	25.7	68.6	31.4	75.4	24.6
경기	66.9	33.1	65.5	34.5	66.4	33.6	63.6	36.4	68.6	31.4
강원	65.0	35.0	64.7	35.3	66.0	34.0	65.3	34.7	63.8	36.2
충북	56.0	44.0	68.7	31.3	61.1	38.9	64.5	35.5	69.1	30.9
충남	64.4	35.6	57.6	42.4	70.8	29.2	67.0	33.0	65.4	34.6
전북	64.3	35.7	58.0	42.0	64.3	35.7	63.7	36.3	69.4	30.6
전남	60.5	39.5	63.9	36.1	61.3	38.7	63.5	36.5	66.3	33.7
경북	64.9	35.1	64.2	35.8	70.1	29.9	63.3	36.7	62.9	37.1
경남	62.3	37.7	64.9	35.1	67.0	33.0	64.6	35.4	68.8	31.2
제주	79.1	20.9	68.1	31.9	67.5	32.5	63.8	36.2	70.9	29.1
전국	66.7	33.3	65.3	34.7	65.4	34.6	65.1	34.9	67.4	32.6
전북	64.3	35.7	58.0	42.0	64.3	35.7	63.7	36.3	69.4	30.6
비교	▼2.4	▲2.4	▼7.3	▲7.3	▼1.1	▲1.1	▼1.4	▲1.4	▲2.0	▼2.0

자료 : 통계청. 사회조사(각 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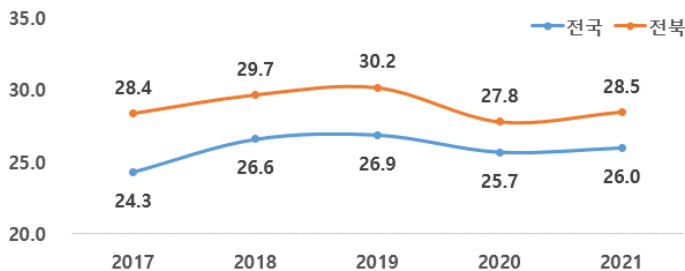
전북의 자살충동정도는 인구 십만명당 자살률을 대표적으로 제시하였으며 2021년 기준 28.5%로 전국 평균(26.0%)보다 2.5%p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전북의 자살충동정도의 변화추세를 살펴보면 2017년 28.4%에서 2019년 30.2%까지 증가추세를 보이다가 2020년 27.8%로 감소하였으나 2021년 28.5%로 다시 증가하여 2017년도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55] 자살충동정도(인구 십만명당 자살률)

(단위 : %)

시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전국	24.3	26.6	26.9	25.7	26.0
서울	21.3	22.5	22.5	22.7	22.6
부산	26.3	27.9	30.1	27.4	27.7
대구	24.9	26.8	28.7	26.1	26.3
인천	24.0	27.9	25.9	26.5	25.9
광주	22.6	25.7	23.9	22.6	26.4
대전	22.5	28.3	28.7	27.2	29.3
울산	24.4	27.1	28.2	26.4	28.5
세종	17.7	26.0	22.4	18.4	19.0
경기	22.9	24.2	25.4	23.7	23.6
강원	30.6	33.1	33.3	33.2	32.7
충북	28.2	31.1	31.1	27.1	31.8
충남	31.7	35.5	35.2	34.7	32.2
전북	28.4	29.7	30.2	27.8	28.5
전남	25.1	28.0	25.4	28.5	30.2
경북	26.0	29.6	29.4	28.6	29.0
경남	24.9	28.9	28.0	25.3	26.3
제주	26.7	30.6	31.7	30.0	26.1
전국	24.3	26.6	26.9	25.7	26.0
전북	28.4	29.7	30.2	27.8	28.5
비교	▲4.1	▲3.1	▲3.3	▲2.1	▲2.5

자료 : 통계청, e-지방지표(각 연도)



[그림 4-41] 자살충동정도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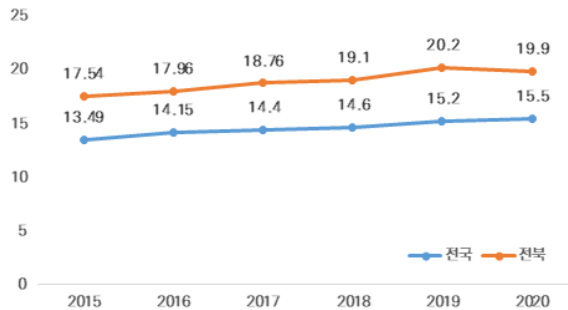
전북의 복지서비스 만족도는 인구 십만명 당 사회복지시설 수로 살펴보고 2020년 기준 19.9개로 전국평균 15.5개와 비교하여 약 4.4개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의 사회복지시설 수 변화추이를 보면 2015년 17.54개에서 2020년 19.9개로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56] 복지서비스 만족도(인구 십만명당 사회복지시설 수)

(단위 : 개)

시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전국	13.49	14.15	14.40	14.6	15.2	15.5
서울	7.67	7.96	7.82	8.0	8.1	8.0
부산	5.83	5.72	6.51	6.4	6.6	6.4
대구	14.71	14.65	14.71	14.3	14.8	14.9
인천	16.17	16.79	16.48	17.3	20.3	19.2
광주	10.94	10.35	10.45	10.4	10.4	10.2
대전	11.06	11.42	11.52	12.6	12.5	14.4
울산	6.82	7.42	7.90	8.1	8.4	8.8
세종	15.65	8.64	7.50	8.6	7.6	-
경기	14.65	16.59	16.94	16.8	17.6	18.1
강원	26.52	27.34	28.19	28.2	28.0	29.0
충북	23.55	24.50	24.90	25.4	25.7	25.0
충남	19.30	19.70	20.31	20.4	20.6	21.1
전북	17.54	17.96	18.76	19.1	20.2	19.9
전남	22.94	23.37	23.31	23.6	23.5	24.6
경북	17.80	18.07	18.54	18.9	19.6	21.6
경남	9.75	9.78	9.94	11.4	12.7	12.9
제주	15.86	15.27	14.91	14.7	14.8	15.7
전국	13.49	14.15	14.40	14.6	15.2	15.5
전북	17.54	17.96	18.76	19.1	20.2	19.9
비교	▲4.05	▲3.81	▲4.36	▲4.5	▲5.0	▲4.4

자료 : 통계청, e-지방지표(각 연도)



[그림 4-42] 사회복지시설 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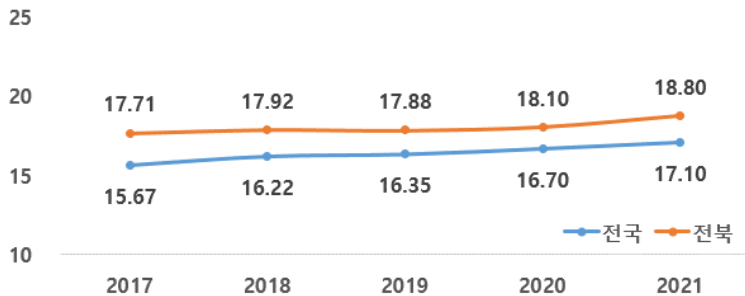
유아 천명당 보육시설 수를 기준으로 보육시설 만족도를 살펴보았다. 2021년을 기준으로 전북은 18.8개로 전국 평균(17.1개)보다 1.70개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육시설 수의 변화추이를 보면 2017년 전북은 17.71개에서 2021년 18.8개로 미미하지만 꾸준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표 4-57] 보육시설 만족도(유아 천명당 보육시설 수)

(단위 : 개)

시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전국	15.67	16.22	16.35	16.7	17.1
서울	14.51	15.24	15.40	15.8	16.4
부산	12.59	13.23	13.78	14.3	14.8
대구	12.62	12.89	12.85	13.4	13.9
인천	14.52	15.16	15.38	15.9	16.0
광주	16.21	16.71	16.64	17.2	17.3
대전	19.29	19.53	19.43	19.5	19.9
울산	13.26	14.06	14.56	15.0	15.4
세종	12.26	13.44	13.38	13.4	13.6
경기	16.75	17.23	17.36	17.5	17.7
강원	17.51	17.69	17.53	17.7	17.9
충북	14.96	15.42	15.93	16.3	17.1
충남	17.40	18.05	18.19	18.6	19.3
전북	17.71	17.92	17.88	18.1	18.8
전남	14.26	14.97	15.18	15.4	16.5
경북	16.25	16.75	16.68	17.0	17.6
경남	17.39	18.06	17.99	18.2	18.9
제주	14.38	14.58	14.95	15.5	16.2
전국	15.67	16.22	16.35	16.7	17.1
전북	17.71	17.92	17.88	18.1	18.8
비교	▲2.04	▲1.70	▲1.53	▲1.40	▲1.70

자료 : 통계청, e-지방지표(각 연도)



[그림 4-43] 보육시설 수 변화

노인 천명당 노인시설 수를 대표로 전북의 노인복지서비스 만족도를 살펴보고, 2021년 기준 11.7개소로 전국 평균 5.3개소보다 6.4개소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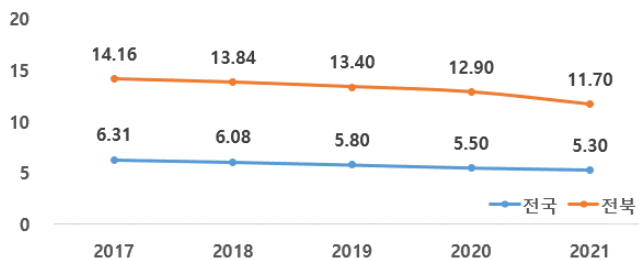
노인복지서비스 만족도의 변화를 보면 2017년 14.16개소에서 2021년 11.7개소로 꾸준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58] 노인복지서비스 만족도(노인 천명당 노인복지시설 수)

(단위 : 개)

시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전국	6.31	6.08	5.8	5.5	5.3
서울	1.90	1.86	1.8	1.7	1.7
부산	2.95	2.87	2.8	2.6	2.6
대구	3.00	2.93	2.8	2.7	2.6
인천	2.91	2.76	2.6	2.5	2.3
광주	5.25	5.01	4.8	4.6	4.4
대전	3.07	2.93	2.8	2.7	2.6
울산	4.39	4.18	4.0	3.7	3.5
세종	11.73	11.06	4.2	9.5	8.8
경기	4.42	4.19	4.0	3.7	3.5
강원	8.01	7.75	7.5	7.2	6.9
충북	11.43	10.95	10.6	10.1	9.6
충남	11.62	11.26	10.8	10.4	10.0
전북	14.16	13.84	13.4	12.9	11.7
전남	16.83	16.50	16.0	15.5	15.1
경북	11.35	11.03	10.6	10.3	9.9
경남	10.21	9.79	9.4	8.9	8.5
제주	3.52	3.31	3.2	3.1	3.0
전국	6.31	6.08	5.8	5.5	5.3
전북	14.16	13.84	13.4	12.9	11.7
비교	▲7.85	▲7.76	▲7.6	▲7.4	▲6.4

자료 : 통계청, e-지방지표(각 연도)



[그림 4-44] 노인복지시설 수 변화

사. 안전

안전 만족분야	지표 내용		지표비교		
			전국	전북	비교
주관적 지표	1) 안전시설 만족도(%)	안전하다	25.9	23.7	▼2.2
	2) 범죄로부터의 안전만족도(%)	안전하다	25.9	23.7	▼2.2
	3) 재해재난으로부터의 안전만족도(%)	안전하다	39.4	38.4	▼1
객관적 지표	4) 범죄 및 재해재난 안전성(등급)	범죄 안전등급	3	1	▲2
		교통사고	3	3	-
	5) 지역안전등급(등급)	화재	3	3	-
		범죄	3	1	▲2
		감염병	3	3	-
	6) 범죄 검거율(%)	검거율	79.5	81.7	▲2.2

전북의 안전 만족 분야의 지표는 전국 평균과 비교했을 경우 보통 수준으로 나타났다. 안전시설, 범죄, 재해재난 등에 대한 안전만족도는 전국 평균보다 낮게 나타났다. 다만 범죄안전등급은 1등급으로 전국평균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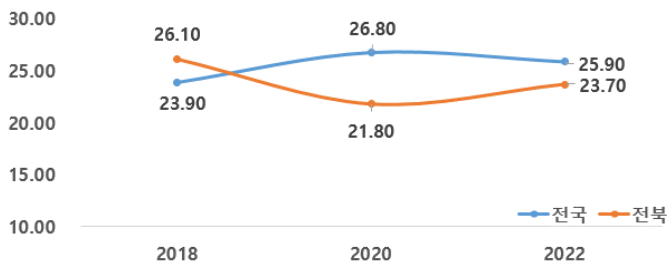
전북의 안전시설에 대한 만족도는 2021년 기준 23.7%로 매우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 평균(25.9%)과 비교하면 2.2%p 더 낮게 나타났다. 안전시설 만족도의 변화추이를 보면 전북은 2018년 26.1%에서 2020년 21.8%로 낮아졌다가 2022년 23.7%로 미미한 수준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4-59] 안전시설에 대한 만족도

(단위 : %)

시도	2018년			2020년			2022년		
	안전하다	보통이다	안전하지 않다	안전하다	보통이다	안전하지 않다	안전하다	보통이다	안전하지 않다
전국	23.9	43.3	32.7	26.8	33.3	39.9	25.9	35.0	39.1
서울	23.8	44.2	32.0	30.1	33.4	36.6	27.6	35.1	37.3
부산	27.0	48.2	24.8	30.7	32.5	36.8	27.0	33.3	39.6
대구	17.7	46.8	35.6	24.1	36.5	39.3	26.4	38.9	34.8
인천	20.3	39.7	40.0	27.6	32.3	40.1	26.7	34.7	38.6
광주	19.5	46.9	33.7	28.9	34.9	36.2	25.5	32.7	41.8
대전	27.0	41.3	31.7	34.2	30.6	35.2	31.0	36.8	32.3
울산	21.8	47.3	30.8	30.5	36.4	33.2	30.1	36.0	33.8
세종	29.0	40.6	30.3	35.7	32.6	31.8	27.5	34.3	38.2
경기	24.3	40.8	35.0	26.4	32.7	40.8	24.5	35.2	40.2
강원	23.8	44.2	32.1	24.3	33.4	42.3	26.2	32.7	41.1
충북	25.4	40.2	34.4	21.0	33.3	45.7	22.3	37.2	40.5
충남	30.6	42.2	27.1	21.8	36.7	41.6	25.5	37.4	37.2
전북	26.1	45.9	28.0	21.8	28.8	49.5	23.7	36.2	40.1
전남	29.9	43.4	26.7	22.5	33.4	44.1	22.1	30.1	47.8
경북	20.7	43.2	36.1	21.7	34.2	44.1	26.2	33.6	40.2
경남	21.7	44.1	34.3	26.3	34.6	39.1	25.7	35.7	38.5
제주	21.4	45.6	33.0	25.3	30.4	44.4	22.1	30.4	47.6
전국	23.9	43.3	32.7	26.8	33.3	39.9	25.9	35.0	39.1
전북	26.1	45.9	28.0	21.8	28.8	49.5	23.7	36.2	40.1
비교	▲2.2	▲2.6	▼4.7	▼5.0	▲3.4	▲1.7	▼2.2	▲1.2	▲1.0

자료 : 통계청, 사회조사(각 연도)



[그림 4-45] 안전시설 만족도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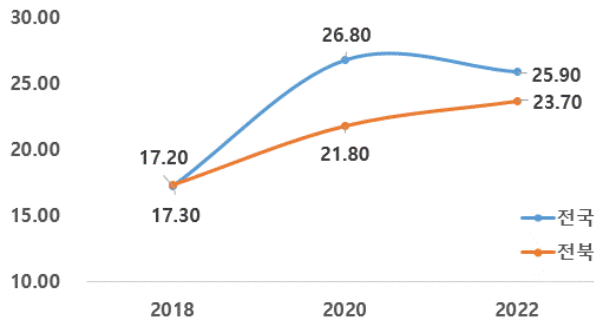
전북의 범죄로부터의 안전만족도는 2022년 기준 23.7%로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고 이는 전국 평균(25.9%)과 비교하면 약 2.2%p 더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전북의 범죄로부터의 안전만족도 변화를 보면 2018년 17.3%에서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표 4-60] 범죄로부터의 안전 만족도

(단위 : %)

시도	2018년			2020년			2022년		
	안전하다	보통이다	안전하지 않다	안전하다	보통이다	안전하지 않다	안전하다	보통이다	안전하지 않다
전국	17.2	32.0	50.8	26.8	33.3	39.9	25.9	35.0	39.1
서울	22.1	34.8	43.1	30.1	33.4	36.6	27.6	35.1	37.3
부산	16.6	39.4	43.9	30.7	32.5	36.8	27.0	33.3	39.6
대구	12.3	28.4	59.4	24.1	36.5	39.3	26.4	38.9	34.8
인천	15.9	26.2	57.8	27.6	32.3	40.1	26.7	34.7	38.6
광주	12.8	30.0	57.2	28.9	34.9	36.2	25.5	32.7	41.8
대전	19.6	34.8	45.7	34.2	30.6	35.2	31.0	36.8	32.3
울산	18.3	38.1	43.6	30.5	36.4	33.2	30.1	36.0	33.8
세종	23.5	29.2	47.3	35.7	32.6	31.8	27.5	34.3	38.2
경기	15.6	28.7	55.8	26.4	32.7	40.8	24.5	35.2	40.2
강원	18.2	30.6	51.1	24.3	33.4	42.3	26.2	32.7	41.1
충북	16.4	31.9	51.7	21.0	33.3	45.7	22.3	37.2	40.5
충남	18.9	33.7	47.4	21.8	36.7	41.5	25.5	37.4	37.2
전북	17.3	36.3	46.4	21.8	28.8	49.5	23.7	36.2	40.1
전남	18.2	32.5	49.3	22.5	33.4	44.1	22.1	30.1	47.8
경북	12.0	31.4	56.6	21.7	34.2	44.1	26.2	33.6	40.2
경남	17.0	31.6	51.4	26.3	34.6	39.1	25.7	35.7	38.5
제주	14.3	32.6	53.2	25.3	30.4	44.4	22.1	30.4	47.6
전국	17.2	32.0	50.8	26.8	33.3	39.9	25.9	35.0	39.1
전북	17.3	36.3	46.4	21.8	28.8	49.5	23.7	36.2	40.1
비교	▲0.1	▲4.3	▼4.4	▼5.0	▼4.5	▲9.6	▼2.2	▲1.2	▲1.0

자료 : 통계청, 사회조사(각 연도)



[그림 4-46] 범죄로부터의 안전 만족도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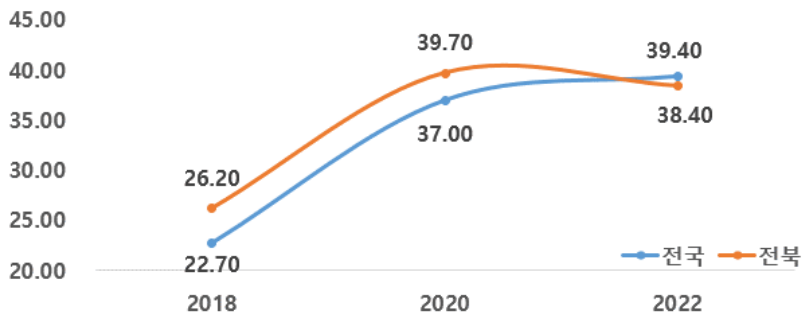
전북의 자연재해로부터의 안전 만족도는 2022년 기준 38.4%로 전국평균(39.4%)과 비교하면 1.0%p 더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자연재해로부터의 안전 만족도의 변화를 살펴보면 2018년 26.2%에서 2020년 39.7%까지 증가하였다가 2022년 38.4%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4-61] 자연재해로부터의 안전 만족도

(단위 : %)

시도	2018년			2020년			2022년		
	안전하다	보통이다	안전하지 않다	안전하다	보통이다	안전하지 않다	안전하다	보통이다	안전하지 않다
전국	22.7	39.6	37.6	37.0	40.1	22.8	39.4	39.7	21.0
서울	24.9	43.2	31.9	38.0	40.0	22.0	40.7	39.5	19.9
부산	25.2	40.0	34.8	37.5	39.1	23.3	42.3	36.4	21.3
대구	15.9	34.3	49.9	31.0	40.7	21	36.2	45.1	16.3
인천	21.0	36.9	42.1	35.7	39.4	24.9	40.9	41.5	17.5
광주	20.6	41.5	37.9	42.9	39.9	17.2	35.9	43.8	20.2
대전	25.6	38.0	36.4	44.8	36.6	18.7	47.6	36.2	15.1
울산	19.0	37.1	43.9	39.3	40.1	20.6	35.9	41.9	22.2
세종	30.0	36.7	33.3	48.4	33.8	17.8	42.2	38.5	17.9
경기	23.7	40.9	35.4	38.7	41.2	20.2	38.2	40.2	21.6
강원	23.5	40.2	36.3	31.7	38.2	30.2	36.1	38.4	25.4
충북	20.4	36.5	43.2	34.7	37.6	27.7	36.6	38.1	25.3
충남	29.1	38.3	32.6	34.6	42.4	23.1	43.2	40.6	16.1
전북	26.2	41.6	32.2	39.7	38.5	21.8	38.4	41.0	20.6
전남	25.8	37.3	36.9	36.5	40.2	23.4	35.9	37.4	26.7
경북	15.1	32.0	53.0	30.5	41.5	28.1	38.8	36.1	25.1
경남	17.8	38.8	43.5	34.3	40.6	25.1	41.2	38.5	20.4
제주	19.7	44.8	35.5	34.6	38.4	27.0	35.3	41.0	23.8
전국	22.7	39.6	37.6	37.0	40.1	22.8	39.4	39.7	21.0
전북	26.2	41.6	32.2	39.7	38.5	21.8	38.4	41.0	20.6
비교	▲3.5	▲2.0	▼5.4	▲2.7	▼1.6	▼1.0	▼1.0	▲1.3	▼0.4

자료 : 통계청, 사회조사(각 연도)



[그림 4-47] 자연재해 안전 만족도 변화

전북의 범죄안전등급은 2021년 기준 1등급으로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고 이는 전국 평균(3등급)보다 2등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7개 시도 중 범죄안전등급이 1등급인 지역은 세종과 전북 등 2개 지역만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의 범죄안전등급의 변화추이를 보면 2019년 2등급에서 2020년 1등급으로 1등급 높아졌고, 2021년에도 1등급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62] 범죄로부터의 안전성

(단위 : 등급)

시도	2019년	2020년	2021년
전국	3	3	3
서울	5	4	3
부산	4	5	5
대구	2	2	4
인천	3	3	2
광주	3	3	3
대전	4	4	4
울산	2	2	2
세종	1	1	1
경기	4	3	4
강원	3	4	3
충북	4	4	3
충남	3	3	3
전북	2	1	1
전남	2	2	2
경북	1	2	2
경남	3	3	4
제주	5	5	5
전국	3	3	3
전북	2	1	1
비교	▲1	▲2	▲2

자료 : 통계청, 지역통계총괄과, 지역안전등급현황

*주 : 숫자가 0에 가까울수록 안전

전북의 지역안전등급은 2021년 기준 범죄안전이 1등급으로 가장 높은 수준이었고, 교통사고, 화재, 감염병은 모두 3등급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 평균과 비슷한 수준으로 범 죄만 전국평균(3등급)보다 2등급 더 높게 나타났다.

전북의 지역안전등급 현황의 변화를 보면, 2019년에 비해 2021년에는 화재(4등급→3 등급)와 범죄(2등급→1등급) 안전 등급이 높아졌고, 교통사고와 감염병은 2019년과 동일 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표 4-63] 지역안전등급현황

(단위 : 등급)

시도	2019년				2020년				2021년			
	교통 사고	화재	범죄	감염병	교통 사고	화재	범죄	감염병	교통 사고	화재	범죄	감염병
전국	3	3	3	3	3	3	3	3	3	3	3	3
서울	1	2	5	4	1	2	4	3	1	4	3	5
부산	2	2	4	4	2	3	5	5	2	5	5	4
대구	3	4	2	5	3	3	2	4	4	2	4	4
인천	2	3	3	2	4	4	3	4	2	2	2	3
광주	3	1	3	1	2	5	3	2	5	3	3	2
대전	4	4	4	3	4	4	4	3	4	4	4	3
울산	4	3	2	3	3	2	2	1	3	3	2	2
세종	5	5	1	2	5	1	1	2	3	1	1	1
경기	1	1	4	1	1	1	3	1	1	1	4	4
강원	3	3	3	5	3	4	4	4	3	4	3	5
충북	2	3	4	3	3	3	4	2	3	3	3	2
충남	4	3	3	3	4	4	3	3	4	3	3	3
전북	3	4	2	3	3	3	1	3	3	3	1	3
전남	5	4	2	4	5	5	2	5	5	5	2	4
경북	4	2	1	4	4	2	2	4	4	4	2	3
경남	2	5	3	2	2	3	3	3	2	2	4	2
제주	3	2	5	2	2	2	5	2	2	2	5	1
전국	3	3	3	3	3	3	3	3	3	3	3	3
전북	3	4	2	3	3	3	1	3	3	3	1	3
비교	-	▼1	▲1	-	-	-	▲2	-	-	-	▲2	-

자료 : 통계청, 지역통계총괄과, 지역안전등급현황

*주 : 숫자가 0에 가까울수록 안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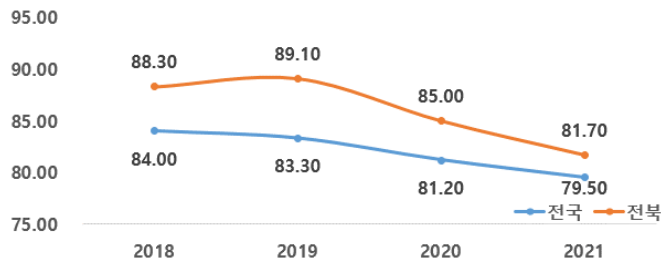
전북의 범죄발생건수는 2021년 기준 43,650건, 검거율은 81.7%로 이는 전국 평균 검거율 79.5%보다 약 2.2%p 더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17개 시도 중 범죄검거율은 광주가 84.9%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이어서 강원(83.9%), 울산(82.7%) 등으로 전북은 17개 시도 중 6번째로 높은 검거율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64] 범죄발생건수 및 검거율

(단위 : 건, %)

시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발생건수	검거율	발생건수	검거율	발생건수	검거율	발생건수	검거율
전국	1,580,751	84.0	1,611,906	83.3	1,587,866	81.2	1,429,826	79.5
서울	308,997	77.4	309,269	76.1	296,178	74.2	257,969	73.3
부산	110,628	84.4	113,138	83.1	113,652	83.2	100,439	78.1
대구	72,341	85.0	75,797	83.1	72,373	82.5	67,915	80.6
인천	86,391	85.5	90,608	85.0	88,143	81.4	76,584	79.3
광주	43,569	89.1	44,274	89.3	43,517	86.1	39,392	84.9
대전	45,527	86.7	45,167	85.3	44,623	83.8	39,982	80.0
울산	32,764	84.4	32,780	84.4	31,381	83.0	29,085	82.7
세종	-	-	6,111	71.3	6,276	68.9	5,937	68.4
경기	388,938	84.1	394,276	83.8	394,226	81.0	357,243	79.7
강원	45,233	87.5	46,096	87.4	44,571	86.4	39,593	83.9
충북	48,315	86.3	48,085	84.9	47,864	82.0	43,397	80.2
충남	68,577	81.1	62,666	81.4	61,612	80.7	54,223	78.4
전북	47,944	88.3	48,252	89.1	47,446	85.0	43,650	81.7
전남	50,993	88.5	52,698	87.5	51,519	85.7	48,380	82.6
경북	74,356	86.4	77,449	86.1	73,762	84.7	65,553	82.5
경남	90,267	86.1	96,212	85.4	97,998	80.5	87,879	79.7
제주	27,427	83.7	26,090	81.2	27,129	80.0	25,515	79.3
전국	1,580,751	84.0	1,611,906	83.3	1,587,866	81.2	1,429,826	79.5
전북	47,944	88.3	48,252	89.1	47,446	85.0	43,650	81.7
비교	-	▲4.3	-	▲5.8	-	▲3.8	-	▲2.2

자료 : 경찰청, 범죄발생 및 검거현황(각 연도)



[그림 4-48] 범죄 검거율 변화

아. 주거

주거여건 만족분야	지표 내용	지표비교(2022)			
		전국	전북	비교	
주관적 지표	1) 주거환경 만족도(%)	만족	85.5	87.8	▲2.3
	2) 주택 만족도(%)	만족	87.5	86.4	▼1.1
객관적 지표	3) 대중교통접근성(%)	대중교통접근 5분~10분	44.3	46.5	▼2.2

전북의 주거여건 만족분야의 지표는 전국 평균과 비교했을 때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다만 주거환경 만족도는 전국 평균보다 전북이 높게 나타나 긍정적인 지표로 나타났다.

전북의 주거환경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2020년 기준 87.8%로 이는 전국 평균(85.5%)보다 약 2.3%p 더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17개 시도 중 주거환경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가 가장 높은 지역은 세종(95.9%)이었고 이어서 대전(92.8%), 광주(91.4%) 등 순으로, 전북은 10번째로 주거환경의 전반적인 만족도가 높은 지역으로 나타났다.

[표 4-65] 주거환경의 전반적 만족도

(단위 : %)

시도	2018년						2020년					
	매우 불만족	약간 불만족	대체로 만족	매우 만족	불만족	만족	매우 불만족	약간 불만족	대체로 만족	매우 만족	불만족	만족
전국	1.1	13.0	76.6	9.3	14.1	85.9	0.9	13.6	73.8	11.7	14.5	85.5
서울	1.6	9.8	77.7	10.9	11.4	88.6	0.6	14.1	69.9	15.4	14.7	85.3
부산	1.1	10.7	71.7	16.4	11.8	88.1	0.9	10.4	75.5	13.2	11.3	88.7
대구	0.4	12.5	82.9	4.2	12.9	87.1	0.3	10.1	81.4	8.2	10.4	89.6
인천	1.9	18.7	69.5	9.9	20.6	79.4	1.5	15.8	70.9	11.9	17.3	82.8
광주	0.0	11.4	84.1	4.4	11.4	88.5	0.3	8.3	75.2	16.2	8.6	91.4
대전	0.3	13.8	75.5	10.5	14.1	86.0	0.3	6.9	86.3	6.5	7.2	92.8
울산	0.8	11.9	71.5	15.8	12.7	87.3	0.5	10.5	72.5	16.5	11	89
세종	0.0	8.4	83.2	8.3	8.4	91.5		4.1	95.8	0.1	4.1	95.9
경기	1.1	14.4	76.6	7.9	15.5	84.5	0.8	15.2	72.4	11.6	16	84
강원	0.8	9.9	83.6	5.7	10.7	89.3	0.7	10.5	81.4	7.5	11.2	88.9
충북	1.2	8.6	82.1	8.1	9.8	90.2	1.8	15.1	75.8	7.4	16.9	83.2
충남	0.6	19.1	76.2	4.0	19.7	80.2	0.5	15.0	78.4	6.2	15.5	84.6
전북	0.5	11.3	79.1	9.1	11.8	88.2	0.2	12.0	78.5	9.3	12.2	87.8
전남	0.6	15.0	77.4	7.1	15.6	84.5	2.3	16.5	69.1	12.2	18.8	81.3
경북	1.9	16.8	73.0	8.4	18.7	81.4	3.9	20.5	67.0	8.6	24.4	75.6
경남	1.3	13.7	73.2	11.7	15.0	84.9	0.8	11.0	77.5	10.7	11.8	88.2
제주	0.5	11.2	77.2	11.1	11.7	88.3	0.8	9.8	65.8	23.6	10.6	89.4
전국	1.1	13.0	76.6	9.3	14.1	85.9	0.9	13.6	73.8	11.7	14.5	85.5
전북	0.5	11.3	79.1	9.1	11.8	88.2	0.2	12.0	78.5	9.3	12.2	87.8
비교	▼0.6	▼1.7	▲2.5	▼0.2	▼2.3	▲2.3	▼0.7	▼1.6	▲4.7	▼2.4	▼2.3	▲2.3

자료 :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보고서(각 연도)

전북의 주택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2020년 기준 86.4%로 매우 높은 수준을 보였으나 이는 전국 평균(87.5%)에 비해 약 1.1%p 더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17개 시도 중 주택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가 가장 높은 지역은 세종(98.2%)으로, 이어서 대전(96.8%), 울산(92.4%) 등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전북은 17개 시도 중 12번째로 만족도가 높은 지역으로 나타났다.

전북의 주택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의 변화를 보면 2018년 88.1%로 전국 평균(86.0%)보다 높은 수준이었으나 2020년에는 주택에 대한 만족도가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표 4-66] 주택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

(단위 : %)

시도	2018년						2020년					
	매우 불만족	약간 불만족	대체로 만족	매우 만족	불만족	만족	매우 불만족	약간 불만족	대체로 만족	매우 만족	불만족	만족
전국	1.0	13.0	73.4	12.6	14.0	86.0	0.8	11.7	74.4	13.1	12.5	87.5
서울	1.8	12.8	74.1	11.3	14.6	85.4	1.0	11.4	74.6	13.0	12.4	87.6
부산	0.8	10.3	65.7	23.1	11.1	88.8	1.1	9.5	72.8	16.6	10.6	89.4
대구	0.4	10.1	83.5	6.0	10.5	89.5	0.2	10.0	84.1	5.7	10.2	89.8
인천	1.8	20.0	65.2	13.0	21.8	78.2	1.2	18.2	67.8	12.7	19.4	80.5
광주	0.6	12.5	81.3	5.7	13.1	87.0	0.1	7.6	75.4	16.9	7.7	92.3
대전	0.7	11.5	76.1	11.7	12.2	87.8	0.0	3.2	90.3	6.5	3.2	96.8
울산	0.7	11.8	65.7	21.8	12.5	87.5	0.5	7.1	72.6	19.8	7.6	92.4
세종	0.0	3.6	84.4	12.0	3.6	96.4		1.9	96.9	1.3	1.9	98.2
경기	0.8	12.8	74.1	12.4	13.6	86.5	0.6	13.2	72.6	13.5	13.8	86.1
강원	0.7	12.4	79.8	7.1	13.1	86.9	1.1	7.9	82.2	8.8	9	91
충북	0.4	6.6	78.6	14.4	7.0	93.0	1.5	13.2	70.7	14.6	14.7	85.3
충남	0.8	10.7	79.6	8.9	11.5	88.5	0.1	12.0	77.9	10.0	12.1	87.9
전북	0.8	11.2	70.6	17.5	12.0	88.1	1.3	12.2	73.7	12.7	13.5	86.4
전남	1.1	19.6	69.2	10.2	20.7	79.4	2.6	15.1	65.7	16.6	17.7	82.3
경북	1.8	16.8	70.4	11.0	18.6	81.4	1.5	13.3	73.0	12.1	14.8	85.1
경남	0.6	13.5	71.5	14.4	14.1	85.9	0.3	11.0	74.4	14.4	11.3	88.8
제주	1.4	15.8	67.9	14.9	17.2	82.8	0.8	9.8	65.7	23.7	10.6	89.4
전국	1.0	13.0	73.4	12.6	14.0	86.0	0.8	11.7	74.4	13.1	12.5	87.5
전북	0.8	11.2	70.6	17.5	12.0	88.1	1.3	12.2	73.7	12.7	13.5	86.4
비교	▼0.2	▼1.8	▼2.8	▲4.9	▼2.0	▲2.1	▲0.5	▲0.5	▼0.7	▼0.4	▲1.0	▼1.1

자료 :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보고서(각 연도)

전북의 대중교통접근성을 대중교통접근시간으로 살펴보면 2021년 기준 5~10분 접근성이 46.5%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는 10~20분(34.4%), 5분 미만(13.4%) 등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전국 평균과 비교하면 대중교통 접근시간이 10분 미만은 전북 59.9%, 전국 평균 58.9%로 전북의 접근성이 조금 더 높게 나타났다.

전북의 대중교통접근성은 2020년 5분 미만 14.3%, 5~10분 47.2%로 대중교통 접근시간이 10분 미만인 경우는 2020년(61.5%)에 비해 2021년(59.9%)에는 1.6%p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67] 대중교통접근성(대중교통접근시간)

(단위 : %)

시도	2020년					2021년				
	5분 미만	5~10분	10~20분	20~30분	30분 이상	5분 미만	5~10분	10~20분	20~30분	30분 이상
전국	14.2	44.3	35.6	4.0	1.9	14.6	44.3	35.2	3.8	2.0
서울	13.5	42.4	38.6	3.6	1.9	14.7	43.1	36.5	3.6	2.1
부산	13.9	45.6	35.4	3.4	1.7	15.2	44.0	35.0	3.8	1.9
대구	12.8	44.3	37.0	4.1	1.8	14.7	43.5	36.6	3.6	1.6
인천	12.6	44.9	36.9	3.8	1.8	14.3	43.8	36.1	3.7	2.2
광주	14.3	44.8	33.6	4.8	2.6	14.0	43.7	35.2	4.4	2.7
대전	13.9	44.6	34.2	5.3	2.0	13.6	43.3	36.1	4.6	2.4
울산	13.9	47.5	33.1	3.2	2.3	13.2	45.8	35.6	3.1	2.3
세종	17.6	44.0	34.2	3.1	1.2	16.2	42.5	35.1	4.2	2.0
경기	14.8	43.9	35.3	4.1	1.9	14.7	45.3	34.2	3.8	1.9
강원	10.6	40.3	42.3	5.0	1.7	12.3	42.4	39.2	4.5	1.6
충북	17.2	45.1	31.8	4.4	1.5	16.4	43.9	33.6	4.1	2.0
충남	14.8	45.1	33.5	4.9	1.8	14.8	45.1	34.0	4.1	2.0
전북	14.3	47.2	32.8	3.6	2.2	13.4	46.5	34.4	3.7	2.1
전남	14.8	46.5	33.1	3.8	1.8	15.5	45.6	33.6	3.2	2.0
경북	14.4	45.5	33.7	4.3	2.0	14.7	44.1	35.1	4.1	1.9
경남	15.2	45.4	33.1	4.4	2.0	14.7	45.1	34.3	3.8	2.0
제주	16.5	44.1	34.2	3.3	1.9	17.2	44.1	34.5	2.5	1.7
전국	14.2	44.3	35.6	4.0	1.9	14.6	44.3	35.2	3.8	2.0
전북	14.3	47.2	32.8	3.6	2.2	13.4	46.5	34.4	3.7	2.1
비교	▼0.1	▼2.9	▲2.8	▲0.4	▼0.3	▲1.2	▼2.2	▲0.8	▲0.1	▼0.1

자료 : 국토교통부, 대중교통현황조사(각 연도)

자. 환경

환경 만족분야	지표 내용		지표비교		
			전국	전북	비교
주관적 지표	1) 공원 및 녹지공간 접근 만족도(%)	만족	81.3	87.3	▲6.0
	2) 환경에 대한 만족도(%)	생활환경 만족도	49.7	52.5	▲2.8
		환경의 변화 만족도	39.8	39.3	▼0.5
	3) 현재 체감환경 만족도(%)	녹지환경	59.2	59.6	▲0.4
		대기	42.3	45.1	▲2.8
		소음진동	36.6	44.5	▲7.9
		수질	41.1	43.5	▲2.4
		토양	40.2	42.3	▲2.1
	4) 환경문제 인식(%)	기후변화 불안	45.9	48.8	▼2.9
		농약화학비료 불안	36.8	36.7	▲0.1
		유해화학 불안	42.5	38.9	▲3.6
		방사능 불안	43.4	43.8	▼0.4
		수돗물 불안	27.4	22.1	▲5.3
		미세먼지유입 불안	64.6	65.6	▼1
객관적 지표	5) 생활폐기물 청결도(톤/일)	폐기물 발생량	2788.6	1676.9	▼1,111.7
	6) 미세먼지(일)	미세먼지 좋음 일수	197	180	▼3
		초미세먼지 좋음 일수	183	171	▼12

전북의 환경 만족 분야의 지표는 전국 평균과 비교했을 때 공원 및 녹지공간 접근 만족도, 생활환경 만족도, 현재 체감환경만족도 등이 높게 나타나, 전반적으로 환경만족도가 높은 편으로 볼 수 있다. 다만 환경의 객관적 지표인 미세먼지 좋음일수는 전국 평균보다 낮고(▼3일), 초미세먼지 좋음 일수도 전국 평균(183일)보다 전북(171일)이 낮게 나타났다.

전북의 공원 및 녹지공간 접근에 대한 만족도는 2020년 기준 87.3%가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전국 평균(81.3%)과 비교하면 약 6.0% 더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17개 시도 중 공원 및 녹지공간 접근에 대한 만족도는 울산과 세종이 91.7%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경남(89.9%), 강원(87.6%) 등 순으로 나타났고, 전북은 5번째로 공원 및 녹지공간 접근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의 공원 및 녹지공간 접근에 대한 만족도 변화를 보면 2018년 전북은 79.9%에서 2020년 87.3%로 만족도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4-68] 공원 및 녹지공간 접근에 대한 만족도

(단위 : %)

시도	2018년						2020년					
	매우 불만족	약간 불만족	대체로 만족	매우 만족	불만족	만족	매우 불만족	약간 불만족	대체로 만족	매우 만족	불만족	만족
전국	3.2	19.4	59.9	17.5	22.6	77.4	2.7	16.0	59.6	21.7	18.7	81.3
서울	4.8	17.6	57.5	20.1	22.4	77.6	2.3	17.4	55.2	25.1	19.7	80.3
부산	2.0	16.4	59.5	22.0	18.4	81.5	1.3	12.3	66.0	20.3	13.6	86.3
대구	0.9	14.2	70.5	14.3	15.1	84.8	1.6	12.8	73.0	12.6	14.4	85.6
인천	3.6	25.9	50.0	20.5	29.5	70.5	6.4	19.0	46.2	28.4	25.4	74.6
광주	0.2	27.4	57.8	14.6	27.6	72.4	1.3	18.0	55.4	25.3	19.3	80.7
대전	1.9	16.6	59.8	21.7	18.5	81.5	0.5	20.9	63.4	15.2	21.4	78.6
울산	0.9	13.3	66.7	19.1	14.2	85.8	0.4	7.9	72.6	19.1	8.3	91.7
세종	0.8	12.7	62.2	24.3	13.5	86.5	0.4	7.9	76.0	15.7	8.3	91.7
경기	3.2	18.6	58.9	19.3	21.8	78.2	2.5	16.2	58.2	23.1	18.7	81.3
강원	2.4	16.1	73.9	7.5	18.5	81.4	2.8	9.6	75.6	12.0	12.4	87.6
충북	4.6	10.9	68.0	16.4	15.5	84.4	5.8	17.0	58.6	18.7	22.8	77.3
충남	2.9	24.8	60.2	12.1	27.7	72.3	3.7	26.1	55.3	14.9	29.8	70.2
전북	1.3	18.8	68.0	11.9	20.1	79.9	2.5	10.2	62.9	24.4	12.7	87.3
전남	4.5	20.9	57.8	16.8	25.4	74.6	3.7	16.7	54.7	24.9	20.4	79.6
경북	4.1	31.6	54.8	9.4	35.7	64.2	6.9	20.7	58.6	13.8	27.6	72.4
경남	3.1	21.5	59.2	16.1	24.6	75.3	1.0	9.0	65.1	24.8	10	89.9
제주	2.5	16.2	66.1	15.2	18.7	81.3	2.7	17.1	55.8	24.4	19.8	80.2
전국	3.2	19.4	59.9	17.5	22.6	77.4	2.7	16.0	59.6	21.7	18.7	81.3
전북	1.3	18.8	68.0	11.9	20.1	79.9	2.5	10.2	62.9	24.4	12.7	87.3
비교	▼1.9	▼0.6	▲8.1	▼5.6	▼2.5	▲2.5	▼0.2	▼5.8	▲3.3	▲2.7	▼6.0	▲6.0

자료 :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보고서, 각연도

전북의 전반적인 생활환경 만족도는 2022년 기준 52.5%로 이는 전국 평균인 49.7%보다 약 2.8%p 더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전반적 생활환경 만족도는 17개 시도 중 강원이 67.9%로 가장 높은 지역으로 나타났고 이어서 전남(62.9%), 세종(60.9%) 등 순으로, 전북은 7번째로 높은 만족도를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의 5년 전과 비교한 환경의 변화는 2022년 기준 39.3%가 좋아졌다고 인식하였으며 이는 전국 평균(39.8%)보다 약 0.5%p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17개 시도 중 5년 전과 비교한 환경의 변화에 대해 세종이 49.8%로 가장 좋아졌다고 인식하였고 그 다음으로는 경남(44.8%), 제주(43.7%) 등 순으로 전북은 12번째로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표 4-69] 환경에 대한 만족도

(단위 : %)

시도	전반적 생활환경 만족도							5년 전과 비교한 환경의 변화							
	매우 좋음	약간 좋음	보통	약간 나쁨	매우 나쁨	좋음	나쁨	매우 좋아짐	약간 좋아짐	변화 없음	약간 나빠짐	매우 나빠짐	좋아짐	나빠짐	
전국	12.4	37.3	43.1	6.3	0.9	49.7	7.2	5.9	33.9	47.1	11.3	1.7	39.8	13.0	
서울	8.7	36.9	46.2	7.0	1.2	45.6	8.2	5.2	32.7	48.9	11.1	2.0	37.9	13.1	
부산	13.6	38.4	40.1	7.3	0.6	52.0	7.9	5.3	35.8	45.7	11.1	2.2	41.1	13.3	
대구	8.4	35.7	50.6	5.0	0.3	44.1	5.3	6.2	30.1	49.8	11.9	2.1	36.3	14.0	
인천	9.7	27.8	50.6	10.5	1.4	37.5	11.9	4.6	36.2	48.8	8.5	1.9	40.8	10.4	
광주	9.8	32.9	49.1	7.5	0.7	42.7	8.2	7.6	35.5	43.7	11.7	1.5	43.1	13.2	
대전	10.0	42.1	42.1	5.0	0.8	52.1	5.8	6.9	33.5	48.5	9.2	1.8	40.4	11.0	
울산	11.7	38.0	42.4	7.1	0.8	49.7	7.9	6.6	34.2	47.0	9.6	2.5	40.8	12.1	
세종	21.3	39.6	36.2	2.5	0.4	60.9	2.9	11.6	38.2	38.7	9.8	1.6	49.8	11.4	
경기	10.7	37.3	44.7	6.3	1.0	48.0	7.3	6.0	34.3	46.2	11.9	1.6	40.3	13.5	
강원	26.1	41.8	30.0	1.9	0.2	67.9	2.1	7.8	34.4	44.8	11.6	1.5	42.2	13.1	
충북	13.9	35.1	43.6	6.4	0.9	49.0	7.3	5.4	27.8	50.3	13.7	2.8	33.2	16.5	
충남	14.3	36.8	41.0	7.3	0.6	51.1	7.9	6.6	28.0	51.5	12.7	1.2	34.6	13.9	
전북	13.9	38.6	41.2	5.7	0.6	52.5	6.3	5.8	33.5	45.7	13.8	1.3	39.3	15.1	
전남	19.9	43.0	33.8	2.9	0.5	62.9	3.4	6.6	35.7	48.3	8.4	1.1	42.3	9.5	
경북	18.9	35.2	36.9	8.0	1.0	54.1	9.0	5.0	33.7	47.3	12.8	1.2	38.7	14.0	
경남	15.7	43.6	36.9	3.6	0.3	59.3	3.9	5.4	39.4	43.6	10.2	1.5	44.8	11.7	
제주	16.6	42.2	35.8	4.8	0.6	58.8	5.4	7.9	35.8	41.9	13.0	1.4	43.7	14.4	
전국	12.4	37.3	43.1	6.3	0.9	49.7	7.2	5.9	33.9	47.1	11.3	1.7	39.8	13.0	
전북	13.9	38.6	41.2	5.7	0.6	52.5	6.3	5.8	33.5	45.7	13.8	1.3	39.3	15.1	
비교	▲1.5	▲1.3	▼1.9	▼0.6	▼0.3	▲2.8	▼0.9	▼0.1	▼0.4	▼1.4	▲2.5	▼0.4	▼0.5	▲2.1	

자료 : 통계청. 사회조사(2022)

전북의 현재 체감환경에 대한 만족도는 2022년을 기준으로 녹지환경만족도가 59.6%로 가장 높았고 이어서 대기환경만족도(45.1%), 소음진동 만족도(44.5%), 수질환경만족도(43.5%) 등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를 전국 평균과 비교하면 현재 체감환경에 대한 만족도는 전반적으로 전북이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소음진동이 전국평균(36.6%)보다 약 7.9%p 더 높게 나타났다.

전북의 현재 체감환경 만족도 변화를 보면 녹지환경, 대기 소음진동, 수질, 토양 등 모든 체감환경에 대한 만족도가 2018년도부터 현재까지 증가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70] 현재 체감환경(좋은만 표시)

(단위 : %)

시도	2018년					2020년					2022년				
	녹지 환경	대기	소음 진동	수질	토양	녹지 환경	대기	소음 진동	수질	토양	녹지 환경	대기	소음 진동	수질	토양
전국	50.2	28.6	29.9	29.3	29.4	58.7	38.2	35.7	37.7	36.7	59.2	42.3	36.6	41.1	40.2
서울	45.8	20.6	25.4	24.0	24.7	52.9	26.6	28.1	30.6	29.2	55.9	33.8	32.1	37.3	36.1
부산	49.6	32.1	29.0	31.8	31.9	64.9	47.9	39.5	42.6	42.5	59.0	49.8	37.2	42.9	44.3
대구	37.0	21.3	17.5	21.1	20.5	52.4	29.9	26.3	31.2	30.6	53.3	39.1	30.0	37.3	36.5
인천	40.3	17.7	25.2	16.7	19.6	43.4	24.0	27.9	22.8	24.3	46.8	26.7	26.5	25.8	26.7
광주	47.2	26.0	21.4	19.7	23.0	55.3	40.1	33.6	32.5	34.4	54.8	41.2	29.5	34.7	32.6
대전	44.4	24.0	25.6	24.7	25.9	55.0	38.8	34.7	39.2	36.5	60.0	45.0	38.2	45.1	42.9
울산	44.8	23.8	24.6	29.2	26.8	55.3	35.7	33.4	39.0	37.2	58.8	37.7	34.8	41.3	38.7
세종	58.9	30.6	39.2	37.4	41.1	73.7	36.4	45.7	44.9	46.7	69.0	46.1	45.5	50.8	51.8
경기	50.6	24.3	27.4	26.9	27.1	59.9	36.0	34.8	36.8	36.0	59.4	39.2	33.0	38.2	38.5
강원	67.0	55.0	45.4	52.1	50.9	73.6	62.6	49.5	55.8	52.3	74.3	67.5	53.2	55.1	54.9
충북	49.6	32.7	34.3	33.6	33.7	56.7	34.4	39.2	36.5	37.7	59.2	46.6	42.0	44.8	42.7
충남	53.2	32.2	40.1	32.0	34.7	58.5	37.3	37.9	35.5	36.0	60.4	42.6	42.7	42.0	42.9
전북	45.1	32.8	31.9	32.1	31.6	55.3	41.4	38.4	41.2	37.1	59.6	45.1	44.5	43.5	42.3
전남	68.7	49.9	47.5	47.0	43.1	75.1	62.6	55.1	56.6	55.0	71.0	58.0	50.1	52.9	48.2
경북	59.1	40.0	37.6	37.8	35.9	59.7	50.4	42.4	46.6	44.2	60.3	52.0	47.1	48.3	48.5
경남	60.7	41.1	39.6	39.4	37.9	70.0	51.0	43.9	47.4	45.7	68.0	52.9	44.9	54.0	48.2
제주	56.1	50.9	38.7	42.2	38.9	68.9	65.1	49.4	51.8	49.1	60.0	60.8	40.2	50.4	47.8
전국	50.2	28.6	29.9	29.3	29.4	58.7	38.2	35.7	37.7	36.7	59.2	42.3	36.6	41.1	40.2
전북	45.1	32.8	31.9	32.1	31.6	55.3	41.4	38.4	41.2	37.1	59.6	45.1	44.5	43.5	42.3
비교	▼5.1	▲4.2	▲2.0	▲2.8	▲2.2	▼3.4	▲3.2	▲2.7	▲3.5	▲0.4	▲0.4	▲2.8	▲7.9	▲2.4	▲2.1

자료 : 통계청. 사회조사(각 연도)

전북의 환경문제 인식도는 미세먼지 유입에 대한 불안이 65.6%로 가장 높았고 이어서 기후변화에 대한 불안(48.8%), 방사능에 대한 불안(43.8%) 등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한편 수돗물에 대한 불안은 22.1%로 비교적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전북의 환경문제 인식도를 전국 평균과 비교하면 기후변화, 방사능, 미세먼지 유입에 대한 불안도는 전북이 더 높게 나타났고 농약·화학비료사용, 유해화학, 수돗물에 대한 불안은 전북이 전국평균보다 더 낮게 나타났다.

[표 4-71] 환경문제 인식

(단위 : %)

시도	기후변화		농약·화학비료 사용		유해화학		방사능		수돗물		미세먼지 유입	
	불안 하지 않음	불안	불안 하지 않음	불안	불안 하지 않음	불안	불안	불안 하지 않음	불안	불안 하지 않음	불안 하지 않음	불안
전국	22.4	45.9	21.3	36.8	21.3	42.5	21.8	43.4	30.7	27.4	10.9	64.6
서울	19.8	47.9	20.0	37.9	17.7	48.2	20.2	44.9	29.6	27.6	8.5	68.9
부산	25.8	45.9	27.1	33.3	24.6	40.1	21.8	47.3	33.8	27.3	14.9	58.6
대구	20.6	41.2	21.7	33.6	20.4	38.3	21.5	37.7	25.1	30.6	12.5	55.3
인천	18.1	48.1	19.6	36.7	18.7	41.3	19.5	41.4	23.6	31.7	8.7	65.5
광주	20.8	46.2	15.9	43.2	19.1	44.0	18.9	48.9	29.7	27.1	8.7	67.9
대전	28.7	42.6	24.3	34.9	24.8	41.1	22.9	45.0	40.1	23.2	11.9	61.2
울산	22.3	47.1	23.1	35.9	21.6	45.4	20.1	49.9	32.1	27.2	14.5	59.1
세종	22.4	48.2	20.1	39.6	20.9	43.6	20.5	45.7	30.3	26.7	8.3	72.2
경기	19.8	47.8	20.1	36.9	18.9	44.2	20.9	43.3	28.2	28.8	8.7	70.2
강원	21.4	46.6	19.3	39.2	19.4	41.4	20.9	45.3	31.9	27.5	12.7	60.8
충북	22.8	50.0	20.3	39.8	21.0	44.7	21.4	44.6	29.3	26.2	12.0	65.1
충남	32.3	35.4	25.9	34.0	30.7	33.8	29.4	37.0	34.0	24.0	16.7	57.1
전북	23.5	48.8	23.4	36.7	24.7	38.9	23.6	43.8	34.1	22.1	12.0	65.6
전남	21.7	44.8	17.3	42.8	21.8	39.6	22.8	42.5	37.6	24.3	11.7	59.4
경북	25.6	42.1	19.9	38.2	24.2	39.8	22.9	44.1	31.3	28.0	14.5	57.9
경남	31.6	39.5	28.1	31.5	30.8	33.9	28.3	38.6	41.5	22.3	14.4	57.3
제주	19.1	51.5	17.4	42.8	17.3	48.7	20.2	45.2	24.3	34.8	8.1	64.3
전국	22.4	45.9	21.3	36.8	21.3	42.5	21.8	43.4	30.7	27.4	10.9	64.6
전북	23.5	48.8	23.4	36.7	24.7	38.9	23.6	43.8	34.1	22.1	12.0	65.6
비교	▲1.1	▲2.9	▲2.1	▼0.1	▲3.4	▼3.6	▲1.8	▲0.4	▲3.4	▼5.3	▲1.1	▲1.0

자료 : 통계청, 사회조사(2022)

전북의 생활폐기물에 대한 청결도는 생활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을 대표적으로 제시 하였으며 2020년 기준 전북의 생활폐기물발생량은 전체 1676.9톤으로 전국 평균 2788.6톤에 비해 약 1,111.7톤이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폐기물을 재활용으로 처리하는 양은 851.1톤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소각으로 처리하는 양이 493.5톤, 매립 은 326.2톤 순으로 나타났다.

전북의 생활폐기물 발생량의 변화추이를 보면 2018년 1,895.1톤으로 2019년 1,578.1톤으로 감소하였다가 2020년 다시 증가하여 증감을 반복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표 4-72] 생활폐기물에 대한 청결도(생활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단위 : 톤/일)

시도	2018년				2019년				2020년			
	소계	매립	소각	재활용	소계	매립	소각	재활용	소계	매립	소각	재활용
전국	2,750.0	385.0	731.1	1,633.8	2,700.7	397.3	770.7	1,522.8	2,788.6	390.7	815.3	1,573.3
서울	8,586.9	839.9	2,020.5	5,726.5	8,658.0	970.4	2,165.0	5,513.1	8,705.8	946.7	2,185.7	5,572.5
부산	2,795.8	70.1	309.3	2,416.4	2,951.0	99.0	421.2	2,430.8	3,146.3	105.8	444.0	2,596.5
대구	2,556.8	410.5	255.5	1,890.8	2,567.9	487.8	262.0	1,818.1	2,570.0	621.0	248.9	1,700.1
인천	1,985.1	293.3	584.1	1,107.7	1,913.8	338.1	516.6	1,059.1	2,005.1	309.2	601.7	1,094.1
광주	1,096.5	486.6	0.0	609.9	1,160.2	519.0	13.6	627.6	1,152.5	466.9	38.1	647.5
대전	1,396.0	192.6	205.7	997.7	1,286.7	209.4	186.1	877.6	1,364.8	228.9	135.5	1,000.4
울산	1,344.2	238.5	434.7	671.0	1,267.5	154.5	480.5	631.3	1,157.1	113.2	467.7	576.2
세종	319.7	18.3	85.2	216.2	325.3	7.8	85.0	215.4	323.0	0.0	80.5	242.5
경기	9,861.3	847.2	3,612.9	5,401.2	9,543.9	934.2	3,626.6	4,945.8	10,689.1	932.0	3,851.9	5,865.7
강원	2,007.6	488.2	415.4	1,104.0	1,866.3	563.8	418.0	876.3	1,829.3	505.8	442.1	872.4
충북	1,914.7	415.1	589.2	910.4	1,906.1	329.0	682.4	894.6	1,806.7	303.0	750.3	751.9
충남	2,267.7	125.5	993.8	1,148.4	2,288.0	128.9	1,003.4	1,134.3	2,100.4	185.5	1,041.9	869.0
전북	1,895.1	327.2	457.0	1,110.9	1,578.1	313.8	451.0	774.5	1,676.9	326.2	493.5	857.1
전남	1,743.2	643.4	344.8	755.0	1,720.2	696.7	335.3	675.6	1,780.9	647.1	375.7	698.9
경북	2,594.4	594.5	811.3	1,188.6	2,367.1	378.8	1,071.7	906.4	2,474.3	293.5	1,250.3	924.9
경남	3,420.1	491.4	1,090.6	1,838.1	3,552.8	563.1	1,122.4	1,867.3	3,480.0	604.9	1,077.5	1,759.4
제주	964.2	62.9	219.3	682.0	959.2	59.2	260.6	639.4	1,144.5	52.5	374.5	717.5
전국	2,750.0	385.0	731.1	1,633.8	2,700.7	397.3	770.7	1,522.8	2,788.6	390.7	815.3	1,573.3
전북	1,895.1	327.2	457.0	1,110.9	1,578.1	313.8	451.0	774.5	1,676.9	326.2	493.5	857.1
비교	▼854.9	▼57.8	▼274.1	▼522.9	▼1,122.6	▼83.5	▼319.7	▼748.3	▼1,111.7	▼64.5	▼321.8	▼716.2

자료 : 환경부. 전국폐기물발생 및 처리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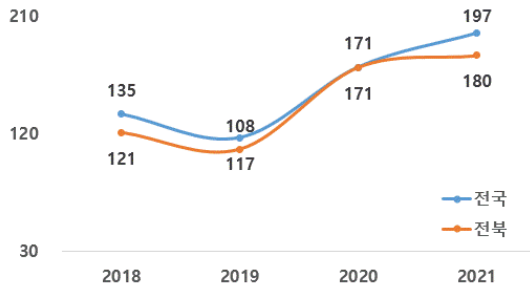
전북의 미세먼지의 등급별 일수를 보면 2021년 좋음 일수는 180일로 전국 평균 197일보다 13일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의 미세먼지 등급이 좋음의 변화를 보면 2018년 121일에서 2019년 108일로 감소했다가 2020년 171일로 다시 증가하며 미세먼지 환경이 좋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73] 미세먼지(PM10) 등급별 일수

(단위 : 일)

시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좋음	보통	나쁨	매우 나쁨	좋음	보통	나쁨	매우 나쁨	좋음	보통	나쁨	매우 나쁨	좋음	보통	나쁨	매우 나쁨
전국	135	209	21	0	117	231	16	1	171	195	0	0	197	153	11	4
서울	140	204	21	0	139	198	25	3	168	193	5	0	185	159	18	3
부산	136	212	16	1	163	193	9	0	208	156	2	0	236	122	4	3
대구	155	196	13	1	148	200	17	0	176	186	4	0	195	158	10	2
인천	140	207	18	0	115	227	21	2	182	182	2	0	177	167	18	3
광주	149	193	21	2	117	227	19	2	210	156	0	0	216	139	6	4
대전	121	219	24	1	143	198	21	3	182	183	1	0	196	154	11	4
울산	162	184	18	1	173	181	11	0	206	158	2	0	243	116	4	2
세종	130	215	19	1	127	209	24	5	165	197	4	0	177	170	14	4
경기	123	216	26	0	97	233	32	3	137	223	6	0	160	179	23	3
강원	150	199	16	0	159	194	11	1	219	144	3	0	244	112	6	3
충북	117	220	27	1	113	228	23	1	164	199	3	0	181	168	13	3
충남	144	202	19	0	96	249	17	3	145	215	6	0	162	177	22	4
전북	121	212	32	0	108	232	22	3	171	194	1	0	180	166	15	4
전남	191	164	10	0	193	166	6	0	247	119	0	0	245	113	3	4
경북	129	214	21	1	142	206	17	0	212	152	2	0	220	134	9	2
경남	136	215	13	1	136	219	10	0	220	146	0	0	251	109	3	2
제주	202	147	14	0	176	175	9	1	220	142	2	0	246	110	6	3
전국	135	209	21	0	117	231	16	1	171	195	0	0	197	153	11	4
전북	121	212	32	0	108	232	22	3	171	194	1	0	180	166	15	4
비교	▼14	▲3	▲11	-	▼9	▲1	▲6	▲2	-	▼1	▲1	-	▼13	▲13	▲4	-

자료 : 한국환경공단. 대기환경연보(2021)



[그림 4-49] 미세먼지 좋음 일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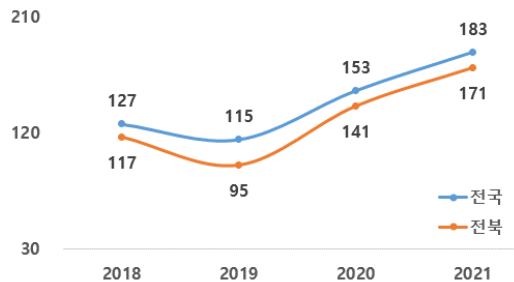
전북의 초미세먼지(PM2.5)의 등급별 일수를 보면 2021년 기준 좋음 일수는 171일로 전국 평균 183일보다 12일이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의 초미세먼지 등급이 좋은 변화를 보면 2018년 117일에서 2019년 95일로 감소하였다가 2020년 141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74] 초미세먼지(PM2.5) 등급별 일수

(단위 : 일)

시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좋음	보통	나쁨	매우 나쁨	좋음	보통	나쁨	매우 나쁨	좋음	보통	나쁨	매우 나쁨	좋음	보통	나쁨	매우 나쁨
전국	127	179	58	1	115	203	41	6	153	187	26	0	183	159	22	1
서울	130	174	57	4	111	190	55	9	143	177	46	0	172	158	31	4
부산	132	173	60	0	127	197	41	0	192	161	13	0	231	127	6	1
대구	146	161	58	0	122	195	47	1	140	191	35	0	187	155	23	0
인천	132	184	47	2	116	197	45	7	191	148	27	0	165	164	32	4
광주	125	174	63	3	119	198	41	7	168	176	22	0	181	158	24	2
대전	135	185	44	1	129	188	42	6	171	181	14	0	206	144	14	1
울산	142	150	73	0	148	175	42	0	181	177	8	0	222	133	9	1
세종	136	181	48	0	108	189	55	13	175	142	49	0	206	118	40	1
경기	126	165	69	5	105	188	61	11	141	176	49	0	163	161	36	5
강원	138	180	47	0	131	193	37	4	196	151	19	0	241	112	11	1
충북	106	156	99	4	90	192	70	13	143	174	49	0	173	152	39	1
충남	145	170	49	1	97	204	53	11	132	188	46	0	150	173	37	5
전북	117	161	86	1	95	210	50	10	141	189	36	0	171	165	27	2
전남	151	177	37	0	169	172	22	2	206	152	8	0	237	118	9	1
경북	112	176	76	1	150	184	26	5	185	167	14	0	204	146	15	0
경남	163	163	39	0	166	179	20	0	199	159	8	0	218	141	5	1
제주	160	182	21	0	173	164	22	2	230	124	10	0	267	90	7	1
전국	127	179	58	1	115	203	41	6	153	187	26	0	183	159	22	1
전북	117	161	86	1	95	210	50	10	141	189	36	0	171	165	27	2
비교	▼10	▼18	▲28	-	▼20	▲7	▲9	▲4	▼12	▲2	▲10	-	▼12	▲6	▲5	▲1

자료 : 한국환경공단. 대기환경연보(2021)



[그림 4-50] 초미세먼지 좋음 일수 변화

차. 교육

교육 만족분야	지표 내용	지표비교			
		전국	전북	비교	
주관적 지표	1) 학교생활만족도(%)	만족	51.0	41.5	▼9.5
	2) 교우관계만족도(%)	만족	74.1	69.7	▼4.4
	3) 교사와의 관계 만족도(%)	만족	64.1	49.6	▼14.5
	4) 교육기회충족도 (%)	충족	60.9	55.1	▼5.8
	5) 교육비부담인식(%)	부담	57.7	49.2	▼8.5
객관적 지표	6) 학교개수(학급당 학생수, 명)	유치원	16.66	13.77	▼2.89
		초등학교	21.06	17.66	▼3.4
		중학교	24.99	22.9	▼2.09
		고등학교	22.62	21.27	▼1.35
	7) 대학개수(개)	전체	336	18	
		일반대	190	8	
	전문대	134	8		

전북도민의 교육지표는 전국 평균과 비교했을 때 전반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특히 주관적 지표인 학교생활만족도(▼9.5), 교우생활만족도(▼4.4), 교사와의 관계 만족도(▼14.5) 모두 낮게 나타났고, 교육기회충족도도 전국 평균보다 5.8%p 낮은 수준으로 분석되었다. 다만 교육비부담인식은 전국평균(57.7%)보다 전북(49.2%)이 덜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의 학교생활만족도를 살펴보면 2022년을 기준으로 전북은 매우만족 12.1%, 약간만족 29.4%, 보통 49.4%, 약간 불만족 4.9%, 매우불만족 4.2%로, 전북의 학교생활만족도는 41.5%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평균(51.0%)보다 9.5%p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17개 시도의 학생의 학교생활만족도를 살펴보면 가장 높은 지역은 광주(63.0%)로 나타났고, 이어서 충북(60.4%), 충남(58.6%) 등 순으로 나타났고, 전북은 17개 시도 중 학생의 학교생활만족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전북 학생의 학교생활만족도의 변화추이를 살펴보면, 2018년 49.8%, 2020년 47.0%, 2022년 41.5%로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75] 학생의 학교생활만족도

(단위 : %)

시도	2018년					2020년					2022년				
	매우만족	약간만족	보통	약간불만족	매우불만족	매우만족	약간만족	보통	약간불만족	매우불만족	매우만족	약간만족	보통	약간불만족	매우불만족
전국	17.6	40.4	37.3	4.1	0.5	25.2	34.1	36.2	3.7	0.8	22.4	28.6	43.5	4.5	0.9
서울	14.7	49.2	33.9	2.2	-	25.6	40.8	26.1	6.4	1.1	19.9	27.2	49.1	3.4	0.5
부산	20.4	40.8	34.4	3.5	0.9	28.1	33.9	35.9	2.1	-	23.9	24.0	47.9	3.1	1.1
대구	17.5	34.8	46.8	0.9	-	12.0	36.8	47.8	3.3	-	24.6	31.0	36.8	6.5	1.2
인천	23.7	38.5	33.1	3.9	0.7	37.8	23.2	33.1	4.1	1.7	20.7	27.3	38.3	13.7	-
광주	16.5	44.5	35.1	1.6	2.3	25.9	44.7	24.3	5.1	-	25.9	37.1	35.8	-	1.2
대전	16.4	40.0	40.7	2.9	-	26.4	35.5	33.2	4.9	-	14.8	42.2	41.8	1.2	-
울산	20.7	38.3	38.0	3.0	-	26.1	31.0	39.0	3.1	0.9	25.9	25.2	39.8	9.1	-
세종	22.5	45.8	30.8	0.9	-	19.1	37.1	34.8	6.5	2.4	28.7	21.0	45.8	4.5	-
경기	18.0	36.7	37.9	7.2	0.3	25.2	30.8	38.9	3.4	1.6	23.1	26.4	46.4	2.9	1.1
강원	12.9	39.8	42.3	5.0	-	24.5	36.6	33.7	5.2	-	31.8	20.8	39.9	7.4	-
충북	20.8	39.9	36.2	3.1	-	22.6	37.1	37.5	2.8	-	16.7	43.7	33.4	6.2	-
충남	19.5	40.2	34.9	4.4	1.0	27.9	33.4	35.6	3.1	-	29.0	29.6	35.4	5.0	1.1
전북	14.2	35.6	44.9	4.8	0.6	16.7	30.3	47.9	4.1	1.1	12.1	29.4	49.4	4.9	4.2
전남	22.6	35.4	35.2	3.1	3.7	28.0	39.6	30.9	1.5	-	25.1	32.6	30.4	8.8	3.2
경북	16.4	43.0	38.9	1.3	0.4	16.1	29.2	51.8	3.0	-	19.5	28.6	51.0	1.0	-
경남	14.5	42.1	38.0	4.7	0.8	27.1	36.7	34.0	1.6	0.6	24.2	30.1	38.9	5.4	1.4
제주	19.4	36.7	42.6	1.2	-	35.1	35.9	28.2	0.7	-	23.5	28.8	42.6	5.1	-
전국	17.6	40.4	37.3	4.1	0.5	25.2	34.1	36.2	3.7	0.8	22.4	28.6	43.5	4.5	0.9
전북	14.2	35.6	44.9	4.8	0.6	16.7	30.3	47.9	4.1	1.1	12.1	29.4	49.4	4.9	4.2
비교	▼3.4	▼4.8	▲7.6	▲0.7	▲0.1	▼8.5	▼3.8	▲11.7	▲0.4	▲0.3	▼10.3	▲0.8	▲5.9	▲0.4	▲3.3

자료 : 통계청. 사회조사(각연도)

전북 학생의 교우관계 만족도는 매우만족 28.0%, 약간만족 41.7%, 보통 25.4%, 약간 불만족 2.8%, 매우 불만족 2.1%로, 전반적인 만족은 69.7%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 평균 (74.1%)보다 4.4%p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17개 시도의 학생 교우관계 만족도를 살펴 보면 가장 높은 지역은 충북(81.3%)으로 이어서 울산(81.1%), 대전(80.2%), 부산(79.5%) 등 순으로 나타났고, 전북은 16번째 순으로 교우관계만족도가 낮은 편으로 나타났다.

전북 학생의 교우관계만족도 변화추이를 보면 2018년 70.2%, 2020년 69.5%, 2022년 69.7%로 2020년에 만족도가 감소한 후로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76] 학생의 교우관계만족도

(단위 : %)

시도	2018년					2020년					2022년				
	매우 만족	약간 만족	보통	약간 불만족	매우 불만족	매우 만족	약간 만족	보통	약간 불만족	매우 불만족	매우 만족	약간 만족	보통	약간 불만족	매우 불만족
전국	33.6	43.0	21.3	1.9	0.1	37.6	35.7	23.7	2.5	0.5	38.8	35.3	22.5	2.7	0.8
서울	27.2	48.6	22.3	1.9	-	40.6	39.2	17.0	3.3	-	38.2	33.2	22.6	4.7	1.4
부산	33.7	46.8	16.6	2.1	0.7	42.8	31.6	23.7	1.8	-	52.8	26.7	17.5	0.8	2.2
대구	26.1	54.7	19.1	-	-	21.5	41.3	34.8	1.2	1.2	41.8	34.3	23.9	-	-
인천	48.1	30.8	19.6	1.4	-	47.3	23.8	26.6	1.1	1.3	27.9	46.4	24.1	1.7	-
광주	31.2	50.4	17.1	1.2	-	43.0	33.3	21.8	0.8	1.1	37.4	36.7	23.6	2.4	-
대전	36.7	36.7	24.7	1.1	0.9	44.0	26.7	23.6	5.6	-	41.4	38.8	18.2	1.7	-
울산	35.6	45.3	17.1	2.1	-	37.0	25.8	34.6	1.7	0.9	37.5	43.6	15.0	3.2	0.7
세종	29.3	46.8	23.9	-	-	30.4	38.4	26.4	3.8	0.9	39.6	29.9	23.5	7.0	-
경기	36.6	39.4	21.2	2.7	-	39.2	34.2	23.3	2.6	0.7	39.4	32.2	25.8	2.2	0.4
강원	24.5	56.1	17.9	0.7	0.7	37.4	37.0	21.6	2.7	1.3	37.5	34.1	26.0	2.4	-
충북	35.7	37.1	24.6	2.5	-	25.2	43.9	28.0	1.8	1.1	37.7	43.6	16.3	2.4	-
충남	39.0	35.6	22.9	2.5	-	39.1	35.8	21.8	3.2	-	40.5	34.6	20.9	4.0	-
전북	25.8	44.4	24.7	4.2	0.8	30.3	39.2	29.8	0.7	-	28.0	41.7	25.4	2.8	2.1
전남	32.8	39.3	25.7	1.4	0.7	33.1	42.2	21.5	3.1	-	40.5	36.7	18.2	2.7	1.9
경북	31.6	48.6	19.2	0.6	-	24.6	45.1	26.0	4.3	-	32.4	43.5	22.2	1.0	0.9
경남	37.3	39.0	22.2	1.6	-	36.0	38.8	23.7	0.6	0.9	40.8	36.4	17.9	3.5	1.4
제주	26.8	43.9	28.8	0.5	-	53.3	20.3	21.6	4.9	-	43.1	29.8	21.5	5.6	-
전국	33.6	43.0	21.3	1.9	0.1	37.6	35.7	23.7	2.5	0.5	38.8	35.3	22.5	2.7	0.8
전북	25.8	44.4	24.7	4.2	0.8	30.3	39.2	29.8	0.7	-	28.0	41.7	25.4	2.8	2.1
비교	▼7.8	▲1.4	▲3.4	▲2.3	▲0.7	▼7.3	▲3.5	▲6.1	▼1.8	▼0.5	▼10.8	▲6.4	▲2.9	▲0.1	▲1.3

자료 : 통계청. 사회조사(각연도)

전북 학생의 교사와의 관계 만족도는 2022년 기준 매우만족 17.5%, 약간 만족 32.1%, 보통 43.9%, 약간 불만족 4.9%, 매우 불만족 1.5%로, 전반적인 만족도는 49.6%로, 전국 평균(64.1%)보다 14.5%p 낮게 나타났다.

학생의 교사와의 관계만족도를 17개 시도와 비교하면 가장 높은 만족도를 보인 지역은 대전(72.5%)으로 이어서 충북(72.3%), 충남(70.6%), 제주(70.3%) 등 순으로 나타났다. 전북의 학생의 교사와의 관계만족도는 17번째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49.6%).

전북 학생의 교사와의 관계만족도의 변화추이를 보면 2018년 55.6%, 2020년 55.3%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다가 2022년 49.6%로 만족도가 50%미만으로 감소하였다.

[표 4-77] 학생의 교사와의 관계 만족도

(단위 : %)

시도	2018년					2020년					2022년				
	매우 만족	약간 만족	보통	약간 불만족	매우 불만족	매우 만족	약간 만족	보통	약간 불만족	매우 불만족	매우 만족	약간 만족	보통	약간 불만족	매우 불만족
전국	24.3	36.8	34.0	4.2	0.7	30.2	34.6	31.6	3.1	0.5	29.6	34.5	31.8	3.4	0.7
서울	21.4	38.9	36.9	2.4	0.4	32.6	39.3	25.8	1.9	0.4	30.8	30.1	35.7	2.9	0.5
부산	27.0	34.1	35.1	2.4	1.4	33.8	34.4	29.2	1.8	0.8	33.3	35.6	30.0	-	1.1
대구	21.7	30.8	43.0	3.0	1.4	11.3	44.0	44.6	-	-	33.2	34.6	31.2	1.0	-
인천	36.5	32.7	24.0	4.5	2.3	41.5	23.0	27.3	7.5	0.7	24.0	40.8	31.0	2.5	1.7
광주	19.3	47.4	29.7	3.6	-	34.2	34.8	28.3	1.6	1.1	31.9	36.6	29.1	2.4	-
대전	24.5	28.8	38.7	6.0	2.1	31.6	42.9	20.8	4.7	-	30.3	42.2	25.2	2.2	-
울산	18.2	37.7	37.9	5.2	0.9	27.1	22.7	45.0	5.2	-	30.7	37.3	27.1	4.8	-
세종	27.2	36.0	33.7	3.0	-	26.9	37.4	29.5	3.8	2.4	33.4	32.5	32.4	1.7	-
경기	26.3	35.9	30.9	6.8	-	31.9	32.0	31.7	4.0	0.4	27.8	33.0	33.5	4.8	0.9
강원	12.5	47.2	36.2	3.2	0.8	31.4	36.1	31.0	0.8	0.8	37.2	25.9	35.7	1.1	-
충북	26.1	39.1	31.0	3.0	0.9	24.9	40.8	29.8	2.8	1.7	32.4	39.9	26.4	1.3	-
충남	26.4	35.0	35.4	2.9	0.4	29.4	34.8	34.4	1.4	-	35.2	35.4	26.4	3.0	-
전북	20.2	35.4	37.0	6.5	0.9	19.2	36.1	43.5	1.3	-	17.5	32.1	43.9	4.9	1.5
전남	23.4	35.1	34.6	4.2	2.8	32.2	44.6	23.2	-	-	28.0	39.7	26.2	3.1	2.9
경북	19.8	38.2	40.9	1.0	-	18.5	35.9	41.8	3.1	0.7	20.9	40.0	34.6	4.5	-
경남	26.5	39.6	30.1	2.4	1.4	32.6	29.9	32.2	4.1	1.3	35.8	33.0	25.7	4.8	0.7
제주	24.0	36.8	36.1	3.1	-	36.7	29.7	26.6	7.1	-	30.4	39.9	24.8	4.9	-
전국	24.3	36.8	34.0	4.2	0.7	30.2	34.6	31.6	3.1	0.5	29.6	34.5	31.8	3.4	0.7
전북	20.2	35.4	37.0	6.5	0.9	19.2	36.1	43.5	1.3	-	17.5	32.1	43.9	4.9	1.5
비교	▼4.1	▼1.4	▲3	▲2.3	▲0.2	▼11	▲1.5	▲11.9	▼1.8	▼0.5	▼12.1	▼2.4	▲12.1	▲1.5	▲0.8

자료 : 통계청. 사회조사(각연도)

전북의 교육기회의 충족도를 2022년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충족 정도(55.1%)가 전국 평균(60.9%)보다 5.8%p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교육기회의 충족도를 17개 시도와 비교하면 가장 높게 나타난 지역은 세종(66.4%)으로 이어서 대전(66.2%), 광주(65.9%) 등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전북은 17개 시도 중 15번째로 교육기회 충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의 교육기회 충족도 변화추이를 살펴보면 2018년 53.1%에서 2020년 51.2%로 감소하였다가 2022년 55.1%로 다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4-78] 교육기회의 충족도(만13세이상 인구)

(단위 : %)

시도	2018년		2020년		2022년	
	총족	미충족	총족	미충족	총족	미충족
전국	56.2	43.8	56.1	43.9	60.9	39.1
서울	61.6	38.4	59.9	40.1	63.2	36.8
부산	55.6	44.4	57.3	42.7	62.2	37.8
대구	54.8	45.2	57.7	42.3	59.5	40.5
인천	55.2	44.8	56.3	43.7	63.9	36.1
광주	58.5	41.5	59.8	40.2	65.9	34.1
대전	58.3	41.7	55.5	44.5	66.2	33.8
울산	60.1	39.9	59.8	40.2	59.4	40.6
세종	64.5	35.5	66.0	34.0	66.4	33.6
경기	56.6	43.4	56.7	43.3	61.6	38.4
강원	54.5	45.5	52.5	47.5	56.6	43.4
충북	54.3	45.7	54.1	45.9	60.1	39.9
충남	48.5	51.5	51.5	48.5	59.7	40.3
전북	53.1	46.9	51.2	48.8	55.1	44.9
전남	48.9	51.1	46.7	53.3	52.8	47.2
경북	50.7	49.3	52.3	47.7	54.4	45.6
경남	54.7	45.3	52.7	47.3	60.3	39.7
제주	55.8	44.2	58.1	41.9	62.6	37.4
전국	56.2	43.8	56.1	43.9	60.9	39.1
전북	53.1	46.9	51.2	48.8	55.1	44.9
비교	▼3.1	▲3.1	▼4.9	▲4.9	▼5.8	▲5.8

자료 : 통계청, 사회조사(각연도)

전북의 자녀교육비 부담 인식을 2022년 기준으로 살펴보면 매우부담스럽다 15.8%, 약간부담스럽다 33.4%, 보통 35.0%, 별로 부담스럽지 않다 12.2%, 전혀부담스럽지 않다 3.6%로 전반적으로 부담된다는 인식이 49.2%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 평균(57.7%)보다 8.5%p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자녀 교육비 부담인식을 17개 시도와 비교하면 부담 인식이 가장 높은 지역은 인천(61.5%)으로 나타났고 이어서 울산(60.8%), 서울(60.7%) 등 순으로 전북은 16번째로 나타나, 자녀 교육비 부담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으로 볼 수 있다.

전북의 자녀교육비 부담인식 변화추이를 보면 2018년 61.1%, 2020년 58.9%, 2022년 49.2%로 점차적으로 감소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79] 자녀 교육비 부담 인식

(단위 : %)

시도	2018년					2020년					2022년				
	매우 부담스럽다	약간 부담스럽다	보통	별로 부담스럽지 않다	전혀 부담스럽지 않다	매우 부담스럽다	약간 부담스럽다	보통	별로 부담스럽지 않다	전혀 부담스럽지 않다	매우 부담스럽다	약간 부담스럽다	보통	별로 부담스럽지 않다	전혀 부담스럽지 않다
전국	24.2	40.2	26.7	7.3	1.5	25.1	39.0	26.8	7.2	1.9	18.9	38.8	31.4	9.0	2.0
서울	24.8	39.0	29.5	5.2	1.5	27.2	36.4	28.5	6.7	1.1	24.8	35.9	29.7	8.0	1.7
부산	31.9	39.3	20.5	7.3	1.0	23.2	40.7	27.6	8.1	0.4	20.5	38.1	33.6	6.0	1.7
대구	18.8	42.9	27.2	9.4	1.7	16.2	39.8	30.6	8.6	4.9	13.0	41.4	34.1	8.9	2.6
인천	28.7	37.9	27.4	4.6	1.4	34.7	34.0	23.7	6.0	1.7	21.4	40.1	30.8	4.7	3.0
광주	13.3	51.1	28.5	6.7	0.3	17.7	44.9	28.4	6.2	2.8	14.7	36.1	36.5	11.5	1.2
대전	31.1	37.5	23.0	7.2	1.3	31.0	39.1	21.0	4.9	4.1	21.3	33.9	32.2	11.2	1.4
울산	25.3	39.4	29.0	5.8	0.5	20.8	42.0	25.9	9.4	2.0	20.1	40.7	27.2	10.1	2.0
세종	23.7	39.0	29.2	6.9	1.2	24.0	42.1	25.3	7.7	0.9	18.9	28.4	32.1	15.1	5.4
경기	25.8	42.1	23.4	7.2	1.6	27.5	40.5	24.8	6.0	1.2	19.1	40.8	30.7	7.5	2.1
강원	16.4	37.0	36.7	8.6	1.2	17.8	38.4	32.1	7.4	4.4	14.8	39.8	30.2	14.3	0.8
충북	25.6	38.0	26.2	9.7	0.6	21.2	37.3	29.6	9.4	2.5	13.3	45.3	26.0	14.4	1.1
충남	21.6	34.6	33.7	9.0	1.2	23.2	42.1	22.3	9.6	2.9	15.4	43.4	30.9	9.8	0.5
전북	20.5	40.6	28.1	8.8	2.0	17.1	41.8	32.3	7.1	1.7	15.8	33.4	35.0	12.2	3.6
전남	23.1	40.5	26.2	7.9	2.3	19.4	32.2	31.3	13.8	3.3	17.4	34.3	33.0	13.3	2.0
경북	21.5	42.2	24.6	7.9	3.8	24.5	38.6	27.1	6.9	2.9	19.4	31.8	35.8	11.4	1.6
경남	20.4	37.2	29.7	10.7	2.0	24.8	38.0	26.7	8.3	2.2	13.4	44.1	29.5	9.8	3.2
제주	18.7	44.1	28.0	8.5	0.7	26.1	40.3	26.0	5.5	2.2	13.7	36.6	38.2	8.2	3.3
전국	24.2	40.2	26.7	7.3	1.5	25.1	39.0	26.8	7.2	1.9	18.9	38.8	31.4	9.0	2.0
전북	20.5	40.6	28.1	8.8	2.0	17.1	41.8	32.3	7.1	1.7	15.8	33.4	35.0	12.2	3.6
비교	▼3.7	▲0.4	▲1.4	▲1.5	▲0.5	▼8	▲2.8	▲5.5	▼0.1	▼0.2	▼3.1	▼5.4	▲3.6	▲3.2	▲1.6

자료 : 통계청, 사회조사(각연도)

전북의 학급당 학생 수를 2022년 기준으로 보면 유치원 13.77명, 초등학교 17.66명, 중학교 22.90명, 고등학교 21.27명으로 전국 평균보다 모두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학급당 학생 수를 17개 시도별로 비교하면 유치는 제주(20.71명), 대구(19.82명), 울산(18.57명) 등 순으로 전북은 16번째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초등학교는 경기(23.42명)가 학급당 학생 수가 가장 많았으며 이어서 대구(22.17명), 인천(21.99명) 등 순으로 전북은 15번째로 높은 수준이었다. 중학교 학급당 학생 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경북(21.43명), 전남(21.92명) 등 순으로 전북은 3번째(22.9명)로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고등학교 학급당 학생 수는 제주(25.41명)가 가장 많았고 이어서 경기(24.37명), 광주(23.85명) 등 순으로 전북은 13번째로 학급당 학생 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80] 학급당 학생 수

(단위 : 명)

시도	2018년				2020년				2022년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국	17.91	22.26	25.74	26.24	16.72	21.81	25.21	23.40	16.66	21.06	24.99	22.62
서울	19.52	22.86	24.43	26.80	18.20	22.06	23.91	23.74	17.96	21.43	24.17	22.90
부산	20.52	22.28	25.31	24.83	19.00	22.21	24.91	22.11	18.56	21.80	24.61	20.44
대구	19.55	22.87	24.77	26.66	18.83	22.52	24.09	23.45	19.82	22.17	23.84	22.01
인천	18.60	22.76	26.67	25.62	18.08	22.70	26.24	23.25	18.16	21.99	26.32	22.62
광주	18.15	21.88	24.98	29.32	18.37	21.37	24.16	25.57	18.06	20.90	24.17	23.85
대전	18.54	21.41	26.79	26.77	16.73	20.79	25.45	23.14	16.79	20.01	24.46	21.33
울산	20.05	23.00	25.79	26.65	18.04	22.88	25.14	22.93	18.57	21.40	24.96	22.34
세종	15.98	21.09	22.23	22.80	15.99	20.88	22.70	22.57	14.60	20.31	23.03	22.74
경기	17.07	24.98	28.98	26.97	15.96	24.34	28.66	24.69	15.93	23.42	27.74	24.37
강원	16.81	17.66	22.72	24.76	15.15	17.31	22.58	21.53	14.42	16.80	23.12	20.87
충북	16.46	19.94	24.69	26.92	14.82	19.81	23.92	23.91	14.43	19.16	23.32	22.86
충남	17.20	20.28	25.16	26.61	15.70	20.15	25.56	23.91	15.36	18.94	25.20	23.35
전북	14.74	19.10	24.61	25.59	13.54	18.46	23.18	22.20	13.77	17.66	22.90	21.27
전남	14.06	18.54	22.82	23.77	12.83	17.83	22.32	20.52	13.10	16.77	21.92	19.54
경북	17.62	20.55	22.53	23.95	16.61	20.15	21.43	21.02	16.40	19.31	21.43	20.25
경남	19.09	21.17	25.48	25.60	17.36	20.88	24.59	22.66	17.58	20.34	24.90	22.46
제주	22.92	22.59	26.89	29.79	21.18	22.67	26.38	26.88	20.71	21.91	26.00	25.41
전국	17.91	22.26	25.74	26.24	16.72	21.81	25.21	23.40	16.66	21.06	24.99	22.62
전북	14.74	19.10	24.61	25.59	13.54	18.46	23.18	22.20	13.77	17.66	22.90	21.27
비교	▼3.17	▼3.16	▼1.13	▼0.65	▼3.18	▼3.35	▼2.03	▼1.2	▼2.89	▼3.4	▼2.09	▼1.35

자료 : 통계청, e-지방지표(각연도)

전북의 대학교 수는 전체 18개로 일반대 8개, 전문대 8개, 교육대 1개, 산업대 1개로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의 대학교 변화추이를 살펴보면 2020년 19개에서 2021년 18개로 감소하여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81] 대학교 수

(단위 : 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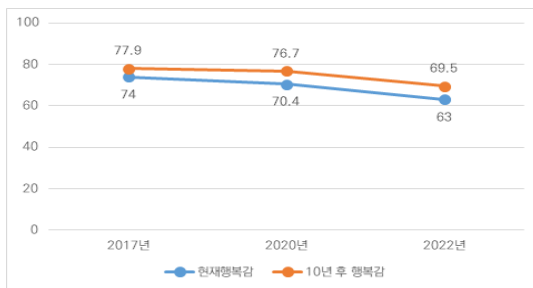
시도	2020년					2021년					2022년				
	전체	일반대	전문대	교육대	산업대	전체	일반대	전문대	교육대	산업대	전체	일반대	전문대	교육대	산업대
전국	339	191	136	10	2	336	190	134	10	2	336	190	134	10	2
서울	48	38	9	1	-	48	38	9	1	-	48	38	9	1	-
부산	22	12	9	1	-	21	12	8	1	-	21	12	8	1	-
대구	11	3	7	1	-	11	3	7	1	-	11	3	7	1	-
인천	7	3	3	1	-	7	3	3	1	-	7	3	3	1	-
광주	17	10	6	1	-	17	10	6	1	-	17	10	6	1	-
대전	15	11	4	-	-	15	11	4	-	-	15	11	4	-	-
울산	4	2	2	-	-	4	2	2	-	-	4	2	2	-	-
세종	3	2	1	-	-	3	2	1	-	-	3	2	1	-	-
경기	61	30	31	-	-	61	30	31	-	-	61	30	31	-	-
강원	17	8	8	1	-	17	8	8	1	-	17	8	8	1	-
충북	17	11	5	1	-	17	11	5	1	-	17	11	5	1	-
충남	21	13	6	1	1	21	13	6	1	1	21	13	6	1	1
전북	19	8	9	1	1	18	8	8	1	1	18	8	8	1	1
전남	19	10	9	-	-	19	10	9	-	-	19	10	9	-	-
경북	33	18	15	-	-	33	18	15	-	-	33	18	15	-	-
경남	21	10	10	1	-	20	9	10	1	-	20	9	10	1	-
제주	4	2	2	-	-	4	2	2	-	-	4	2	2	-	-
전국 평균	19.9	11.2	8.0	0.6	0.1	19.8	11.2	7.9	0.6	0.1	19.8	11.2	7.9	0.6	0.1
전북	19	8	9	1	1	18	8	8	1	1	18	8	8	1	1
비교	▼0.9	▼3.2	▲1	▲0.4	▲0.9	▼1.8	▼3.2	▲0.1	▲0.4	▲0.9	▼1.8	▼3.2	▲0.1	▲0.4	▲0.9

자료 : 통계청, e-지방지표(각연도)

3. 2017년-2023년 분야별 행복감 변화

가. 정서

전북 도민의 주관적 행복감의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2017년, 2020년, 2023년의 현재 행복감과 10년 후 행복감 조사결과를 비교분석하였다. 전북도민의 현재행복감은 2017년 74.0점, 2020년 70.4점, 2023년 63.0점으로 점차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10년 후 행복감도 2017년 77.9점, 2020년 76.7점, 2023년 69.5점으로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단위: 점)			
구분	2017년	2020년	2023년
현재행복감	74.0	70.4	63.0
10년 후 행복감	77.9	76.7	69.5

[그림 4-51] 2017년-2023년 주관적 행복감 비교

나. 경제

전북의 경제분야 지표를 2020년과 2023년을 비교하면 고용의 안정성, 소득만족도, 직업만족도, 좋은 일자리 인식 일부, 주관적 소득수준, 계층이동성 등 많은 지표들이 긍정적으로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가구소득은 2020년이 비해 2023년 791만원이 증가하였으나 가계부채도 645만원으로 증가하였고, 좋은 일자리에서 안정성과 수입지표가 2020년과 비교하여 낮아진 경향을 보이고 있다.

지표 내용	2017년	2020년	2023년	비교
1) 고용의 안정성(%) 고용불안 느끼지 않음	39.7	44.6	55.1	▲10.5
2) 소득만족도(%) 만족	10.1	14.7	25.9	▲11.2
3) 직업만족도(%) 만족	26.7	28.8	41.6	▲12.8

지표 내용	2017년	2020년	2023년	비교	
4) 좋은 일자리 인식(%)	명예명성	2.6	2.6	2.8	▲0.2
	안정성	31.8	32.6	28.7	▼3.9
	수입	37.7	35.7	34.6	▼1.1
	적성흥미	13.7	14.9	15.7	▲0.8
	보람자아성취	4.8	4.3	4.5	▲0.2
	발전장래성	5.9	5.4	6.7	▲1.3
5) 주관적 소득수준(%)	여유	7.2	10.1	13.7	▲3.6
	적정	30.2	31.9	36.4	▲4.5
	모자람	62.6	58.1	49.9	▼8.2
6) 계층의식(%)	상	0.7	2.2	1.8	▼0.4
	중	54.5	58.8	62.1	▲3.3
	하	44.8	39.0	36.1	▼2.9
7) 계층이동성(%)	높음	24.8	22.5	32.9	▲10.4
	낮음	56.7	64.4	55.8	▼8.6
	모름	18.5	13.1	11.2	▼1.9
8) 가구소득 및 가계부채(만원)	가구소득	4,111	5,156	5,947	▲791
	가계부채	4,254	4,973	5,618	▲645
9) 소비자 물가지수	2015년=100	100.54	104.48	102.59	▼1.89
10) 고용률 및 실업률(%)	고용률	59.4	59.3	61.2	▲1.9
	실업률	2.1	2.7	2.7	-

다. 가족관계

가족관계의 경우 2020년에 비해 2023년의 가족관계 만족과 여가활동 동반자의 가족 비중이 증가하여 가족관계 만족도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지표 내용	2017년	2020년	2023년	비교	
1) 가족관계만족도(%)	만족	59.8	57.5	66.4	▲8.9
2) 가정에서 보내는 시간(시간/분)	가정관리 시간	1시간35분	1시간37분	-	-
	가족돌봄 시간	27분	20분	-	-
3) 여가활동 동반자의 가족비중(%)	가족과 함께	53.1	39.7	39.8	▲0.1
	만남- 한달 한두번	44.2	45.3	-	-
4) 부모와의 교류(%)	전화통화-일주일 한두번	45.1	42.6	-	-

라. 건강

건강의 세부지표 중 건강에 대한 주관적 평가, 의료시설 수, 의료서비스 이용률 등은 2020년에 비해 2023년에 더 긍정적으로 변화하였으나, 스트레스 정도, 의료서비스 만족도, 규칙적 체육활동은 2020년에 비해 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건강에 대한 행복도는 2020년에 대비 더 낮아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지표 내용		2017년	2020년	2023년	비교
1) 건강에 대한 주관적 평가(%)	좋음	51.5	45.0	54.7	▲9.7
	많이느낌	4.6	3.9	31.5	▲27.6
2) 스트레스 정도(%)	느끼는편	45.9	43.3	13.9	▼29.4
	느끼지않음	49.5	52.8	3.3	▼49.5
3) 의료서비스 만족도(종합병원)(%)	만족	57.2	49.0	41.1	▼7.9
4) 음주 및 흡연(%)	음주	55.7	59.8	55.7	▼4.1
	흡연	18.6	21.0	-	-
5) 건강관리 실천(%)	아침식사	73.1	72.7	-	
	적정수면	81.8	80.2	-	
	규칙적운동	34.2	37.7	68.2	▲30.5
	건강검진	64.5	82.4	81.9	▼0.5
6) 의료시설 수(개)	인구 천명당 병상수	19.46	21.9	45.3	▲23.4
7) 의료서비스 이용률(%)	종합병원	76.7	81.0	85.7	▲4.7
8) 규칙적 체육활동(%)	하는 경우	82.5	79.1	22.3	▼56.8

마. 사회적 관계

사회적 관계 분야 중 2020년 비해 2023년에 상승한 세부지표는 이웃에 대한 신뢰도, 직장동료관계 만족도 등이며, 감소한 지표는 도움제공지인 여부, 친구관계 만족도, 학교생활만족도 등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반적으로 전북도민의 사회적 관계 분야의 행복정도가 2020년 대비 낮아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지표 내용		2017년	2020년	2023년	비교
1) 도움제공 지인 여부(%)	집안일부탁	75.6	78.0	73.2	▼4.8
	돈빌림	50.0	54.4	50.2	▼4.2
	이야기상대	83.1	82.0	80.9	▼1.1
2) 이웃에 대한 신뢰도(%)	믿을 수 있음	-	54.5	63.0	▲8.5
3) 직장동료관계 만족도(%)	만족	37.5	39.2	40.9	▲1.7
4) 친구관계 만족도(%)	만족	62.2	70.2	69.7	▼0.5
5) 학교생활만족도(%)	만족	45.3	49.8	41.5	▼8.3
6) 자원봉사 참여율(%)	참여	17.8	17.5	10.6	▼6.9
	스스로해결	24.3	21.1	11.2	▼9.9
7) 부모부양 태도(%)	가족	22.7	22.0	17.8	▼4.2
	가족정부사회	46.8	49.1	65.1	▲16
	정부사회	6.1	7.8	5.9	▼1.9

바. 문화여가

문화여가분야의 경우는 2020년에 비해 2023년에 문화여가시설 수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지표가 감소하여, 전북도민의 문화여가정도가 낮아진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일과 여가생활의 균형에서 일에 집중은 감소하고 여가에 집중하는 비중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표 내용		2017년	2020년	2023년	비교
1) 문화여가활동 만족도(%)	만족	20.2	25.6	25.4	▼0.2
	일에 집중	39.4	42.6	38.1	▼4.5
2) 일과 여가생활의 균형(%)	보통	28.4	38.8	41.4	▲2.6
	여가에 집중	32.2	18.6	20.5	▲1.9
3) 문화여가시설 만족도(%)	문화여가시설 이용함	25.2	50.3	25.0	▼25.3
4) 예술행사 만족도(%)	문화예술 활동 수	79.1	92.9	48.1	▼44.8
	공연 횟수	100.3	172.8	65.1	▼107.7
5) 여가활동 빈도(%)	매일	96.5	87.8	79.4	▼8.4
6) 문화예술 및 스포츠 관람(%)	관람함	58.1	62.3	21.3	▼41
7) 문화여가시설 수(개)	십만명당 문화기반시설	7.97	8.60	9.6	▲1
8) 문화여가비용(천원)	한달 평균	131	185	144	▼41

사. 복지

복지서비스 만족 분야는 2020년 대비 노후준비정도, 자살충동정도, 복지서비스 만족도, 보육시설만족도 등의 세부지표가 개선되어 전반적으로 전북도민의 복지행복도가 높아졌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사회보장만족도와 노인복지서비스만족도는 2020년에 비해 낮아졌고, 특히 노인복지서비스만족도는 2017년부터 지속적인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지표 내용		2017년	2020년	2023년	비교
1) 사회보장만족도(%)	사회보장여건 좋아짐	50.2	69.5	55.0	▼14.5
2) 노후준비정도(%)	준비됨	58.0	63.7	69.4	▲5.7
3) 자살충동정도(%)	십만명당 자살률	26.6	29.7	28.5	▼1.2
4) 복지서비스만족도(개)	십만명당 복지시설수	17.54	18.76	19.9	▲1.14
5) 보육시설만족도(개)	유아 천명당 보육시설수	21.37	17.88	18.8	▲0.92
6) 노인복지서비스만족도(개)	노인 천명당 노인시설수	14.94	13.84	11.7	▼2.14

아. 안전

지역사회 안전 분야는 범죄로부터의 안전만족도와 재해재난으로부터 안전만족도가 2020년에 비해 상승된 지표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안전에 대한 주관적 지표는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역안전등급(교통사고, 범죄, 감염병 등)이 2020년에 비해 1등급씩 높아져, 전라북도의 객관적 안전지표도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안전시설에 대한 만족도와 범죄검거율은 2020년에 비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표 내용		2017년	2020년	2023년	비교
1) 안전시설 만족도(%)	안전하다	22.9	26.1	23.7	▼2.4
2) 범죄로부터의 안전만족도(%)	안전하다	5.9	17.3	23.7	▲6.4
3) 재해재난으로부터의 안전만족도(%)	안전하다	23.5	26.2	38.4	▲12.2
4) 범죄 및 재해재난 안전성(등급)	범죄 안전등급	1	2	1	▲1
	재해재난 안전등급	2	2	-	/
5) 지역안전등급(등급)	교통사고	3	4	3	▲1
	화재	4	3	3	-
	범죄	1	2	1	▲1
	자연재해	2	2	-	/
	감염병	4	3	3	-
6) 범죄 검거율(%)	검거율	88.8	88.3	81.7	▼6.6

자. 주거

주거여건 만족분야는 주거환경만족도, 주택만족도가 2020년에 비해 2023년에 각 0.4%p, 1.7%p가 감소하여 주거여건 만족이 2020년 대비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대중교통접근성(5~10분)은 2020년에 비해 3.5%p 증가하여 대중교통접근성은 상승지표로 볼 수 있다.

지표 내용		2017년	2020년	2023년	비교
1) 주거환경 만족도(%)	만족	88.2	88.2	87.8	▼0.4
2) 주택 만족도(%)	만족	88.2	88.1	86.4	▼1.7
3) 주택가격	전세가격지수	101.4	97.9	-	-
	매매가격지수	100.5	98.7	-	-
4) 대중교통접근성(%)	대중교통접근 5분~10분	49.3	43.0	46.5	▲3.5

차. 환경

환경만족 분야 지표 중 공원 및 녹지공간, 환경, 체험환경 만족도, 미세먼지 등은 2020년 대비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고, 환경문제에서 대한 불안도도 전반적으로 낮아져 환경만족 지표가 개선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지표 내용	2017년	2020년	2023년	비교	
1) 공원 및 녹지공간 접근 만족도(%)	74.9	79.9	87.3	▲7.4	
2) 환경에 대한 만족도(%)	생활환경 만족도	-	36.0	52.5	▲16.5
	환경의 변화 만족도	26.3	25.5	39.3	▲13.8
3) 현재 체감환경 만족도(%)	녹지환경	45.6	45.1	59.6	▲14.5
	대기	43.1	32.8	45.1	▲12.3
	소음진동	36.2	31.9	44.5	▲12.6
	수질	45.3	32.1	43.5	▲11.4
	토양	38.3	31.6	42.3	▲10.7
4) 환경문제 인식(%)	기후변화 불안	61.7	47.2	48.8	▲1.6
	농약화학비료 불안	55.5	49.4	36.7	▼12.7
	유해화학 불안	-	48.8	38.9	▼9.9
	방사능 불안	-	54.2	43.8	▼10.4
	수돗물 불안	-	30.2	22.1	▼8.1
	미세먼지유입 불안	-	82.5	65.6	▼16.9
5) 생활폐기물 청결(톤)	폐기물 발생량	1,615.6	1895.1	1676.9	▼218.2
6) 미세먼지(일)	미세먼지 좋음 일수	69	121	180	▲59
	초미세먼지 좋음 일수	67	117	171	▲54

4. 전북 도민의 행복 영향 요인

전북도민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먼저 상관관계를 분석하였고, 상관분석 결과를 통해 독립변수 간 상관인 .6 이상인 변수를 제거(고용안정성, 가족과의 접촉, 가족의 건강, 이웃에 대한 신뢰, 문화시설 및 혜택, 복지시설, 범죄로부터의 안전, 안전시설, 주거환경, 교육시설, 교육의 질)하고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전북도민 행복에 대한 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F=25.358$, $p<.001$). 회귀모형(전체)의 수정된 R^2 값은 .317이고, VIF는 1.487~2.867로 10을 넘지 않아 다중공선성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82] 전북도민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전체)

변수	B	β	t	VIF
(상수)	2.442		10.366	
소득	0.046	0.056	1.592	1.816
직업	0.137	0.172	4.928***	1.782
가족관계	0.101	0.111	3.489**	1.487
건강	0.113	0.128	3.723***	1.722
스트레스	0.076	0.096	2.819**	1.707
의료서비스	-0.023	-0.025	-0.709	1.880
어려울 때 도움 줄 수 있는 사람	0.058	0.063	1.752	1.915
문화여가활동	0.028	0.032	0.864	1.978
일과 여가의 균형	-0.010	-0.012	-0.325	2.054
사회보장	-0.014	-0.017	-0.437	2.269
노후준비	0.061	0.081	2.180*	2.006
재해재난으로부터의 안전	0.013	0.015	0.350	2.555
안전시설	0.047	0.052	1.169	2.867
내 집 마련의 가능성	0.066	0.097	2.507*	2.173
주거비용	0.011	0.014	0.335	2.474
공원 및 녹지공간에 대한 접근성	0.054	0.069	1.990*	1.751
대기(미세먼지, 황사 등)	-0.042	-0.060	-1.672	1.865
생활폐기물 처리	0.005	0.006	0.174	1.983
교육비용	-0.036	-0.046	-1.275	1.914
R^2		.330		
Adjusted R^2		.317		
F		25.358***		

주: * $p<.05$ ** $p<.01$, *** $p<.001$

전북도민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직업($\beta=.172$, $p<.001$), 가족관계($\beta=.111$, $p<.01$), 건강($\beta=.128$, $p<.001$), 스트레스($\beta=.096$, $p<.01$), 노후준비($\beta=.081$, $p<.05$), 내 집 마련의 가능성($\beta=.097$, $p<.05$), 공원 및 녹지공간에 대한 접근성($\beta=.069$, $p<.05$)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전북도민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연령별로 분석한 결과 20~30대($F=9.4494$, $p<.001$), 40~50대($F=13.354$, $p<.001$), 60대 이상($F=4.972$, $p<.001$)의 회귀모형이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20~30대의 수정된 R^2 값은 .375 이고, VIF는 1.673~3.439로 다중공선성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0~30대 전북 도민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직업($\beta=.278$, $p<.001$), 가족관계($\beta=.183$, $p<.01$), 어려울 때 도움 줄 수 있는 사람($\beta=.152$, $p<.05$), 안전시설($\beta=.183$, $p<.05$)로 나타났다.

[표 4-83] 전북도민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연령별)

변수	20~30대			40~50대			60대 이상		
	β	t	VIF	β	t	VIF	β	t	VIF
(상수)		4.472			6.509			6.011	
소득	0.025	0.359	2.094	0.113	1.791	2.360	0.063	1.103	1.435
직업	0.278	3.931***	2.137	0.173	2.919**	2.104	0.041	0.709	1.495
가족관계	0.183	2.924*	1.673	0.072	1.364	1.676	0.086	1.581	1.308
건강	-0.010	-0.138	2.229	0.158	2.626**	2.170	0.156	2.886**	1.289
스트레스	0.127	1.839	2.056	0.154	2.686**	1.961	0.002	0.040	1.629
의료서비스	0.059	0.899	1.863	-0.076	-1.333	1.963	0.039	0.564	2.067
어려울 때 도움 줄 수 있는 사람	0.152	2.268*	1.923	0.020	0.330	2.134	-0.013	-0.195	1.880
문화여가활동	0.007	0.098	2.315	0.077	1.247	2.307	0.035	0.564	1.729
일과 여가의 균형	-0.111	-1.544	2.225	-0.042	-0.647	2.467	0.052	0.832	1.724
사회보장	-0.003	-0.039	2.953	0.004	0.051	3.230	-0.002	-0.037	1.533
노후준비	-0.001	-0.014	1.984	0.045	0.646	2.876	0.144	2.439*	1.544
재해재난으로부터의 안전	0.006	0.069	2.938	0.063	0.660	5.385	-0.017	-0.297	1.514
안전시설	0.183	2.046*	3.439	-0.093	-0.994	5.195	0.025	0.390	1.871
내 집 마련의 가능성	0.080	1.077	2.352	0.049	0.744	2.636	0.167	2.747*	1.638
주거비용	-0.101	-1.243	2.836	0.113	1.521	3.307	-0.005	-0.082	1.872
공원 및 녹지공간에 대한 접근성	0.048	0.722	1.874	0.155	2.507*	2.276	0.048	0.818	1.506
대기(미세먼지, 황사 등)	0.093	1.294	2.205	-0.168	-2.829**	2.118	-0.034	-0.585	1.465
생활폐기물 처리	-0.007	-0.097	2.149	0.030	0.461	2.534	0.000	-0.004	1.799
교육비용	-0.130	-1.901	2.007	-0.014	-0.216	2.358	-0.062	-1.052	1.518
R^2		.419			.424			.214	
Adjusted R^2		.375			.398			.171	
F		9.449***			13.354***			4.972***	

주: * $p<.05$, ** $p<.01$, *** $p<.001$

40~50대 행복 모형의 수정된 R^2 값은 .398이고, VIF는 1.676~5.385로 나타났다. 40~50대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직업($\beta=.173$, $p<.001$), 건강($\beta=.158$, $p<.01$), 스트레스($\beta=.154$, $p<.01$), 공원 및 녹지공간에 대한 접근성($\beta=.155$, $p<.05$), 대기($\beta=-.168$, $p<.01$)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60대 이상 행복모형의 수정된 R^2 값은 .171이고, VIF는 1.289~2.067로 나타났다. 60대 이상의 행복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요인은 건강($\beta=.156$, $p<.01$), 노후준비($\beta=.144$, $p<.05$), 내 집 마련의 가능성($\beta=.167$, $p<.01$)으로 나타났다.

전북도민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권역별로 분석한 결과 시 지역($F=23.293$, $p<.001$), 군 지역($F=3.924$, $p<.001$)의 회귀모형이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4-84] 전북도민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권역별)

변수	시			군		
	β	t	VIF	β	t	VIF
(상수)		8.466			7.036	
소득	0.055	1.400	1.905	0.085	1.025	1.678
직업	0.151	3.840***	1.914	0.226	2.875**	1.511
가족관계	0.140	3.938***	1.549	-0.024	-0.326	1.381
건강	0.095	2.493*	1.807	0.246	3.088**	1.557
스트레스	0.137	3.620***	1.770	-0.104	-1.280	1.601
의료서비스	-0.034	-0.847	1.998	0.020	0.238	1.732
어려울 때 도움 줄 수 있는 사람	0.097	2.394*	2.006	-0.060	-0.700	1.772
문화여가활동	0.012	0.284	2.163	0.098	1.177	1.706
일과 여가의 균형	-0.011	-0.262	2.233	-0.010	-0.113	1.781
사회보장	-0.023	-0.514	2.375	0.030	0.309	2.342
노후준비	0.046	1.086	2.169	0.298	3.444**	1.828
재해재난으로부터의 안전	-0.007	-0.141	2.864	0.062	0.744	1.687
안전시설	0.095	1.886	3.120	-0.210	-2.260*	2.110
내 집 마련의 가능성	0.076	1.730	2.364	0.191	2.253*	1.748
주거비용	0.034	0.738	2.603	-0.060	-0.636	2.190
공원 및 녹지공간에 대한 접근성	0.080	2.008*	1.965	-0.014	-0.181	1.399
대기(미세먼지, 황사 등)	-0.084	-2.099*	1.996	0.052	0.642	1.624
생활폐기물 처리	0.022	0.515	2.176	-0.037	-0.436	1.733
교육비용	-0.029	-0.714	2.063	-0.165	-1.965	1.731
R^2		.359			.305	
Adjusted R^2		.344			.227	
F		23.293***			3.924***	

주: * $p<.05$ ** $p<.01$, *** $p<.001$

권역별로 살펴보면 전라북도 시 지역 행복모형의 수정된 R^2 값은 .344이고, VIF는 1.549~3.120으로 나타났다. 전북 시 지역 도민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직업($\beta = .151$, $p < .001$), 가족관계($\beta = .140$, $p < .001$), 건강($\beta = .095$, $p < .05$), 스트레스($\beta = .137$, $p < .001$), 대기 및 녹지공간에 대한 접근성($\beta = .080$, $p < .05$), 대기($\beta = -.084$, $p < .05$)로 나타났다. 전북 군 지역 행복모형의 수정된 R^2 값은 .227이고, VIF는 1.381~2.342로 나타났다. 전북 군 지역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직업($\beta = .226$, $p < .01$), 건강($\beta = .246$, $p < .01$), 노후준비($\beta = .298$, $p < .01$), 안전시설($\beta = -.210$, $p < .05$), 내 집 마련의 가능성($\beta = .191$, $p < .05$)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도민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종합하면, 전북도민의 행복에는 직업만족도가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어서 건강, 가족관계, 내 집 마련의 가능성, 스트레스, 노후준비 등 순으로 분석되었다.

[표 4-85] 전북 도민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종합)

전체	연령			권역	
	20~30대	40~50대	60대 이상	시	군
직업	직업	직업	내 집 마련의 가능성	직업	노후준비
건강	가족관계	대기(-)	건강	가족관계	건강
가족관계	안전시설	건강	노후준비	스트레스	직업
스트레스	어려울 때 도움 줄 수 있는 사람	공원 및 녹지공간에 대한 접근성		어려울 때 도움 줄 수 있는 사람	안전시설(-)
내 집 마련의 가능성		스트레스		건강	내 집 마련의 가능성
노후준비				대기(-)	
공원 및 녹지공간에 대한 접근성				공원 및 녹지공간에 대한 접근성	

연령에 따라서는 청년층(20~30대)의 행복에는 직업, 가족관계, 어려울 때 도움 줄 수 있는 사람, 안전시설로 이중 직업만족도가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중장년층(40~50대)의 행복에는 직업, 건강, 스트레스, 공원 및 녹지공간에 대한 접근성, 대기가 영향을 미치고, 이 중 직업만족도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년층(60대 이상)의 행복에는 건강, 노후준비, 내 집 마련의 가능성이 영향을 미치고, 이 중 내 집 마련의 가능성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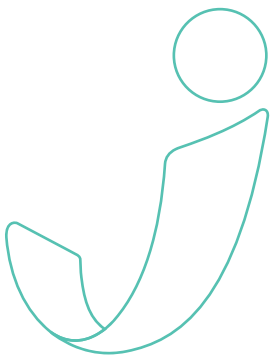
권역별로는 시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전북 도민의 행복에는 직업, 가족관계, 건강, 스트레스, 어려울 때 도움 줄 수 있는 사람, 공원 및 녹지공간에 대한 접근성, 대기(-)가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군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전북도민의 행복에는 직업, 건강, 노후준비, 안전시설(-), 내 집 마련의 가능성이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시 지역 전북도민 행복에는 직업만족도가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고 다음으로는 가족관계가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분석되었고, 군 지역 전북도민의 행복에는 노후준비가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고 다음으로 건강이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제 5 장

결론

1. 정책적 시사점
2. 제언



제5장 결론

1. 정책적 시사점

가. 지표별 이행계획 수립

전라북도 행복지표는 11개 분야별 세부지표로 구성되어 있지만 지표의 개선이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추진과제가 부재하고 지표와 추진과제의 연계관리 또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는 전라북도 행복지표가 단순한 지표로서의 의미만 가질 뿐 지표관리가 부서별 업무와 연계되지 못해 효율적인 관리가 되고 있지 못함을 의미한다.

반면에 지속가능발전지표는 세계, 국가, 지자체로 연계되는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수립이 법적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고 지표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지표체계 위에 목표를 설정하고 지표의 달성을 위한 부서별 업무를 연계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목표	세부목표	지표	이행계획
SDGs01 빈곤종식	1.1 취약계층의 복지정책 강화	1-1-1 65세 인구 비율 중 기초수급자 비율	1.1.1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및 시행
		1-1-2 복지사각지대 발굴 수	1.1.2 전주시복지재단 운영 활성화
		1-1-3 건강보험료를 미납하는 차상위 계층의 수	1.1.3 주민주도의 복지사업 발굴 및 지역자원연계
	1.2 전주형 통합돌봄 체계 확립	1-2-1 돌봄 서비스를 받는 시민의 수	1.2.1 돌봄 대상 및 생활 밀착형 돌봄서비스 확대
			1.2.2 어르신 노후 생활 안정 지원
	1.3 모든 시민의 안정적인 주거복지 실현	1-3-1 위기 시 사용할 수 있는 긴급주택의 수 1-3-2 공공임대주택의 수	1.3.1 주거약자를 위한 질 좋은 사회주택 신속 공급
1.3.2 저소득계층 주거비부담 완화			
1.3.3 청년층의 주거안정			
SDGs02 안전한 먹거리	2.1 농가수익의 향상	2-1-1 농업부분 소득현황	2.1.1 농가소득 안정 지원
			2.1.2 영농환경 개선 및 농가 생산성 향상
			2.1.3 맞춤형 농가 지원사업 확대
	2.2 건강하고 안전한 지역농산물의 생산유통	2-2-1 로컬푸드 매출액 2-2-2 토종종자 보급현황	2.2.1 로컬푸드 보급 활성화
			2.2.2 지역 농산물 안정성 관리체계 강화
			2.2.3 공공급식 등 지역농산물 공급 확대
	2.3 도시농업 육성	2-3-1 도시농업 참여자 수	2.3.1 생활 속 도시농업 육성 및 활성화
			2.3.2 수요자 맞춤형 치유농업 지원 확대
	2.4 취약계층 먹거리 전달체계 구축	2-4-1 따뜻한 밥상 지원금	2.4.1 저소득 청소년가정 식비 지원 강화
			2.4.2 결식우려 아동·청소년 급식지원 확대
	2.5 탄소중립 농업을 위한 기술지원	2-5-1 친환경 농업 인증면적	2.5.1 탄소절감 먹거리 생산교육 활성화

[그림 5-1] 전주시 SDGs 기본 및 이행계획(일부)

전라북도의 행복지표가 단순한 지표 값으로서의 수치이상의 의미를 가지기 위해서는 지표에 맞는 부서별 업무를 연계시켜 지표에 따른 부서별 이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지표의 변화추이와 부서별 업무의 관리를 통해 실제로 지표개선을 위해 전라북도는 어떤 이행계획을 추진하고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공개할 필요가 있다.

[표 5-1] 행복지표 이행계획(예시)

분야	지표	이행계획
문화여가	문화여가활동 만족도	시군 대표 공연예술제 활성화 예술인 복지기금 조성
	일과 여가의 균형	워케이션 기반구축
	문화예술 및 스포츠관람	통합문화이용권 수혜자 수 증가 소외계층 스포츠강좌 이용권 확대
	문화여가시설 만족도	소규모 문화예술공간 구축사업 생활밀착형 문화기반시설 조성 소규모 생활체육시설 조성
환경	환경에 대한 만족도	지역맞춤형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
	생활폐기물에 대한 청결도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
	공원/녹지공간 접근 만족도	백두대간 산림정원 조성 람사르 운곡습지 국가생태탐방로 조성 서해안권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인증
	미세먼지	전기/수소차 보급 활성화 미세먼지저감 도시숲 조성

나. 행복취약집단 집중관리

행복감은 주관적 지표로 다양한 요소가 작용하지만 그 결과를 보면 특히 행복도가 낮은 연령이나 지역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전라북도민의 연령에 따른 현재 행복감은 50대(64.62점)가 가장 높고 이어서 18~20대(63.22점), 60대 이상(62.92점), 40대(62.56점), 30대(60.92점) 순으로 나타났다. 10년 후 행복감은 40대(75.74점)가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30대(73.33점), 18~20대(72.89점), 50대(71.49점), 60대 이상(62.89점) 순으로 나타나 연령에 따라서는 현재행복감과 10년 후 행복에 대한 기대가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60대 이상은 다른 연령과 다르게 10년 후 행복감이 낮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전라북도 지역에 따른 현재 행복감과 10년 후 행복감을 분석한 결과, 현재 행복감이 가장 높은 전북 지역은 중추도시권(63.89점), 동북권(62.31점), 새만금권(62.21점), 서남권

(62.00점), 동남권(60.38점) 순인 반면, 지역별 10년 후 행복감이 가장 높은 지역은 동남권(71.36점), 중추도시권(69.72점), 새만금권(68.61점), 서남권(69.44점), 동북권(67.32점)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현재 행복감이 가장 높은 지역은 중추도시권(전주, 익산, 완주), 낮은 지역은 동남권(임실, 순창, 남원)으로 나타났으나, 10년 후 행복감은 동남권(임실, 순창, 남원)이 가장 높고 동북권(무주, 진안, 장수)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5-2] 도민 특성별 행복 만족도 분석

구분		경제	가족 관계	건강	사회적 관계	문화 여가	복지 서비스	지역사회 안전	주거 여건	환경	교육
전체		5.81	7.29	6.32	6.29	5.99	5.73	6.53	6.45	6.07	5.74
성별	남	6.07	7.31	6.44	6.31	6.13	5.88	6.75	6.58	6.18	5.78
	여	5.56	7.27	6.21	6.26	5.85	5.57	6.30	6.32	5.96	5.70
연령	18~20대	5.77	7.11	6.62	6.16	6.39	6.03	6.66	5.96	6.43	6.09
	30대	5.56	7.18	5.90	5.71	5.31	4.94	5.98	5.57	5.04	4.70
	40대	5.88	7.26	6.02	6.11	5.56	5.20	6.27	6.40	5.69	5.12
	50대	5.82	7.45	6.23	6.19	5.92	5.51	6.51	6.60	5.93	5.56
	60대 이상	5.87	7.34	6.53	6.65	6.28	6.21	6.77	6.87	6.50	6.30
배우자유무	있음	5.96	7.44	6.43	6.45	6.04	5.83	6.64	6.77	6.15	5.80
	없음	5.46	6.93	6.06	5.88	5.86	5.48	6.25	5.64	5.87	5.59
개인 월소득	200만원미만	5.10	7.15	6.06	6.18	5.83	5.63	6.29	6.15	6.00	5.73
	200~300만원미만	5.90	7.34	6.58	6.31	6.17	5.84	6.53	6.35	6.25	5.94
	300~400만원미만	5.96	7.21	6.21	6.45	5.97	5.73	6.58	6.55	5.92	5.73
	400만원이상	6.67	7.52	6.47	6.27	6.01	5.72	6.85	6.95	6.08	5.48
가구원수	1인 가구	5.29	6.61	5.72	5.56	5.43	5.16	5.91	5.71	5.50	5.27
	2인 가구	5.89	7.49	6.60	6.65	6.35	6.12	6.74	6.78	6.32	6.04
	3인 가구	5.88	7.20	6.36	6.30	6.05	5.89	6.58	6.49	6.22	5.95
	4인 가구 이상	5.91	7.53	6.29	6.25	5.82	5.40	6.54	6.41	5.92	5.40
직업	공무원	6.49	7.61	6.57	6.19	5.89	5.74	6.75	6.47	6.27	5.50
	사무직	5.96	7.35	6.40	6.39	6.18	5.83	6.56	6.40	6.01	5.76
	생산유통서비스직	6.03	7.32	6.52	6.50	6.04	5.77	6.76	6.71	6.58	6.03
	전문직(교육, 의사등)	6.42	7.58	6.37	6.43	6.06	5.54	6.65	6.76	5.70	5.53
	자영업	5.95	7.25	6.40	6.18	6.04	5.92	6.68	6.48	6.04	5.78
	전업주부	5.26	7.23	6.15	6.42	5.90	5.80	6.51	6.55	6.15	5.99
기타	5.00	6.89	5.93	5.80	5.73	5.48	5.93	5.87	5.69	5.39	
지역	중추도시권(전주, 익산, 완주)	5.83	7.26	6.33	6.21	6.00	5.66	6.52	6.36	5.96	5.68
	새만금권(군산, 김제, 부안)	5.80	7.32	6.32	6.47	6.03	5.95	6.50	6.67	6.19	5.92
	동북권(무주, 진안, 장수)	5.54	7.13	5.89	6.21	5.81	5.42	6.37	6.65	6.27	5.43
	동남권(임실, 순창, 남원)	5.84	7.43	6.24	6.22	5.63	5.42	6.74	6.26	6.35	5.68
	서남권(정읍, 고창)	5.84	7.35	6.54	6.42	6.25	6.01	6.49	6.51	6.15	5.8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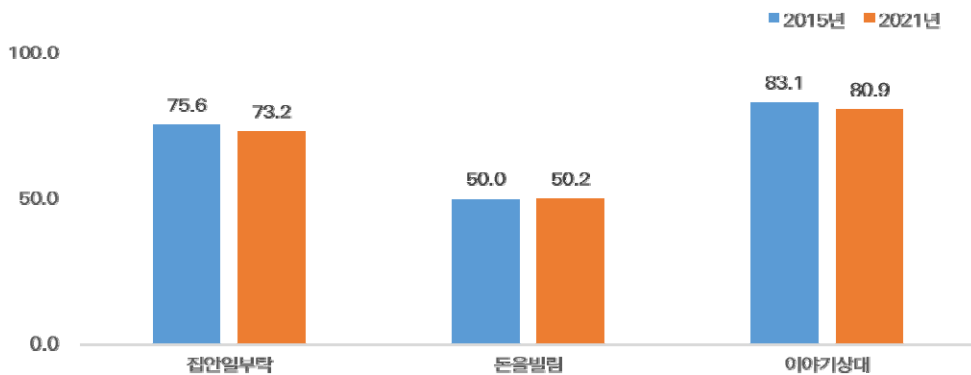
주: 1순위 2순위 10순위

소득에 따른 도민의 주관적 행복감을 분석한 결과 현재 행복감은 400만원 이상(65.92점)이 가장 높고, 300~400만원 미만(64.79점), 200~300만원 미만(62.48점), 200만원 미만(60.55점) 순으로 나타났고, 10년 후 행복감은 300~400만원 미만(71.93점)이 가장 높고 400만원 이상(70.71점), 200~300만원 미만(70.56점), 200만원 미만(66.36점) 순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소득이 높은 도민의 주관적 행복감과 10년 후 행복감이 높고, 소득이 낮은 도민의 행복감과 10년 후 행복감이 낮게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보면 현재와 10년 후의 전라북도민의 행복도는 연령별로 보면 30대와 60대 이상, 지역별로 보면 동남권과 동북권, 소득별로 보면 200만원 미만에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들을 전라북도 행복취약집단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를 다시 분야별 행복만족도와 비교하면 분야별 취약지표를 알 수 있다. 대표적으로 20~30대의 주거문제, 200만원 미만의 경제문제, 동남권, 동북권의 복지서비스 등은 행복취약집단별 가장 낮은 분야별 만족도를 나타내고 있다. 전라북도의 전반적인 행복도의 개선을 위해 행복취약집단과 행복취약집단의 행복취약지표관리를 집중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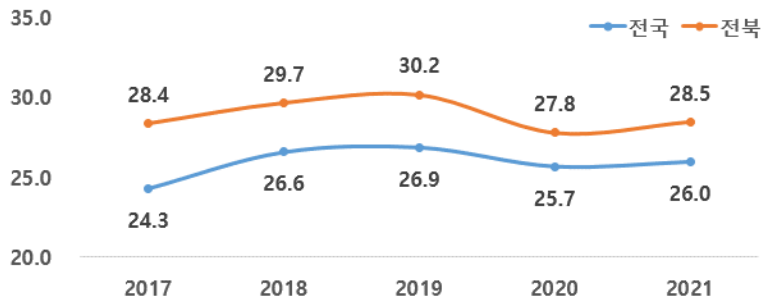
다. 외로움에 대한 공적대응

전라북도의 사회적 관계망 변화추이를 2015년과 비교하면 아플 때 집안일을 부탁할 사람이 있는 경우는 약 2.4% 낮아졌고, 우울할 때 이야기할 상대가 있는 경우는 약 2.2%p 낮아진 것으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2015년에 비해 전북도민의 사회적 관계망이 약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림 5-2] 전북의 사회적 관계망 변화도

반면 전북의 자살충동정도는 2021년 기준 28.5%로 전국 평균(26.0%)보다 2.5%p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전북의 자살충동정도의 변화추세를 살펴보면 2017년 28.4%에서 2019년 30.2%까지 증가추세를 보이다가 2020년 27.8%로 감소하였으나 2021년 28.5%로 다시 증가하였다.



[그림 5-3] 자살충동정도 변화

전북의 학교생활만족도는 41.5%로 전국평균(51.0%)보다 9.5%p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17개 시도의 학생의 학교생활만족도를 살펴보면 가장 높은 지역은 광주(63.0%)로 나타났다, 이어서 충북(60.4%), 충남(58.6%) 등 순으로 나타났고, 전북은 17개 시도 중 학생의 학교생활만족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전북 학생의 학교생활만족도의 변화추이를 살펴보면, 2018년 49.8%, 2020년 47.0%, 2023년 41.5%로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도민의 행복에 미치는 사회적 관계나 교유관계 등의 만족도가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점은 전북도민이 코로나와 같은 감염병으로 인한 사회적 만남의 빈도가 줄어드는 환경에서의 사회적 공동체의 취약이 더 강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럼에도 외로움은 개인의 문제로 치부되고 있으며 공적영역에서 대응은 전무한 상황이다.

외로움을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면서 이를 국가적 차원에서 대응하기 위한 노력이 전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영국은 2018년 외로움부서를 신설하고 외로움 담당 장관을 임명하였다. 외로움부서는 국립통계국과 함께 외로움을 측정하는 방법을 찾고 정책개발 위한 기금설립 등 외로움에 대한 사회적 대응을 위한 정부차원의 실천적 행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일본은 2021년 고독고립문제 담당 장관직을 신설하고 정부가 직접 국민의 정신건강을 정책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전라북도민의 사회적 관계망이 점차 약화되고 있고 이로 인한 행복감이 낮아지는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고립과 외로움을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고 공적영역에서 정책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전라북도 차원의 외로움부서를 신설하고 다른 지역보다 높은 고령자 자살률 및 1인 가구 등의 외로운 집단에 대한 정책적 실천행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할 필요가 있다.

2. 제언

2023 전북형 행복지표의 체계구성에서 어려웠던 점은 첫째, 전국단위 비교를 위한 통계지표가 지속성이 없는 분야가 생겨난다는 것이다. 2017년과 2020년까지는 세부지표가 발표되었음에도 최근 관련 지표가 공개되지 않거나 지표자체가 없어지는 경우가 있어 연도별 비교를 위한 객관지표로서의 의미가 퇴색하는 경우가 있다. 이를 보완할 수 있도록 대표적인 지표의 경우 설문조사에 포함하여 지속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행복지표 체계구성의 두 번째 애로점은 2020년 비교지표로 활용하였던 객관지표가 연구과정에서 필요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면서 상당부분 폐기되었다는 것이다. 2020년 비교지표는 객관적 현황과 행복감을 비교하기 위한 지표로 예를 들면 행복을 위해 필요한 가구소득/년을 물어보고 현재 도민의 평균소득을 비교하여 행복에 필요한 소득수준의 격차를 보고자 하였다. 하지만 경제분야 외에 분야별로 이를 객관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지표체계를 찾기 어려운 한계에 직면하여 몇 개 분야로 축소하여 진행 할 수 밖에 없었다. 향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다.

셋째, 향후 행복지표연구는 2년 또는 3년 단위의 주기성을 가질 필요가 있다. 2023년 행복지표는 기존의 2017, 2020년이라는 3년 단위의 행복지표 주기에서 2년 단위를 설정하여 3년 단위의 주기성을 여기게 되었다. 하지만 코로나로 인한 조사의 어려움과 도민의식조사와의 공동조사를 통해 결국 조사 시기는 2023년으로 이루어져 결과론적으로는 3년 주기로 조사를 하게 된 셈이 되었지만 향후 조사는 가능하다면 명확한 주기를 설정하고 비교가능하도록 행복지표 조사의 주기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행복지표연구를 통해 후속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를 거치면서 행복지표가 낮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은 사회적 관계 만족도가 떨어졌다는 것이다. 향후 “코로나19영향에 의한 사회적 관계 회복연구”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교육에 대한 만족도 특히 교우관계만족도가 낮게 나타나 “전라북도 교육만족도 제고방안연구”의 필요성이 높다. 행복지표의 지속적인 개선을 위해 전라북도 정책과 연계한 “전라북도 행복지표 이행계획 수립연구”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행복취약계층과 취약지표에 대한 개선방안연구” 등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참 고 문 헌

REFERENCE

-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홈페이지. (<https://stdict.korean.go.kr>).
- 부탄 GNH센터 홈페이지. (www.gnhcentrebhutan.org).
- 통계청. (www.kosis.kr).
- OECD Better life index 홈페이지. (www.oecdbetterlifeindex.org).
- 강창민. 서인석 & 윤원수. (2017). 제주특별자치도 행복지수 평가연구. 제주연구원
- 곽명신 (2021). 경상북도 삶의 질 변화에 관한 기초연구. 대구경북연구원
- 구교준. 임재영. & 최슬기. (2015). 행복에 대한 이론적 고찰. 정부학연구. 제21권(제2호). pp. 95-130.
- 김동영. 이중섭. & 김윤주. (2016). 전라북도 행복지표 개발연구. 전북연구원
<http://repository.jthink.kr/handle/2016.oak/928>
- 김동영. 이중섭. 송용호 & 김윤주. (2017). 전라북도 행복지표 조사 및 정책연계 방안. 전북연구원
<http://repository.jthink.kr/handle/2016.oak/403>
- 김동영. 최윤규. & 송용호. (2020). 2020 전북형 행복지표. 전북연구원
<http://repository.jthink.kr/handle/2016.oak/585>
- 박승규. 김선기. & 조창덕. (2015). 세종특별자치시 행복지표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박승규. 박진경. & 조창덕. (2015). 지역공동체 행복지표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변미리. 민보경. & 박민진. (2017). 서울형 행복지표 구축과 제도화 방안. 서울연구원
- 유정균. 김동영. 유영성. 이상훈. 김을식. 김정훈. 박경철. 오재호. 이은환. 정대영. 김세현. 신동훈. 박서연. 박누리. & 최혜진. (2021). 2020 경기도민 삶의 질 조사. 경기연구원
- 이미애. 채은경. & 안지선. (2019). 인천시 지역웰빙(행복)지표 개발에 관한 연구. 인천연구원
- 정해식. 권지성. 정선욱. 김성아. 전영섭. 권석만. 김석호. 신혜란. 이봉주. 채수홍. 홍석철. 구서정. 진예린. & 유지수. (2019). 한국인의 행복과 삶의 질에 관한 종합연구-국제 비교 질적 연구를 중심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조근식 & 권오영. (2020). 태백형 행복지표 개발 연구. 강원연구원
- 최용환. 조찬주. & 하태수. (2019). 도민행복의 재발견, 행복지수 측정. 충북연구원
- 통계청. (2022). 국민 삶의 질 2021.
- 편상범. (2022). 에우다이모니아와 행복. 철학사상, 83, 49-80.
- E. Diener. (1984). Subjective well-being. *Psychological Bulletin*, 95(3), 542-575.
- Keyes, M. (1998). Social well-being. *Social Psychology Quarterly*, 61(2), 121-140.
- Ryff, C. D. (1989). Happiness is everything, or is it? Explorations on the meaning of psychological well-be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7(6), 1069-1081.

SUMMARY

Designing Jeonbuk Happiness Index 2023 and Analyzing the Happiness Levels of Jeonbuk Residents

Dong Young Kim · Jung-Seb Lee · Hyun Su Kim

1. Study Objectives and Methods

■ Research objectives

- We are witnessing a global trend in which many countries find their GDP-driven growth strategies and the subsequent performance-oriented lifestyle of their citizens ineffective at addressing inequality and improving people's happiness and quality of life.
- Starting with happiness index surveys in 2017, Jeonbuk engaged in extensive research and a series of surveys and field studies in 2020 to improve the happiness index's validity. In this context, this study aims to tailor Jeonbuk Happiness Index 2023 (the Index) to the region and leverage it to measure residents' happiness levels.
- The Index incorporates not only the existing happiness index and related survey results but also a wide range of variables that can affect residents' happiness to present policy implications and directions.

■ Research Methods

- The index, which is primarily based on Jeonbuk Happiness Index 2020, has been finetuned to reflect environmental changes such as the COVID-19 pandemic.
- We seek to survey Jeonbuk residents' happiness levels with a focus on 11 domains—subjective happiness, economic well-being, family relationships, health, social relationships, culture and leisure, welfare, security, housing conditions, the environment, and education—to derive implications for increasing the region's happiness via residents' civic consciousness and statistical analysis.
- This study employs regression analysis of the Index to delve into residents' happiness factors and vulnerable groups while delivering policy implications for promoting residents' happiness and quality of life.

2. Conclusion and Policy Suggestion

■ Happiness levels

- The happiness levels of Jeonbuk residents were analyzed to exhibit a downward trend: 74.0 points in 2017, 70.4 points in 2020, and 63.0 points in 2023. Additionally, the speculated happiness levels ten years from now reveal the same trend: 77.9 points in 2017, 76.7 points in 2020, and 69.5 points in 2023.
- By domain, happiness levels have increased in the domains of economic well-being, family relationships, health, housing conditions, security, and the environment, while declining in both social relationships and culture and leisur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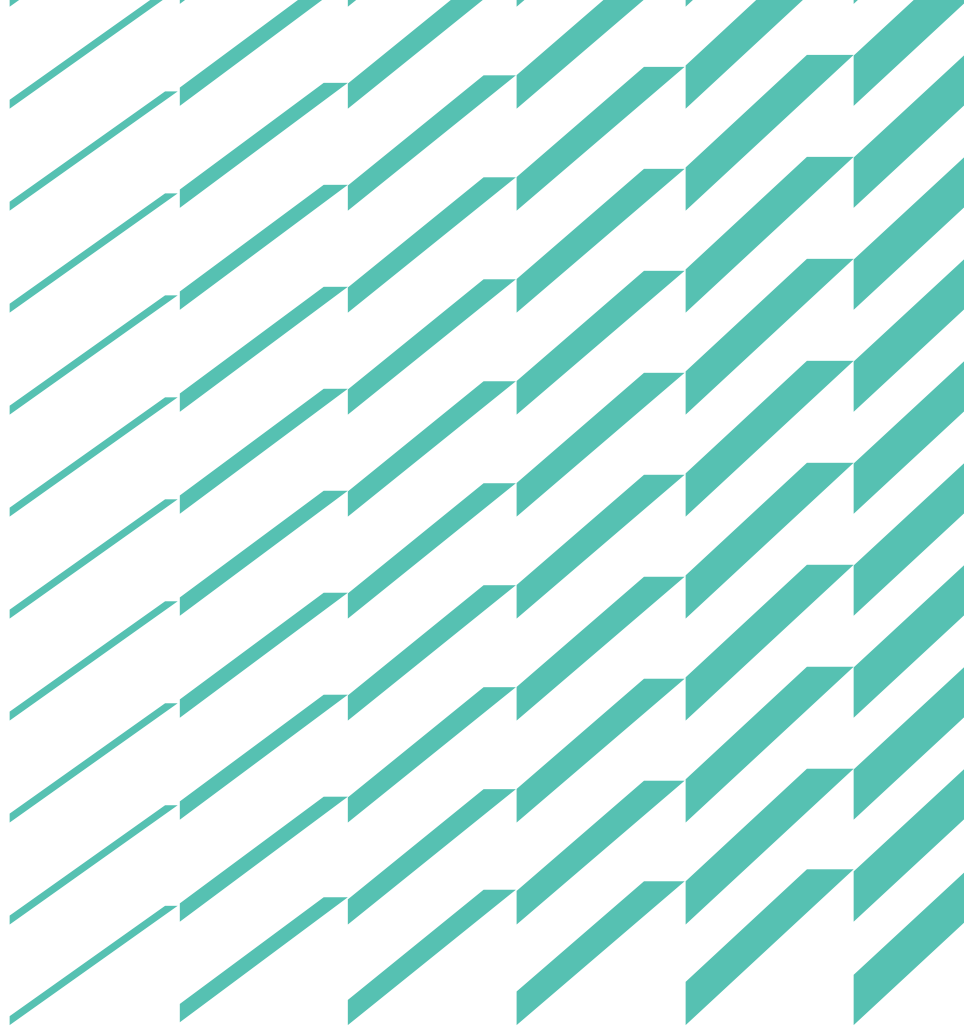
- According to the regression analysis, the factors that affect residents' happiness proved statistically significant, which include job ($\beta = .172, p < .001$), family relationships ($\beta = .111, p < .01$), health ($\beta = .128, p < .001$), stress ($\beta = .096, p < .01$), preparation for old age ($\beta = .081, p < .05$), the possibility of owning a house ($\beta = .097, p < .05$), and accessibility of parks and greenery ($\beta = .069, p < .05$).

■ Policy recommendations

- For Jeonbuk Happiness Index 2023 to go beyond a mere numerical value and represent reality, it is imperative that the departments in charge collaborate with one another, formulate customized action plans, and monitor them regularly, which will make the Index highly effective and valid.
- Concerning happiness levels both in the present and ten years from now, those in their 30s and over 60 find their levels lower than other age groups. In addition, the northeastern region and residents whose monthly income is less than 2 million won are at the bottom of the list. Therefore, increasing the overall happiness in the region requires keeping a close eye on happiness-related vulnerable groups and the vulnerable domains of the Index.
- To overcome the current situations in which the weakening of social networks among Jeonbuk's residents lowers their happiness levels, perceiving individuals' isolation and loneliness as social issues and approaching them from a public policy perspective is advisable.

Key Words

Happiness Levels, Happiness Index, Happiness Factors, Happiness and Quality of Life



부록

1. 2023 전북형 행복지표 설문지
2. 전북도민 행복도 상관관계분석



부 록

APPENDIX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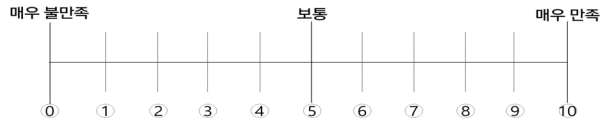
1. 2023 전북형 행복지표 설문지

A. 전반적인 행복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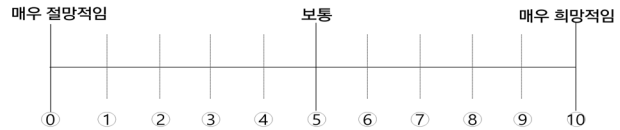
1. 귀하께서는 현재 얼마나 행복하다고 느끼십니까? 10점 만점 중 (점)
2. 귀하께서는 10년 후에 지금보다 행복할 것으로 생각 생각하십니까?
- ① 지금보다도 전혀 행복하지 않을 것 같다
 - ② 지금보다도 다소 행복하지 않을 것 같다
 - ③ 지금과 똑같은 것 같다
 - ④ 지금보다도 조금 행복할 것 같다
 - ⑤ 지금보다도 매우 행복할 것 같다

3. 귀하께서는 다음의 각 항목을 어느 정도 평가하고 계십니까?

3-1. 나의 가치에 대한 주관적 평가



3-2. 나의 미래에 대한 희망정도



B. 세부항목별 행복정도

1. 귀하께서는 다음 영역 중에서 행복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순위 2순위 3순위

- | | |
|------------|-----------|
| 1. 경제 | 2. 가족관계 |
| 3. 건강 | 4. 사회적 관계 |
| 5. 문화여가 | 6. 복지서비스 |
| 7. 지역사회 안전 | 8. 주거여건 |
| 9. 환경 | 10. 교육 |

2. 귀하께서는 다음의 행복 영역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만족하고 있고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영역별 세부지표	만족도		중요도	
① 고용안정성	매우 불만족 0 1 2 3 4 5 6 7 8 9 10 보통 매우 만족		매우 불만족 0 1 2 3 4 5 6 7 8 9 10 보통 매우 만족	
② 소득	매우 불만족 0 1 2 3 4 5 6 7 8 9 10 보통 매우 만족		매우 불만족 0 1 2 3 4 5 6 7 8 9 10 보통 매우 만족	
③ 직업	매우 불만족 0 1 2 3 4 5 6 7 8 9 10 보통 매우 만족		매우 불만족 0 1 2 3 4 5 6 7 8 9 10 보통 매우 만족	
① 가족관계	매우 불만족 0 1 2 3 4 5 6 7 8 9 10 보통 매우 만족		매우 불만족 0 1 2 3 4 5 6 7 8 9 10 보통 매우 만족	
② 가족과의 접촉	매우 불만족 0 1 2 3 4 5 6 7 8 9 10 보통 매우 만족		매우 불만족 0 1 2 3 4 5 6 7 8 9 10 보통 매우 만족	
③ 가족의 건강	매우 불만족 0 1 2 3 4 5 6 7 8 9 10 보통 매우 만족		매우 불만족 0 1 2 3 4 5 6 7 8 9 10 보통 매우 만족	
① 건강	매우 불만족 0 1 2 3 4 5 6 7 8 9 10 보통 매우 만족		매우 불만족 0 1 2 3 4 5 6 7 8 9 10 보통 매우 만족	
② 스트레스	매우 불만족 0 1 2 3 4 5 6 7 8 9 10 보통 매우 만족		매우 불만족 0 1 2 3 4 5 6 7 8 9 10 보통 매우 만족	
③ 의료서비스	매우 불만족 0 1 2 3 4 5 6 7 8 9 10 보통 매우 만족		매우 불만족 0 1 2 3 4 5 6 7 8 9 10 보통 매우 만족	
① 어려울 때 도움 줄 수 있는 사람	매우 불만족 0 1 2 3 4 5 6 7 8 9 10 보통 매우 만족		매우 불만족 0 1 2 3 4 5 6 7 8 9 10 보통 매우 만족	
② 이웃에 대한 신뢰	매우 불만족 0 1 2 3 4 5 6 7 8 9 10 보통 매우 만족		매우 불만족 0 1 2 3 4 5 6 7 8 9 10 보통 매우 만족	
① 문화여가활동	매우 불만족 0 1 2 3 4 5 6 7 8 9 10 보통 매우 만족		매우 불만족 0 1 2 3 4 5 6 7 8 9 10 보통 매우 만족	
② 일과 여가의 균형	매우 불만족 0 1 2 3 4 5 6 7 8 9 10 보통 매우 만족		매우 불만족 0 1 2 3 4 5 6 7 8 9 10 보통 매우 만족	
③ 문화시설 및 혜택	매우 불만족 0 1 2 3 4 5 6 7 8 9 10 보통 매우 만족		매우 불만족 0 1 2 3 4 5 6 7 8 9 10 보통 매우 만족	

영역별 세부지표	만족도		중요도	
① 복지시설	매우 불만족 0 1 2 3 4 5 6 7 8 9 10 보통	매우 만족	매우 불만족 0 1 2 3 4 5 6 7 8 9 10 보통	매우 만족
② 사회보장	매우 불만족 0 1 2 3 4 5 6 7 8 9 10 보통	매우 만족	매우 불만족 0 1 2 3 4 5 6 7 8 9 10 보통	매우 만족
③ 노후준비	매우 불만족 0 1 2 3 4 5 6 7 8 9 10 보통	매우 만족	매우 불만족 0 1 2 3 4 5 6 7 8 9 10 보통	매우 만족
① 범죄로부터의 안전	매우 불만족 0 1 2 3 4 5 6 7 8 9 10 보통	매우 만족	매우 불만족 0 1 2 3 4 5 6 7 8 9 10 보통	매우 만족
② 재해재난으로부터의 안전	매우 불만족 0 1 2 3 4 5 6 7 8 9 10 보통	매우 만족	매우 불만족 0 1 2 3 4 5 6 7 8 9 10 보통	매우 만족
③ 안전시설	매우 불만족 0 1 2 3 4 5 6 7 8 9 10 보통	매우 만족	매우 불만족 0 1 2 3 4 5 6 7 8 9 10 보통	매우 만족
① 내 집 마련의 가능성	매우 불만족 0 1 2 3 4 5 6 7 8 9 10 보통	매우 만족	매우 불만족 0 1 2 3 4 5 6 7 8 9 10 보통	매우 만족
② 주거환경	매우 불만족 0 1 2 3 4 5 6 7 8 9 10 보통	매우 만족	매우 불만족 0 1 2 3 4 5 6 7 8 9 10 보통	매우 만족
③ 주거비용	매우 불만족 0 1 2 3 4 5 6 7 8 9 10 보통	매우 만족	매우 불만족 0 1 2 3 4 5 6 7 8 9 10 보통	매우 만족
① 공원 및 녹지공간에 대한 접근성	매우 불만족 0 1 2 3 4 5 6 7 8 9 10 보통	매우 만족	매우 불만족 0 1 2 3 4 5 6 7 8 9 10 보통	매우 만족
② 대기(미세먼지, 황사등) 만족도	매우 불만족 0 1 2 3 4 5 6 7 8 9 10 보통	매우 만족	매우 불만족 0 1 2 3 4 5 6 7 8 9 10 보통	매우 만족
③ 생활폐기물 처리	매우 불만족 0 1 2 3 4 5 6 7 8 9 10 보통	매우 만족	매우 불만족 0 1 2 3 4 5 6 7 8 9 10 보통	매우 만족
① 교육시설	매우 불만족 0 1 2 3 4 5 6 7 8 9 10 보통	매우 만족	매우 불만족 0 1 2 3 4 5 6 7 8 9 10 보통	매우 만족
② 교육비용	매우 불만족 0 1 2 3 4 5 6 7 8 9 10 보통	매우 만족	매우 불만족 0 1 2 3 4 5 6 7 8 9 10 보통	매우 만족
③ 교육의 질	매우 불만족 0 1 2 3 4 5 6 7 8 9 10 보통	매우 만족	매우 불만족 0 1 2 3 4 5 6 7 8 9 10 보통	매우 만족

C. 행복도 현황

1. 귀하의 하루 24시간 중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은 어느 정도입니까?

하루 평균

시간 분

2. 귀하의 일주일 평균 운동시간은 어느 정도입니까? (걷기, 산책 등 포함)

일주일 평균

시간 분

3. 귀하의 한달 평균 자원봉사 활동시간은 어느 정도입니까?

월 평균

일 시간

4. 귀하께서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면적은 어느 정도입니까?

평

D. 응답자 일반사항

1. 귀하의 성별은?

① 남 ② 여

2. 귀하의 나이는?

만 _____ 세

3. 귀하의 혼인상태는?

① 결혼 ② 이혼 또는 사별 ③ 미혼

4. 귀하의 학력은?

① 중졸이하 ② 고졸(중퇴, 재학 포함) ③ 대졸(중퇴, 재학 포함) ④ 대학원 이상

5. 현재 귀하 가구의 거주형태는 무엇입니까?

① 자기 집 ② 전세 ③ 월세 ④ 사택 ⑤ 기타

6. 귀하의 직업은 어떻게 되십니까?

① 학생 ② 공무원 ③ 사무직 ④ 생산/기술직 ⑤ 판매/유통/영업직 ⑥ 서비스직 ⑦ 교육직
⑧ 전문/연구직(대학교수, 의사, 법조인 등) ⑨ 자영업 ⑩ 농/임/어업 ⑪ 전업주부 ⑫ 무직 ⑬ 기타()

7. 귀하는 믿는 종교가 있습니까?

- ① 없다 ② 기독교 ③ 천주교 ④ 불교 ⑤ 원불교 ⑥ 기타

8. 현재 살고 있는 집의 동거하고 있는 가족의 수는 몇 명입니까?

(본인 포함 _____명)

9. 귀하 정정의 수입은 얼마입니까?

본인의 월 수입	약 _____만원
집안의 전체 월 수입	약 _____만원

10. 귀하의 출생지는?

- ① 전북 ② 타시도

11. 현거주지는?

_____시, 군 _____동, 읍, 면

2. 전북도민 행복도 상관관계분석

구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1	1																												
2	.634**	1																											
3	.561**	.588**	1																										
4	.219**	.211**	.302**	1																									
5	.196**	.184**	.254**	.732**	1																								
6	.241**	.241**	.288**	.623**	.741**	1																							
7	.299**	.300**	.376**	.497**	.426**	.572**	1																						
8	.312**	.349**	.350**	.210**	.213**	.301**	.446**	1																					
9	.343**	.327**	.347**	.230**	.267**	.341**	.399**	.483**	1																				
10	.302**	.319**	.343**	.364**	.399**	.404**	.400**	.458**	.557**	1																			
11	.275**	.331**	.298**	.229**	.280**	.311**	.322**	.389**	.446**	.639**	1																		
12	.270**	.338**	.325**	.295**	.335**	.334**	.353**	.412**	.481**	.528**	.513**	1																	
13	.325**	.340**	.373**	.264**	.287**	.318**	.392**	.445**	.433**	.455**	.399**	.581**	1																
14	.313**	.372**	.283**	.228**	.253**	.284**	.352**	.435**	.500**	.452**	.424**	.644**	.683**	1															
15	.286**	.384**	.303**	.229**	.227**	.289**	.323**	.410**	.473**	.421**	.444**	.564**	.622**	.787**	1														
16	.307**	.361**	.311**	.216**	.221**	.265**	.310**	.420**	.469**	.430**	.417**	.544**	.608**	.738**	.816**	1													
17	.356**	.448**	.365**	.239**	.269**	.282**	.321**	.427**	.414**	.448**	.410**	.455**	.475**	.507**	.545**	.557**	1												
18	.327**	.331**	.356**	.337**	.331**	.366**	.391**	.344**	.393**	.432**	.412**	.420**	.441**	.461**	.446**	.450**	.436**	1											
19	.376**	.364**	.374**	.312**	.316**	.375**	.379**	.314**	.447**	.446**	.444**	.427**	.431**	.479**	.474**	.488**	.448**	.790**	1										
20	.355**	.371**	.353**	.309**	.304**	.377**	.372**	.335**	.475**	.477**	.428**	.474**	.429**	.510**	.542**	.537**	.518**	.688**	.743**	1									
21	.388**	.386**	.331**	.280**	.271**	.271**	.265**	.303**	.368**	.330**	.383**	.339**	.329**	.371**	.371**	.387**	.520**	.426**	.440**	.528**	1								

구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22	.366**	.415**	.361**	.328**	.317**	.341**	.315**	.302**	.422**	.333**	.368**	.370**	.388**	.435**	.445**	.429**	.495**	.495**	.522**	.548**	.705**	1								
23	.371**	.436**	.345**	.236**	.288**	.280**	.294**	.367**	.451**	.419**	.420**	.433**	.449**	.485**	.500**	.497**	.520**	.478**	.503**	.498**	.663**	.760**	1							
24	.250**	.313**	.295**	.269**	.286**	.332**	.283**	.265**	.383**	.355**	.365**	.434**	.357**	.432**	.463**	.425**	.385**	.475**	.495**	.493**	.448**	.537**	.518**	1						
25	.225**	.258**	.202**	.145**	.170**	.200**	.230**	.344**	.315**	.274**	.363**	.371**	.329**	.423**	.460**	.466**	.383**	.407**	.409**	.435**	.332**	.393**	.422**	.462**	1					
26	.260**	.280**	.197**	.154**	.212**	.227**	.227**	.272**	.388**	.301**	.368**	.372**	.320**	.412**	.447**	.441**	.409**	.444**	.473**	.481**	.332**	.462**	.491**	.477**	.596**	1				
27	.290**	.346**	.260**	.167**	.217**	.220**	.269**	.301**	.451**	.381**	.417**	.445**	.392**	.503**	.537**	.543**	.455**	.427**	.481**	.526**	.393**	.438**	.465**	.499**	.494**	.601**	1			
28	.294**	.341**	.253**	.121**	.188**	.218**	.241**	.325**	.413**	.364**	.413**	.426**	.434**	.513**	.530**	.539**	.503**	.411**	.457**	.484**	.424**	.435**	.509**	.420**	.508**	.521**	.642**	1		
29	.233**	.360**	.253**	.174**	.209**	.213**	.257**	.311**	.428**	.345**	.408**	.443**	.380**	.520**	.548**	.572**	.442**	.389**	.424**	.474**	.384**	.425**	.475**	.437**	.516**	.512**	.761**	.729**	1	
30	.308**	.364**	.422**	.354**	.352**	.393**	.401**	.349**	.310**	.370**	.272**	.325**	.311**	.295**	.285**	.289**	.368**	.343**	.345**	.366**	.364**	.388**	.341**	.315**	.187**	.215**	.240**	.225**	.226**	

주 : 1. 고용안정성, 2. 소득, 3. 직업, 4. 가족관계, 5. 가족과의 접촉, 6. 가족의 건강, 7. 건강, 8. 스트레스, 9. 의료서비스, 10. 어려울 때 도움 줄 수 있는 사람, 11. 이웃에 대한 신뢰, 12. 문화여가활동, 13. 일과 여가의 균형, 14. 문화시설 및 혜택, 15. 복지시설, 16. 사회보장, 17. 노후준비, 18. 범죄로부터의 안전, 19. 재해재난으로부터의 안전, 20. 안전시설, 21. 내 집 마련의 가능성, 22. 주거환경, 23. 주거비용, 24. 공원 및 녹지공간에 대한 접근성, 25. 대기(미세먼지, 황사 등), 26. 생활폐기물 처리, 27. 교육시설, 28. 교육비용, 29. 교육의 질, 30. 현재 행복감

기본연구 2023-03

2023 전북형 행복지표 구축과 도민행복 실태연구

발행인 | 권혁남

발행일 | 2023년 3월 31일

발행처 | 전북연구원

55068 전북 전주시 완산구 콩쥐팥쥐로 1696

전화: (063)280-7100 팩스: (063)286-9206

ISBN 978-89-6612-473-2 95330 (PDF)

본 출판물의 판권은 전북연구원에 속합니다.

2023년도 주요 연구과제

기본연구

전라북도 선행경기종합지수 작성 연구
전라북도 경제와 거시경제의 동적 관계 분석 연구
전라북도 일자리 종합지수 구축 및 활용방안 연구
전북 농촌노인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기초연구
인구감소 대비 농촌마을 기본공간정보구축 기초연구
기초지자체 온실가스 배출특성 분석 및 탄소중립 전략 설정
지역문화인력의 근로실태조사와 근로환경 개선방안
전북 해양 역사문화자원 기초자료 집성 및 활성화 방안연구
성인지적 관점에서의 전북 청년정책진단 및 개선방안 연구
전라북도 재정운용 효율성 분석 연구

기획연구

전북형 물류서비스 산업화 방안 연구
국제정세 변화와 새만금 중장기 글로벌 전략에 관한 연구
만경강·동진강 생태·환경자산 목록화 및 가치창출 연구
전주 남부시장 구슬사를 통해 본 전라북도 여성들

정책연구

전북연구개발특구 공간 확대방안 연구
전라북도 녹색복원 후보지 선정 및 사업화 방안 연구
전라북도 해외통상거점센터 활성화 방안 연구
지방시대에 대응한 전북형 기회발전특구 지정 방안 연구
전라북도 소상공인 경영실태 및 지원사업 개선방안
2차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전라북도 대응 방안 연구
글로벌 스마트 재난대응 연구개발 실증단지 추진 방안
전북 대표관광지 육성사업 성과 및 발전방안 연구
전라북도 문화재활용 문화융합상품 개발방안 연구
전라북도 고령친화도시 조성 및 지원방안 연구
전라북도 탄소중립을 위한 식생활 개선방안 연구
전라북도 해양바이오산업 육성 방안
소득보전 지원체계 지원방안 마련
「전북형 쌀 생산안정 기금」 조성·운용 방안 수립
전북 청소년복합문화센터 건립 방향 연구
전북형 온라인 평생교육 운영체계 연구
현업축사 매입부지 활용 주민소득창출 방안 연구

 **전북연구원**

55068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공취말쭈로 1696

Tel 063. 280. 7100

Fax 063. 286. 9206

www.jthink.kr

